



##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보는 익산의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OF IKSAN CITY, KOREA: DOCUMENTATION IN GELATIN DRY PLATES



#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보는 익산의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of Iksan City, Korea:  
Documentation in Gelatin Dry Plates





#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보는 익산의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of Iksan City, Korea:  
Documentation in Gelatin Dry Plates

발행처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기획 이병호

편저 신민철

논고 신민철, 이경복, 김현용

번역 서동천, 국은비, 오대영

교정 최경환, 이경복, 송현경, 이은석, 황인현, 김수연, 박슬기

디자인 비에이디자인

인쇄 금호기획인쇄

자료협조(국가순, 가나다순)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동아일보사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한정호(동국대학교)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 小石川分館

早乙女雅博(東京大學)

## 일러두기

1. 이 책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중 전라북도 익산 지역 문화유산의 사진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2. 이 책에 수록된 글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내용상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병기하였다.
3. 연도를 표기할 때 본문에서는 서력(일본연호)을 사용하였으며 번역문에서는 일본연호(서력)를 사용하였다.  
ex) 본문: 1915년(대정4) / 번역문: 쇼와5년(1930)
4. 본문에서는 현재의 지명을 사용하되, 번역문과 인용문에서는 당시의 지명을 따랐다.
5. 사진 배치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을 따르며 캡션은 한글 명칭, 한자 명칭의 순으로 표기하였다.
6. 사진 캡션은 연도-조사단-명칭-건판번호 순으로 제시하였다. 유리건판 등록연도는 보통 촬영한 해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부 다른 해에 정리한 사례도 있다.
7.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http://modern-history.museum.go.kr>)의 문서번호는 '대분류-문서번호-문서제목-편철제목-생산년도'의 순서로 표기하였다.  
예) 고적조사, F021-007, 『全羅北道所在古蹟及遺物臺帳』, 『古蹟及遺物登錄臺帳』, 1916.
8. 공문서 배치순서는 당시 제본 방식에 의거하여 오른쪽에서 왼쪽,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을 따랐다.
9. 필기체로 인하여 온전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공문서의 번역문은 '○' 표시로 대체하였다.
10. 각주는 각 장마다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 2017033977)







# 목차

발간사	6
I. 개요	10
II.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보는 익산의 문화유산	14
1. 미륵사지	24
2.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	52
3. 쌍릉	67
4.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등 기타 문화유산	80
III.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로 보는 익산의 문화유산	96
부록	156
<u>논고</u>	
1.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과 익산의 문화유산	158
신민철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2. 익산 미륵사지 석탑 수리 역사와 성과	171
김현용   국립문화재연구소	
3. 광복 이후 익산 지역의 백제 사비기 문화유산 조사	188
이경복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u>번역</u>	
1. 關野貞, 1942, 「朝鮮の石塔婆」, 『朝鮮の建築と藝術』.	198
2. 藤島亥治郎, 1930, 「朝鮮佛教建築史 第二章 益山彌勒寺」, 『朝鮮建築史論』其三.	201
3. 今西龍, 1934, 「全羅北道西部地方旅行雜記」, 『百濟史研究』.	213
<u>카드</u>	
세키노 다다시 필드 카드(關野貞フィールドカード) ‘익산’	226
인명 소개	234
참고문헌	238



## 발간사

한반도의 문화유산에 관한 근대적 학술조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관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고적조사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문서와 도면, 유리건판 사진을 남겼습니다.

당시 산출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소장품과 자료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비록 국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타자의 시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중요 문화유산들의 초기 모습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문화재 정책이나 인식을 이해하고, 당시 조사된 문화유산의 현상과 실태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및 유리건판 사진과 일본 학자들의 조사 연구 자료 가운데 익산 지역 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정리한 자료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100여 년 전 촬영한 미륵사지 석탑을 비롯하여 왕궁리 유적과 쌍릉 등 익산 지역의 주요 문화유산에 관한 사진과 문서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기 고적조사사업을 주도했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고적조사 카드 가운데 익산 지역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함께 수록했는데 이 자료는 그동안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입니다. 이 자료집의 발간으로 20세기 초 익산 지역 문화유산들의 실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관련 분야 연구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집의 발간을 위해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도서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성균관대학교박물관, 동아일보사,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 小石川分館과 早乙女雅博 교수, 동국대학교 한정호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익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이병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 Foreword

Modern scholarly research on cultural heritage of the Korean Peninsula was conducted by Japanese government schola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carried out a project to investigate historical remains to justify and promote the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In the process, they left a number of documents, floor plans, and photographs developed using gelatin dry plates.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ere retained the excavated artifacts from the survey project and materials produced by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together with the collection and materials received from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Museum. Although these materials were collected and produced by the viewers of other countries in a state of deprivation of national rights, they are valuable as they present early images of important cultural heritage. Moreover, such materials serve as preliminary data to understand the cultural heritage policy of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during the colonial era, and to study the status and actual condition of the Korean cultural properties investigated at that time.

The Mireuksaji National Museum is happy to present this publication on the cultural assets of the Iksan region, selected from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cluding materials of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some gelatin dry plates, and research reports done by Japanese scholars. This book includes photographs and documents of major cultural properties found in the Iksan area, such as the archaeological sites in Wanggung-ri and the *Ssangneung* (twin tombs), as well as photos of the stone pagoda at the Mireuksa temple site taken a century ago. Particularly, the publication incorporates research cards written about Iksan by Sekino Tadashi (關野貞), who led the survey project in its early stages. It is meaningful to show the Sekino's cards in that they have been little known in Korea until now. With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I hope that the cultural properties in the Iksan a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become much well-known and more research on the related fields to be motivated.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Research Institute for the Mahan-Baekje Culture of Wonkwang University, the Seonggyungwan University Museum, The Dong-A Ilbo, the Koshikawa Annex of the University Museum of the University of Tokyo, Professor Saotome Masahiro (早乙女雅博), and Professor Han jung-ho of Dongguk University for providing valuable materials for the publication. I sincerely hope that this publication will contribute to the study of the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of Iksan.

December 2017

Lee, Byong-ho

Director of the Mireuksaji National Museum



## 发刊词

关于韩半岛文化遗产的近代学术调查是由日本官方学者实行的。为确保和宣传殖民统治的正当性，朝鲜总督府推动古迹调查事业，在此过程中留下大量文件、图纸与玻璃底片照片。

在此调查过程中收藏的这些研究资料成为朝鲜总督府博物馆的藏品与收藏资料，后来几经周折归属于国立中央博物馆。虽然这些资料在韩国被剥夺国权的情况下，从外国人的角度来编制而成，但它们真实地记录了重要文化遗产的原始面貌，其价值是毋庸置疑的。加上，这些资料能作为基础性资料让我们理解日帝殖民时期朝鲜总督府对待文物的政策与认识，还让我们对当时调查的文化遗产现象及实情进一步进行研究。

本馆从国立中央博物馆保管的朝鲜总督府博物馆文件、玻璃底片照片与日本学者的调查研究资料当中，汇总益山地区文化遗产的相关资料，并编制成册出版。这本资料集收录了一百年前拍摄的弥勒寺遗址石塔、王宫里遗迹与双陵等益山地区主要文化遗产的照片与文件。尤其是主导初期古迹调查事业的关野贞先生的古迹调查卡纸中，拿到有关益山地区的资料并记载于这本资料集，这些资料几乎是在国内鲜为人知的。因而，衷心期待这本资料集的问世能够澄清20世纪初益山地区文化遗产的各种特点，促进相关研究更加活跃开展。

最后谨向为发刊这本资料集而不吝提供宝贵资料的国家记录院、国立中央图书馆、圆光大学马韩百济文化研究所、成均馆大学博物馆、东亚日报社、东京大学综合研究博物馆小石川分馆的早乙女雅博教授、东国大学的韩政镐教授表示由衷的谢意。真诚希望此报告能为益山地区历史、文化遗产调查研究尽其绵薄之力。

2017年12月

李炳镐

国立弥勒寺址遗物展示馆馆长

## 発刊にあたって

朝鮮半島の文化遺産における近代的な学術調査は、日本植民地時代、国公立機関の日本人学者により行われました。そして、朝鮮総督府では、植民地支配の正当性を確保し、それを広報するために古跡調査事業を実施し、その過程で多くの文書や図面、ガラス乾板写真を残しました。

当時作成された朝鮮総督府博物館の所藏品や資料は、国立中央博物館で保管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れらの資料は、国権を奪われた状況で他者の視点により作成されたものですが、重要文化遺産の初期の姿をありのまま伝えており、資料としての価値が非常に高いと評価されています。そのため、日本植民地時代における朝鮮総督府の文化財政策や認識を理解し、当時調査が行われた文化遺産の現状や実態を研究する上での基礎資料となっています。

国立弥勒寺址遺物展示館では、国立中央博物館が保管している朝鮮総督府博物館の文書やガラス乾板写真、日本の学者による調査・研究資料をまとめ、益山地域の文化遺産における資料集を発刊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資料集には、約100年前に撮影した弥勒寺址石塔をはじめ、王宮里遺跡や双陵など益山地域の主要な文化遺産に関する写真や文書が掲載されています。また、初期の古跡調査事業を主導した関野貞の古跡調査カードのうち益山地域に関する資料も収録していますが、これは今まで韓国ではほとんど知られていなかったものです。本資料集の発刊により、20世紀初頭における益山地域の文化遺産の姿が明らかになり、関連分野の研究が一段と活性化され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資料集発刊のために貴重な資料を提供してくださった国家記録院、国立中央図書館、円光大学校馬韓百済文化研究所、成均館大学校博物館、東亜日報社、東京大学総合研究博物館小石川分館並びに早乙女雅博教授、東国大学校の韓政鎬(ハン・ジョンホ)教授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本資料集が益山地域の歴史と文化遺産に関する調査・研究に多少なりとも貢献できれば幸いです。

2017年12月

李炳鎬(イ・ビョンホ)

国立弥勒寺址遺物展示館長







## 개요

일본은 식민통치가 시작되기 이전인 19세기 말부터 한반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강제 합병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1915)과 고적조사위원회(1916)를 설치하고, 뒤이어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과 「고적조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조사연구에 나섰다.

고적조사사업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독부는 일본인 관학자들을 위촉하여 조사를 수행시키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문서와 사진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러한 전국적인 조사 과정에서 익산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00년 야기 쇼자부로(八木 惣三郎)의 고고학 조사 이래 1910년 세키노 다다시(關野 貞) 조사단의 방문을 시작으로 발견·고적조사·보존·지정 등의 목적으로 수많은 문서가 다양하게 생산되었다. 조사단은 그들이 조사한 문화유산을 촬영하고 관련 기록을 남겼다. 그 결과물인 ‘유리건판’은 광복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품과 함께 일괄 접수되어 오늘날까지 당시 조사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익산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일본인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보고서나 복명서가 남아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기록된 내용도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자료집에서는 조선총독부 위촉 고적조사위원을 비롯하여 총독부, 내무부 및 학무국, 고적조사와 소속 관리, 개인 등 다양한 소속을 가진 일본인들의 조사경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였다.

익산 지역은 미륵사지 석탑, 마한의 궁궐지와 고분으로 알려져 왔던 왕궁리 유적과 쌍릉이 자리한 곳으로서 일찍부터 일본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강점기 동안 여러 차례의 고적조사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문화유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조사를 위해 실시된 것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문화유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피상적이고 일회적인 조사에 불과한 것이었다. 조사가 실시된 문화유산 가운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특히 마한 무강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쌍릉의 발굴이 실시되어 백제 사비기의 횡혈식 석실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쌍릉의 발굴도 부장품 수습에 급급한 졸속 발굴에 그치고 말았다.



이 자료집에서는 고적조사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와 유리건판 사진에 나타난 100여 년 전 익산 지역 문화유산을 재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불명확하게만 알려져왔던 고고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고, 당시 조사자들이 갖고 있던 익산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눈에 비친 문화유산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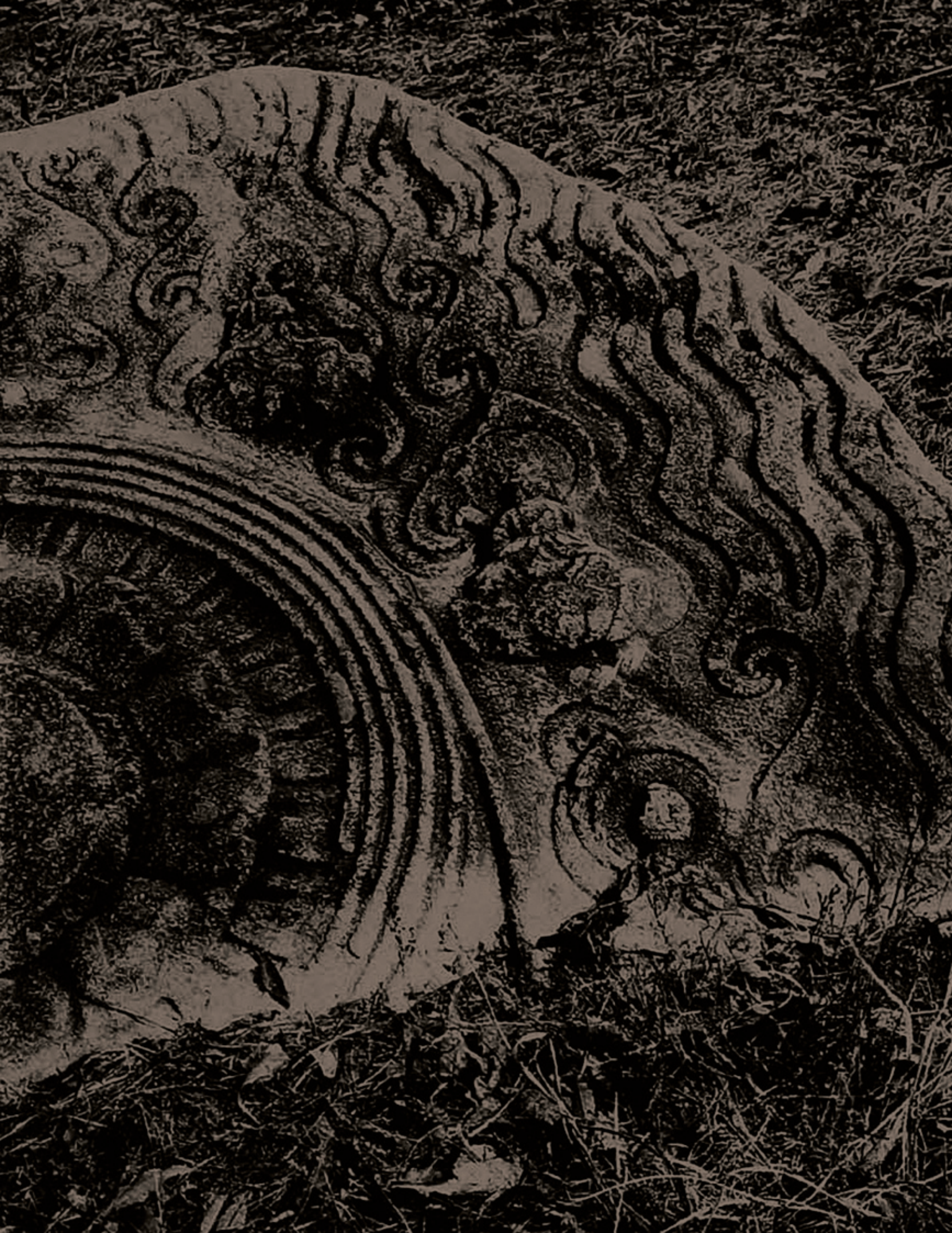
특히 이번 자료집 발간을 위한 조사·연구 과정에서 유리건판이 촬영된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고, 1910년 조사 사업을 주도했던 세키노 다다시의 고적조사 카드 중 익산 지역 자료를 추가로 수록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익산 지역 문화유산의 실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자 하였다. 비록 우리의 것이 아닌 일제강점기의 고고학사지만 당시 익산 지역 문화유산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있었는지 궁금해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충실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보는 익산의 문화유산

1. 미륵사지
2.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
3. 쌍릉
4.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등 기타 문화유산







#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보는 익산의 문화유산

이 장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sup>1</sup>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유리건판에 담긴 익산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건판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우리나라 전역과 만주 등지에 있는 각종 유적과 유물, 민속, 자연환경 등을 촬영해 보관하던 38,000여 매를 광복 후 인수한 것이다. 이 자료들은 대체로 1909년부터 1945년경까지의 사진기록이다.<sup>2</sup>

유리건판의 판형은 대판·중판·소판·극소판(명함판)의 4종으로 분류되며, 평균적인 크기는 [표 1]과 같다. 이 가운데 소판은 전체의 약 85.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sup>3</sup>

[표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판형 분류(단위: mm)

판형	건판 크기	화면 크기	두께
대판	252×303	247×297	1.5
중판	164×214	163×208	1.5
소판	119×164	115×160	1.5
극소판	82×107	79×105	1.5

유리건판의 촬영연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된 『유리원판 목록집』을 기준으로 삼는다.<sup>4</sup> 등록된 원판의 고유번호는 촬영연도와 원판순서를 바탕으로 부여되는데, 예를 들어 원판번호 120002번은 '1912년에 2번째로 촬영한 원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1911년에 촬영한 102번째 원판이라면 '110102'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번호를 부여한 유리건판은 전체 38,000여 매 중 17,000여 매에 불과해서 촬영연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자료가 절반 이상이다. 또한 유리건판은 촬영한 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일부 해를 넘긴 사례도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목적으로 촬영된 대부분의 유리건판은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소장하였으며, 이 건판을 기반으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사진을 수록하였다. 하지

1) 유리건판(Gelatin Dry Plate)은 1871년 영국인 매독스(Richard Leach Maddox, 1816~1902)가 브롬화은 젤라틴 유제를 유리판에 도포한 건판에서 탄생하였다. 즉, 사진기에 유리를 필름처럼 사용하여 촬영한 후 인화하면 유리건판 사진이 된다. 이후 근대적 방식의 촬영 매체로 활용된 유리건판은 20세기 초부터 공업생산물으로서 본격적인 제조가 이루어졌다.(김영민, 200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 궁궐』, 266쪽.)

2) 유리건판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번호는 '건판',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번호는 '원판'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http://dryplate.museum.go.kr>)에서 유리건판 사진을 열람할 수 있다.

3) 김영민, 2007, 앞의 글, 267쪽.

4) 국립중앙박물관, 199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 원판 목록집 1』, 한기정판사.

만 일제강점기 당시 연도를 기재하지 않거나, 해를 넘겨 등록하는 등의 관리 소홀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유리건판에는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사진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자료집에 수록한 사진 중에는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사진 7매를 추가 수록하였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유리건판 사진 4매를 제공받아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표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익산 지역 유리건판 현황

유적명	사진 수량(매)			전체 판형					비고
	총	중복	계제	대	중	소	극소	미상	
미륵사지	33	6	27	2		28	1	2	
왕궁리·제석사지	17	1	16		1	12		4	
쌍룡	21	5	16	3		18			
지형도	1		1					1	
미륵산성	3		3			3			
사자암석탑	3	1	2			3			
연동리좌상	2		2			1		1	
고도리입상	4	1	3	2	1	1			
이승원교서	3		3			3			
5회사료조사	5		5			5			파노라마(4매→2매)
화암동문	1		1				1		
삼속율	4	1	3			4			
총계	97	15	82	7	2	78	2	8	총 97매 중 82매 사용

[표 3] 익산 지역 미가제 유리건판 목록

유적명	도면 중복	구도 중복	건판번호
미륵사지	4	2	도면(22272, 22294, 22295, 22296) 구도(19060, 19064)
왕궁리		1	복제+반전(34716)
쌍룡	2	3	도면(15560, 20638) 구도(22194, 27769, 27770)
그 밖의 문화유산		3	사자암(19062), 삼속율(30479) 고도리(27298)[복제+반전]
	6	9	총 15매

다음으로 익산 지역의 유리건판 현황을 살펴보겠다. 총 97매의 유리건판 중 자료집에 게재한 건판 사진은 82매이며 이 중 4매의 건판이 파노라마 2매로 합쳐지므로 실제로는 80매이다.<sup>5</sup>

한편 앞서 살펴본 원판번호와 같이 정확한 연도가 기록된 것은 97매 중 23매(23.7%)로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1910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조사 때 10매, 1915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조사 때 5매, 1917년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の 조사 후 2매(동일 사진 촬영), 1927년 촬영자 미상의 쌍룡 유물 사진 1매, 1934년 우에키 호미키植木秀幹 조사 때 3매,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2매가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와 유리건판 촬영원판목록 등을 비교·검토한다면 사진 촬영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일례로 고적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진 목록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는 유리건판 옆면이나 뒷면에 제목이 기재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진 목록과 유리건판을 대조하여 동일한 제목이 있다면 사진의 촬영

5) 제외된 15매 대부분은 같은 장소를 반복 촬영하여 구도가 미묘하게 다른 중복사진들이다.

[표 4] 익산 지역의 유리건판 목록

연번	유적명	건판번호	원판번호	촬영년도	판형	조사자(촬영자)
미록1	미륵사지			1910	미상	關野貞(谷井濟一)
미록2	미륵사지			1910	미상	關野貞(谷井濟一)
미록3	미륵사지	00538	100398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미록4	미륵사지	00539	100400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미록5	미륵사지	00540	100401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미록6	미륵사지	28125	無945-5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미록7	미륵사지	29881	無1094-1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미록8	미륵사지	27788	無918-3	1917	소판	谷井濟一
미록9	미륵사지	30156	無1118-11	1917	소판	谷井濟一
미록10	미륵사지	23141	無492-09	1917	소판	谷井濟一
미록11	미륵사지	30146	無1118-1	1917	소판	谷井濟一
미록12	미륵사지	30147	無1118-2	1917	소판	谷井濟一
미록13	미륵사지	19057	無124-4	1928	소판	小川敬吉
미록14	미륵사지	19059	無124-6	1928	소판	小川敬吉
미록15	미륵사지	19058	無124-5	1928	소판	小川敬吉
미록16	미륵사지	19056	無124-3	1928	소판	小川敬吉
미록17	미륵사지	19054	無124-1	1928	소판	小川敬吉
미록18	미륵사지	19055	無124-2	1928	소판	小川敬吉
미록19	미륵사지	38072	無450464	1932	극소판	樫本龜次郎(神田惣藏)
미록20	미륵사지		34008	1934	대판	藤田亮策
미록21	미륵사지		34007	1934	대판	藤田亮策
미록22	미륵사지	19061	無124-8		소판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고서에 별첨된 사진과 유리건판을 대조하여 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보고서에 붙임으로 사용된 사진과 유리건판이 동일할 경우, 보고서의 연도를 기준으로 유리건판의 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sup>6)</sup>

촬영 시기가 불명확한 유리건판은 97매 중 74매이었으나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촬영연도가 새롭게 확인된 유리건판은 총 74매 중 46매(62.2%)에 이른다. 기존에 연도를 알고 있던 23매와 새롭게 파악한 46매는 전체 97매 중 69매(71.1%)가 되고, 그에 따라 자료집에 수록한 사진 중 절반 이상의 연도를 새로이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수록된 82매의 사진 중 3개소(미륵사지, 왕궁리, 쌍봉)의 사진이 59매(72.0%)에 달하므로 우선 이 유적 관련 자료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보이고자 한다. 나머지 23매의 사진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촬영된 것이므로 한 데 모아 소개하겠다. 아래는 보고서에 수록된 유리건판 사진들의 목록이다.

6) 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 원판에 '無' 또는 'M' 번호가 부여된다.

7) 최초 기술된 원제목을 사용하였으며 사진 해설 부분에도 기재하였다. 한자 병기가 없다면 후대에 붙인 제목이다.

사진명칭 <sup>7)</sup>	출처	비고
미륵사폐지彌勒寺廢址	『朝鮮古蹟圖譜』	4권, 도판 1420
페미륵사 석탑廢彌勒寺石塔	『朝鮮古蹟圖譜』	4권, 도판 1421
페미륵사 석탑 기이廢彌勒寺石塔其二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	
페미륵사 석탑 초층 및 이층廢彌勒寺石塔初重及二重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	
페미륵사 석탑측 석사廢彌勒寺石塔側石獅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	
페미륵사 석당지廢彌勒寺石幢支	『朝鮮古蹟圖譜』	4권, 도판 1610
미륵사지 석조와 우물彌勒寺址石槽及井	『朝鮮古蹟圖譜』	5권, 도판 2138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 페미륵사지 전경益山郡金馬面基陽里廢彌勒寺址全景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도판 248
기양리 미륵사지 석조 칠층석탑基陽里彌勒寺址石造七層石塔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도판 251
익산 미륵사지 서금당지益山彌勒寺址西金堂址		사진에 담긴 인물 동일
미륵사지 서당간지주廢彌勒寺西幢竿支柱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도판 250 사진하단, '21-5' 표기
미륵사지 동당간지주廢彌勒寺東幢竿支柱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도판 249 사진하단, '21-6' 표기
미륵사지 서원 석탑과彌勒寺址西院石塔婆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6	
미륵사지 서원 석탑과 부층 상세彌勒寺址西院石塔婆部層詳細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6	
미륵사지 서원 금당지 초석彌勒寺址西院金堂址礎石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6	
미륵사지 동원 금당지 초석彌勒寺址東院金堂址礎石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6	
미륵사지 서원 찰간지주彌勒寺址西院刹竿支柱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6	
미륵사지 동원 찰간지주彌勒寺址東院刹竿支柱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6	
익산 미륵사지 전경益山彌勒寺址全景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8	
미륵사지 전경彌勒寺址全景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미륵사지 오층석탑彌勒寺址五層石塔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미륵산 중턱에서 바라 본 미륵사지 전경		



연번	유적명	건판번호	원판번호	촬영년도	판형	조사자(촬영자)
미륵23	미륵사지	28571	無982-2		소판	
미륵24	미륵사지	19065	無125-2		소판	
미륵25	미륵사지	19068	無125-5		소판	
미륵26	미륵사지	19079	無125-16		소판	
미륵27	미륵사지	23145	無493-04		소판	
왕궁1	제석사지	00536	100393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왕궁2	제석사지	00537	100394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왕궁3	왕궁리	28205	無953-3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왕궁4	왕궁리	28216	無953-14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왕궁5	왕궁리	28217	無953-15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왕궁6	왕궁리			1910	미상	關野貞(谷井濟一)
왕궁7	왕궁리			1910	미상	關野貞(谷井濟一)
왕궁8	왕궁리	20648	無258-11		소판	
왕궁9	왕궁리	20641	無258-04		소판	
왕궁10	왕궁리	00541	100404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왕궁11	왕궁리			1910	미상	關野貞(谷井濟一)
왕궁12	왕궁리	00542	100406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왕궁13	왕궁리	30150	無1118-5	1917	소판	谷井濟一
왕궁14	왕궁리			1930	미상	田中十藏
왕궁15	왕궁리	19066	無125-3		소판	
왕궁16	왕궁리	19067	無125-4		소판	
쌍룡1	쌍룡	28207	無953-5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쌍룡2	쌍룡	28215	無953-13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쌍룡3	쌍룡	30152	無1118-7	1917	소판	谷井濟一
쌍룡4	쌍룡	20650	無258-13	1917	소판	谷井濟一
쌍룡5	쌍룡	29470	無1051-7	1917	소판	谷井濟一
쌍룡6	쌍룡	20734	無266-02	1917	소판	谷井濟一
쌍룡7	쌍룡	29465	無1051-2	1917	소판	谷井濟一
쌍룡8	쌍룡	20736	無266-04	1917	소판	谷井濟一
쌍룡9	쌍룡	25419	無723-08		소판	
쌍룡10	쌍룡	15561	170018	1917	대판	
쌍룡11	쌍룡	20643	無258-06		소판	
쌍룡12	쌍룡	20647	無258-10		소판	
쌍룡13	쌍룡	20642	無258-05		소판	
쌍룡14	쌍룡	16278	270031	1927	대판	
쌍룡15	쌍룡	27755	無914-11		소판	
쌍룡16	쌍룡	27771	無916-3		소판	
기타1	지형도			1910	미상	
기타2-1	미륵산성	00535	100389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사진명칭 <sup>7</sup>	출처	비고
미륵사지 석탑 전경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당간지주와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당간지주와 미륵사지 석탑 원경		
미륵사지 석탑 심주석		
제석면 궁평 전왕궁(제석사지)帝石面宮坪傳王宮址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	
제석면 궁평 전왕궁 부근 지형(제석사지)帝石面宮坪傳王宮附近地形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	
제석면 왕평 전왕궁지帝石面王坪傳王宮址	『朝鮮古蹟圖譜』	3권, 도판 666
제석면 왕평 전왕궁지 토루帝石面王坪傳王宮址土壘	『朝鮮古蹟圖譜』	3권, 도판 667
미륵산 및 용화산 원경彌勒山及龍華山遠景	『朝鮮古蹟圖譜』	3권, 도판 665
익산 왕궁평 발견와산王宮坪見瓦	『朝鮮古蹟圖譜』	4권, 도판 1424
익산 왕궁탑 부근 발견와산王宮塔附近發見瓦	『朝鮮古蹟圖譜』	4권, 도판 1423
익산 왕궁면 왕궁리 출토 평외편 및 토기편益山王宮面王宮里出土平瓦片及土器片		
익산 왕궁면 왕궁리 출토 토기편益山王宮面王宮里出土土器片		
제석면 탑리 오층석탑(속칭 왕궁탑) 기일帝石面塔里五重石塔(俗稱王宮塔)其一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	
익산 왕궁탑益山王宮塔	『朝鮮古蹟圖譜』	4권, 도판 1422
제석면 탑리 오층석탑(속칭 왕궁탑) 기삼帝石面塔里五重石塔(俗稱王宮塔)其三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	
왕궁면 왕궁탑 북면王宮面王宮塔北面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도판 252, 사진하단 '21-4' 표기
왕궁탑王宮塔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7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益山王宮里五層石塔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기단부益山王宮里五層石塔基壇部		
두천면 왕묘리 쌍릉 기일(북총)豆川面王墓里雙陵其一(北塚)	『朝鮮古蹟圖譜』	3권, 도판 669
두천면 왕묘리 쌍릉 기이(남총)豆川面王墓里雙陵其二(南塚)	『朝鮮古蹟圖譜』	3권, 도판 670
익산 쌍릉益山雙陵		
익산 쌍릉益山雙陵		
쌍릉 대왕묘 언도 입구 폐쇄 상태雙陵大王墓羨道入口閉塞狀態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도판 253, 사진하단 '20-1' 표기 북2도 등에서 바라봄
익산 쌍릉 대왕묘 현실 내 목관 잔존 상태益山雙陵大王墓玄室內木棺殘存狀態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도판 254
익산 쌍릉 대왕묘 현실 목관 출토 상태益山雙陵大王墓玄室木棺出土狀態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사진하단 '20-3' 표기 북1도 등에서 바라봄
익산 쌍릉 대왕묘 현실 내부에서 본 입구益山雙陵大王墓玄室內部入口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사진하단 '20-8' 표기
익산 쌍릉 목관 복원품益山雙陵木棺復原品		
익산 대릉 목관도全北益山大陵木棺圖		'全南'으로 오기
익산 쌍릉 대왕묘 석각 내 출토 완益山雙陵大王墓石槨內出土盥		
익산 쌍릉 출토 토기편益山雙陵出土土器片		
익산 쌍릉 대왕묘 목관 내 출토 유물益山雙陵大王墓木棺內出土遺物		
익산 쌍릉 충남 부여 중상층 목관 장식益山雙陵忠南扶餘中上塚木棺裝飾		
익산 쌍릉 소묘 출토 금동무조장식益山雙陵小墓出土金銅透彫裝飾		
익산 쌍릉 출토 금동무조장식益山雙陵出土金銅透彫裝飾		
익산 부근 지형도益山附近地形圖	『朝鮮古蹟圖譜』	3권, 도판 664
전기준성 유지傳箕準城遺址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	

연번	유적명	건관번호	원관번호	촬영년도	판형	조사자(촬영자)
기타2-2	미륵산성	28209	無953-7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기타2-3	미륵산성	20576	無250-05		소판	
기타3-1	사자암	00544	100409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기타3-2	사자암	19063	無124-10		소판	
기타4-1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00543	100407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기타4-2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1910	미상	關野貞(谷井濟一)
기타5-1	고도리 석불입상	34226	無26-7	1910	중판	關野貞(谷井濟一)
기타5-2	고도리 석불입상			1934	대판	藤田亮策
기타5-3	고도리 석불입상			1934	대판	藤田亮策
기타6-1	이승원교서	30381	無1134-1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기타6-2	이승원교서	30382	無1134-2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기타6-3	이승원교서	30383	無1134-5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기타7	사료조사	03129	150005	1915	소판	鳥居龍藏
기타7	사료조사	03130	150006	1915	소판	鳥居龍藏
기타8	사료조사	03131	150007	1915	소판	鳥居龍藏
기타8	사료조사	03132	150008	1915	소판	鳥居龍藏
기타9	사료조사	03133	150009	1915	소판	鳥居龍藏
기타10	화암서원	38087	無450478	1910	극소판	關野貞(谷井濟一)
기타11-1	삼속율	11543	340273	1934	소판	植木秀幹
기타11-2	삼속율	11544	340274	1934	소판	植木秀幹
기타11-3	삼속율	11545	340275	1934	소판	植木秀幹
미수록1	미륵사지	22272	無415-13		소판	
미수록2	미륵사지	22294	無417-12		소판	
미수록3	미륵사지	22295	無417-13		소판	
미수록4	미륵사지	22296	無417-14		소판	
미수록5	미륵사지	19060	無124-7		소판	
미수록6	미륵사지	19064	無125-1		소판	
미수록7	왕궁리	34716	無81-13	1910	중판	關野貞(谷井濟一)
미수록8	쌍룡	15560	170017	1917	대판	谷井濟一
미수록9	쌍룡	20638	無258-1		소판	
미수록10	쌍룡	22194	無406-4	1917	소판	谷井濟一
미수록11	쌍룡	27769	無916-1		소판	
미수록12	쌍룡	27770	無916-2		소판	
미수록13	사자암	19062	無124-9		소판	
미수록14	삼속율	30479	無1141-3	1934	소판	植木秀幹
미수록15	고도리 석불입상	27298	無884-4	1910	소판	關野貞(谷井濟一)



사진명칭 <sup>7</sup>	출처	비고
전기준성 유지 기삼傳箕準城遺址其三	『朝鮮古蹟圖譜』	3권, 도판 668
전북 익산 미륵산성全北益山彌勒山城		
미륵산 사자암 석당彌勒山獅子庵石幢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	
미륵산 사자암 석탑彌勒山獅子庵石塔		
구문천면 석불리 석불九文川面石佛里石佛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	
구문천면 석불리 석불 광배九文川面石佛里石佛光背	『朝鮮古蹟圖譜』	5권, 도판 1931
익산 고도리 석불입상(여성)益山古都里石佛立像	『朝鮮古蹟圖譜』	7권, 도판 3180
고도리 석불입상(남성)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고도리 석불입상(마주보는 사진)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성화8년6월여이승원교서(현동이인성소장) 成化八年六月與李崇元教書(玄洞李麟性所藏)3-1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	우측→좌측으로 촬영
성화8년6월여이승원교서(현동이인성소장) 成化八年六月與李崇元教書(玄洞李麟性所藏)3-2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	우측→좌측으로 촬영
성화8년6월여이승원교서(현동이인성소장) 成化八年六月與李崇元教書(玄洞李麟性所藏)3-3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	우측→좌측으로 촬영
황동에서 바라본 석기시대 유적지(1)黃登ヨリ石器時代遺蹟ヲ望ム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5	파노라마
황동에서 바라본 석기시대 유적지(2)黃登ヨリ石器時代遺蹟ヲ望ム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5	파노라마
황동에서 바라본 금마산성(1)黃登ヨリ金馬山城ヲ望ム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5	파노라마
황동에서 바라본 금마산성(2)黃登ヨリ金馬山城ヲ望ム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5	파노라마
황동면 탕석(고인돌)撐石(ドルメン)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5	위치 불명
익산 화암서원 부근 화암동문益山華巖書院附近華巖洞門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8	
석왕리 삼숙율(3-1)石旺里三熟栗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0	
석왕리 삼숙율(3-1)石旺里三熟栗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0	
석왕리 삼숙율(3-1)石旺里三熟栗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0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 정면 실측도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 동로 단면 실측도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 평면 실측도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 우측면 실측도		
전북 익산 북에서 본 미륵사지 전경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		
전북 익산 왕평리 전 마한왕궁지 일부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	
전남 익산 쌍룡 목관 실측도		
전북 익산 쌍룡 대왕묘 목관 실측도		
전북 익산 쌍룡 대왕묘 연도 입구 폐쇄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전북 익산 쌍룡 출토 금동루조장식		
전북 익산 쌍룡 출토 금동루조장식		
전북 익산 미륵산 사자암 석탑		
전북 익산 삼숙율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0	
전북 익산 고도리 석불입상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	



## 1. 미륵사지

미륵사彌勒寺는 백제 무왕(재위 600-641)때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이 절은 삼국 통일 이후에도 중요한 곳으로 여겨져 번창하였으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중축과 보수가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인문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익산 지역 기존 문헌 자료와 민간전승을 토대로 미륵사가 마한의 무강왕 때 세워진 것으로 기록하였다. 미륵사는 조선 중기 이후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8세기 강후진이 쓴 기행문집인 『와유록臥遊錄』 중 「유금마성기遊金馬城記」, 비슷한 시기 간행된 읍지 『금마지金馬志』, 1864년 김정호가 쓴 지리서 『대동지지大東地志』 등에서 터만 남은 미륵사 모습을 전하고 있다.<sup>8)</sup>

미륵사지는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사업기간 중 1910년, 1917년, 1928년, 1932년에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사진은 전경·원경, 석탑, 당간지주, 금당지를 중심으로 촬영했다.

### 1) 1910년의 조사

미륵사지에 대한 첫 번째 고적조사는 1910년 12월 3일에서 4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선총독부 측탁위원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는 건축 전공자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고고학 전공자 야쓰이 세이이쓰쓰井濟一를 조수로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촬영한 사진은 주로 석탑, 당간지주, 석조 등이었는데 특히 미륵사지 석탑 사진에는 1915년 수리 이전 석탑 붕괴를 막기 위해 쌓은 석축이 확인되었다. 1915년과 1917년 작성된 『조선고적도보해설朝鮮古蹟圖譜解説』 3·5권에 해설이 실려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표 1] 『조선고적도보해설』의 '미륵사지' 기록(사진 1~3)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미륵사 폐지廢址에 있다. 제작 연대는 확실하지 않아도 양식 상 신라통일시대의 초기에 속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성덕왕 8년(719) 이 절이 흔들렸다는 기록이 실려 있어 절의 초창初創은 그 이전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탑 역시 그러할 것이다. 지금은 붕괴頽壞가 심해 오직 전면 6층을 볼 수 있고 후방은 전부 붕괴되었다. 당초에는 아마도 7층 혹은 9층의 탑 모양이었을 것이다. 1층의 크기는 27척이며 조선에 존재하는 석탑 중 최대의 것이다. 각 층 모두 세 층의 옥개받침석持送이 판석板石으로 이루어진 모서리 옥개석軒을 받치고 있고, 모서리 옥개석 부분은 점점 얇아져 양쪽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

### 2) 1917년의 조사

미륵사지에 대한 두 번째 고적조사는 1916년 8월 12일 개최된 제2회 고적조사위원회에서 계획된다. 조사 책임자는 1917년 백제와 한사군漢四郡에 대한 조사를 담당 하였던 야쓰이 세이이쓰였다. 그는 조사단을 꾸려 1917년 9월 21일 서울에서 출발하여 백제의 유적들을 확인하고 12월경 익산으로 진입하여 미륵사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단의 미륵사지廢彌勒寺와 당간지주剎竿支柱, 석탑石造七層塔에 대한 보고는 「야쓰이 고적조사위원 북명서谷井古蹟調査委員復命書」(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9),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sup>9)</sup>에 기록되어 있는데, ‘수법이 우아하고(당간지주), 한반도 석탑 중 제일로 치는 것으로 후세에 과시할 만한 것이다(석탑).’라는 견해가 실려 있다.

1917년 촬영 사진은 미륵사지 당간지주와 석탑, 전경 및 금당지가 있다. 1910년도 사진과 비교해보면 그 사이 어느샌가 석탑이 콘크리트로 보수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8)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04, 『기록으로 보는 미륵사 1400년』, 9쪽.

9)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금마면 기양리 노상路上 마을 논밭 사이 있다. 북으로 미륵산을 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지형으로서 지금 찰간지주·석조칠층탑·우물·석조 및 초석 등이 남아 있다. 이 유물들은 모두 신라통일시대 초기에 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논밭 사이 종종 당대當代에 속하는 와당이 출토된다.

(ㄱ) 찰간지주: 한 쌍으로 동서 마주 보고 있다. 같은 형태로 조형線形은 간단하다. 서쪽(당간지주)은 남 26°로 서쪽을 바라보고, 기단에서부터 높이 약 13척이다. 논 가운데 있으며 경사져 있다. 동쪽은 좁은 길 옆에 남 25°로 서쪽을 바라보고, 기단이 매몰되어 직립하고 있다. 이 한 쌍의 지주로 인해 절이 바라보는 방향도 확실해졌다. 수법이 우아하여 당 시대의 대표작이라 인정받기에 충분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ㄴ) 석조칠층탑: 한 쌍의 찰간지주 사이에서 북으로 나아가면 서쪽에 치우쳐 있는 대형 탑이다. 화강석을 썼다. 목탑 모양을 본뜬 것으로 남 25° 서쪽에 위치해 있다. 현재는 (탑의) 동쪽과 남쪽 근처에 (석제가) 잔존하여 1층은 완전히 (남아있고), 2층 이상도 5층에 이르기까지 3분의 2가 남아있다. 6층에 이르던 간신히 그 일부만 남아 있으며, 그 위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제감遮藏의 정도를 관찰하면 당조 칠층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오층에 각 면(마다) 3칸의 방형 탑인 사실이 명확해지긴 하지만, 6층 이상은 확실하지 않다. 1층 탑신은 각 면 중앙에 입구가 있어 방형의 중심 기둥에 이른다. 옥개는 모두 판석을 썼고, 모퉁이에 이르던 약간 휘어 올랐으며 … 권형權衡이 자못 안정을 취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동방석탑지碕東方石塔之最'라 불린 것처럼 반도에서 아직 이 같은 큰 석탑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1층 탑신 폭은 27척 3촌이다. 웅대한 형상이다. 1910년 세키노 박사 조사 때는 서측 붕괴가 심하여 무너지기 직전에 이르렀으나, 1915년 본부에서 응급 수선하였다. 반도 석탑 중 제일로 치는 것으로서 후세에 과시할 만한 것이다.

수 있다.

### 3) 1928년의 조사

미륵사지에 대한 세 번째 고적조사는 1928년 8월 1일 개최된 제30회 고적조사위원회에서 계획됐다. 조사의 책임자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촉탁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였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동원과 서원이 서로 대응하며 탑과 금당, 강당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소화3년도 고적조사사무보고昭和三年古蹟調査事務報告」(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6)에서 밝히고, 그 때 촬영한 다양한 사진은 「미륵사지유물彌勒寺址遺物」(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6)에 남겼다. 미륵사지 석탑과 동·서 금당지, 일부 보수가 진행된 당간지주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 4) 1928년 이후의 조사

이 시기는 총독부의 조사와 함께 개인 연구자들의 익산 지역 조사가 활발히 실시된다. 특히 이마니시 류今西龍,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의 연구 대상에 미륵사지가 포함되었으나 사진은 논문 속에만 일부 남아 있다.

1932년 총독부의 공식적인 고적조사 및 시찰 대상에 미륵사지가 포함되었다. 간다 쇼조神田惣藏와 가야모토 가메지로梶本龜次郎는 공주, 부여, 익산, 창녕 지방의 고적 보존 상황 시찰의 명을 받고 미륵사지의 당간지주와 석탑, 금당의 현황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지만 촬영한 사진은 전경 뿐이었다.(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8) 한편 1934년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는 개인자격으로 미륵사지를 방문하여 사진으로 남겼다.<sup>10)</sup>

이 밖에 연대를 알 수 없는 미륵사지 사진들은 대부분 석탑과 당간지주를 단독 촬영한 것이다. 그 중에는 유적에 대한 접근을 막는 방지 목책과 돌로 만든 꺾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 그 당시의 미륵사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한다.

10)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12, 『유리원판에 비친 한국의 문화유산』, 166쪽.



## 1) 1910년의 조사

### 1

#### 미륵사지 전경

1910년 12월 경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조선고적도보 朝鮮古蹟圖譜』 4권에 ‘미륵사폐지彌勒寺廢址’라는 제목으로(도판번호1420) 실려 있다. 사진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촬영되었는데 석탑의 남쪽과 서쪽이 무너지고 6층 옥개석이 아슬아슬하게 남아있으며 석탑과 당간지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역이 논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 미륵사지 석탑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조선고적도보』 4권에 ‘폐미륵사석탑 廢彌勒寺石塔’이라는 제목으로(도판번호1421) 실려 있다. 사진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촬영되었는데 탑의 아랫부분에는 석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것으로 보이는 석축과 무너져 내린 석재가 확인된다. 탑신 4층 중앙부에는 심주석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석재가 보인다.





## 미륵사지 석탑

11) 유사한 사진이 『조선고적도보』 4권에 실렸다.(도판번호1419) 고적도보에 실린 사진의 오른쪽 하단에는 것을 쓴 사람이 서 있다.

12) 1910년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목록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공문서자료 「대정7년 조선총독부기록 제4166호大正七年朝鮮總督府記録第4166號」(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4)에 있으며, 사진목록과 사진이 일치할 경우 이 제목을 따랐다.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538)이다.<sup>11</sup> 사진의 제목은 ‘페미륵사석탑 기이廢彌勒寺石塔 其二’이다.<sup>12</sup> 사진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촬영되었는데 탑의 전체적인 균형이 어긋나 있고 부재 사이가 벌어져 있다. 석탑 1층의 왼쪽에는 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임돌(장방형 석재)을 사선으로 받쳐 놓은 모습이 관찰된다.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석축은 1910년 일본인 조사 이전에 석탑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 미륵사지 석탑 일층과 이층

13) 북서 석축 부재로 쇠시리 가공부재, 안상 가공 부재, 석등 부재 등 석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용도가 불분명한 석조물이 확인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미륵사지 석탑해체조사보고서 IV』, 192쪽.)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539)이다. 사진 제목은 ‘페미륵사석탑 초층 및 이층廢彌勒寺石塔 初重及二重’이다.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되었다. 1·2층의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층 입구 문주석에는 누군가가 찍어놓은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다. 우주석과 탕주석에 균열이 있다. 옥개석과 옥개받침석, 간주석 등도 모두 불안정한 모습이다. 오른쪽 석축에 사용된 일부 부재를 보면 주변에 흩어져 있던 사역의 부재들을 활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sup>13)</sup>





## 미륵사지 석탑 석인상

14) 석인상의 조성시기 등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나 거친 가공수법, 단순하고 도속적인 형태, 하부 토층상대 등을 검토한 결과 고려 시대 말기 전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앞의 글, 196쪽.)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540)이다. 사진의 제목은 ‘페미륵사석탑 옆 석사彌勒寺石塔側石獅’이다. 미륵사지 석탑의 네 귀퉁이에는 각각 석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사진은 석탑의 남동쪽 하층 기단 갑석 위에 있는 석인상을 근접 촬영한 것이다.<sup>14</sup>





## 미륵사지 서당간지주

15) 원본 건판이 아닌 복제 건판이다. 복제 건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 논문을 참조하였다(김영민, 2007, 앞의 글, 273~274쪽).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조선고적도보』 4권에 ‘페미륵사 석당지廢彌勒寺 石幢支’라는 제목(도판번호1610)으로 실려 있으며<sup>15)</sup>,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28125)로 남아있다. 미륵사지에는 동서 2기의 당간지주가 세워져 있는데 이 사진은 서원 당간지주이다. 당간은 없어지고 양쪽에 지주만이 남아 있다. 기단부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논두렁에 묻히면서 당간지주의 뿌리가 절반 가량 드러나 있다. 흙에 덮인 기단부는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



[표 3] 『조선고적도보해설』의 ‘미륵사지 당간지주’ 기록(사진 6)

(전략) ... 미륵사 폐지廢址는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에 있다. 이 찰간지주 역시 당대當代에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종류의 지주는 모두 화강 석花崗石으로 만들어 서로 마주보게 세우고 그 표면에 크고 작은 모양이 있어 그 형태가 대단히 아름답다.



## 미륵사지 석조와 우물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조선고적도보』 5권에 '미륵사지 석조와 우물彌勒寺址 石槽, 井'이라는 제목(도판번호2138)으로 실려 있으며<sup>16</sup>,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29881)로 남아있다. 석조의 전체적인 형태는 장방형이며 아랫부분에 배수 구멍이 있다. 현재 미륵사지 사역 북편에 위치한 조선시대 건물지 남서쪽에 있으나 원래 위치는 알 수 없다.



16)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사진은 좌우 반전되었다. 유리건판을 복제할 때 화상면을 위로 두고 만들게 되면 사진 화상이 반대로 나타난다.



[표 4] 『조선고적도보해설』의 '미륵사지 석조와 우물' 기록(사진 7)<sup>17</sup>

(전략) ... 신라 때 세워진 가람伽藍에는, 때때로 당대當代에 속하는 것이라 추정할 만한 석조가 보존되어 있다. 모두 장방형으로 된 돌을 틀어 만든 것으로서 아랫부분에 배수 구멍이 있다.

17) 분황사 석조 초석 및 석등층, 범주사 석조, 해인사 석조를 함께 다루고 있다.



## 2) 1917년의 조사

8

### 미륵사지 전경

1917년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에 실려 있고(도판번호24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자료(건판27788)로 남아있다. 사진 제목은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 폐미륵사지 전경(益山郡 金馬面 基陽里 廢彌勒寺址 全景)'이다. 사진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촬영된 사진이다. 1915년 콘크리트로 수리된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초가집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사역 일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 미륵사지 석탑

1917년 야쓰이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에 실려 있고(도판 번호25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30156)로 남아 있다. 사진 제목은 '기양리 미륵사지 석조 칠층석탑 彌陽里 彌勒寺址 石造 七層石塔'이다. 유리건판은 하단 일부가 파손되었다. 사진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촬영되었는데 석탑과 석축이 콘크리트로 수리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석인상 하부와 기단부 갑석이 흠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사진의 좌측 하단에는 사람이 서 있는데 석탑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 함께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화유산과 함께 사람을 촬영하는 경향은 강점기 사진에 더러 확인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사람을 척도(Human-scale)로 삼아 현장에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크기를 인지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sup>18</sup>

18) 이경민, 2010, 『제국의 뎌즈』, 산책자, 118쪽.





## 미륵사지 서금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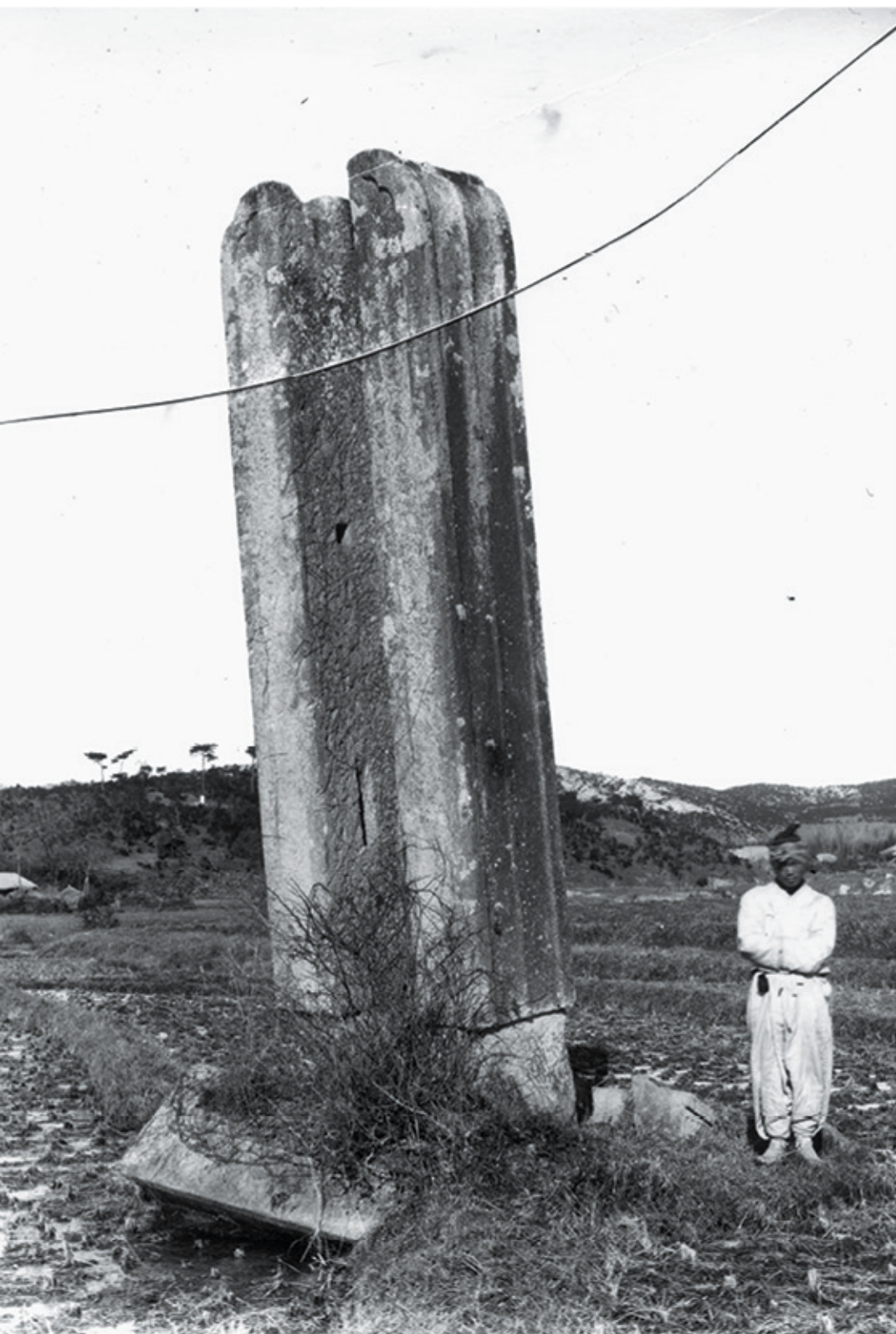
1917년 야쓰이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23141)이다. 사진 제목은 '익산 미륵사지 서금당지 益山 彌勒寺址 西金堂址'이다. 사진 속에 비친 석탑의 그림자로 판단해 보았을 때, 석탑 위로 올라가 북쪽을 바라보고 뒤편에 있는 서금당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당지 중앙 부분을 제외하고는 초석들의 형태가 명확하며 군데군데 초석이 빠진 곳이 있지만 정면 5칸, 측면 4칸의 금당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 미륵사지 서당간지주

1917년 야쓰이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에 실려 있고(도판번호25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전판30146)로 남아있다. 사진 제목은 '페미륵사 서당간지주 廢彌勒寺 西堂竿支柱'이다. 사진은 동남쪽에서 서북쪽을 향해 촬영되었는데 당간지주는 심하게 기울어 있으며 기단부 부재가 논두렁에 묻혀 있다. 그 뒤쪽에는 당간지주에서 이탈된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다.





## 미륵사지 동당간지주

1917년 야쓰이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에 실려 있고 (도판번호24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30147)로 남아있다. 제목은 '페미륵사 동당간지주 廢彌勒寺 東幢竿支柱'이다. 사진은 동남쪽에서 서북쪽을 향해 촬영되었으며, 이는 최초의 동당간지주 사진이다. 기단석과 당간은 보이지 않는데, 당간은 없어지고 기단석은 흙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3) 1928년의 조사

13

#### 미륵사지 석탑

1928년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가 촬영한 사진으로서 「미륵사지유물彌勒寺址遺物」에 실려 있고<sup>19)</sup>,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19057)로 남아있다. 제목은 '미륵사지 서원 석탑과彌勒寺址 西院 石塔婆'이다. 사진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19)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6



14

#### 미륵사지 석탑

1928년 오가와 게이키치가 촬영한 사진으로서 「미륵사지유물」에 실려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19059)로 남아있다. 제목은 '미륵사지 서원 석탑과 부층 상세彌勒寺址 西院 石塔婆 部層 詳細'이다. 사진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촬영되었는데 사진 한 장에 석탑과 석인상, 서원 당간지주, 사람이라는 많은 소재가 담겨 있다. 석탑 주변 지표에는 옥개석에서 흘러내린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도랑이 확인된다.





## 미륵사지 서금당지 초석

1928년 오가와 게이키치가 촬영한 사진으로서 『미륵사지유물』에 실려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전판19058)로 남아있다. 제목은 '미륵사지 서원 금당지 초석彌勒寺址 西院 金堂址 礎石'이다. 사진은 남동쪽에서 서북쪽을 향해 촬영되었는데 1917년에 찍은 서금당지 사진과 비교해보면 초석 몇 개가 보이지 않는다.





## 미륵사지 동금당지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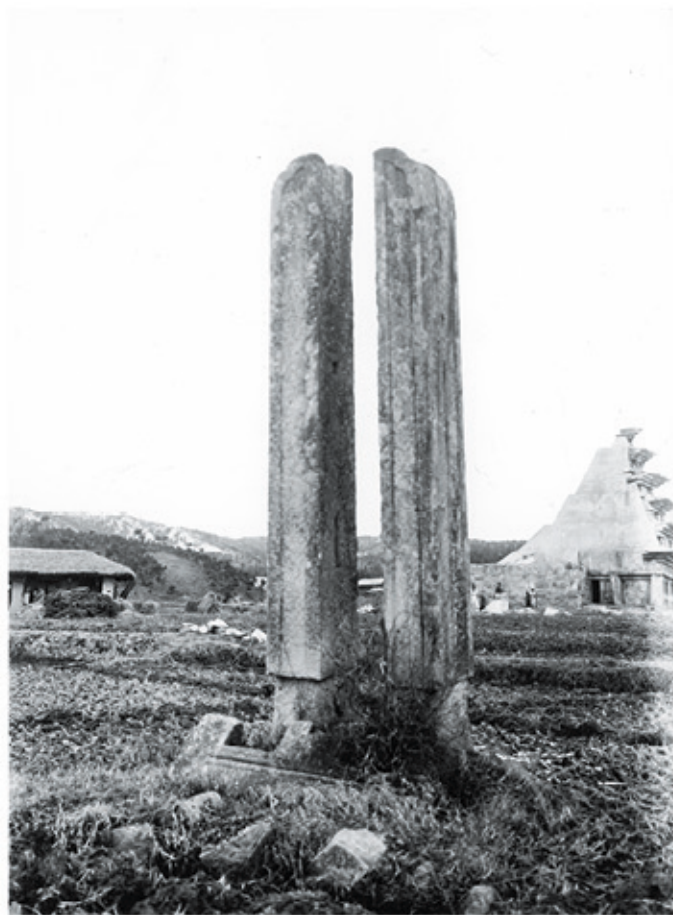
1928년 오가와 게이키치가 촬영한 사진으로서 「미륵사지유물」에 실려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19056)로 남아있다. 제목은 '미륵사지 동원 금당지 초석彌勒寺址 東院 金堂址 礎石'이다. 사진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동금당지를 촬영한 최초의 사진이다. 초석의 대부분은 농토에 덮여 있고 상부만 조금씩 드러나 있다.





## 미륵사지 서당간지주

1928년 오가와 게이키치가 촬영한 사진으로서 「미륵사지유물」에 실려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19054)로 남아있다. 제목은 '미륵사지 서원 찰간지주 彌勒寺址 西院 刹竿支柱'이다. 사진은 동남쪽에서 서북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1917년 사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 기단부에는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



## 미륵사지 동당간지주

1928년 오가와 게이키치가 촬영한 사진으로서 「미륵사지유물」에 실려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19055)로 남아있다. 제목은 '미륵사지 동원 찰간지주 彌勒寺址 東院 刹竿支柱'이다. 사진은 동남쪽에서 서북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서원 당간지주와 마찬가지로 1917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당간지주 기단부에 논두렁보다 조금 더 솟아 있는 부분이 확인된다.



#### 4) 1928년 이후의 조사

19

##### 미륵사지 전경

1932년 간다 쇼조<sup>20</sup> 神田惣藏와 가야모토 가메지로<sup>21</sup> 樫本龜次郎가 촬영한 사진으로서 「공주, 부여, 익산, 창녕 지방 고적 보존상황 시찰 복명서<sup>22</sup> 公州扶餘益山昌寧地方古蹟保存狀況觀察復命書」에 첨부되었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38072)로 남아있다. 유리건판 유제면<sup>23</sup> 乳劑面 일부가 유실되었다. 제목은 '익산 미륵사지 전경<sup>24</sup> 益山彌勒寺址全景'이다. 사진은 동남쪽에서 서북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동원 당간지주 주위에는 조사인력들이 보이며 서원 당간지주는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다. 석탑 원편에는 집을 짓고 있는 중이다.

20)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8

21) 유리 위에 마른 감광성 물질이 도포된 부분이다.  
이 면에 상을 맺히도록 하여 이미지를 담는다.





## 미륵사지 전경

1934년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가 촬영한 사진으로서 해설은 남아있지 않다. 현재 성균관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성균관대박물관34008). 제목은 '미륵사지 전경彌勒寺址 全景' 이다. 사진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미륵사지 석탑과 당간지주 주변에 설치된 목책이 확인된다.





## 미륵사지 석탑

1934년 후지타 료사쿠가 촬영한 사진으로서 해설은 남아있지 않다. 현재 성균관 대학교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성균관대박물관34007). 제목은 '미륵사지 오층석탑彌勒寺址五層石塔'이다. 북동쪽에서 남서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그는 이 탑이 오층까지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제목을 오층석탑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목책의 범위가 석탑의 둘레보다 넓게 펼쳐져 있으며, 목책 뒤로는 서당간지주가 보인다.









미륵산 중턱에서  
바라 본 미륵사지 전경

촬영 연대를 알 수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전판19061)이다. 사진은 미륵산 중턱으로 보이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촬영되었는데 수리된 석탑과 석탑 서쪽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집의 형태로 보아 193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금당지와 서당간지주가 확인되며 사진 중앙의 초가집들이 있는 곳은 조선시대 미륵사 사역에 해당된다.





## 미륵사지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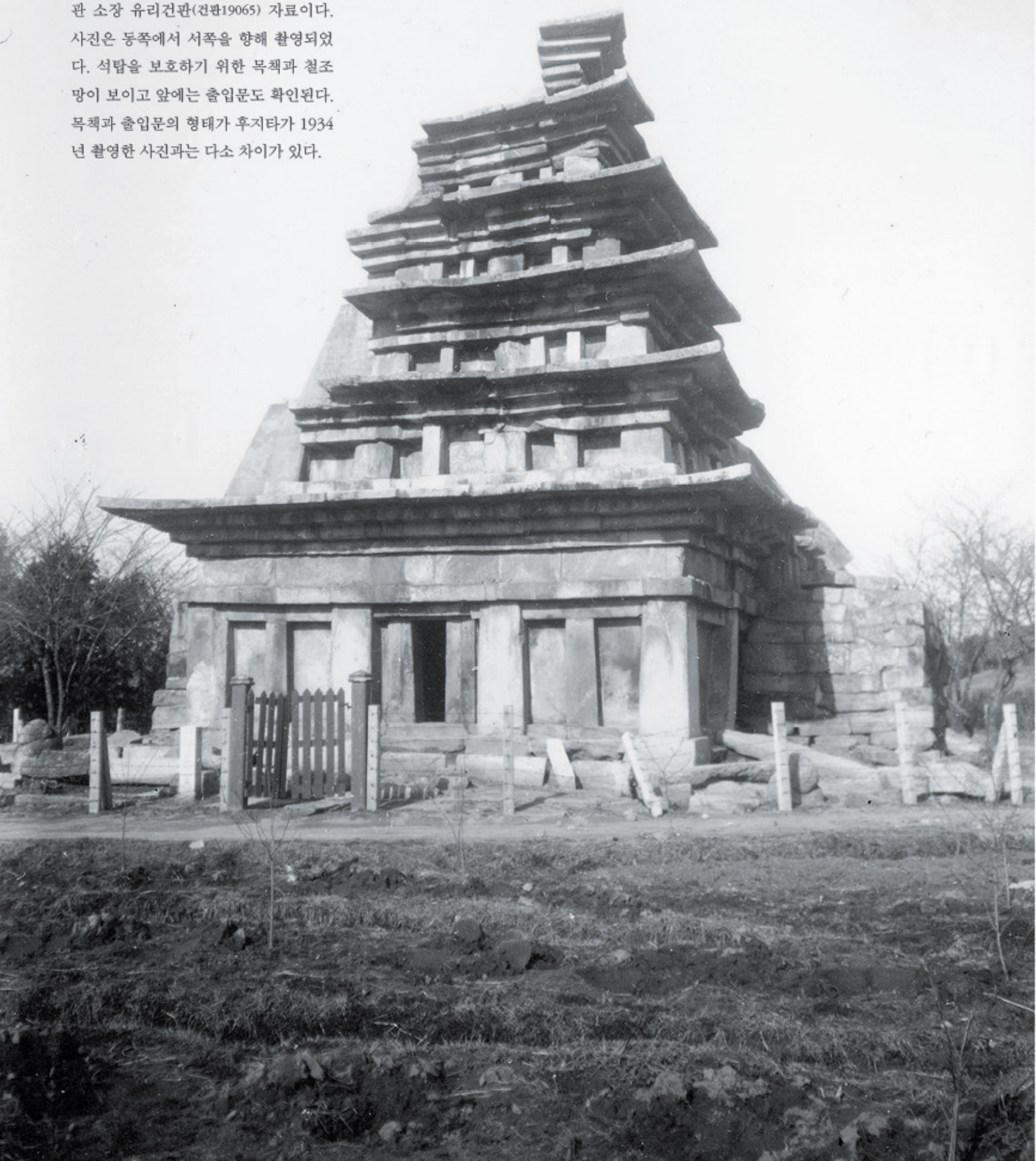
촬영 연대를 알 수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28571)이다. 사진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목책은 보이지 않고 석탑 앞에는 농부들이 쉬고 있다. 석탑의 탑신부에 밝게 보이는 부재는 1915년 수리공사 때 새로 끼워 넣은 간주석으로, 석부재를 석탑에 끼워 넣은 시기를 보여주는 '대정4년大正四年(1915)' 이 새겨져 있다. 석탑 앞에는 보리 또는 밀로 보이는 곡식이 익어가고 있다.





## 미륵사지 석탑

촬영 연대를 알 수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건판19065) 자료이다. 사진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석탑을 보호하기 위한 목책과 철조망이 보이고 앞에는 출입문도 확인된다. 목책과 출입문의 형태가 후지타가 1934년 촬영한 사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미륵사지 서당간지주와 석탑

촬영 연대를 알 수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19068)이다. 사진은 남동쪽에서 북서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추수가 끝난 논 가운데 서 있는 당간지주 뒤편으로 석탑이 보이는데 석탑의 아랫부분은 벼가리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원편에는 나무로 둘러싸인 기와집이 보인다.



## 미륵사지 당간지주와 석탑 원경

촬영 연대를 알 수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전판19079)이다. 사진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미륵사지 중앙을 관통하여 남쪽으로 흘러 내리는 물길을 따라 만들어진 도로가 보인다. [사진 25]와 같은 때 찍혔다는 사실은 석탑 앞에 쌓인 벧가리를 보면 추정할 수 있다.





## 미륵사지 석탑 심주석

촬영 연대를 알 수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진판23145)이다. 미륵사지 석탑 1층 내부의 심주석을 촬영한 사진으로 심주석 뒤 석재 윗부분에는 세로 방향의 균열이 확인되고 두 번째 심주석에는 金○○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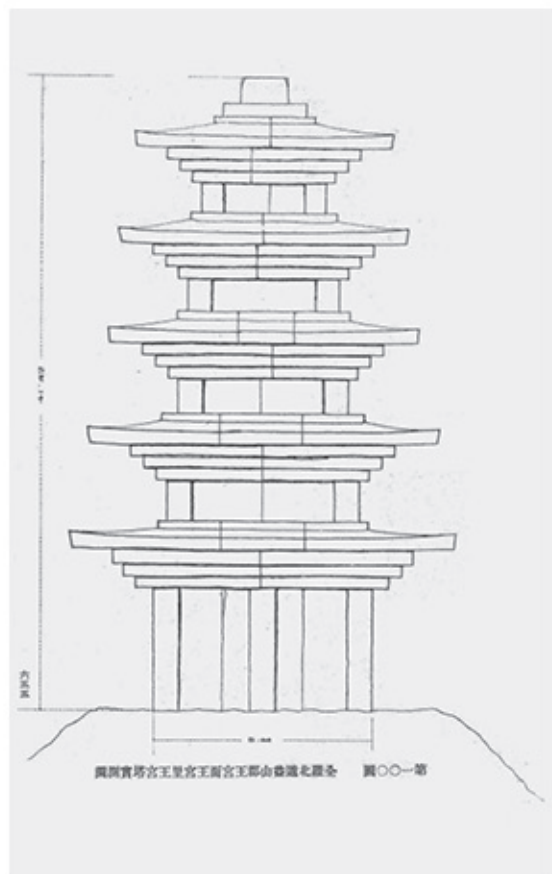


## 2.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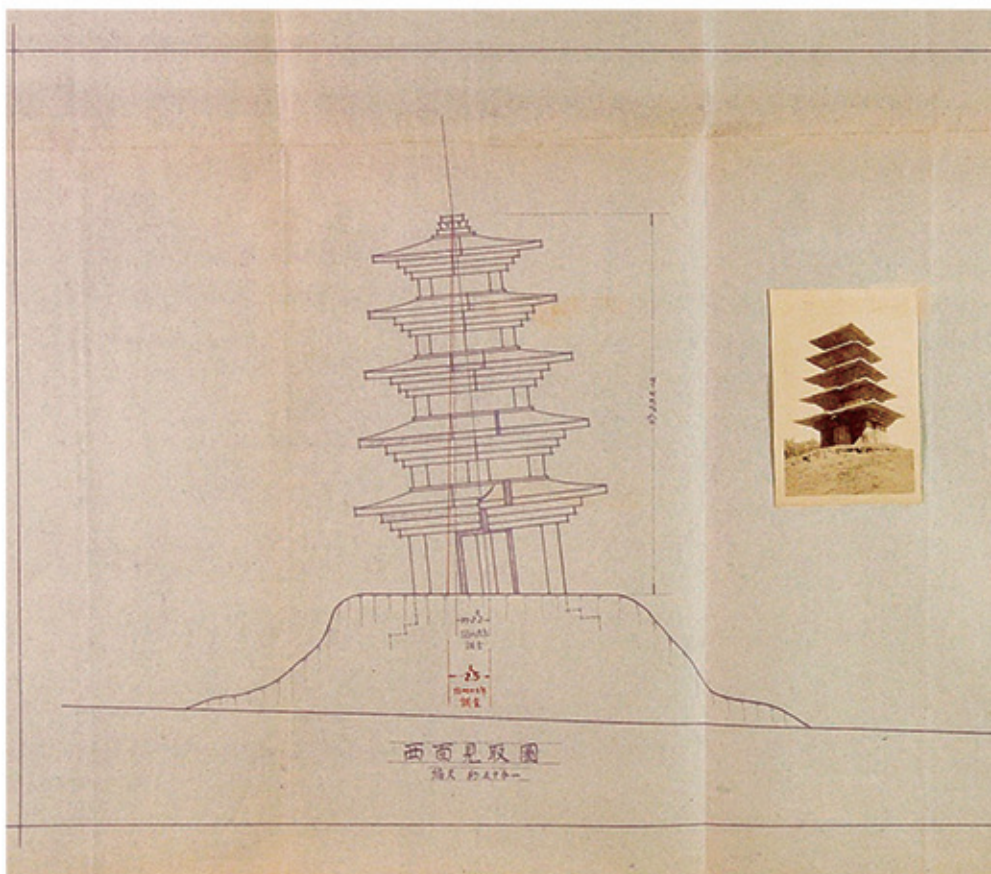
왕궁리 유적王宮里遺跡은 최근 조사 결과 백제 사비기 또 하나의 왕궁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미륵산 동쪽의 용화산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낮은 구릉(해발 41.8m)의 끝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유적은 동서 240m, 남북 490m의 궁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조사된 대형 건물지와 정원 및 후원지, 공방지는 사비기에 이룩한 수준 높은 왕실 문화와 금속공예 기술의 일면을 설명해 주는 자료이다.<sup>22</sup>

일제강점기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는 제석면에 속해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왕궁면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 만들어진 지형도에는 왕평王坪(왕궁리 유적), 궁평宮坪(제석사지), 제석면帝石面 등의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80쪽 참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익산군 조에 익산을 본부 마한국으로 기술한 이래 조선 후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전라도읍지全羅道邑誌』, 『금마지金馬誌』 등은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를 마한의 유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誌』는 '백제 무왕 때 별도를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서로 다른 전승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도면 1] 왕궁리 오층석탑 실측도면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서』)



[도면 2] 기울어진 왕궁리 오층석탑(조선충독부박물관 공문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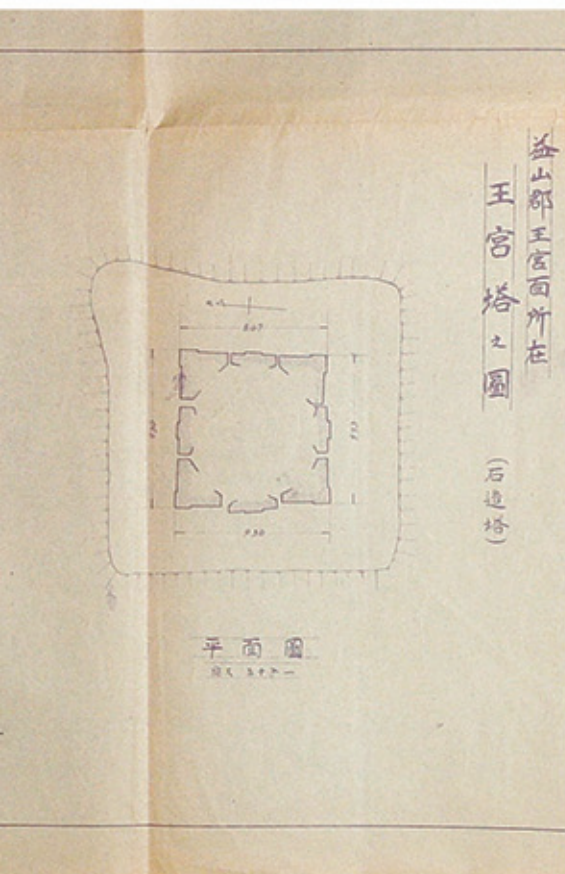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에 대한 첫 번째 고적조사는 1910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세키노 조사단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남긴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대체적으로 마한 관련 전승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왕궁리 유적의 주변 지형을 촬영하고 왕궁리 오층석탑을 자세히 조사하여 사진과 현황 도면을 남겼으며 석탑 주변에서 수막새와 토기 파편을 수습하고 수습 경위와 의견을 간단히 정리하여 『조선 고적도보』에 수록하였다.

왕궁리 유적과 달리 길으로 드러난 뚜렷한 유물이나 건축물이 없었던 제석사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 없이 유적의 전경 사진만을 남기고 있다. 1910년 조사 후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의 조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왕궁리 오층석탑은 1916년 「고적 및 유물등록대장古蹟及遺物登錄臺帳」에 등재되어 보존 정비에 필요한 문화재로 인정되었다.

1924년에는 제석사지 인근 마을에서 아미타상 두부阿彌陀像頭部와 기와 파편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추가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13) 1930년에는 다나카 슈조田中+藏가 왕궁리 유적을 방문하여 주변 보존현황을 기록하고 왕궁리 오층석탑을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였다.(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17) 이와 함께 왕궁리 유적의 정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조경석을 확인하여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으나, 왕궁리 유적에 대한 조사는 ‘유적의 범위가 사원으로 보기에 규모가 거대함으로 저택 혹은 궁궐지일 것’이라는 피상적인 관찰 수준에 머물렀다.

1933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공포되어 중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30년대 후반 왕궁리 오층석탑의 붕괴 위험과 보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러 건의 문서와 관련 도면이 생산되었으나 보수는 실시되지 않았다.



## 제석사지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536)로서 유제면이 일부 오염되었다. 제목은 '제석면 궁평 전왕궁帝石面 宮坪 傳王宮'이다. 세키노는 '궁평宮坪'과 '왕평王坪'을 구분하여 기록하였는데 '궁평'은 제석사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전승되고 있었다. 사진 중앙에 봉분 형태의 지형이 있고 사진을 확대하면 봉분 위쪽에 있는 석재가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진은 제석사지를 멀리서 찍은 것으로, 사진 중앙의 봉분 모양 지형은 목탑지의 기단부로 추정된다.









## 제석사지 부근 지형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537)로서 유제면이 일부 오염되었다. 제목은 '제석면 궁평 전왕궁帝石面宮坪傳王宮'이다. 사진 왼쪽에 흐릿하게 보이는 산줄기는 미륵산 동쪽의 용화산이다. 제석사지 남쪽에서 북동 방향을 향해 촬영되었다.

왕궁리 유적  
북서쪽 지형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조선고적도보』 3권에 실려 있고(도판번호666)<sup>23</sup>,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28205)로 남아있다. 세키노가 작성한 원판 목록집의 사진 제목은 '제석면 왕평 전왕궁지帝石面王坪傳王宮址'이고 『조선고적도보』에는 '왕평리 전마한왕궁지 일부王坪里傳馬韓王宮址一部'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왕궁리 유적의 지형과 세키노의 설명을 참고하면 왕궁리 유적 외부에서 북서쪽 구릉지를 촬영한 사진으로 판단된다.(58쪽 참고)



23) 『조선고적도보』에는 사진이 반전되어 실려 있다.



## 왕궁리 유적 궁장宮牆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조선고적도보』 3권에 실려 있고(도판 번호66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28216)로 남아있다. 제목은 '제석면 왕평 전왕궁지 토루帝石面王坪傳王宮址土塁'로 기록되었다. 세키노의 설명과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해보면 사진에 보이는 유구는 왕궁리 유적의 북쪽 궁장이며 노출된 석재는 궁장 축조에 사용된 석재로 추정된다.(58쪽 참고)





## 미륵산과 용화산 원경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조선고적도보』 3권에 실려 있고(도판 번호66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28217)로 남아있다. 제목은 '미륵산과 용화산 원경彌勒山及龍華山遠景'이다.<sup>24</sup> 왕궁리 유적의 서쪽에서 현재의 금마면 소재지를 향해 찍은 사진이다. 주변 경관과 세키노의 설명을 참고하면 사진 오른쪽 구릉이 왕궁리 유적이다. 왼쪽 끝에는 조그마하게 고도리 석불입상이 보인다.



24) 『조선고적도보』에는 '王坪里傳馬轉王宮址附近光景'으로 작성되었다.



[표 5] 『조선고적도보해설』의 '왕궁리' 기록(사진 3~5)

전라북도<sup>25</sup> 익산군 왕궁면 왕평리에 마한 왕궁지라 전해지는 것이 있다. 그곳은 익산읍에서 남쪽으로 떨어져 약 15정町 가도街道의 동쪽 방향 언덕 위 평평한 곳에 성지를 둘러쌌다. 성지에는 적당한 크기의 석괴를 혼입함으로써 그 붕괴를 막은 흔적이 있다. 그 땅은 지금 소나무 숲 사이에 있다.

[사진5]는 이 토성의 서쪽에서 멀리 북방 익산읍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왼쪽으로 향하면 멀리 높게 보이는 것은 기준산성이 있는 용화산(일명 미륵산)이고, 그 전면을 향해 약간 우측 방향에 나무 숲林이 보이는 것은 익산읍이 된다. 가도에서 우측 방향 채소밭田園을 돌아 언덕 위에 일대의 소나무 숲이 겹겹히 보이는 것은 바로 토성지이다. [사진3]은 그 서북쪽 구석을 성 바깥으로부터 사진을 찍은 것이고 [사진4]는 그 북쪽 벽지壁地의 일부이다.

25) 원문에는 전라남도全羅南道라 쓰여 있다.



## 왕궁리 오층석탑 주변에서 수습한 수막새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조선고적도보』 4권에 실려 있다(도판번호1424). 제목은 ‘익산 왕궁평 발견瓦器山王宮坪見瓦’이다. 세키노는 『조선고적도보해설』에서 ‘1910년 12월 조사했을 때 탑 쪽에서 파와바瓦 파편 2개를 얻었다. 그 중 하나인 연화문 양식은 당대當代 초두初頭<sup>26</sup>에 들 만한 것이 되어, 이로서 탑의 연대추정의 참고에 자료가 될 만하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26) 통일신라시대 초엽을 말한다.



## 왕궁리 오층석탑 주변에서 수습한 수막새

1910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으로 『조선고적도보』 4권에 실려 있다(도판번호1423). 석탑 주변에서 수습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앞의 수막새보다 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왕궁리 유적 기와·토기 파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전판 20648)로서 왕궁리 유적에서 수습한 암기와 편과 토기편을 촬영한 사진이다. 유물은 광복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입수하였다(본판 5947).<sup>27</sup>

2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왕궁리 출토 유물(사진 8, 9)의 입수 일자는 1918년 4월 22일로 작성되어 1917년 조사 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입수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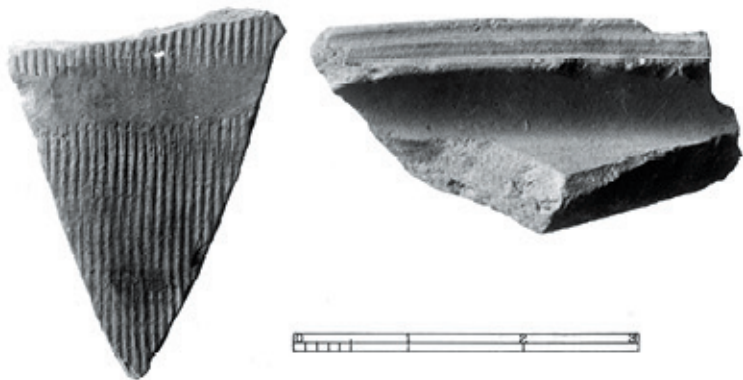


[표 6] 『조선고적도보해설』의 ‘왕궁리’ 기록(사진 6, 7)

(전략) 1910년(명치43) 12월 조사했을 때 탑 주변에서 파와바瓦 파편 2개를 얻었다. 그 1개인 연화문蓮花文 양식은 당대 초두에 들 만한 것이 되어, 탑의 연대를 추정할 때 참고자료가 될 만하다.

## 왕궁리 유적 토기 파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20641)로서 왕궁리 유적에서 수습한 토기편을 촬영한 사진이다. 유물은 광복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인수하였다(본판 5946).



## 왕궁리 오층석탑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541)이다. 제목은 '제석면 탑리 오층석탑(속칭 왕궁탑) 기일帝石面 塔里 五層石塔(俗稱 王宮塔) 其一'이다. 사진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탑은 기울어져 있고 군데군데 틈이 벌어져 있다. 기단부는 흩으로 덮여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1~2층 탑신에는 글자가 어지럽게 쓰여 있다. 현재의 왕궁리 오층석탑과 비교했을 때 상륜부에 석재가 하나 더 올라가 있다.





# 왕궁리 오층석탑

28) 원판 목록으로 제목을 추정한다면 '제석면 탑  
리 오층석탑 기이帝石面 塔里 五層石塔 其二'  
일 확률이 높다.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조선고적도보』4권에 실려 있다(도판  
번호1422)<sup>28</sup>. 사진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10번 사진과 연속하여 촬영된  
사진으로 추정되며 동일한 방향이지만 조금 더 가까이에서 위쪽을 바라보고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속의 인물이 앞 사진과 다르다.





## 왕궁리 오층석탑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542)이다. 유제면이 일부 오염되었다. 제목은 '제석면 탑리 오층석탑(속칭 왕궁탑) 기삼帝石面 塔里 五重石塔(俗稱 王宮塔)其三'이다. 사진은 남동쪽에서 북서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1층 탑신석 사이가 살짝 벌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왕궁리 오층석탑

1917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에 실려 있고(도판번호25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30150)으로 남아있다. 제목은 '왕궁면 왕궁탑 북면王宮面 王宮塔 北面'이다. 사진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사진 오른쪽에는 탑 부재로 추정되는 석재가 떨어져 있고 1층 탑신부의 균열이 뚜렷하며 옥개석 사이도 벌어져 있다. 탑신부의 균열된 틈으로 석탑 내부의 심주가 보이고 있어 불과 7년 사이에 붕괴가 가속화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왕궁리 오층석탑

1930년 다나카 슈조田中十藏가 촬영한 사진으로서 『소화5~7년도 북명서-경상북도 경주군 칠곡군 전라북도 익산군 성지조사昭和五七年度復命書-慶尙北道 慶州郡 漆谷郡 全羅北道 益山郡 城地調査』에 첨부되었다.<sup>29</sup> 제목은 '왕궁탑王宮塔'이다. 사진은 남동쪽에서 북서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기단부는 흙으로 덮여 있고 1층 탑신석 부재 사이가 벌어져 있다.



29)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7





## 왕궁리 오층석탑

촬영 연대를 알 수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19066)이다. 사진은 남동쪽에서 북서쪽을 향해 촬영되었는데 탑 주변에 설치된 목책과 출입문이 확인된다.



[표기] 『조선고적도보예설』의 '왕궁리 오층석탑' 기록(사진 10~15)

전라북도 익산군 왕궁면의 마한 왕궁지라 불리는 곳의 앞에 있다. 석조 오층탑으로, 높이 약 30척이며 기단은 흙 속에 매몰되었다. 양식은 앞의 미륵사 석탑과 비슷하다. 어쩌면 동시대에 건설되었을 수도 있다. 각 층의 모서리 옥개받침석은 높고, 모서리 옥개석 부附는 얇고, 덮개는 크게 하여 경사勾配가 낮고, 줄어드는 계감遞減 속에서 자못 안정된 상층狀重의 무게균형權衡을 얻었다.

## 왕궁리 오층석탑 기단부

촬영 연대를 알 수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19067)이다. 흙으로 덮여 있던 기단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흙을 제거한 후의 모습으로 판단된다. 석탑 기단 외부 석재가 결실된 모습이 확인되고 팔각 초석이 탑신석의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가 주목된다.





### 3. 쌍릉

익산 쌍릉雙陵은 오금산(해발 120m)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북쪽 말단부에 소재한 대왕묘와 남쪽의 소왕묘, 두 고분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조선시대까지는 『고려사高麗史』,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서 마한의 왕릉으로 언급되었다.

쌍릉은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과정에서 1910년과 1917년 두 차례 등장한다. 세키노 조사단은 1910년 대왕묘와 소왕묘의 위치를 확인하고 각각 사진을 촬영하는 정도의 기초조사만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명치43년도 조선고적조사약보고 明治四三年度朝鮮遺蹟調査略報告』(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에서 쌍릉을 마한의 고분으로 추정한 이유는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1915년 작성한 『조선고적조사해설』에서도 후조선·백제·마한 등을 언급하면서 명확한 판단을 유보한다(70쪽).

1917년 겨울, 익산을 찾은 야쓰이 조사단은 쌍릉을 발굴하고 쌍릉이 백제후기의 왕릉급 무덤이라고 판단하였다. 두 무덤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널길이 중앙에 있으며, 천정은 단면이 육각형인 피임식을 하고 있어 능산리 백제 왕릉과 매우 유사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삼국시대 백제의 산물로 판단되었다. 이에 관한 기록은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표 6)와 『야쓰이 고적조사위원 북명서谷井古蹟調査委員復命書』(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9)에 남아있다.

최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발간된 『익산 쌍릉』 재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sup>30)</sup>

“야쓰이가 조사 후 남긴 북명서에는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나, 유리건판 사진을 통해 대략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익산 쌍릉 조사 당시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은 7매이다. 이중 건판30152(사진 3)는 조사 전의 상황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나 대왕묘와 소왕묘 중 어느 것을 촬영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건판 20650(사진 4)은 사진의 가운데 부분을 확대하여 보면 중앙에 위치한 풀대 뒤편으로 고분 조사 중인 3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대왕묘와 소왕묘의 구분이 어렵지만, 사진의 좌측 하단에는 연도 입구를 찾기 위하여 수직 방향으로 굴착한 흔적이 있다. 소왕묘가 대왕묘에 비해 해발고도가 낮고 사진의 시점이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왕묘의 조사를 먼저 끝낸 후 대왕묘 쪽을 향하여 찍은 사진으로 보인다. 고분 조사방법은 대왕묘 조사 상황을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을 볼 때 연도를 찾아 수직으로 파내려 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막음돌을 들어낸 대왕묘의 석실 내부에서는 장방형의 판대 위에 놓여진 1기의 목관이 수습되었는데, 유리건판 사진으로 볼 때 파손되기는 하였지만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판 뚜껑 옆면에 판정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연도 입구에서 석실 내부를 찍은 사진에는 판대 앞에 뒤집혀 놓여 있는 토기(완) 1점과, 석실 내부에서 연도 밖으로 촬영한 사진에서는 육각형의 석실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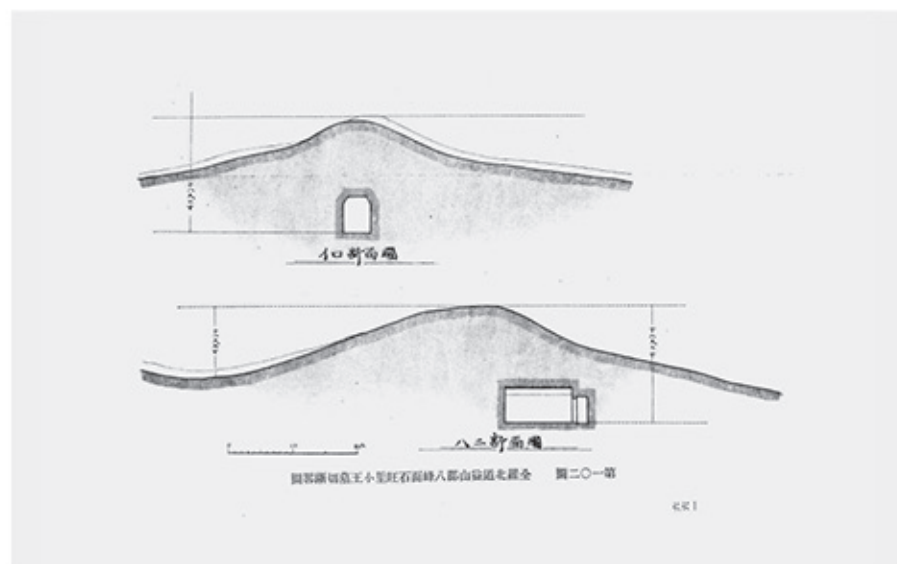
30) 당시 익산 쌍릉의 조사는 순수한 학술적 목적이 변질된 상태에서 조선총독부 조사위원인 야쓰이 세이이쓰에 의해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 이후 출토유물의 정리와 보고서의 발간작업 등에서도 소홀하여 발굴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쌍릉에 대한 구체적 현황과 출토유물의 학술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2015, 『익산 쌍릉』, 14쪽.)

31) 국립전주박물관, 2015 앞의 글, 26~27쪽.

팔봉면 석왕리가 된 신왕리의 구릉 위에 남북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북쪽은 대왕묘大王墓, 남쪽은 소왕묘小王墓라 부른다. 흔히 이 부근의 땅을 왕요리라 부르며, 마한시대의 왕요라 전해진다. 양쪽 모두 봉토의 유실流下이 심각하다. 대왕묘에는 부여 능산리의 백제 왕릉이라 전해지는 것과 같이 사실로 추정되며, 능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토분 주위로 원형의 호석이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사라져 일부만 남아 2, 3개가 남아있다. 석곽은 화강암 석재를 이용해 만들었고, 이는 부여 능산리의 백제 왕릉이라 전해지는 것과 동일한 형식이다. 현실 안에는 목관이 잔존하며, 그 대부분은 노후 되었으나, 그 전체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실로 백제시대 말기의 왕족의 관제制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하게 중요한 유물이다. 후일 정밀한 복원도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할 것이다. 이 무덤은 전에 이미 발굴되어 부장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실 입구에서 도제 完碗 1점을 발견하였을 뿐이다. 소왕묘에는 근래 발굴의 흔적이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수년 전 군수가 이것을 파고자 하였으나, 석곽에는 이르지 못하고 중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분묘는 그 이전에 도굴의 피해를 받아 지금은 어떠한 부장품도 남아 있지 않다. 소왕묘와 대왕묘는 동일한 형식이며, 다만 그 외형의 대소, 석곽의 대소가 있을 뿐이다.

큰 것과 작은 능묘의 구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구조상으로 판단하였을 때 백제시대 말기 왕족의 능묘라는 점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왕묘에서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 목관을 얻은 것은 그 시대의 능묘 연구를 위한 자료를 얻었음에 의미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백제시대 유적에 관한 특별보고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

[도면 3] 논문·보고서에 실린 쌍릉 도면



소왕묘 절단약도(『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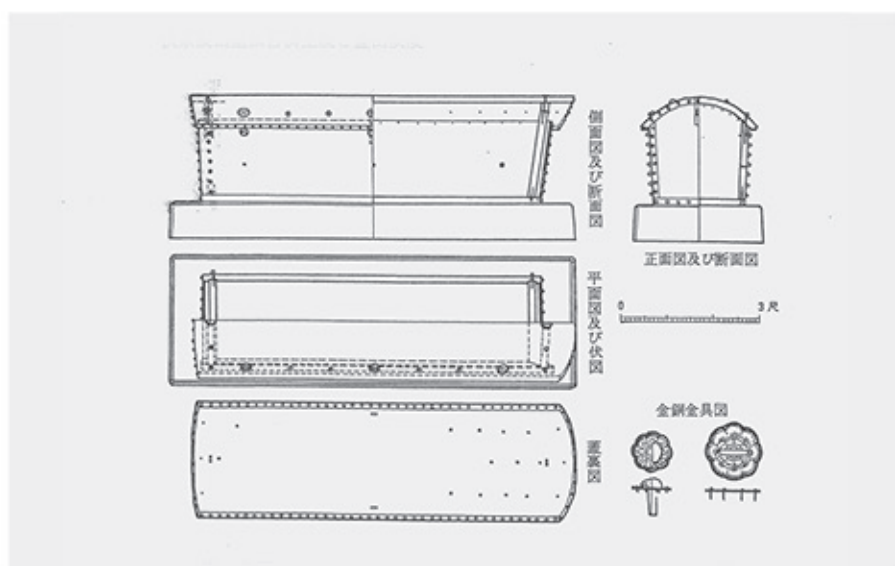
소왕묘 평면약도(『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



발굴 후 더 이상 쌍릉을 촬영한 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1920년을 전후하여 봉토를 다시 만들고 보존시설을 정비하였다는 기록은 있지만 사진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수습한 목관과 유물, 실측도면만 사진자료로 남아있다. 더 정확한 보고서와 도면이 작성되지 못했던 이유는 1921년 조사책임자였던 야쓰이의 일본행이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스럽게도 야쓰이의 기록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1924년 오바 쓰네키치가 쌍릉 출토 유물을 정리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 후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1940년 「보존령」에 의거 고적으로 지정, 보존되었다는 기록이 마지막으로 보인다.

광복 이후에는 쌍릉의 소략했던 보고 내용과 도면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1979년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가 『부여 능산리 전 백제왕릉·익산 쌍릉(扶餘陵山里傳百濟王陵·益山雙陵)』이라는 제목으로 쌍릉에 대한 대왕묘 도면 등을 공개하면서 쌍릉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으며<sup>32)</sup>, 쌍릉 발굴 100주년인 2017년 현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쌍릉을 재조사 중이다.

32) 有光教一, 1979, 『扶餘陵山里傳百濟王陵·益山雙陵』, 『檀原考古學研究所論集』第四, 檀原考古學研究所.



익산 대왕묘 석실 실측도(有光教一 1979)



익산 대왕묘 분구 실측도(有光教一 1979)

## 쌍릉 대왕묘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조선고적도보』 3권에 실려 있고(도판번호66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28207)로 남아있다. 제목은 ‘두천면 왕묘리 쌍릉 기일(북쪽) 豆川面 王墓里 雙陵 其一(北塚)’이다. 가장 이른 시기에 촬영된 쌍릉의 사진이나 촬영 방향은 알 수 없다. 봉분의 형태는 남아 있으나 유수에 의해 봉분의 여러 곳이 파여 있고 아래쪽은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하다.



## 쌍릉 소왕묘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조선고적도보』 3권에 실려 있고(도판번호67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28215)로 남아있다. 제목은 ‘두천면 왕묘리 쌍릉 기이(남쪽) 豆川面 王墓里 雙陵 其二(南塚)’이다.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봉분 위에 사람이 서 있다. 봉분의 형태는 비교적 온전하며 주변 지형은 침식되어 있다.



[표 9] 『조선고적도보해설』의 ‘쌍릉’ 기록(사진 1~2)

예로부터 후조선 무강왕 및 왕비의 능이라고 하였고, 백제 무왕의 능이라고도 전해지는 것도 믿기 어렵다. 혹은 마한시대의 것인가. 양 무덤은 모두 봉토封土의 형태가 온전하다.



### 익산 쌍릉

1917년 야쓰이 조사단이 촬영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30152)이다. 제목은 '익산 쌍릉 益山 雙陵'이다. 발굴조사에 앞서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되는데 어느 곳의 사진인지 알 수 없다.



### 익산 쌍릉

1917년 야쓰이 조사단이 촬영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20650)이다. 제목은 '전북 익산 쌍릉全北 益山 雙陵'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사진 아래 부분에 보이는 굴착 흔적과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소왕묘에서 대왕묘 쪽을 향해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한 바 있다.<sup>33)</sup> 고분 위에서 몇 사람이 발굴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다.



33) 국립전주박물관, 2015, 앞의 글, 26쪽.

## 쌍릉 대왕묘 연도 입구

1917년 야쓰이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에 실려 있고(도판번호25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전판29470)로 남아있다. 제목은 '쌍릉 대왕묘 연도 입구 폐쇄 상태 雙陵 大王墓 羨道 入口 閉塞 狀態'이다. 사진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널길을 찾기 위해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굴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방형의 판석이 널길 입구를 막고 있고 널길 천정 뚜껑돌 위에는 입구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놓인 것으로 추정되는 폴대 pole가 보인다.



## 쌍릉 대왕묘 현실 내부

1917년 야쓰이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에 실려 있고(도판번호25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전판20734)로 남아있다. 제목은 '익산 쌍릉 대왕묘 현실 내 목관 잔존 상태 益山 雙陵 大王墓 玄室 內 木棺 殘存 狀態'이다. 사진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무덤방 개방 후 내부를 향해 촬영한 사진이다. 널길 바닥은 무덤방과 높이가 같고, 널길은 무덤방 중앙과 연결되어 있다. 무덤방 안에는 관대와 부서진 목관이 확인되고 관대 앞에는 도제완이 보인다.





## 쌍릉 대왕묘 현실 목관 출토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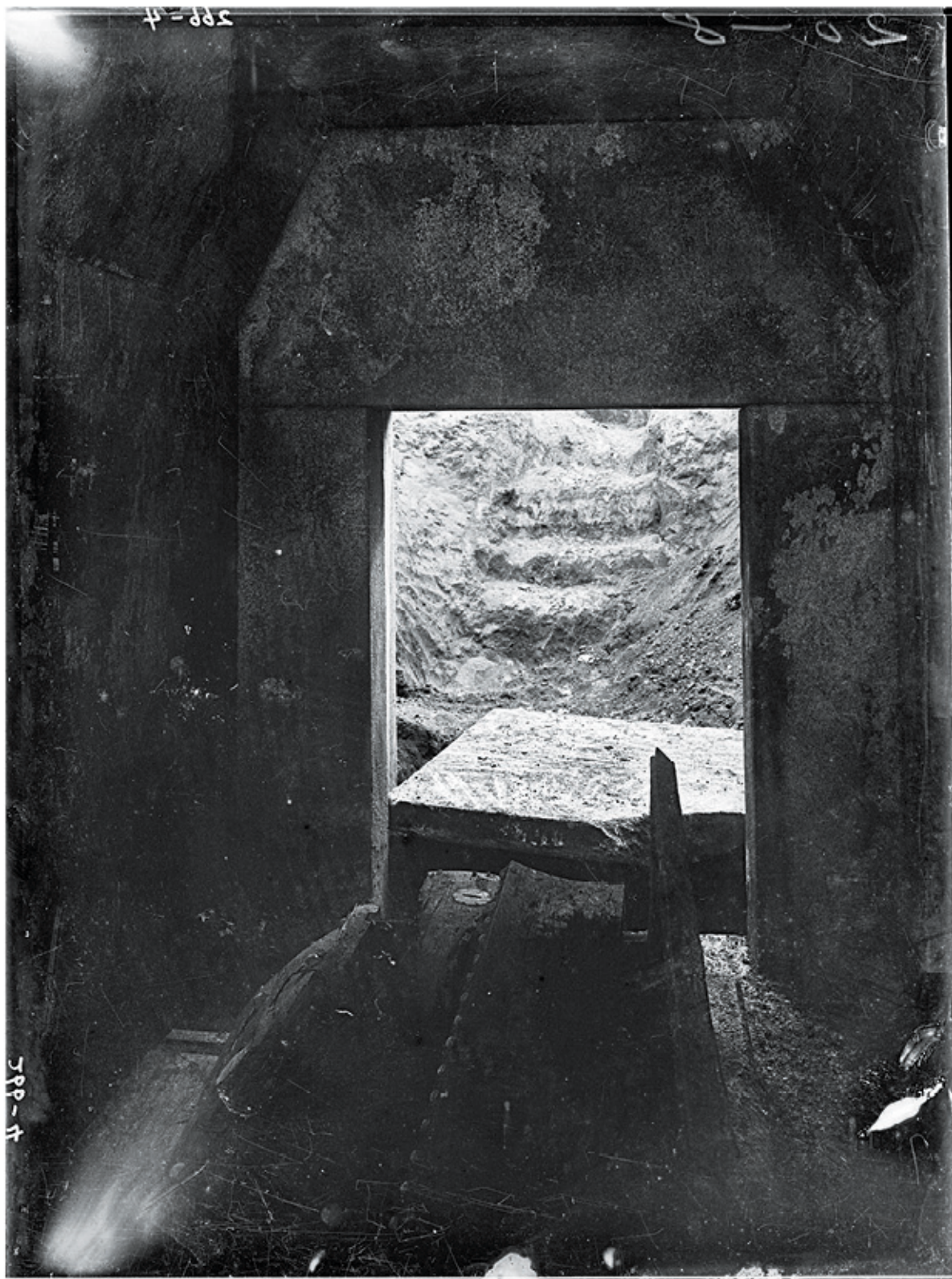
1917년 야쓰이 조사단이 촬영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29465)이다. 제목은 '익산 쌍릉 대왕묘 현실 목관 출토 상태 益山 雙陵 大王墓 玄室 木棺 出土 狀態'이다. 앞의 사진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촬영되었다. 목관은 옆판이 바스러져 주저앉았으나 덮개는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관받침 앞에 도제 완이 얹어진 상태로 놓여 있다.





쌍릉 대왕묘  
현실 내부에서 본 입구

1917년 야쓰이 조사단이 촬영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진판20736)이다. 제목은 '익산 쌍릉 대왕묘 현실 내부에서 본 입구 益山 雙陵 大王墓 玄室 內部 入口'이다. 사진은 대왕묘 무덤방 안에서 바깥을 향해 촬영되었다. 야쓰이 조사단은 무덤방 바깥으로 흙으로 계단을 만들어 출입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문비석門扉石을 들어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 단면 육각형의 석실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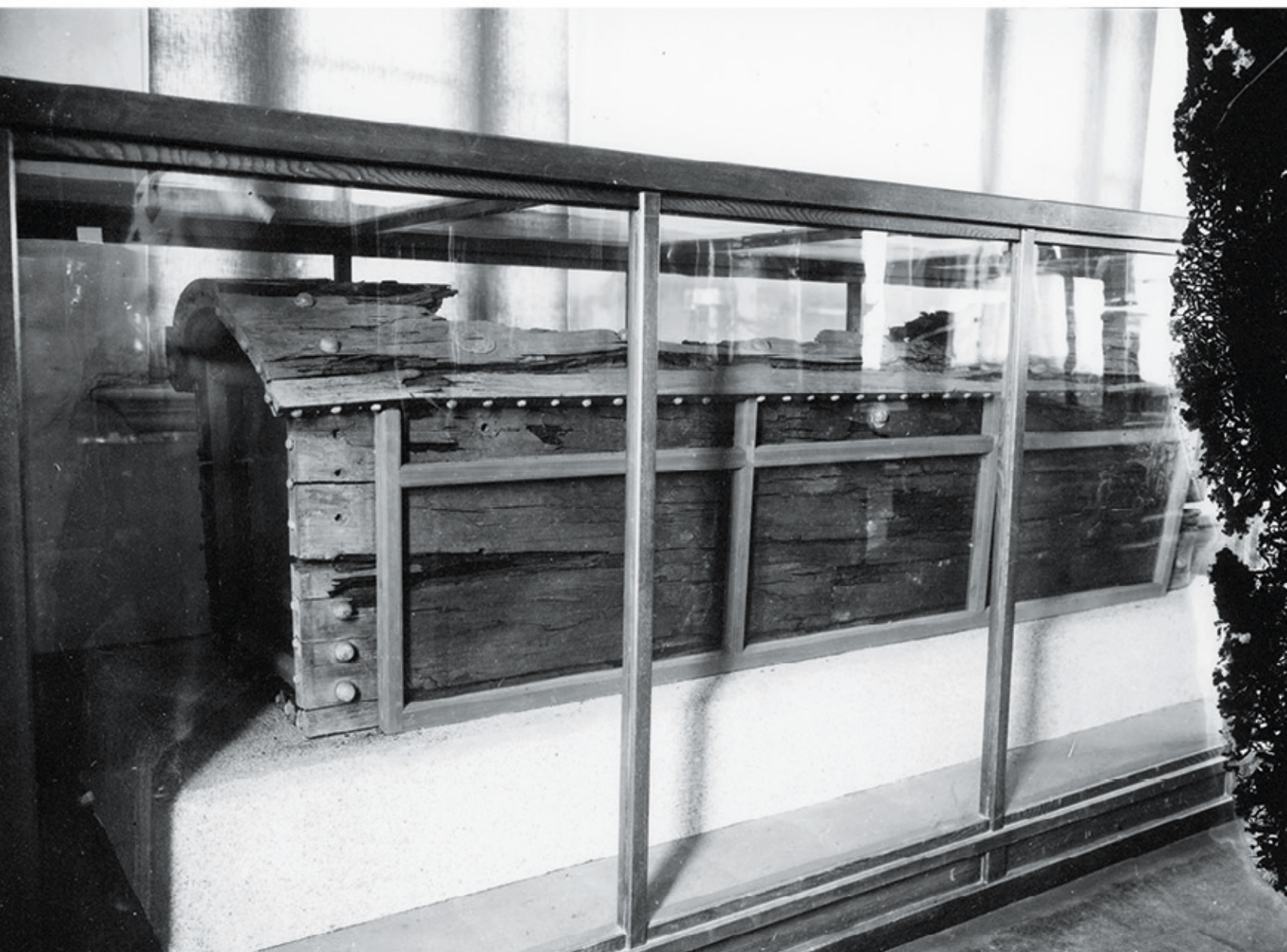




## 쌍룡 대왕묘 출토 목관 복원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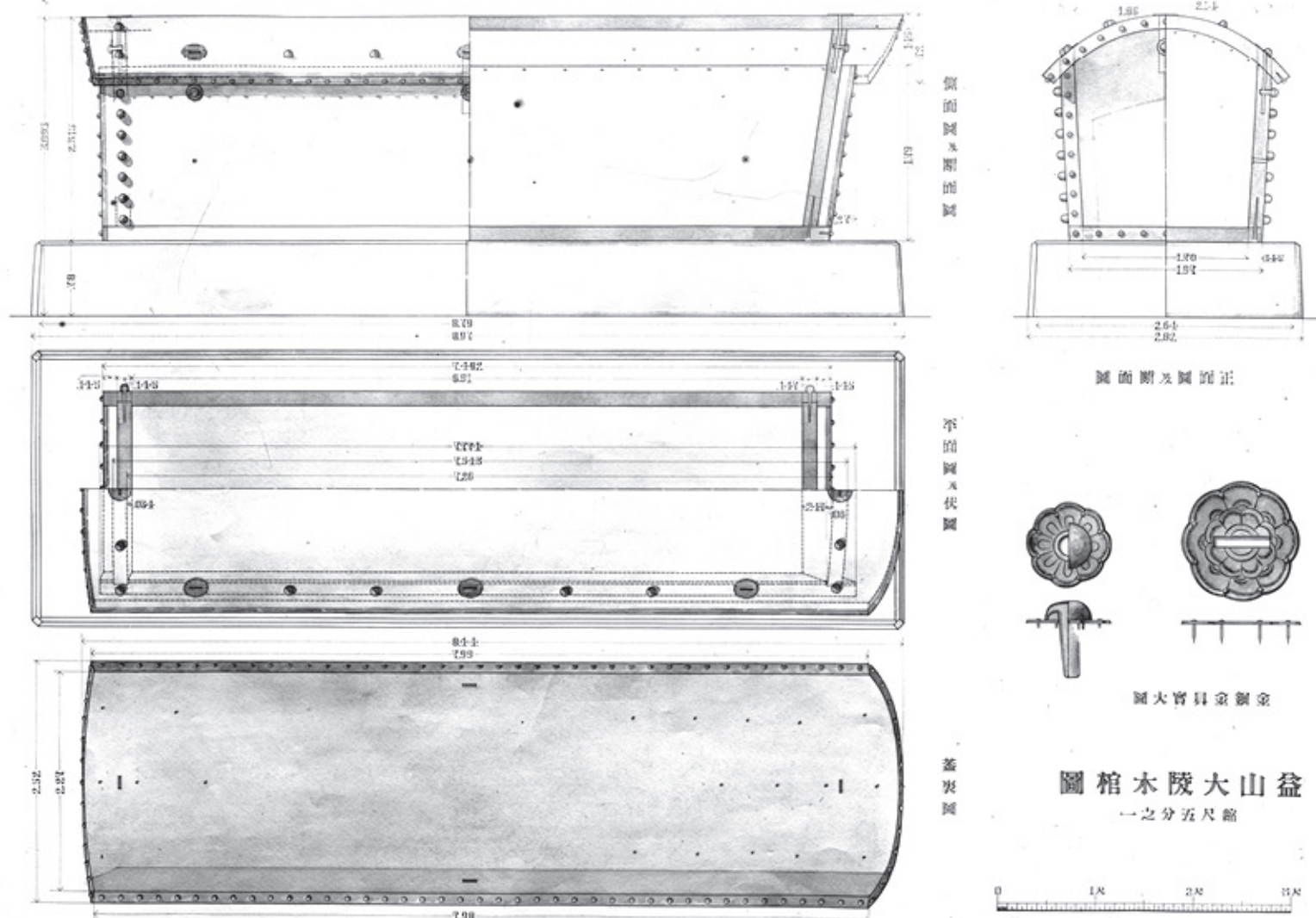
촬영 연대를 알 수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전판25419)이다. 유제면 우측이 오염되었다. 제목은 '익산 쌍룡 목관 복원품益山 雙龍 木棺 復原品'이다. 쌍룡 대왕묘 무덤방 목관은 복원을 거쳐 조선총독부박물관 1층 제2실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4번째 장에서 전시되었다.<sup>34</sup> 목관은 광복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수하였다(본관 5943).

34) 朝鮮總督府博物館, 1926, 『博物館報』11-1.



## 쌍룡 대왕묘 목관 실측도

1917년 촬영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15561)이다. 제목은 '익산 대릉 목관도益山大陵木棺圖'이다. 대왕묘 목관을 복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면을 촬영하였다. 목관과 금동금구의 실측 수치와 결구 방법이 도면에 표시되었다. 아리미쓰가 1979년 공개한 도면자료와 동일하다.





## 쌍릉 대왕묘 출토 토기

촬영 연대를 알 수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 20643)이다. 제목은 '익산 쌍릉 대왕묘 석곽 내 출토 완<sup>35</sup> 益山 雙陵 大王墓 石槨 內 出土 盥'이다. 전주박물관 보고서에서는 "출토 상태로 보아 소형완은 원래 석실 내 관대 위에 바르게 놓여 부장되었으나 후에 목관이 붕괴되거나 도굴 등으로 인해 상면으로 떨어지면서 엎어진 것으로 추정된다."<sup>35</sup>고 언급하고 있다. 도제완은 광복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수하였다(본관5942).



35) 국립전주박물관, 2015, 앞의 글, 28쪽.

## 쌍릉 출토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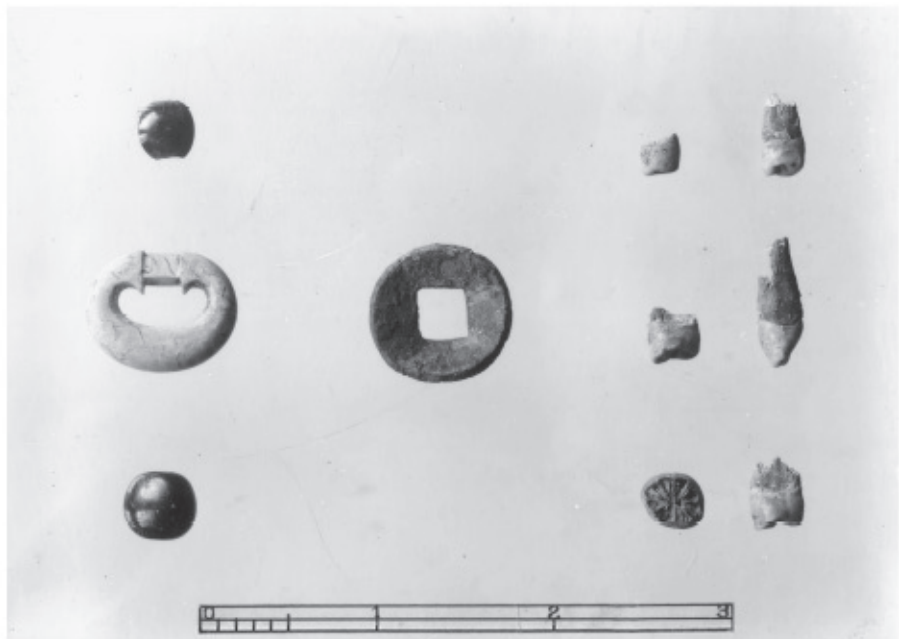
촬영 연대를 알 수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 20647)이다. 제목은 '익산 쌍릉 출토 토기편<sup>36</sup> 益山 雙陵 出土 土器片'이다. 사진에 보이는 토기편 가운데 우측 하단의 토기편만 실물로 확인되고 있다.<sup>36</sup> 토기편은 광복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수하였다(본관5948).



36) 국립전주박물관, 2015, 앞의 글, 82쪽.

## 쌍릉 대왕묘 목관 출토 유물

촬영 연대를 알 수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 20642)이다. 제목은 '익산 쌍릉 대왕묘 목관 내 출토 유물 益山 雙陵 大王墓 木棺 內 出土 遺物'이다. 사진은 대왕묘에서 출토된 옥제 장신구, 소옥, 방공좌금구, 치아를 촬영한 것이다. 해당 유물은 광복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수하였다(본관5938). 사진 왼쪽 상단의 소옥편과 하단의 소옥, 그리고 가운데 줄의 방공좌금은 한국 전쟁 때 망실되었다.



## 쌍릉과 부여 능산리 중상층 목관 장식

1927년 촬영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16278)이다. 제목은 '익산 쌍릉 충남 부여 중상층 목관 장식 益山 雙陵 忠南 扶餘 中上層 木棺 裝飾'이다. 쌍릉 출토품과 부여 능산리 중상층 출토품을 함께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sup>37)</sup>



본관5943



37)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발간한 『익산 쌍릉』에서는 도금두금구 3점 모두 소왕묘 출토품으로 언급하였으나, 이병호는 상단 중앙 능형 모양의 한 점은 소왕묘 출토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국립전주박물관, 2015, 앞의 글, 47쪽; 이병호, 2016, 「일제강점기 익산 지역의 고적 조사와 쌍릉 출토품」, 『百濟文化』56, 339쪽)



15

## 쌍룡 소왕묘 출토 도금투금구

촬영 연대를 알 수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27755)이다. 해당 유물은 광복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수하였다(본관5936). 제목은 '익산 쌍룡 소묘 출토 금동투조장식益山 雙陵 小墓 出土 金銅透彫裝飾'이다. 쌍룡 출토 도금투금구와 부여 능산리 출토 유물을 함께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본관5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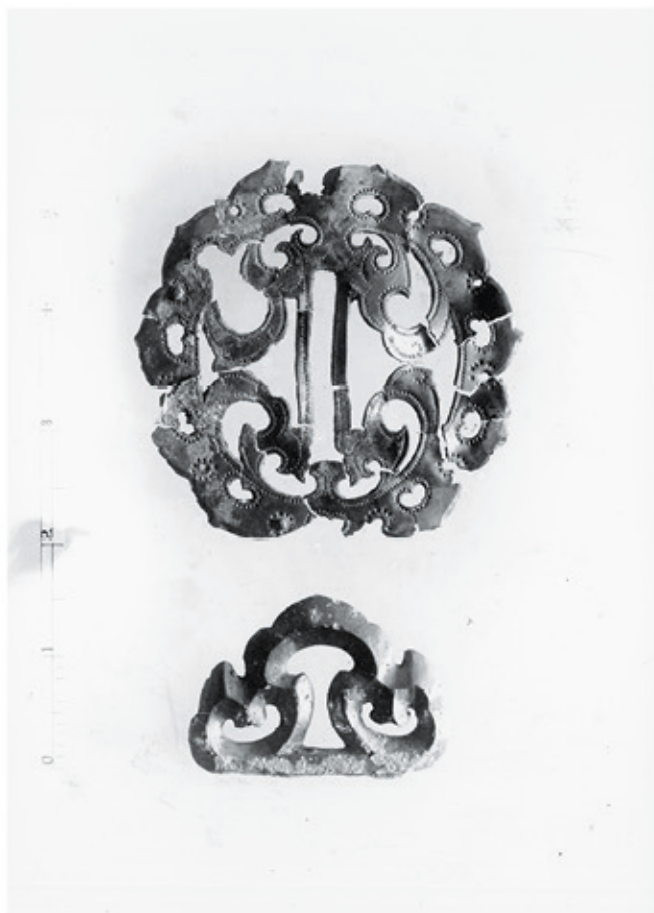
16

쌍룡 출토  
금동투식좌금구와 도금투금구

촬영 연대를 알 수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27771)이다. 제목은 '익산 쌍룡 출토 금동투조장식益山 雙陵 出土 金銅透彫裝飾'이다. 해당 유물은 광복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수하였다(본관5936, M306). 사진 위의 유물은 금동투식좌금구이며 아래 유물은 도금투금구이다.



M306



## 4. 연동리 석불 등 기타 문화유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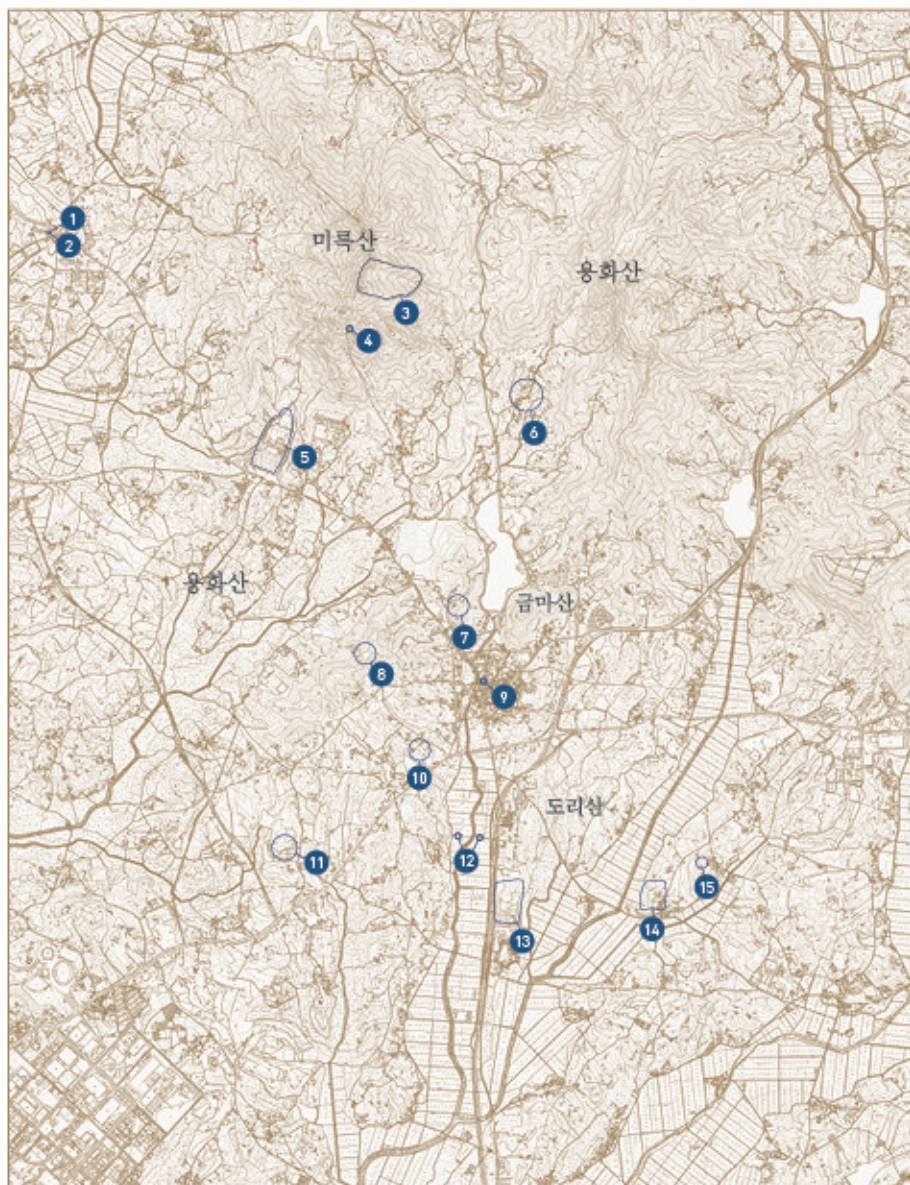
### 익산 부근 지형도

『조선고적도보』 3권에 실려 있는 익산 부근 지형도(도판번호664)이다. 1/50,000 지형도에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의 조사 대상 유적을 표시한 도면으로 판단된다.

지도 왼쪽 윗부분에는 미륵산 능선을 따라 성곽을 표시하고 ‘기준성美津城’을 기입하였다. 미륵산 남서쪽과 서쪽에는 ‘폐미륵사탑廢彌勒寺塔(현 미륵사지 석탑)’과 ‘석불石佛(현 연동리 석불입상)’을 표기하였다. 지도 중앙의 익산(益山: 현 금마면 소재지) 서쪽과 남쪽에는 ‘쌍릉雙陵’과 ‘석인石人(현 고도리 석불입상)’을 적어 넣었고 ‘석인’ 옆에는 왕궁리 유적의 범위를 직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왕궁평王宮坪(현 왕궁리 유적)’과 ‘탑塔’을 기입하였다. 그 밖에 석불리, 사자암, 궁평宮坪(현 제석사지) 등 주요 유적에도 빗금이 쳐져 있다.

익산 금마면·왕궁면 일대 주요 문화유산

연번	유적명
1	연동리 석조여래입상
2	연동리 기와 가마터
3	미륵산성
4	사자암
5	미륵사지
6	신동리 토기 가마터
7	금마 도토성(저토성)
8	익산도성
9	객사
10	마룡지
11	쌍릉
12	고도리 석불입상
13	왕궁리 유적
14	제석사지
15	제석사지 폐기 유적



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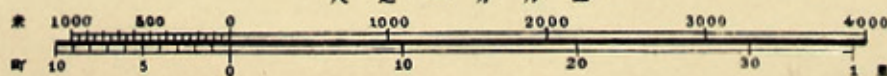
[표 10] 『조선고적도보해설』 ‘익산 부근 지형도’ 기록

전라북도 익산군은 마한의 중요지점으로 아마도 마한 54국 중 건마국乾馬國의 땅일 것이다. 읍의 북서쪽 약 1리 용화산(일명 미륵산)위에 기준성이라 전해지는 석성지가 있다. 읍의 남쪽 왕궁면 왕평리에 마한 왕궁지라 전해지는 토성지가 있다. 읍의 서남 약 20정町 팔봉면 왕묘리에는 쌍릉이라 칭해지는 토분 2기가 있다.





五万分之一之尺





## 미륵산성

38) 김정배, 1976,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諸問題 - 益山の 靑銅器文化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13.

39)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8, 『미륵산성 건물지 및 남문지 발굴조사보고서』.

미륵산성을 촬영한 3매의 사진이다. 사진 2-1과 2-2는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하였으며(전판535, 28209) 『조선고적도보』 3권에는 1매(전판28209)가 실려 있다(도판번호668). 나머지 1매(2-3)는 촬영 연대를 알 수 없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각종 지리지는 미륵산성이 기준성으로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세키노 또한 『조선고적도보해설』에서 '남아있는 것(성벽)은 후대에 수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형은 마한시대의 산성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부기하고 있다. 광복 이후 미륵산성에서는 초기 형태의 세형동검과 동주식동검의 손잡이 부분이 수습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38</sup> 또한 최근 발굴조사에서 동모 1점과 백제 토기파편이 확인되었으나 삼국시대 이전의 축성을 뒷받침하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sup>39</sup>

[표 11] 『조선고적도보해설』 '미륵산성' 기록

전라북도 익산군 용화산(일명 미륵산)에 있다. 산의 꼭대기로부터 골짜기 사이에 펼쳐 둘러싼 것은 석벽石壁이다. 기준이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 생각건대 남아 있는 것은 후세에 수축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지형은 마한시대의 산성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2-2



2-3



## 사자암 석탑

사자암 석탑을 촬영한 2매의 사진이다. 첫 번째 사진(3-1)은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하였으나 두 번째 사진(3-2)의 촬영자와 연대는 알 수 없다. 두 사진 모두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544, 19063)이다. 사진의 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촬영되었다.

이 석탑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원형을 상실하고 석탑과 석등, 부도의 부재를 혼용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sup>40</sup> 강점기 건판 사진과 1992년 발굴조사 전 사진,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석탑의 형태와 부재 위치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탑의 원 위치도 불분명하다. 현재 석탑은 대웅전 앞에 세워져 있지만 1980년대 이전에는 사자암에서 남쪽으로 30여m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sup>41</sup>

3-1



40) 일제강점기 사자암의 석등과 부도가 도난·반출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1910년 사자암의 석등과 작은 불상을 도난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1927년 경 사자암에 있던 부도 1기가 당시 주지에 의해 일본인에게 매각되어 군산으로 반출되었고 사자암 동쪽에 대좌와 부재 일부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국외소재문화재재단(왕수영 편), 2014,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393쪽.)

41) 부여문화재연구소, 1992, 『사자암발굴조사보고서』, 213쪽.





3-2

사자암 석탑



3-3

사자암 발굴조사시 사진

(부여문화재연구소 1992)





##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광배

[표 12] 『조선고적도보해설』 ‘연동리 석조광배’ 기록<sup>42)</sup>

광배는 우수한 걸작으로 중심에는 연화를 세기고 그 바깥에는 복사輻射 모양 및 이중 동그라미重圓 모양의 띠를 돌렸으며, 그 바깥에 화염 사이 일곱 소불小佛의 상을 세겨 놓았다. 소불은 모두 연좌蓮座 위에 있다. 화염과 함께 잘 다듬어져 기공技工이 잘 완성되었다. 연좌는 대개 당대 말기, 즉 후백제의 건립 때의 제작일 것인지 확실치 않다. 다소 웅대한 여영餘影을 보기에 족하다.

42) 연동리 석조광배와 금산사 석도연화좌를 같이 다루었다.



##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의 불상과 광배 사진으로 광배 사진은 『조선고적도보』 5권에 실려있고(도판번호1931) 불상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543)로 남아있다. 세키노 조사단의 조사 내용에서 사찰의 존재 여부나 불상의 봉안 장소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불상의 뒤쪽에 흙벽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실내에 안치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광배는 불상에서 이탈해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조선총독부 박물관 공문서6).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은 불신佛身, 대좌臺座, 광배光背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백제의 작품이며 불상의 높이는 156cm이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불두佛頭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이 자료로 인해 1910년 이전부터 꼭 존재하였다는 점을 알게되었다.



## 고도리 석불입상

고도리 석불입상을 촬영한 3매의 사진이다. 첫 번째 사진(5-1)은 1910년도에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것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전판34226)이다. 나머지 사진(5-2, 5-3)은 1934년 후지타 료사쿠가 촬영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석불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사진 5-3), 5-1은 동쪽의 석불을 촬영한 1910년의 사진이며 5-2는 동쪽 석불과 약 200m 떨어져 있는 서쪽의 석불을 1934년 촬영한 사진이다.

서쪽의 석불은 동쪽의 석불에 비해 남성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마지막 사진은 동쪽의 석불입상에서 서쪽의 석불입상을 바라 본 사진이다. 두 석불은 평소에 헤어져 있다가 설날 그믐날 밤 자정에 옥룡천이 얼어붙으면 서로 만나 회포를 풀고 첫 닭이 울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민담이 전승되고 있다.(논고 3)



## 고도리 석불입상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제공









## 이승원 좌리공신교서

조선 성종 즉위 공신 중 한 명인 이승원에게 성종3년(1472) 내려진 녹권(錄券)을 1910년 세키노 조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 30381, 30382, 30383)이다. 제목은 '성화 8년 6월 여이승원교서(成化八年六月與李崇元敎書)'이다. 당시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 73인에게 좌리공신(佐理功臣)의 칭호가 내려졌는데 이승원은 3등 공신인 순성명랑좌리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으로 정해졌다. 좌리공신교서는 공신 개개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공신의 수와 같게 발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당시 녹권의 소장자는 이인성(李麟性)으로 기록되었다.





純誠則其功足以自易矣夫天行象政院  
 左承旨兼總進奏官春館館備撰修  
 源者宮亮  
 王若曰古者帝王之治國也德懋者官之功  
 懋者賞之所以勵一世也德不忘也治卿純  
 懋不華聰警過人學優文賔登捷巍科  
 應職中書出入臺諫清風亮節  
 越予踐阼之初卿在喉舌寔司譏獄固能  
 仁恕明慎敷奏之間多所平反使吾元  
 有賴用敷予一人之慶蓋稱褒典以答  
 爾庸歸榮卿為佐理三等功臣立閭閻  
 形樹碑紀功爵其父母妻子超一階嫡長  
 世襲不失其祿子孫則世守政業曰依  
 理三等功臣崇允之後雖有罪犯者及  
 永世仍賜伴倘六人奴婢三口丘史三名田  
 二十結表裏一股內厩馬一匹至可領也其  
 有無子者甥姪女婿加一階且與同功者並  
 錄于後於戲予惟爾股肱肅賴其勳茲特  
 命司本印其欽之教茲教示想

6-1

四等  
 金守溫 李石亨 尹程商 許琮  
 黃孝源 柳洙 魚有治 咸禹治  
 李埴 金吉通 宣炯 禹貢  
 金燭 吳仲昌 朴居謙 李鐵堅  
 韓致仁 具文信 李洲珩 鄭蘭宗  
 鄭崇祖 李承台 韓致義 韓煥  
 金壽寧 韓致禮 韓曦 李永根  
 李克敬 李壽男 鍾 申潯  
 金順命 柳輕 沈翰 申浚

成化八年三月五日

6-3



## 황등에서 바라본 석기시대 유적지

1915년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촬영한 사진으로서 『대정4년도(도리이 측량조사) 제5회 사료조사 사진원판목록』(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5)에 목록만이 실려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3129, 3130)로 남아있지만 현재 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 파노라마 기법으로 촬영된 두 매의 사진은 서로 합쳐진다.



## 황등에서 바라본 미륵산성

1915년 도리이 류조가 촬영한 사진으로서 『대정4년도(도리이 측량조사) 제5회 사료조사 사진원판목록』에 목록만이 실려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3131, 3132)로 남아 있다. 황등면 요교(腰橋) 근방에서 미륵산을 바라 본 사진이다. 사진 속에 보이는 호수는 요교호(腰橋湖)로 추정된다. 요교호는 1909년 후지이 간타로(藤井寛太郎)가







창립한 임익수리조합이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황동제黃登堤를 개수하면서 만들어진 저수지였는데 1936년 농경지로 간척되었다. 파노라마 기법으로 촬영된 두 매의 사진은 서로 합쳐진다.





## 황등면 고인돌

1915년 도리이 류조가 촬영한 사진으로서 『대정4년도(도리이 측탁조사) 제5회 사료조사 사진원판목록』에 목록만이 실려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3133)로 남아 있다. 제목은 황등면 고인돌이지만 현재 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



## 화암서원 부근 '화암동문' 각석

1932년 다나카 류조와 가야모토 가메지로가 촬영한 사진으로서 「공주, 부여, 익산, 창녕 지방 고적 보존 상황 시찰 복명서」(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17)에 실려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38087)로 남아있다. 유리건판 유제면 일부가 잘려나갔다. 제목은 '익산 화암서원 부근 화암동문益山 華巖書院 附近 華巖洞門'이다. 화암서원은 미륵사지 석탑 북쪽 약 600m 지점에 자리잡고 있으며 광해군 4년(1612)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화암동문이 새겨진 바위는 미륵사지 사역 북편의 조선시대 기와가마터 북쪽 100m 지점에 남아 있다.





## 11

석왕리 삼숙율三熟栗  
(일 년에 세 번 열리는 밤나무)

1934년 우에키 호미키가 촬영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자료(건판11543, 11544, 11545)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익산군 조에 '익산군 서쪽 10리에 있는 당산에 1년에 세 번 열리는 밤나무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0) 이 사진은 삼숙율 관련 전승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11-1



11-2



11-3

# III

##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로 보는 익산의 문화유산





右側面



#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로 보는 익산의 문화유산

이 장에서는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작성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생산·보관하던 문서이다. 문서의 내용에는 조선총독부의 조직·기능·정책의 변화에 따라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실시한 기부·진열·구입·발견·지정·고적조사·보존·국유림에 관한 사업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는 생산·접수한 문서들을 당시 규정에 따라 조선총독부 문서과로 옮겨 보관했는데 문서 작성에 활용된 각종 자료와 원고 등은 자체적으로 보관하였다.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는 봉투에 보관된 채로 소장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봉투 안에 소장되어 있으면 그 묶음을 <권>으로 분류한다. 각 권에는 낱장 또는 제본된 형태의 다양한 공문서가 존재하며, 각 권별로 적게는 10여 장 많게는 1,500여 장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다.<sup>1)</sup> 이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문서철(Series)-문건(File)-문서(Item)의 단계로 기록물 관리 ‘원질서의 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로 정렬하였다.

이 문서로 인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입수된 수많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중요 문화재들에 대한 발견 경위, 발굴조사 내역, 수입의 전말, 보수 공사의 과정, 훼손에 얹힌 증거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겨진다. 또 남아 있는 자료 속에서 각 분야별로 실시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 식민정책의 실상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남아있는 문서들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나뉘는 조선총독부 문서 편철 규정을 지킨 문서철이 거의 없고 일부 문서철은 풀었던 흔적이 있으며 1~2년 단위로 다시 묶여 있는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완결 문서철에 표시하는 보존연한이 보이지 않는 것과 표지에 ‘폐안廢案’이라 도장 찍힌 문서철도 있다. 특히 문서에 ‘사료’라는 글씨가 쓰여있거나 도장이 찍힌 것이 있고 평가서에 ‘등사본’이라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으며 문서철 자체가 사본인 것도 있다.<sup>2)</sup>

일제강점기 익산 지역에 대한 내용이 담긴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는 40여 건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고적조사와 보존, 지정, 발견에 관한 것이다. 이 자료집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익산에 관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23건의 문서를 선별하여 자료집에 수록하였다.

1) 서동천, 2015,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보존’ 자료의 성격과 가치」,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의 재조명』, 4쪽.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소개(<http://modern-history.museum.go.kr>)

번호	대분류	문서번호	문서제목	편철제목	생산년도
1	고적조사	F042-002	-	明治四三年朝鮮古蹟調査略報告	1910
2	고적조사	F149-002	慶北安東府內面龍上里七重塔塔, 一直面五重塔塔, 邑南五重塔塔, 全北益山郡彌勒塔實測圖	古蹟實測圖(古蹟實測圖送付ノ件)	1915
3	고적조사	F090-007	古蹟保存費ニ關スル件	大正五-八年度古蹟調査關係綴	1916
4	고적조사	F021-007	全羅北道所在古蹟及遺物臺帳	古蹟及遺物登錄臺帳	1916
5	고적조사	F123-004	全羅北道	朝鮮遺蹟遺物之研究	1916
6	고적조사	F119-001	古蹟及遺物ニ關スル件	古蹟及遺物(京畿·忠北·忠南·全北·全南)	1916



7	고적조사	F058-005	第二回古蹟調査委員會 議案1 古蹟調査計劃, 議案2 古蹟調査計劃說明	古蹟調査委員會第一-十二回	1916
8	고적조사	F058-016 F058-018	大正六年度古蹟調査計劃 第五回古蹟調査委員會(決議)	古蹟調査委員會第一-十二回	1916 1917
9	고적조사	F001-018	谷井古蹟調査委員復命書	大正五-六年度復命書	1918
10	보존	A065-009 A065-034	大正八年度 古蹟及遺物保存施設ノ件 古蹟及遺物 保存施設ノ件	大正六-十古年度古蹟補修工事施行ノ件1	1919 1920
11	고적조사	F158-012	忠南·全南·全北古墳及烽燧址圖出膳寫	文化財記念物關係區域圖	1915~1923
12	고적조사	F137-003	谷井委員調査蒐集品目錄-羈島, 益山, 青陽, 夫餘 調査 蒐集品目錄	古蹟調査蒐集品引繼目錄3	1924
13	발견	B007-048	遺物發見ニ關スル件	大正十-十四年度埋藏物關係	1923~1924
14	고적조사	F057-006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事務報告	蹟調査委員會ニ關スル綴	1925
15	고적조사	F004-020	廣州 船里, 岩寺里 等 調査報告	大正十二-十五年 復命書	1926
16	고적조사	F057-011 F057-014	昭和三年度古蹟調査計劃 昭和三年度古蹟調査事務報告	古蹟調査委員會ニ關スル綴	1928
17	고적조사	F007-005	昭和五-七年度復命書	慶尙北道慶州郡漆谷郡全羅北道益山郡城址 調査	1930
18	고적조사	F009-030	公州·扶余·益山·昌寧地方古蹟保存狀況視察復命書	慶尙北道達城, 慶尙南道陝川, 晉州, 河東 出 張復命書 外	1932
19	지정	H052-004	全羅北道寶物指定目錄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一覽	1934?
20	지정	H054-002	-	昭和九年四月復命書	1934
21	고적조사	F104-013	昭和十年度保存及補助工事計劃	遺蹟遺物關係報告	1935
22	보존	A167-001	-	全羅北道 益山郡 王宮面 所在 五層石塔 修 理工事	1938~1940
23	지정	H045-018 H044-005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ノ標建ニ關スル件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ノ標建製作及建立費ノ件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 石標建立ニ關スル 件3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 石標建立ニ關スル 件2	1938~1941
24	고적조사	F134-004	關野工學博士第二會調査寫眞目錄-明治四十三年	大正七年 朝鮮總督府記錄 第4166號	1910
25	고적조사	F139-006	大正四年度(鳥居囑託調査) 第五會史料調査 寫眞原板 目錄(全北, 忠南, 忠北, 江原, 京畿 地方)	自第一回至第五回史料調査(鳥居囑託調査) 寫眞原板目錄-學務局古蹟調査課	1915
26	지정	H015-003	彌勒寺址遺物	寶物古蹟臺帳1	1928
27	보존	A069-001	-	古蹟保存工事施行經費	-
28	고적조사	F166-004	古蹟遺物保存工事施行箇所及經費	古蹟概要	1913~1927
29	진열	D007-024	阿彌陀像頭部外一點	大正十三-十五年度陳列物品請求書	1924
30	고적조사	F058-005	第二回古蹟調査委員會 議案3 遺蹟及遺物登錄案	古蹟調査委員會第一-十二回	1916
31	고적조사	F098-001	官房土木局ニ於ケル古蹟保存修理	朝鮮ニ於ケル博物館事業ト古蹟調査事業史	1925
32	고적조사	F104-024	寶物等保存工事ニ關スル要項	遺蹟遺物關係報告	1935
33	고적조사	F068-013	朝鮮古蹟研究會規則	朝鮮古蹟研究會	1932
34	고적조사	F027-003	諮問第四號遺蹟調査許可件	朝鮮總督府古蹟天然記念物指定解除臺帳	1937

## 1910, 『明治四三年朝鮮古蹟調査略報告』(F042-002)

익산에 대한 고적조사사업 기록을 전하고 있는 가장 이른 문서이다. 1910년 어원사무국 御苑事務局<sup>3</sup> 평의원 세키노 다다시彌野貞은 건축 분야에서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고고학 분야에서 야쓰이 세이이쓰쓰谷井濟一를 조수로 삼아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조사는 9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되었는데, 익산 지역 조사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였다.

조사단은 확인한 문화유산을 자체적 의견에 따라 네 개 등급(甲乙丙丁)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익산에서는 왕궁리 유적王宮坪(馬韓宮趾), 미륵사지廢彌勒寺, 미륵산성彌勒山城, 연동리 석조여래좌상石佛坐像, 왕궁리 오층석탑王宮塔, 사자암獅子庵, 고도리 석불입상邑南石佛, 쌍릉雙陵, 객사客舍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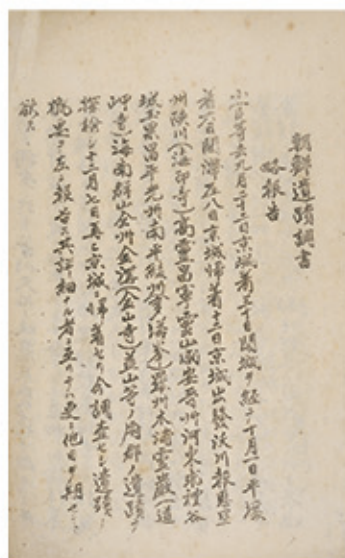
한편 보고 내용에서 구리야마는 미륵사지 석탑의 수리가 필요함을 「참고의견副申」에서 언급하였다. 이 문서에 의해 고적조사의 목적에는 붕괴되거나 훼손 정도가 심한 건축물의 보존여부를 가늠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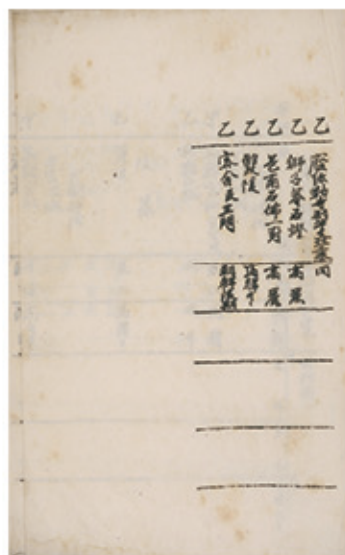
F042-001-001-001



F042-002-001-006



F042-002-001-001



F042-002-003-039



F042-002-003-038

3) 어원사무국은 1908년(융희2) 설치된 박물관·동물원·식물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서이다.



## 조선유적조사 약보고

소관 등은 지난 9월 22일 경성에 도착, 30일 개성을 거쳐 10월 1일 평양에 도착, 6일간 체재하고 8일 경성에 도착, 12일 경성을 출발하여 옥천, 보은, 제천, 합천(해인사), 고령, 창녕, 영산, 함안, 진주, 하동, 구례, 곡성, 옥과, 창평, 광주, 남평, 능주(다담봉), 나주, 목포, 영암(도갑사), 해남, 군산, 전주, 김제(금산사), 익산 등 부군府郡의 유적을 조사하고, 12월 7일 다시 경성으로 돌아옴. 이번에 조사한 유적의 개요를 좌측과 같이 보고함. 그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보고할 것임.

금회의 조사에서 고대문화의 상태 및 변천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자료는 가능한 넓게 찾기로 계획하여 건조물은 물론 능묘, 궁지, 성적, 석등, 찰간, 비탕碑場, 불상, 종고鍾鼓, 묘탑, 서화書畵 유적에 속하는 것은 모두 발이 닿는 대로 찾았다.

그중 익산, 평양 지방에서는 마한, 고구려시대의 유적을 조사하고, 고령, 창녕, 함안, 진주에서는 가야시대의 것으로 인정되는 궁지, 성적, 분묘를 연구하여 태고 문화의 형적을 방불케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신라시대의 유물은 주로 보은 벌주사, 구례 화엄사, 김제 금산사, 익산 폐미륵사, 하동 쌍계사에서 가장 걸출한 석탑, 석등, 석불, 석비의 종류를 찾았고, 고려시대로 내려가면 유물은 오히려 많지 않고 … (중략)

이러한 유물을 분류하여 지방별(제1표), 시대별(제2표)의 두 표로 하여, 한눈에 종류와 소재를 알 수 있게 하고, 가치를 판단하여 (甲) 가장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 (乙) 그 다음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것, (丙)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해 강하게 보존의 필요가 인정되는 것, (丁) 보존의 필요가 가장 적은 것의 4가지로 하였다. 시대를 나누어 삼한시대, 삼국시대, 신라통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다섯으로 하고, 다시 조선시대를 전기(태조부터 임진역壬辰役까지), 중기(임진역 후 인조의 즉위까지), 후기(인조 즉위부터 본년 8월까지)의 3시기로 하고, 연대가 명확한 것은 특히 일선청양日鮮淸洋의 연대를 제시해 비교 대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지방별 표(제1표)에는 이번 조사한 유물을 모두 열거하고, 시대별 표(제2표)에는 특히 보존의 가치가 있는 갑을의 두 종류를 선택해 그 종류에 따라 나누었다. 조사한 유물 중 필요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촬영하여 총 419매로, 그것을 함께 제출하였다.

이상 보고함.

1910년(명치43) 12월 13일 어원御苑 사무국 事務局 평의원 공학박사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등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등 구리아마 순이치栗山俊一

### 참고의견(副申)

1. 이번 회 조사한 유물 중에서 지금한 수선을 요하는 것으로서 좌측과 같은 것들이 있다.

#### (甲) 익산 폐미륵사 석탑

양식으로 판단하건대 약 1200여 년 전에 건립되어 규모가 장대하고 지금 조선에 있는 석탑 중에서 이에 비견할만한 것이 없으며 형태 역시 지극히 아름답다. 하지만 지금 크게 파괴, 붕락崩落되어 간신히 존재하는 6층의 탑신이 위태로워 실로 위험한 상황에 가까워져 있다. 수리비가 약 5만원, 용급수리비가 약 2천원이다.

제1 조선유적일람(지방별) - 익산: 12월 3~4일 조사

등급	명칭	시기	비고 <sup>4)</sup>
甲	왕궁평(마한궁지)	마한	12월 4일 조사
甲	폐미륵사석탑	신라	12월 3일 조사
乙	미륵산성	마한(추정)	12월 3일 조사 / 12월 5일 그림
乙	석불리 석불	신라	12월 3일 조사
甲	왕궁탑(오층석탑)	신라	12월 4일 조사
乙	폐미륵사 참간지주 2기	신라	12월 3일 조사
乙	사자암 석등	고려	12월 3일 조사
乙	읍남 석불 1쌍	고려	불명
乙	쌍동	마한(추정)	불명
乙	객사 및 삼문	조선후기	불명

4) 東京大學総合研究博物館 小石川分館, 「關野フィールドカード」 아카이브 참고

1915, 『全北益山郡彌勒塔實測圖』, 『古蹟實測圖:古蹟實測圖送付ノ件』(F149-002)

1915년(大正4) 4월 17일에 토목국장이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한 문서이다. 미완결 도장이 찍혀있지만 4월 21일에 결재되었고, 이어 공람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경북 안동 부내면 용상리 칠층전탑, 일직면 오층전탑, 읍남 오층전탑, 전북 익산군 미륵탑, 경주 불국사 석단 및 계단 등에 대한 실측도를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미륵사지 석탑 보존공사가 실시된 1915년 12월 이전부터 사전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서 앞면에는 붉은 인주로 찍은 '國枝' 날인이 있다. 날인은 문서 작성자 혹은 결재권자를 보여주는 데 이 인물은 탁지부 시절부터 건축소 기사技師로 활약하던 쿠니에다 히로시國枝博로 판단된다. 그가 미륵사지 석탑 실측도 문서 작성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하 실측도면 4장이 있다.<sup>5</sup> 추가로 국가기록원이 소장 중인 미륵사지 석탑 보존공사 설계도 2장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 6장의 문서는 한 묶음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각각 연번이 달려있어 최종적으로는 함께 격납·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sup>6</sup> 최종 계획안이 반영된 설계원도는 일반 문서와 달리 영구보관물로 분류되어 보존되었다. 다만 도면과 문서가 별도로 보관됐기 때문에 도면만으로 해당 건축물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sup>7</sup>

#### [도면 1] 전북 익산군 미륵탑 실측도

석탑의 평면도(동-서)이다. 곳곳에 석재의 박락이 심하고 1층 우주에는 균열 흔적이 보인다. 좌측면 2~6층 석재는 대부분 그 형체를 잃었다. 6층에는 남아있는 귀족개석과 탑신석 일부만이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다. 6층으로 올라갈수록 남아있는 석재 수가 부족하여 부재 간 이격이 심하다. 1층 탑신부 우측면에 장대석으로 쌓은 축대 형태가 보인다. 이 도면만 보아서는 정확한 체감비나 층수를 알기 어렵다.

#### [도면 2] 전북 익산군 미륵탑 실측도

석탑 평면도 및 통로 단면도이다. 십자형 통로와 중앙부 심주석의 형태를 알 수 있다.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의 기둥석 부분이 이격되어 붕괴되어 있으며, 1층 동쪽, 북쪽 면석 역시 전체적으로 이격되고 기울어 있다.

#### [도면 3] 전북 익산군 미륵탑 실측도

석탑의 우측면도(북-남)이다. 내부 적심석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등 석탑의 2/3이 상이 붕괴되었다. 1층 탑신부 우측에는 석축(축대)이 있어 석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다. 칼주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점선을 수직 제로하였다.

#### [도면 4] 전북 익산군 미륵탑 실측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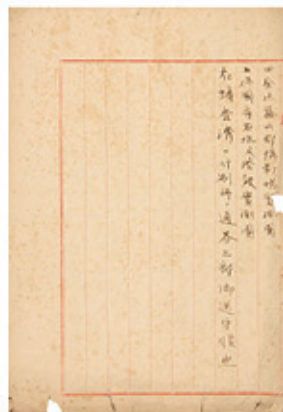
석탑과 주변 배치도이다. 탑의 현 상황과 파손된 부분을 표시하고 있다. 주변은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다. 동측 좌우 동그라미는 석인상 2기이며 그 앞에 놓인 석재들은 석탑 부재 일부로 추정된다.

#### [도면 5, 6] 전북 익산군 미륵탑 보존공사 설계도

두 장의 도면은 실측조사 후 탑을 보강하기 위한 공사 설계도이다. 설계도면에서는 탑 전체를 보수하면서 탑의 체감비를 고려하여 서남측면에 경사지게 콘크리트로 채워 보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옛 부재를 재사용할 부분과 보수가 필요할 부분, 새로운 부재를 사용할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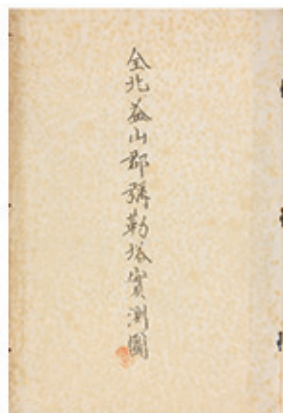
F149-002-001-001



F149-002-001-002



國枝



F149-002-014-001

5) 문서에 사용된 도면은 총 4장이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과 문서에도 기록이 남아있다(건판22294, 22295, 22296, 22272). 그러나 보존공사 도면 2장과 추가로 들어있는 원본 도면이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문서에는 이 도면 6매를 활용하였다.

6) 추가 도면 작성 일시는 알 수 없으나 도면의 형태와 글씨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두 차례에 걸친 실측도면은 동일 인물이 작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7) 국가기록원, 2009,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2』, 10쪽.

8) 2017년 12월 현재 미륵사지 석탑은 복원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915년 수리공사 시 사용한 일부 석재가 미륵사 터에 해체된 채 남아있다.



全北益山郡彌勒塔寶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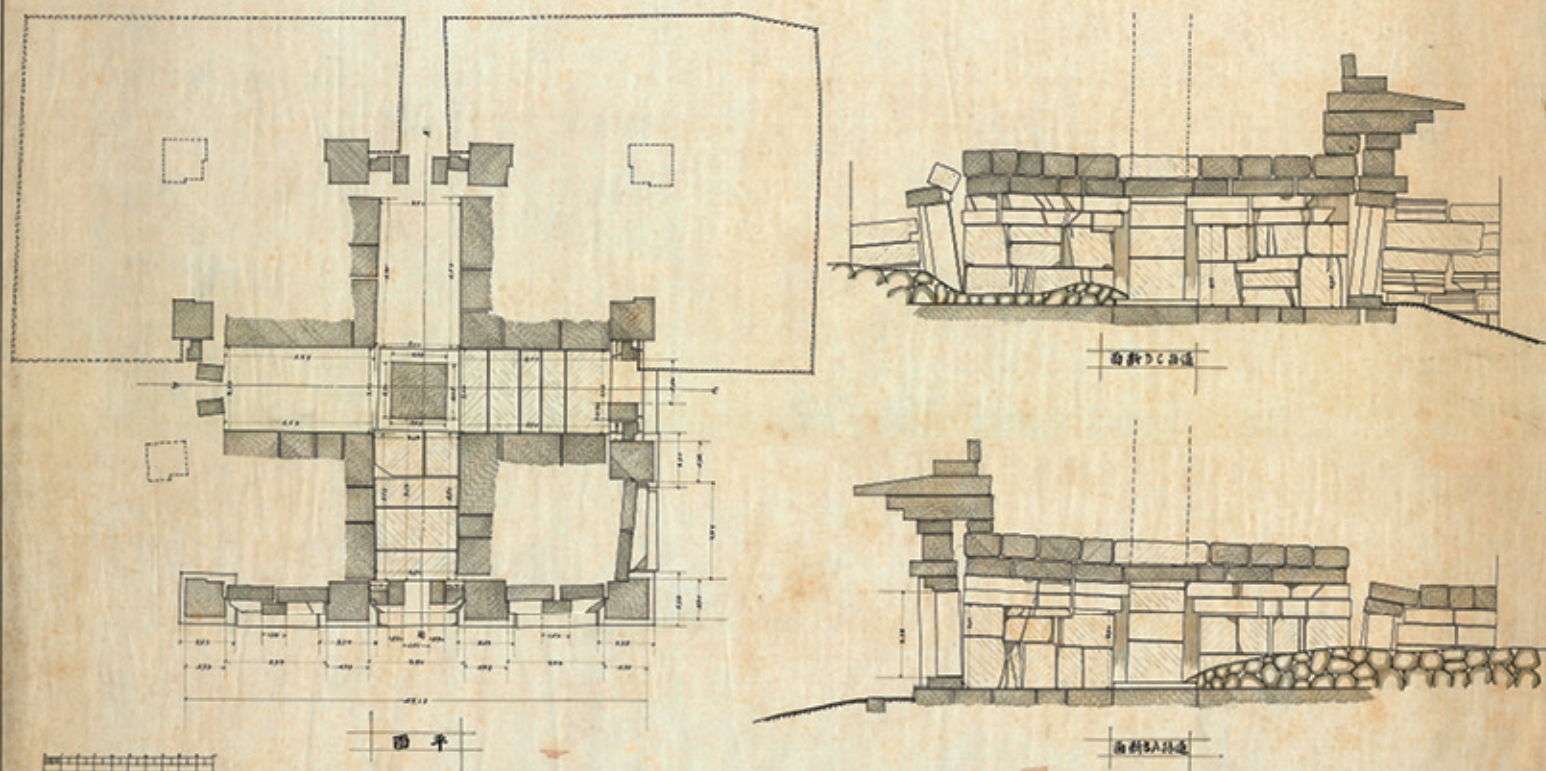
卷之六拾參尺蠖



[도면 1] 전북 익산군 미륵탑 실측도(동→서방향)[국가기록원 소장]

全北益山郡彌勒塔實測圖

龜之介持參尺縮





# 全北益山郡彌勒塔寶測圖

縮尺參拾分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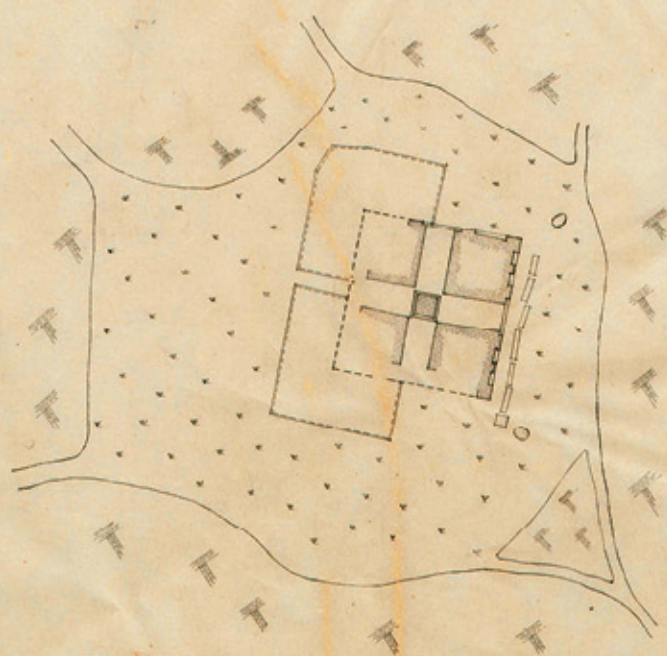


[도면 3] 전북 익산군 미륵탑 실측도(북→남방향)(국가기록원 소장)



# 全北益山郡彌勒塔實測平面圖

縮尺二百分之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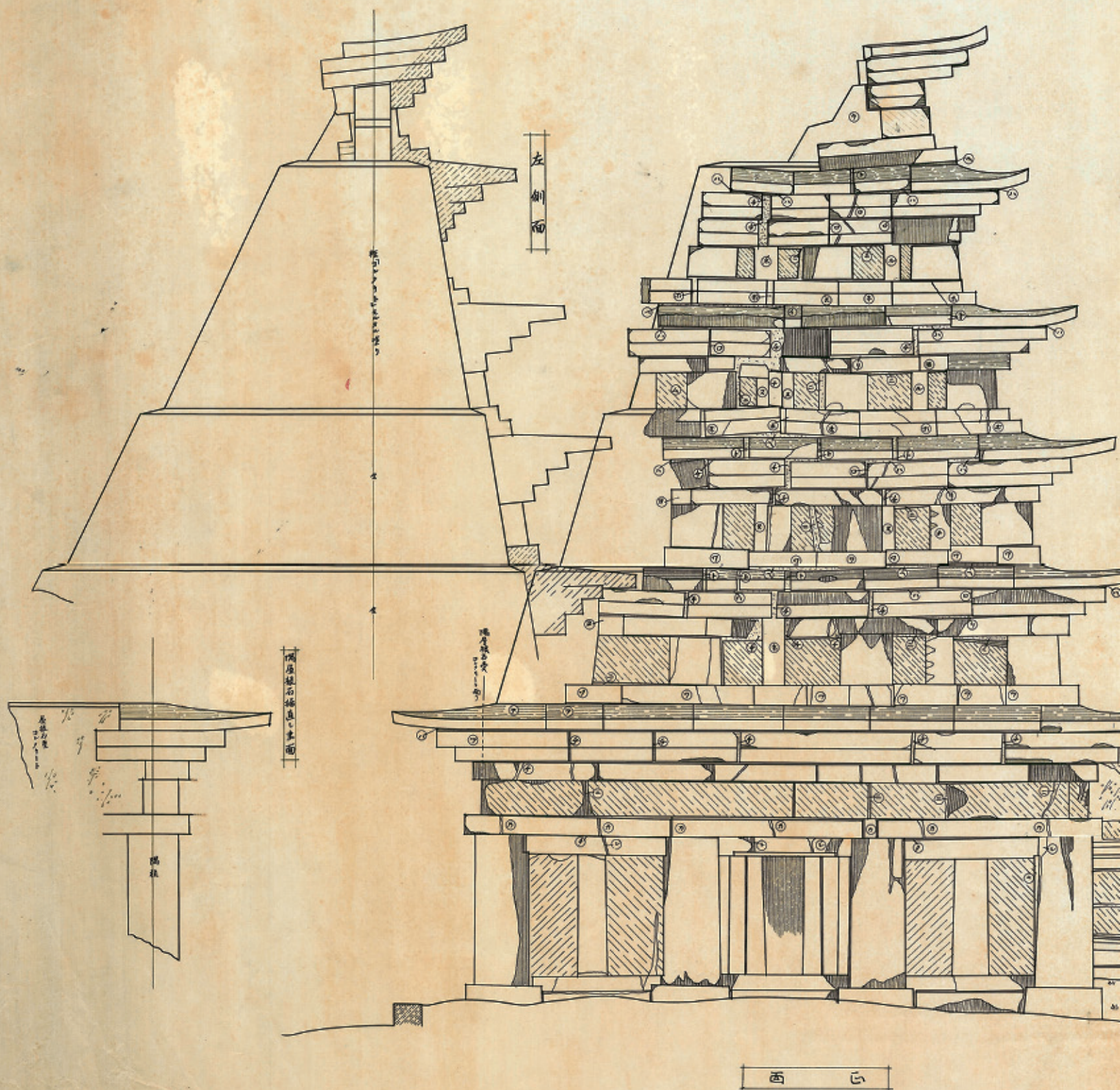
例	凡
	河
	路
	塔
	地

[도면 4] 전북 익산군 미륵탑 실측평면도[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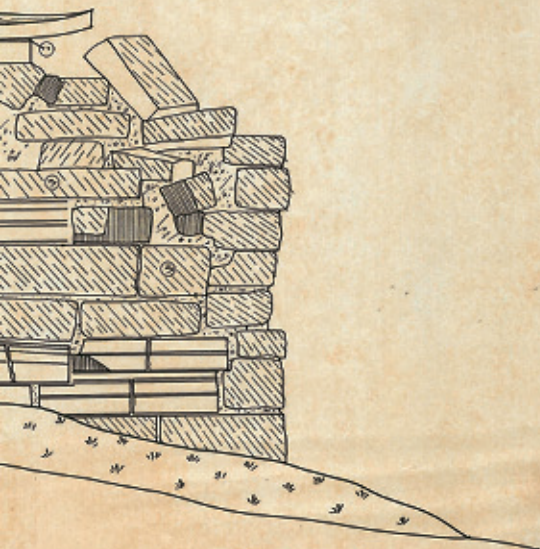
# 益山郡彌勒塔保存工事設計圖

縮三尺十分一





凡例

[illegible]

[도면 5] 설계도 범위

부호	종류 및 개소	수량
イ	신규 지붕석 또는 인조석 설치	3
ロ	파손부 및 줄눈 수리	7
ハ	수평면 조정 모르타르 칠	15
ニ	수평면 조정 인조석 마감	15
ホ	파손부 및 줄눈 수리 인조석 마감	10
ヘ	수평면 조정 모르타르 칠	6
ト	콘크리트 주입 모르타르 칠	8
チ	위와 동일 (단, 줄눈은 시멘트 플라스터)	21
リ	콘크리트 주입 모르타르 칠	2
ヌ	신규 기둥 석재 교체 (6층, 8층)	4
ル	신규 기둥 석재 교체 (8층 각형)	2
ヲ	재래 지붕석재 재설치	2
ワ	파손부 및 줄눈 수리 인조석 마감	11
カ	줄눈 및 균열 수리 인조석 마감	7
コ	신규 상대륜석 설치	3
ク	수평면 조정 모르타르 칠	2
ケ	파손부 및 줄눈 수리 인조석 마감	4
コ	재래 하대륜석 재설치	1
ツ	재래 옥개받침석 재설치	1
ネ	신규 기둥 석재 설치 (1책8층)	2
ナ	재래 기둥 석재 재설치	2
ヲ	재래 돌담 석재 쌓기 및 재설치	2
ム	신규 경석(鏡石) 설치	1
ウ	상층 지지 콘크리트 두께 1책6층 모르타르 칠 마감	1
	상층 이하 지지 콘크리트 모르타르 칠 마감	
	입구 내부 천정석 파손부 철제보 설치 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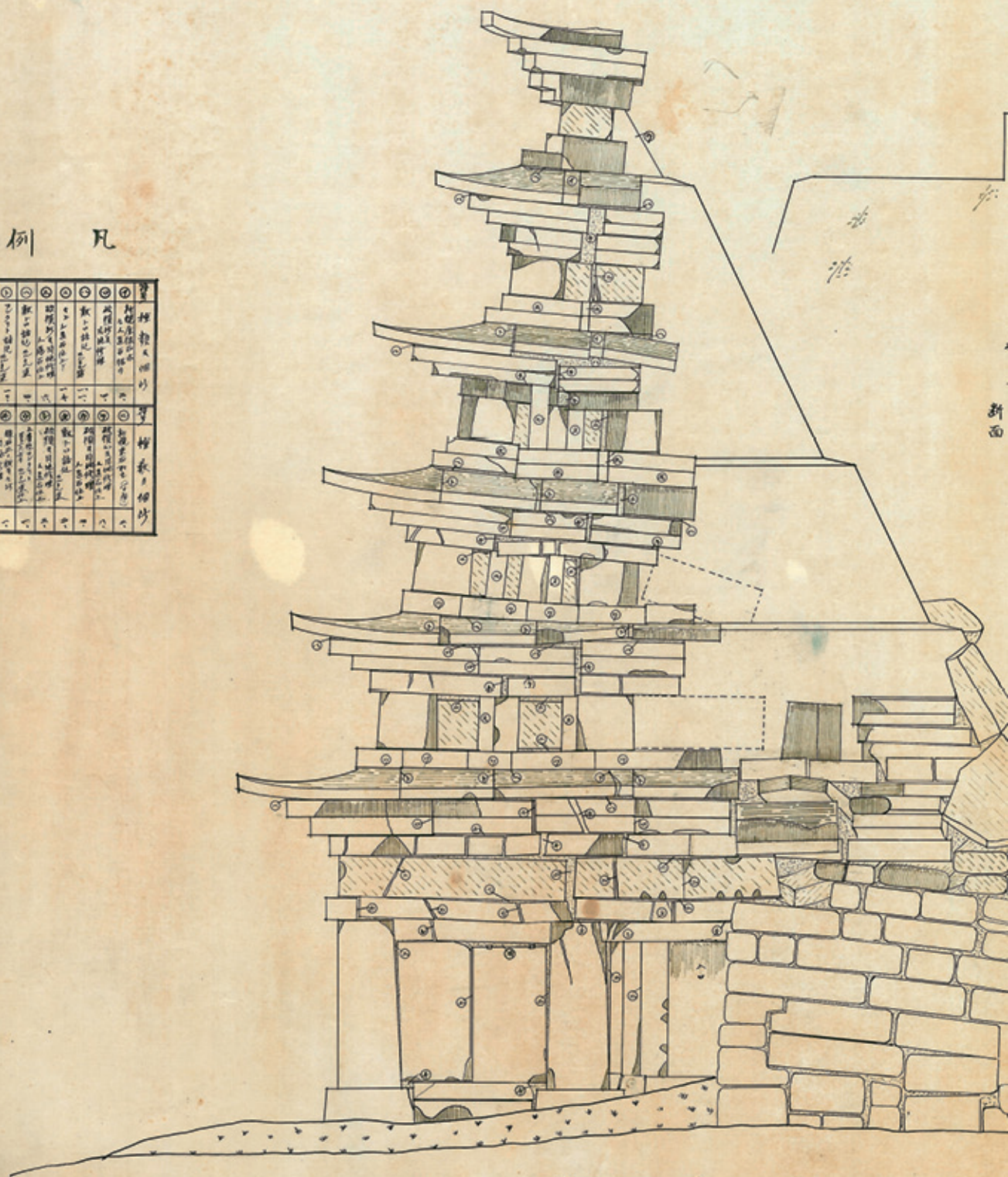


全北益山郡彌勒塔保存工事設計圖

縮三尺十分一

例 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右側面





[도면 6] 설계도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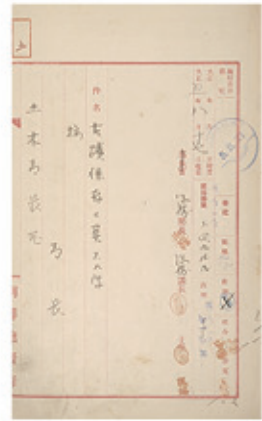
부호	종류 및 개소	수량
イ	신규 지붕석 또는 인조석 설치	2
ロ	파손부 및 줄눈 수리	4
ハ	수평면 조정 모르타르 칠	11
ニ	수평면 조정 인조석 마감	15
ホ	파손부 및 줄눈 수리 인조석 마감	6
ヘ	수평면 조정 모르타르 칠	4
ト	콘크리트 주입 모르타르 칠	10
チ	위와 동일 (단, 줄눈은 시멘트 플라스터)	16
リ	콘크리트 주입 모르타르 칠	2
ヌ	신규 기둥 석재 교체 (겉에서 6층, 속에서 8층)	4
ル	신규 기둥 석재 교체 (8층 각형)	2
ヲ	파손부 및 줄눈 수리 인조석 마감	8
ワ	파손 및 줄눈 수리 인조석 마감	4
タ	수평면 조정 모르타르 칠	2
レ	파손 및 줄눈 수리 인조석 마감	3
ウ	상층 지지 콘크리트 두께 1척6촌 모르타르 칠 마감	1
ヰ	경석 고정철제 및 줄눈 수리	1
상층 이하 지지 콘크리트 모르타르 칠 마감		
입구 내부 천정석 파손부 철제보 설치 2개소		



## 1916, 『古蹟保存費ニ關スル件』, 『大正五-八年度古蹟調査關係綴』(F090-007)

이 문서는 토목국장이 총무국장에게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실시된 고적보존공사 내역을 송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에는 1915년(大正4) 실시된 미륵사지 보수공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륵사지 수선비 총액이 담긴 문서로는 『고적보존공사 시행경비古蹟保存工事施行費備』, 『고적개요古蹟概要』 등도 있으나, 본 문서에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관리 주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sup>9)</sup>

9)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7, 28



F90-007-001-001

시행월일: 1916년 8월 17일 기안 / 21일 접수

관계번호: ○, 49○9

결의: 1916년 8월 19일

발신인: 총무국장

송신인: 토목국장, 내무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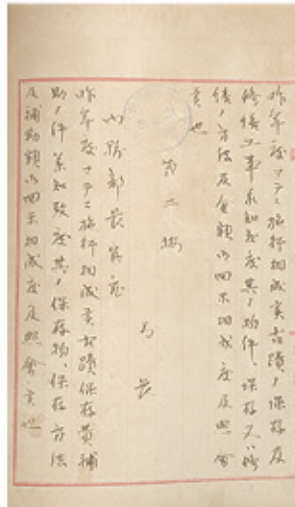
건명: 고적보존에 관한 건

토목국장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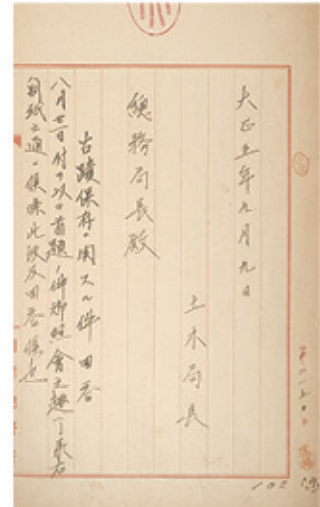
작년도까지 시행되었던 고적의 보존 및 수선공사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오니 그 물건, 보존과 수선의 방법 및 금액을 회답받을 수 있도록 조희합니다.

내무부장관 앞

작년도까지 시행되었던 고적보존 황黃보조 건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오니 그 보존물, 보존방법 및 보조액을 회답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한 조희합니다.



F90-007-001-002



F90-007-002-001

1916년 9월 9일

관계번호: ○, 2150호

발신인: 토목국장

송신인: 총무국장

건명: 고적보존에 관한 건 회답

8월 21일에 부친 수제首題의 건, 조희를 서둘러 마치고 우측의 별지를 통하여 조사 및 회답합니다.

## 고적수선비지번古蹟修繕費支辨

(전략)

연도	공사명	금액
1915	익산 미륵탑 보존공사	1,870,000원

(후략)



F90-007-004-016



F90-007-003-004



1916, 『全羅北道所在古蹟及遺物臺帳』, 『古蹟及遺物登錄臺帳』(F021-007)

이 문서는 보존 가치가 있는 고적과 유물을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sup>10</sup>에 따라 조사하고, 그 대상을 등록한 대장의 초안이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는 고적조사위원회의 결의로 등록·수정된 원고를 등록대장에 기입한 뒤 등본謄本을 해당지역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별로 정리된 193건을 『고적 및 유물등록대장초록古蹟及遺物登錄臺帳抄錄』으로 1924년 최종 출간하였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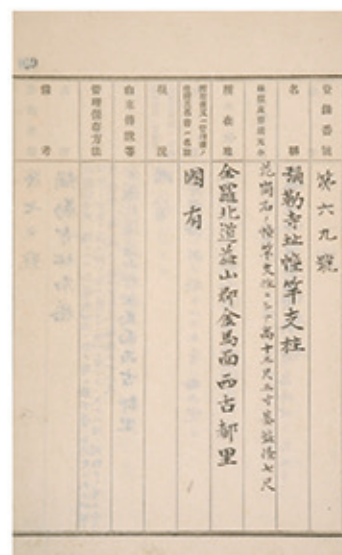
등록대장에 포함된 익산의 문화유산은 5건이다. 미륵사지 당간지주彌勒寺址 幢竿支柱, 미륵사지 석탑彌勒寺址 石塔, 연동리 석조여래좌상石佛里 石佛像, 고도리 석불입상古都里 雙石佛像, 왕궁리 오층석탑王宮里 五層石塔이다. 5건의 등록일은 1917년(大正6) 3월 15일이며, 이는 고적조사위원회 제2회 위원회 결의 분이다.<sup>12</sup>

10) 1916년 7월 4일에는 「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라는 법령을 마련해 모든 고적과 유물을 등록하게 하는 등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조사계획을 세우기 위해 공력을 기울였다.

11) 朝鮮總督府, 1924, 『古蹟及遺物登錄臺帳抄錄參考書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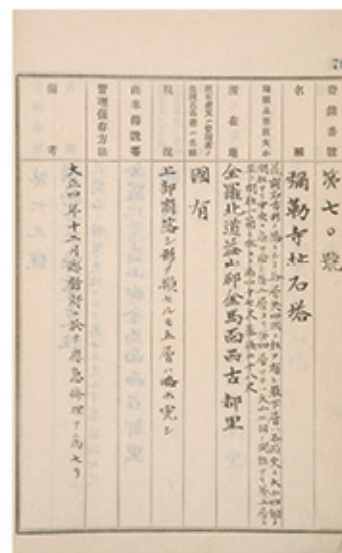
12)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30

등록번호	제69호
명칭	미륵사지 당간지주
종류 및 형상대소形狀大小	화강석제. 당간지주 높이 13척 5촌, 기단 직경 7척.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
소유자 및 관리자의 주소지명 및 약(명)칭	국유
현황	
유래·전설 등	
관리보존방법	
비고	



F021-007-001-001

등록번호	제70호
명칭	미륵사지 석탑
종류 및 형상대소	화강석제. 방형의 탑이며 각 층 모두 네 모서리에 기둥이 있다. 최하층 각 면에는 크고 작은 4개의 간주가 있으며 중앙에 문扉을 달았다. 제 2층부터 제 4층까지는 크고 작은 3개의 간주가 있고 제 5층에 이르면 간주 1개가 없어진다. 높이 47척, 기경基經 28척.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
소유자 및 관리자의 주소지명 및 약(명)칭	국유
현황	상부 붕괴로 형태가 손상되었지만 5층까지는 대략 남아있다.
유래·전설 등	
관리보존방법	
비고	1915년(大正4) 12월 총독부가 응급수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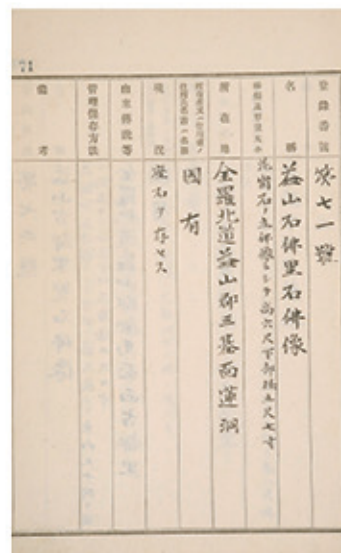


F021-007-002-001



등록번호	제71호
명칭	익산 석불리 석불상
종류 및 형상대소	화강석제. 입불상立佛像 <sup>13</sup> 으로 높이 6척, 하부 직경 5척 7촌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군 삼기면 연동
소유자 및 관리자의 주소지명 및 약(명)칭	국유
현황	좌석座石이 존재함.
유래·전설 등	
관리보존방법	
비고	

13) 실제 좌불상座佛像이므로 오기로 판단됨.



F021-007-003-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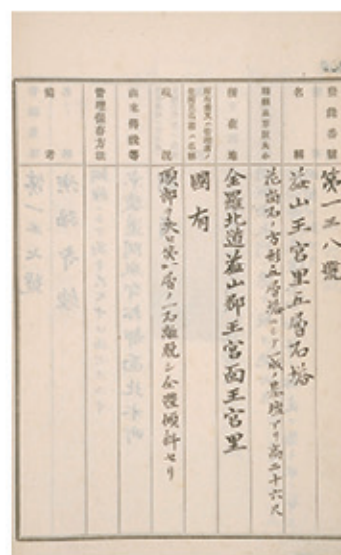
등록번호	제72호
명칭	익산 고도리 쌍석불상
종류 및 형상대소	화강석제. 입불상으로 방향의 덮개蓋 및 좌座가 있고 동서 90칸間 <sup>14</sup> 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각 높이 14척, 좌경座徑 2척 7촌.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
소유자 및 관리자의 주소지명 및 약(명)칭	국유
현황	
유래·전설 등	
관리보존방법	
비고	

14) 1칸間=약 1.82m=6척尺



F021-007-004-001

등록번호	제138호
명칭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종류 및 형상대소	화강석제. 방형 5층탑이며 한 층의 기단이 있다. 높이 26척.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
소유자 및 관리자의 주소지명 및 약(명)칭	국유
현황	윗부분頂部을 잃었고 1층의 석제 하나가 이탈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기울어있음.
유래·전설 등	
관리보존방법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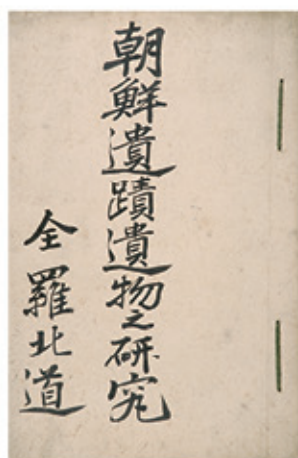


F021-018-002-001



## 1916, 『全羅北道』, 『朝鮮遺蹟遺物之研究』(F123-004)

1916년까지 각 도별로 석기, 고분, 성지, 사원, 폐사지, 석탑, 석등, 부도, 찰간지주, 불상, 종, 석비 및 귀부, 고문서, 회화, 각판류, 궁궐지, 가마터窯址, 매장 유물의 명칭, 소재지, 시대 등을 조사하여 기재한 일람이다. 이 문서에 수록된 내용으로 등록대장에 수록된 5건 외에도 익산에 다양한 문화유산이 소재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F123-004-001-001

## 1. 석기

발견지	익산군 함열면 와리 동지산
유적별	불명
유물류	석검 1, 석검 파편
발견날짜, 발견자 및 소장자 성명	1915년(大正4) 및 1916년(大正5) 3월 2회 발견 토목공사 중 발견, 해당 지역 농장 소장
개요摘要	해당 지역은 어대전御大典 <sup>15</sup> 기념사업 장소이며 유원지로 개간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석관 하나를 발견하였다. 그 앞 2칸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유물을 발굴하였다. 석검은 발굴 당시 네 개로 나뉘어 있었고, 검의 선단은 소실되었다. 검신 전장은 1척 정도이고 폭은 약 1촌이다. 흑색 연석礫石으로 되어 있다. 석기로서는 상당히 뛰어난 수준의 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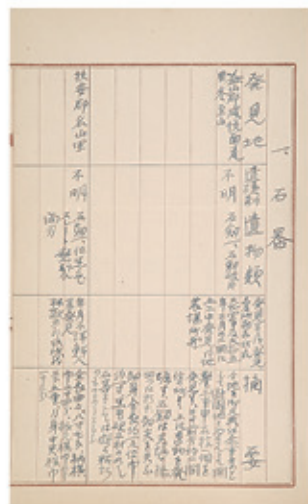
15) 어대전: 1912년 다이쇼 천황 즉위 기념행사



F123-004-004-001



본관8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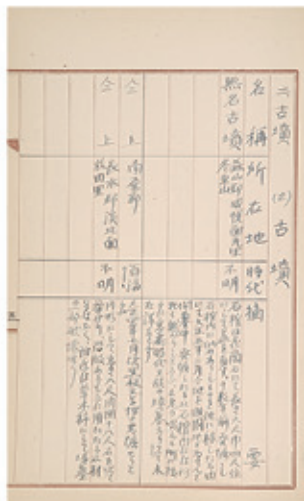
F123-004-003-001

## 2. 고분 (1) 능묘

명칭	소재지	시대	개요
쌍릉	익산군 팔봉면 상왕리 왕묘	마한	무강왕武康王 기준箕準과 왕비 선화부인의 능묘라고 전해진다. 기준은 후에 애왕哀王이라는 시호를 얻었다. 마을사람들은 속칭 애왕哀王의 쌍릉이라고 일컫는다.

## 2. 고분 (2) 고분

명칭	소재지	시대	개요
무명 고분	익산군 함열면 와리 동지산	불명	석관은 화강석제이며 길이 6척, 폭 4척 정도로 넓게를 갖추었다. 십수 년 전에 발굴되어 석관 내 유물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1916년(大正5) 3월 이 지역을 유원지로 개발하던 중 발굴되었는데, 석관 내에는 유물이 없었다고 한다. 마을 노인에게 물으니 고려시대 왕족의 능묘라고 하지만 아직 상세한 것은 모른다.



F123-004-007-001



F123-004-006-001



### 3. 성지

명칭	소재지	시대	개요
기준성	익산군 금마면 미륵산 (일명 용화산)	마한?	익산읍의 북쪽으로 약 1리 거리에 있다. 석축 둘레는 3,900척, 높이는 8척이다. 지금은 오직 성지만 남아있을 뿐이다. 무강왕武康王 기준이 쌓았던 거성居城이라고 전해진다.
보덕성	익산군 금마면 금마산 아래	신라	잔허殘墟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현재는 토성이라 불린다. 신라 문무왕 때 보덕왕에 봉해진 고구려 종실 안승安勝의 전성시대에 쌓은 것은 아닐까? (『여지승람』 익산군 고적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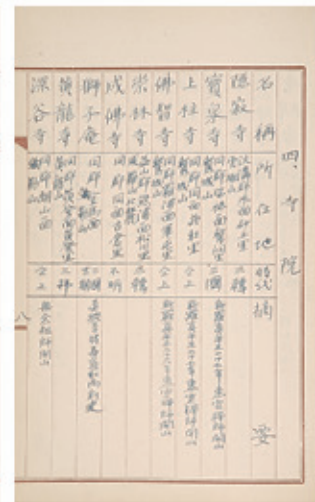
F123-004-008-001

### 4. 사원

명칭	소재지	시대	개요
송림사	익산군 웅포면 송천리 함라산 북쪽 기슭北麓	삼한	
성불사	익산군 웅포면 고창리	불명	
사자암	익산군 금마면 미륵산	삼국 말기	진흥왕 때 수도화상 창건
황룡사	익산군 황등면 황동리 황등산	삼한	
심곡사	익산군 낭산면 미륵산	삼한	무염조사 개산
자명사	익산군 용안면 석동 우등산	삼한	무강왕자 창건
문수사	익산군 여산면	불명	
백련암	익산군 여산면	불명	
법당사	익산군 여산면	불명	
백운사	익산군 여산면	불명	
남원사	익산군 여산면	불명	



F123-004-009-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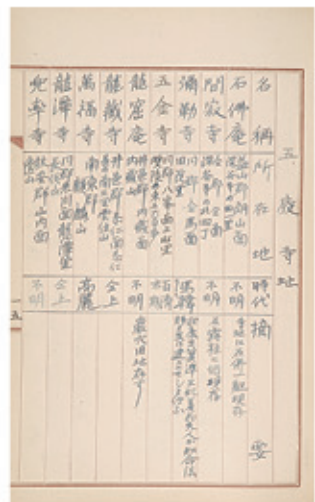


F123-004-009-001

### 5. 폐사지

명칭	소재지	시대	개요
석불암	익산군 낭산면 심곡사 서쪽 1리	불명	사지에 석불 1구 현존
간적사	익산군 낭산면 심곡사 북쪽 4정丁 <sup>16</sup>	불명	노주석石露柱 2개 현존
미륵사	익산군 금마면 구 원리	마한?	무강왕 기준왕비 선화부인이 지명법사와 함께 건립했다고 한다.
오금사	익산군 팔봉면 상왕리 쌍룡 동쪽 5~600보	백제 말기	

16) 1丁(또는 町)=약 109.09m=60칸=360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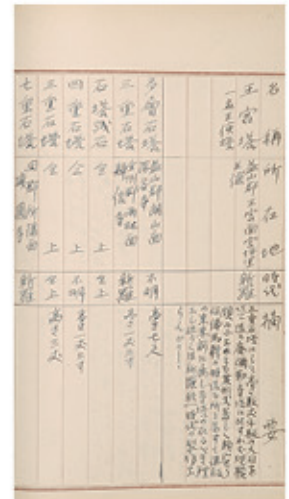
F123-004-010-001

## 6. 석탑

명칭	소재지	시대	개요
다층석탑	익산군 금마면 구원리 페미륵사지, 익산읍 남 쪽으로 약 0.5리	신라	세키노 공학박사가 이르기를 탑은 모두 석축으로 현재는 6층만 남아 있지만 원래는 9층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안타깝게도 동측면만 조금 남아 있고, 다른 세 면은 붕괴되었다. 1층의 넓이는 방형으로 한 변 27척이고, 4면을 기둥으로 각각 3칸으로 구분하였다. 중간에 입구를 설치하고 옆 칸에 창 모양을 만들었으며, 내부에는 한 변 3척2촌8분의 방형 중심 기둥이 있다. 각 층에서는 3단의 옥개받침으로 상층 옥개석을 지탱하였다. 옥개는 얇은 판석으로 만들었다. 처마는 깊고 모서리로 향할수록 양곡뒀이 두드러진다. 전체의 균형이 완전하지 않지만 관찰하기에는 충분하다. 수법이 우아하면서도 웅건한 기상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조선에 존재한 최대의 석탑이라고 전해진다.(조선 전라 익산 페미륵사 석탑과 참조)
왕궁탑 (일명 왕검탑)	익산군 왕궁면 궁평리 왕검	신라	오층석탑으로 높이 수 장평丈平에 달하는 큰 돌로 만들었다. 페미륵사탑과 비교하였을 때 규모는 작지만 그 형식이 매우 유사하다. 마한시대에 지어진 것이라면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속하는 석탑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신라통일시대에 제작했을 수도 있다.
다층석탑	익산군 낭산면 심곡사	불명	높이 7척



F123-004-011-001



F123-004-011-002

## 7. 석등

명칭	소재지	시대	개요
석등	익산군 금마면 미륵산 사자암	고려	



F123-004-01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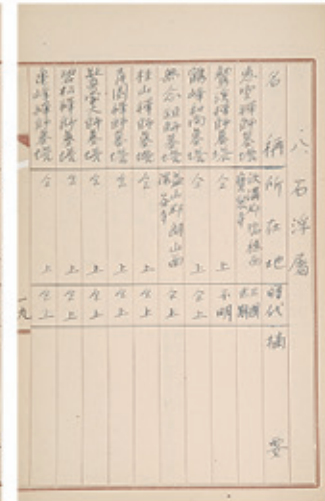


# 8. 석부도

명칭	소재지	시대	개요
무념조사묘탑	익산군 낭산면 신흥사	불명	
계산선사묘탑	익산군 낭산면 신흥사	불명	
청원선사묘탑	익산군 낭산면 신흥사	불명	
경진당대사묘탑	익산군 낭산면 신흥사	불명	
벽송선사묘탑	익산군 낭산면 신흥사	불명	
구봉선사묘탑	익산군 낭산면 신흥사	불명	
청월선사묘탑	익산군 낭산면 신흥사	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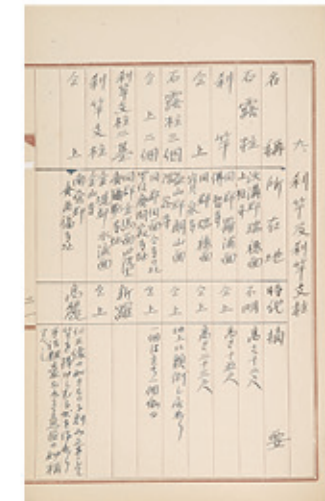
F123-004-013-002



F123-004-013-001

# 9. 찰간 및 찰간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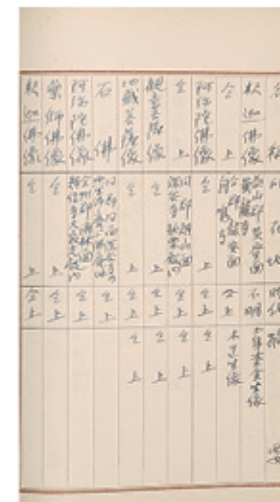
명칭	소재지	시대	개요
노주석 3개	익산군 낭산면 신흥사	불명	지상에 뒤집혀 넘어져 있다.
노주석 2개	익산군 낭산면 신흥사에서 북쪽으로 4 경에 위치한 폐간적사지	불명	1개는 서있고 1개는 넘어져 있다.
찰간지주 2기	익산군 금마면 구 원리 폐미륵사지	신라	



F123-004-014-001

# 10. 불상

명칭	소재지	시대	개요
석불	익산군 삼기면 석불리	신라	
석불 1쌍	익산군 왕궁면 익산읍 남쪽	고려	제작 수법이 간단하고 소박함
석가불상	익산군 황동면 황룡사	불명	토제 몸체에 금을 칠한 좌상
석가불상	익산군 용안면 자명사	불명	목조좌상
아미타불상	익산군 용안면 자명사	불명	목조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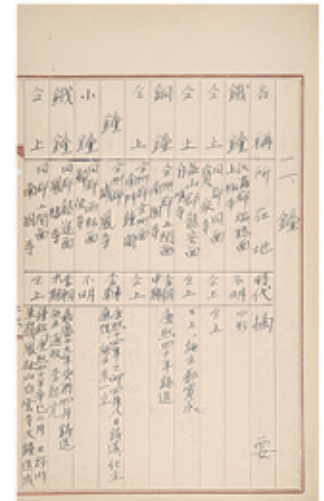
F123-004-015-002



F123-004-015-001

### 11.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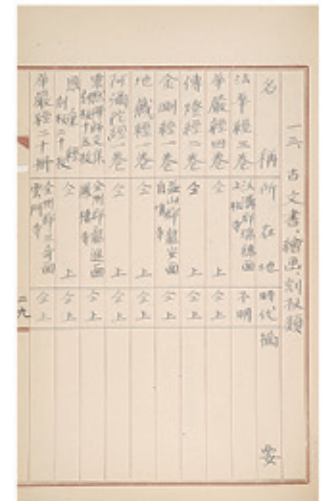
명칭	소재지	시대	개요
철종	익산군 용안면 자명사	불명	소형, 시주 정관영鄭寬永



F123-004-016-001

### 13. 고문서, 회화, 각판류

명칭	소재지	시대	개요
금강경 1권	익산군 용안면 자명사	불명	
지장경 1권	익산군 용안면 자명사	불명	
아미타경 1권	익산군 용안면 자명사	불명	



F123-004-018-001

### 14. 궁궐지

명칭	소재지	시대	개요
왕궁평	익산군 왕궁면 궁평리	마한?	흙으로 쌓은 성이라 한다. 전해지기를 마한 왕궁의 유지遺址라고 한다.



F123-004-019-001



1916, 『古蹟及遺物ニ關スル件』, 『古蹟及遺物(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F119)

이 문서는 조선총독부 총무국장이 1917년에 실시할 고적조사 사전 준비를 위해 기존 조사 기록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전라북도 장관이 회신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들은 대부분 <고적조사 5개년 계획> 수립 준비 단계에서 작성된 문서들로서 식민통치를 위한 지역 자료 조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문서에 포함된 약실측도면은 당시의 문화유산이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있었는지 알려주고 있다.



관계번호: 총總, 제319호

1916년(大正5) 10월 20일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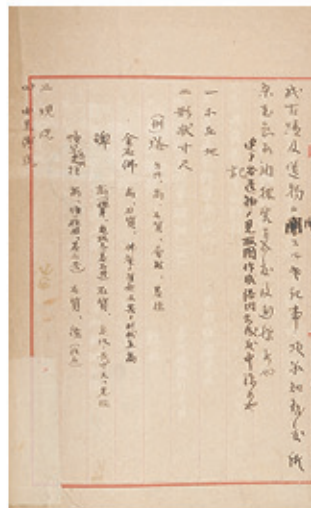
발신인: 총무국장

송신인: 각도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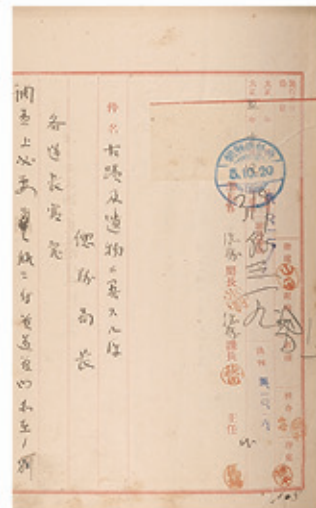
건명: 고적 및 유물에 관한 건

조사 상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 귀도 관내에 소재하는 별지 고적 및 유물에 관한 아래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시급히 조사 보고 해주시기를 통첩하는 바임.

더하여 각 유물의 견취도見取圖를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를 신청하는 바임. (후략)



F119-002-002-002



F119-002-00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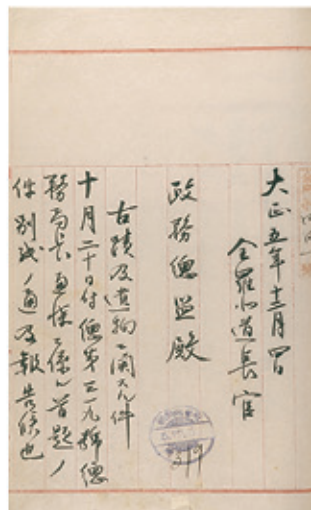
1916년(大正5) 12월 4일 결의

발신인: 전라북도장관

송신인: 정부총감

건명: 고적 및 유물에 관한 건

10월 20일부 총 제319호 총무국장 통첩에 관한 위 제목 건은 별지와 같이 보고하는 바임.



F119-006-002-001

1. 미륵사지 당간지주(문서)

(イ) 소재지: 별지의 견취도 기재와 같음

(ロ) 형상 치수: 상동

(ハ) 현황: 두 지주가 동서로 약 60칸 간격을 두고 서로 마주보고 우뚝 서 있다.

1. 미륵사지 당간지주(견취도)

소재지: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구 노상리)

형상: 높이 13척 5촌, 전면 기둥 5척 3촌, 석질 화강석

<지주 전면 조립 상황>

둘레 15척 4촌, 정중앙 공간 틈 1척 9촌

하부에서 위로 2척 5촌 높이의 곳에 (내면) 양쪽 모두 구멍이 있다.

하부에서 위로 7척 4촌 높이의 곳에 (내면) 양쪽 모두 구멍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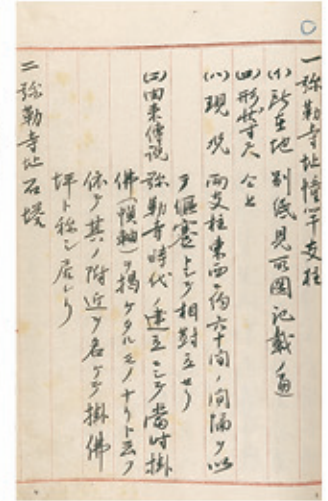
편주 측면: 폭 1척 7촌, 편주의 세로 길이 2척 4촌

\* 지주는 동서로 나뉘어 60칸<sup>17</sup> 거리에 떨어져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17) 약 108m



F119-006-004-001



F119-006-003-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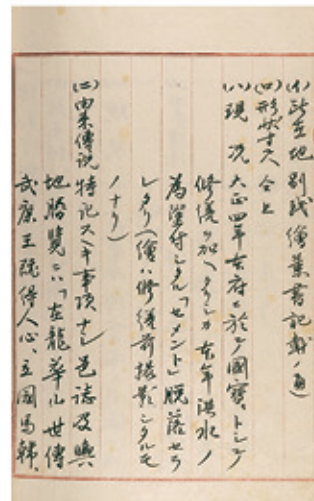
2. 미륵사지 석탑(문서)<sup>18</sup>

(イ) 소재지: 별지 그림엽서 기재와 같음

(ロ) 형상 치수: 상동

(ハ) 현황: 1915년 본부에서 국보로서 수선하였는데 본년(1916) 홍수 때문에 발랐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다.

18) 그림엽서 없음.



F119-006-002-001

3. 석불리 석불상(문서)

(イ) 소재지: 별지의 견취도 기재와 같음

(ロ) 형상 치수: 상동

(ハ) 현황: 현재는 거의 무너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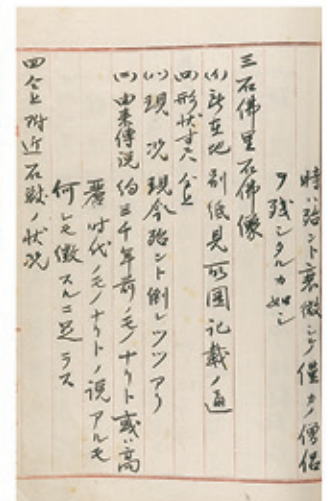
3. 석불리 석불상(견취도)

소재지: 익산군 삼기면 연동

형상: 높이 6척, 전면 바닥 폭 5척 7촌, 석질 화강석, 얼굴길이 2척, 둘레 10척 6촌, 머리 둘레 4척 6촌, 불좌는 없다.



F119-006-004-002



F119-006-003-005



4. 석불리 석불 부근 석수石獸의 상황(문서)

(イ) 소재지: 별지의 견취도 기재와 같음

(ロ) 형상 치수: 상등

(ハ) 현황: 석불상 후방에 서있는 것이지만 현재 넘어져 있다.

4. 석불리 석불 부근 석수石獸의 상황(견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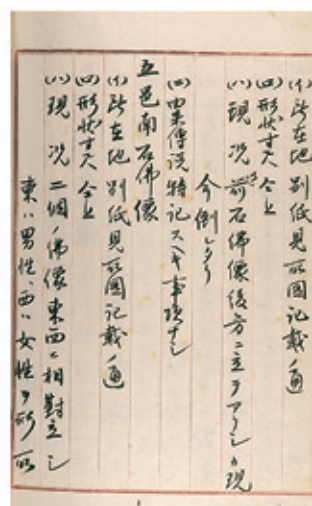
(석수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이는 불상 뒤에 세워져 있었던 조각물이다.)

소재지: 석불상 뒤편에 넘어져 있었다.

형상: 세로 길이 8척 2촌, 가로 폭 8척, 석질 화강석



F119-006-004-003



F119-006-003-006

〈별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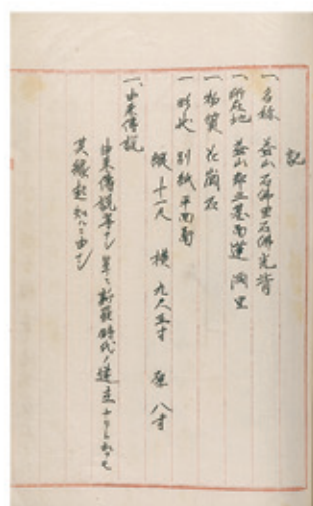
명칭: 익산 석불리 석불 광배

소재지: 익산군 삼기면 언동리

물질: 화강석

형상: 세로 11척, 가로 9척 5촌, 두께 8촌, 석질 화강석

유래·전설: 유래 전설 등은 없다. 단순히 신라시대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연기와 관련한 것은 없다.



F119-006-007-004



F119-006-007-005

형상: 그림과 같다. 세로 11척, 가로 9척 5촌, 두께 8촌, 석질 화강석, 불상(7개) 이하는 벽립壁立 부분 및 불의 문양이다. (F119-006-007-005)<sup>19)</sup>

(윗 문구)벽립 부분 밑에는 2매가 잇닿아 있는 1번의 길이 10척 두께1척의 받침돌이 있음(화강암)

(우측 문구)벽립 부분을 가리킴

(아래 문구)○선좌부 전부임

19) 좌측도면(F119-006-007-006)은 우측도면(F119-006-007-005) 하단에 관한 세부 도면 설명이다.



F119-006-007-006

### 5. 읍남 석불상(문서)

(イ) 소재지: 별지의 견취도 기재와 같음

(ロ) 형상 치수: 상동

(ハ) 현황: 2개의 불상이 동서로 서로 대응하여 서 있고 동쪽은 남성, 서쪽은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그 간격은 90칸이다.<sup>20</sup> 동쪽은 동고도리에 서쪽은 서고도리에 접한다.

### 5. 인석人石(견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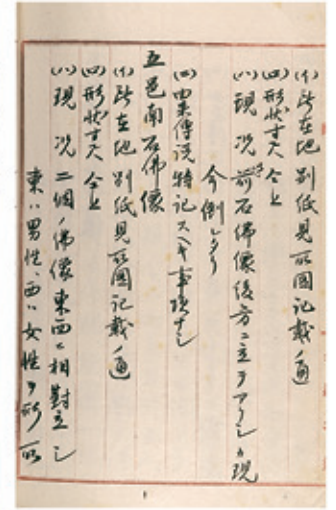
소재지: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구 연동) 및 동고도리(구 지전리)

형상: 높이 14척, 둘레 9척 4촌, 기단 폭 2척 7촌, 석질 화강석, 동서로 나뉘어 90칸 거리를 두고 서로 대응해서 서 있다.  
동쪽은 남성의 형태, 서쪽은 여성의 형태를 형상화한 것으로 유방의 형태를 갖는 것이 있다.  
불좌라고 할 만한 것은 1장의 돌에 경계만 새긴 것으로 떨어지는 돌이 아니다.

20) 약 162m



F119-006-004-004



F119-006-003-006

### 6. 왕궁탑(문서)

(イ) 소재지: 별지의 견취도 기재와 같음

(ロ) 형상 치수: 상동

(ハ) 현황: 소나무 숲 속에 있고 최하층 서쪽에 면하는 곳 정중앙의 석재가 무너져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이상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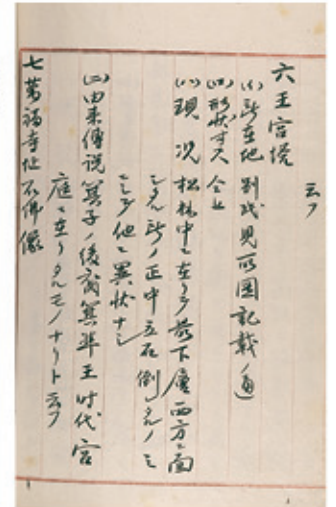
### 6. 왕궁탑(견취도)

소재지: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구 탑리)

형상: 높이 26척, 한 변 길이 9척, 석질 화강석, 층수 5층, 기단은 지중地中에 깊이 매몰되어 측정할 수 없다.  
1층 각 석재의 조립 상황



F119-006-004-005



F119-006-003-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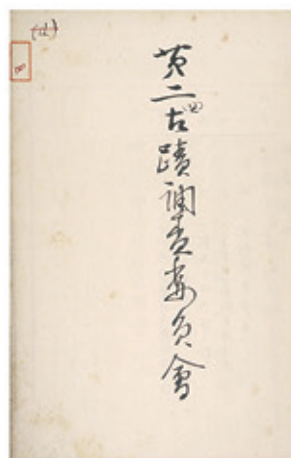


## 1916, 『第二回古蹟調査委員會』, 『古蹟調査委員會第一~十二回』(F058-005)

1915년까지 한반도 고적에 대한 대략적인 조사를 마친 조선총독부는 현재까지 조사 과정에 더해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이라는 법적 근거를 손에 넣게 되었다. 또 1916년 4월 26일에 고적조사위원을 임명하였고, 7월 4일 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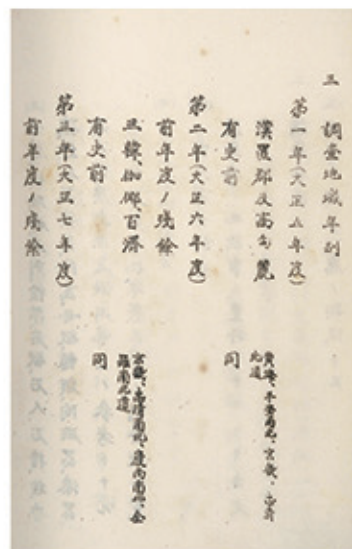
이에 의거 1916년 8월 12일에 개최된 제2회 고적조사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고적조사 5개년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연도별 조사 지역과 시기 등을 결정했는데, 두 번째 해인 1917년(大正6)의 조사 지역으로 '삼한, 가야, 백제'가 선정되었다. 문서에서는 '전년도와 잔여분과 삼한, 가야, 백제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기,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도의 유적을 조사하며, 유사이전(有史以前)의 유물을 찾아내는 것을 계획으로' 삼았다.

「대정5년도 고적조사계획 설명」에서는 전라북도 익산 마한 성지(城址)의 존재와 함께 신라, 백제 등에 관한 유적의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 「유적 및 유물 등록안 정오」에서는 전라북도에서 등록 예정이던 문화유산을 기록하여 명칭과 시대 등을 논의하였고 「고적 및 유물 보존의 건 추가」에서는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오층석탑의 보존계획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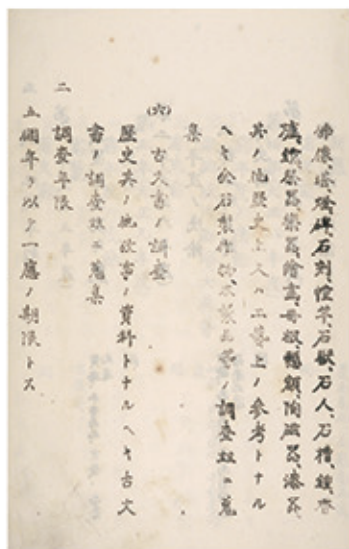


F058-005-00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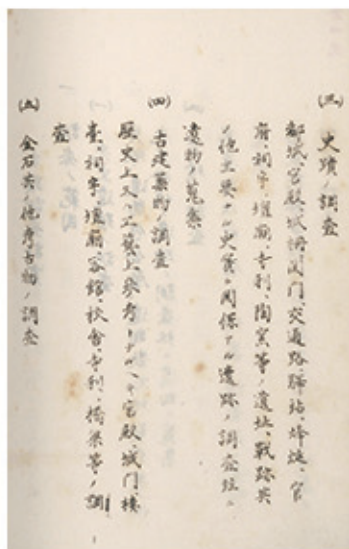
21) 고적조사위원회는 조선총독의 고적보존과 조사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위원회는 고적 유물의 조사, 보존, 공사, 등록에 관한 건을 협의의 결하게 했다. 학식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하고, 간사를 두어 사무를 맡게 했다. 고적조사의 사무는 처음 총독부 서무국 총무과에, 후에 총독부 서무부 문서과에 속하게 하였으며, 박물관 측탁 이하 박물관원이 일체의 사무를 집행했다. (藤田亮策, 1931, 위의 책, 91쪽,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2013, 『경북지역의 문화재 수난과 국외반출사』, 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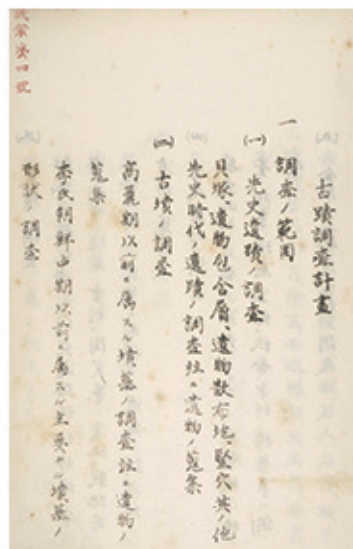
F058-005-004-004



F058-005-004-003



F058-005-004-002



F058-005-004-001

## 대정 5년도 고적조사 계획

### 一. 조사범위

#### (一) 선사유적 조사

패총, 유물포함층, 유물산포지, 수혈, 기타 선사시대 유적의 조사와 유물의 수집

#### (二) 고분 조사

고려시대 이전에 속한 분묘의 조사와 유물의 수집

이씨조선 중기 이전에 속한 주요 분묘의 형상 조사

#### (三) 사적 조사

도성, 궁전, 성곽城柵, 관문, 교통로, 역참, 봉수, 관부官府, 사우, 단묘, 사찰, 도요 등의 유적遺址, 전적, 기타 주요한 사실에 관계한 유적의 조사와 유물의 수집

#### (四) 고건축물 조사

역사상 또는 공예상 참고할 만한 궁전, 성문, 누대, 사우, 단묘, 객관, 교사, 사찰, 교량 등의 조사

#### (五) 금석 기타 고고물의 조사

불상, 탑, 등, 비, 석각, 당간, 석수, 석인, 석조, 종, 향로, 경, 제기, 악기, 회화, 책판, 현액, 도자기, 칠기, 기타 역사상 또는 공예상의 참고할 만한 금석제 작품作物, 목제품 등의 조사와 수집

#### (六) 고문서 조사

역사시대 기타 고사의 자료가 되는 고문서 조사와 수집

### 二. 조사연한

오개년으로 일단 기한을 둔다.

### 三. 조사지역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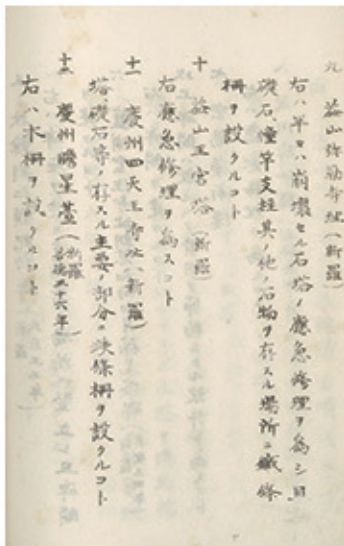
제2년 1917년(大正6)

전년도의 잔여 삼한·가야·백제·경기·충청남북·경상남북·전라남북도·유사有史 전 :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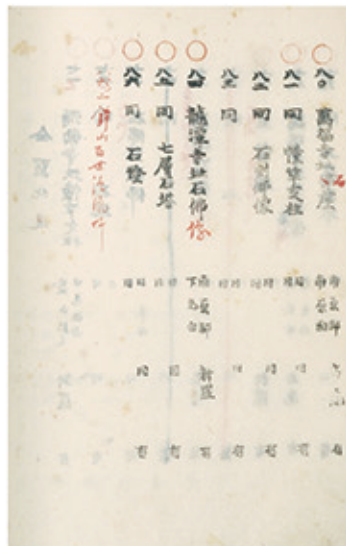
## 고적 및 유물 보존의 건 추가

九. 익산 비록사지(신라): 반 정도 붕괴된 석탑의 응급수리를 위하여 초석, 당간지주 그 밖의 석물을 나들 장소에 철로 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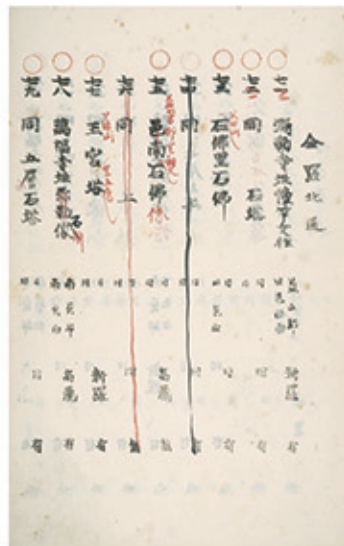
十. 익산 왕궁탑(신라): 응급수리를 위한 것.



F058-005-009-001



F058-005-006-011



F058-005-006-010



F058-005-006-001



1917, 「大正六年度古蹟調査計畫」, 『古蹟調査委員會第一~十二回』(F058-016)<sup>22</sup>

1917, 「第五回古蹟調査委員會 決議」, 『古蹟調査委員會第一~十二回』(F058-018)

이 문서는 1917년(大正6) 실시 예정이었던 고적조사계획(F058-016)과 결의 문서(F058-018)이다. 제5회 고적조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2월 16일에 기안, 20일에 결재되었다.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보존공사로 나누어 고적조사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때 특별조사 지역에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쌍릉을 포함시키고 각각 제도 및 사진원 2명을 두어 15일간 조사하기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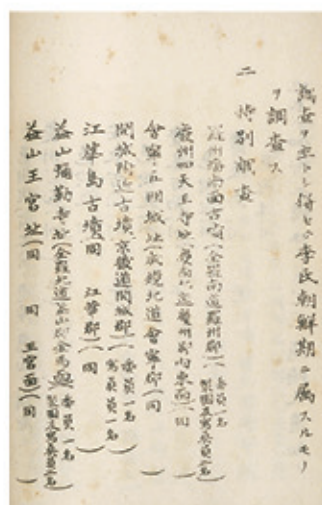
하지만 1개월 뒤 개최된 제5회 고적조사위원회(1917년 3월)에서는 익산 지역이 일반조사 지역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특별조사에서 재차 변경된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사 준비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여 평가기준의 재적용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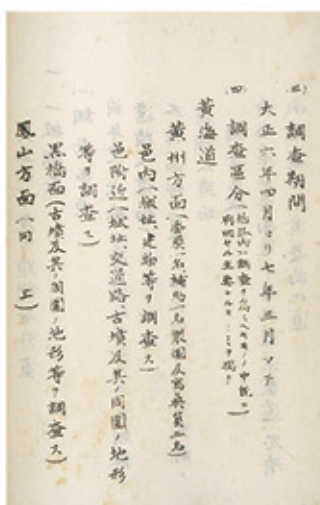
F058-016-003-001

22) 제5회 고적조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1917년 3월)에 기안한 문서가 결재되었다.(1917년 2월)

23) 일반조사: 고적조사 5개년 계획에 의거한 연차별 조사(조사범위: 선사, 고적, 사적, 건축물, 금석문, 고문서)  
특별조사: 긴급한 사정이 있어 본년도 내에 발굴·조사하여 관곽·棺槨, 부장품 등 유물을 수집하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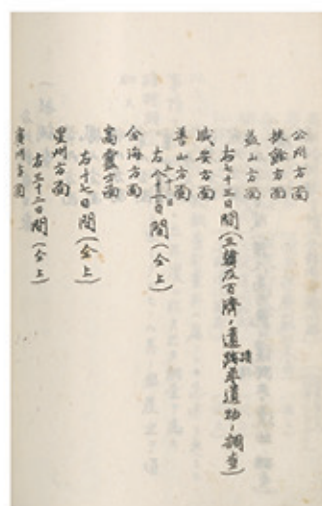
F058-016-003-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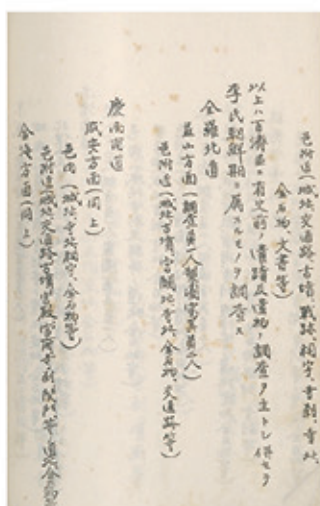
F058-016-003-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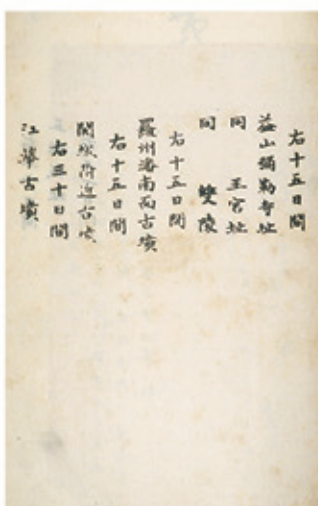
F058-016-003-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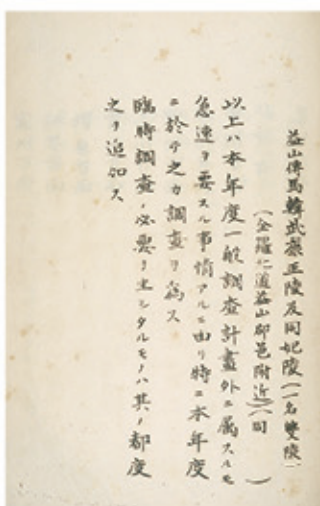
F058-018-002-012



F058-018-002-006



F058-016-003-021



F058-016-003-016

안案

계배

1917년(大正6) 고적조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알고자 하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경구

추신: 귀하의 출장에 지장 없는 시기 및 일수를 같이 회신 부탁드립니다.

1917년 2월 16일

발신인: 고적조사위원회 간사<sup>24</sup>

송신인: 세키노關野, 구로이타黑板, 이마니시今西, 도리이島居 위원 앞

건명: 대정 6년도 고적조사계획과 관계된 건

(중략)

二. 특별조사

(전략)

익산 미륵사지(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위원 1명, 제도 및 사진원 2명)

익산 왕궁지(전라북도 익산군 왕궁면)(위원 1명, 제도 및 사진원 2명)

익산 전傳 마한 무강왕릉 및 동동비통(일명 쌍릉)(전라북도 익산군읍 부근)(위원 1명, 제도 및 사진원 2명)

이상은 본년 일반 조사계획 외에 속하지만 급속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어 특히 본년도에 각각 조사를 실시한다. 임시조사의 필요가 발생하는 곳은 그 때마다 추가한다.

---

#### 대정 6년도 고적조사 계획

一. 일반조사

(一) 조사사항

전년도의 잔여

삼한, 가야, 백제 및 이씨조선을 아우르는 유사전의 유적 및 유물

(二) 조사구역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三) 조사기간

1917년 4월부터 7년 3월까지

(중략)

전라북도 익산방면(조사원 1명, 제도 및 사진원 2명)

읍부근(성지, 고분, 궁궐지, 사지, 금석물, 교통로 등)

(중략)

이상 삼한, 가야와 유사전의 유적 및 유물 조사를 주로 실시하며 병행하여 이씨조선기에 속하는 것들도 조사한다.

평주방면/직산방면/공주방면/부여방면/익산방면

(중략)

우측의 유적에 대해 73일간(삼한 및 백제의 유적과 유물을 조사)

24) 오다 미키지로 小田幹治郎



## 1918, 『谷井古蹟調査委員復命書』, 『大正五六年度復命書』(F001-018)

1917년(大正6) 2년차 고적조사는 1917년 5월 7일에 개시하여 1918년 1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고적조사는 전·후기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전라북도 익산 지역은 9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된 후기 조사지역에 해당했다. 정확한 조사기간은 남아있지 않지만 익산 쌍릉 조사 이후에 바로 이어진 나주 반남면 고분군 조사가 12월 17일부터 시작되었으며<sup>25</sup>, 『우메하라 고고자료梅原考古資料』중 쌍릉 도면에 '대정 6년 12월 12일 拓(大正六年十二月十二日拓)'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어<sup>26</sup> 1917년 12월 10일을 전후하여 익산 지역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단 대표는 고적조사위원이었던 야쓰이 세이이쓰였다. 그 외 측량·제도·촬영 등을 위해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노모리 겐野守健이 동행하였으나 노모리는 익산을 조사하지 않고 경기도와 충청남도까지만 함께 조사하고 복귀하였다. 야쓰이 조사단은 미륵사지 석탑과 당간지주, 왕궁리 오층석탑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쌍릉을 발굴하여 매우 간략한 복명서를 작성해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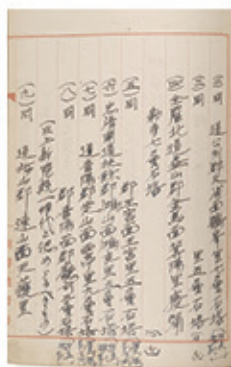
F001-018-001-001

25) 국립광주박물관, 1988, 『羅州潘南面古墳群』, 30쪽.

26) 국립전주박물관, 2015, 앞의 글, 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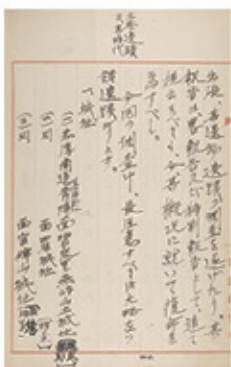
F001-018-002-001



F001-018-002-008



F001-018-0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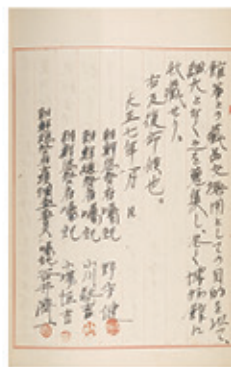
F001-018-0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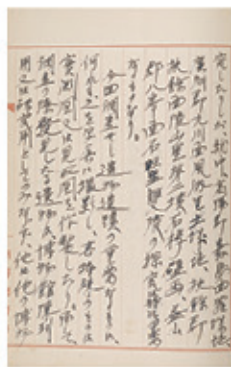
F001-018-0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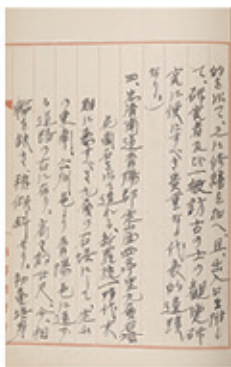
F001-018-00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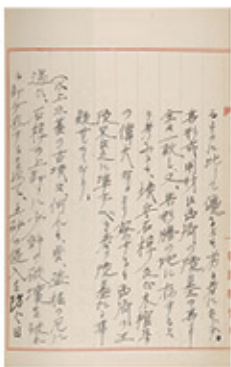
F001-018-002-032



F001-018-002-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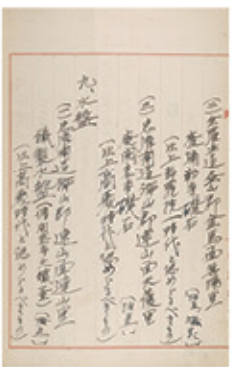
F001-018-002-021



F001-018-002-020



F001-018-002-019



F001-018-002-013

야쓰이 고적조사위원 복명서

성명	용무	출발일시	귀일일시	지방
야쓰이 세이이쓰	고적조사	1917.09.21.	1917.12.27.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오바 쓰네키치	고적조사	1917.10.27.	1917.12.27.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오가와 게이키치	고적조사	1917.09.27.	1917.12.27.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노모리 겐	고적조사	1917.09.21.	1917.11.22.	경기도, 충청남도

세이이쓰, 쓰네키치, 게이키치 및 겐은 고적조사를 위해 출장 명령을 받아 전기와 마찬가지로 주로 백제의 고지故地에 출장, 유물·유적의 조사를 수행하였음. 보고는 약보고 및 특별보고로 추가 제출할 것으로, 여기에서는 개황에 관해 복명함.

금회의 조사 중 가장 주의할 것은 대략 다음의 해당 유적임.(중략)

二. 고분

(八) [2기 내부조사] 전라북도 익산군 팔봉면 석왕리 쌍릉(답사, 촬영, 실측)

- 이상 백제시대로 인정되는 유적

三. 석탑

(四)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 폐미륵사 7층석탑(조사, 촬영)

(五) 전라북도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 오층석탑(답사, 촬영, 실측)

- 이상 신라통일시대로 인정되는 유적

六. 찰간지주

(一)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 폐미륵사 찰간지주 1쌍(조사, 촬영)

- 이상 신라통일시대로 인정되는 유적

八. 초석

(二)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 폐미륵사 초석(조사, 촬영)

- 이상 신라통일시대로 인정되는 유적

특별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유물유적

三. 전라북도 익산군 팔봉면 석왕리 쌍릉 대묘

예부터 전해지기를 마한馬韓시대의 왕릉으로 여겨졌으나 믿기 어려우며, 그것을 조사하니 쌍릉의 대묘, 소묘 모두 백제시대 말기의 능묘라는 것은 명백하다. 대묘大墓는 그 석곽 및 목관의 구조 웅위雄偉, 부여에서 백제 왕릉으로 전해지는 것에 비해 우수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형식, 용재用材는 백제의 능묘의 그것과 일치하고 또 그 지형에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도, 분구나 석곽 및 목관 등의 위대함을 생각한다면 백제의 왕릉 또는 그것에 준하는 자의 능묘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이상 3기<sup>27)</sup>의 고분은 모두 일찍이 도굴의 제앙을 당해, 석곽의 상부에 조금 파괴의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 토사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것에 수선을 더해 출입구를 설치하고 연구자 및 고적을 찾아다니는 사람訪古들의 관람, 연구에 편의를 제공할 귀중한 대표적 유적임).

(중략) 그것을 요약하자면 금회의 조사에 있어 장래 아직 일찍이 알려지지 않았던 마한시대의 유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청양군에서 조사하고, 왜倭시대의 유적으로 생각되는 것을 나주군에서 실사實査하였다. 광주군, 고양군, 부여군 및 익산군에 있어서는 백제의 많은 유적을 연구하였는데, 그중 고양군 독도면 나성지, 광주군 구천면 풍납리 토성지, 부여군 부여면 능산리 제2호 석곽 벽화, 익산군 팔봉면 석왕리 쌍릉의 탐구는 특히 주요한 것이다.

금번에 조사한 유물 유적의 중요한 것은 모두 사진 촬영하고 그 특수한 것은 실측도 또는 견취도見取圖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조사 시 발견한 유물은 박물관 진열용 또는 연구용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박물관 등과의 소장품 교환용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크고 작은 것 없이 그것을 수집하여 전부 박물관에 수장하였음.

위와 같이 복명함.

1918년(大正7) 1월

조선총독부 촉탁 노모리 겐野守健 조선총독부 촉탁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조선총독부 촉탁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 촉탁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장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 귀하

27) 3기는 특별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유물유적 해당 분(능산리 동상층, 동하층, 쌍릉 대묘)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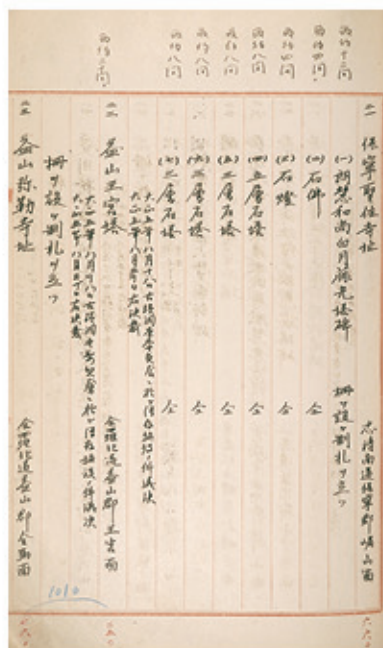


## 1919, 『大正八年度古蹟及遺物保存施設ノ件』, 『大正六-十古蹟補修工事施行ノ件一』(A065-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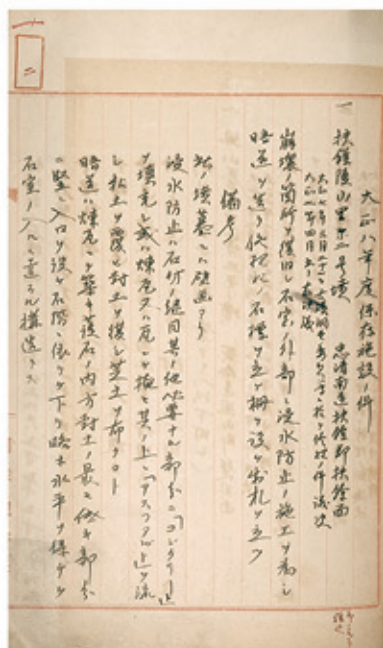
이 문서는 「등록대장」에 등록된 고적에 보존시설을 설치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익산 관련 기록은 문서의 22(왕궁리 오층석탑), 23(미륵사지), 30(쌍봉)번쨌에 해당한다.

왕궁리 오층석탑과 미륵사지 석탑, 당간지주 2기는 1916년(大正5) 8월 18일에 고적조사위원회에서 「보존시설의 건」으로 기안되었으며, 같은 달 30일 의결되었다. 설치하기로 한 항목은 목책柵, 금지 푼말繩札이었다. 소요 금액은 하단에 붉은 펜으로 작성하였는데, 왕궁리 오층석탑은 250원, 미륵사지는 석탑과 당간지주를 합해 75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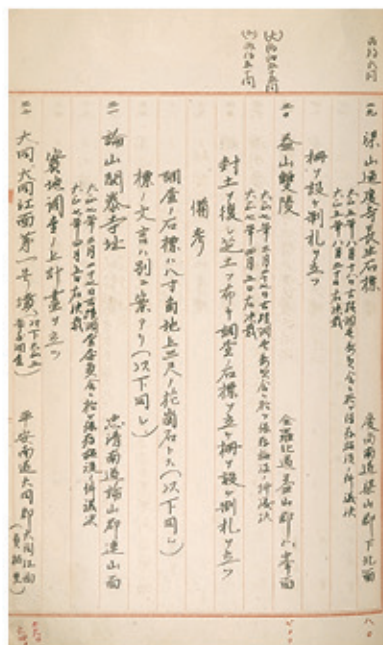
쌍봉은 1918년(大正7) 3월 27일 고적조사위원회에서 「보존시설의 건」으로 기안되었으며, 4월 5일 의결되었다. 설치하기로 한 항목은 석표石標와 금지 푼말이었으며 추가로 봉토를 복원하고 잔디를 식재하였다. 소요 금액은 700원이다.



A065-009-002-007



A065-009-002-001



A065-009-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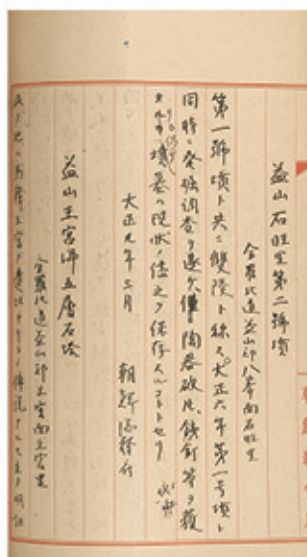
A065-009-002-008

## 1920, 『古蹟及遺物保存施設ノ件』, 『大正六-十古蹟補修工事施行ノ件一』(A065-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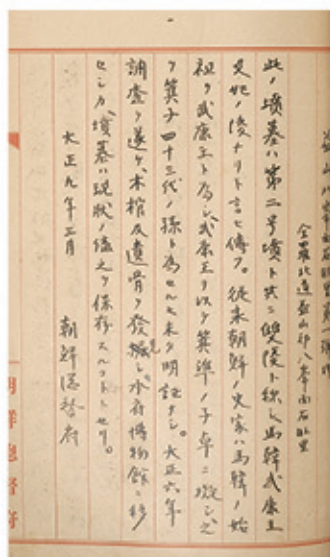
이 문서는 1920년(大正9) 실시된 쌍릉과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석탑의 금지 풋말 설치 내용과 그 현황을 담고 있다. 쌍릉은 대왕묘(팔봉면 석왕리 제1호분)와 소왕묘(제2호분)의 유래와 내용을 소개하면서 3월에 조선총독부에서 보존을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소왕묘(제2호분)는 제1호분과 함께 발굴하여 토기 파편 및 철정 등이 확인되었다고 작성하였다.

다음은 익산 왕궁리 유적과 왕궁리 오층석탑에 관한 내용이다. 1910년 조사를 실시했던 세키노의 의견을 따라 '마한의 왕궁유적' 전설과 함께 그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석탑은 통일신라시대 초기 옥개석 양식으로 판단하고, 탑의 규모를 보았을 때 대가람이 건립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이 부근 삼국시대 산성(미륵산성)을 언급하면서 쌍릉이 이 유적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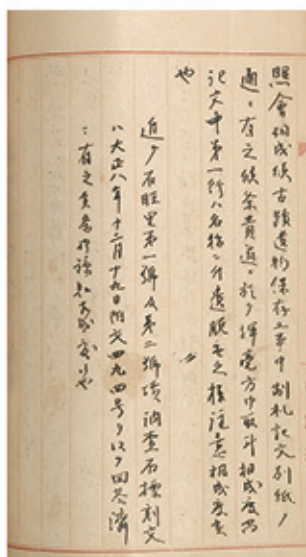
마지막은 미륵사지이다. 탑은 원래 7층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1915년(大正4) 수리하면서 초석과 석주를 함께 보존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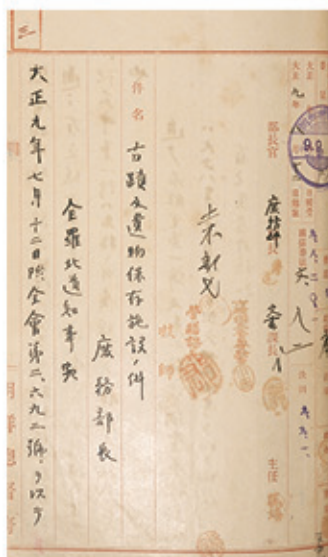
A065-034-00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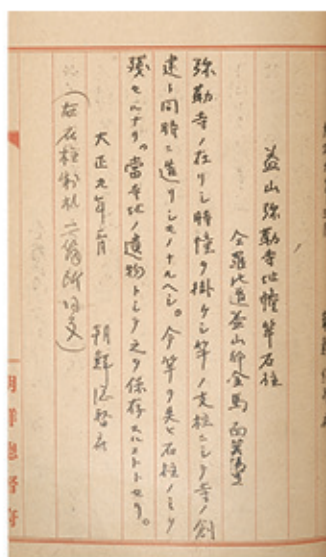
A065-034-001-003



A065-034-00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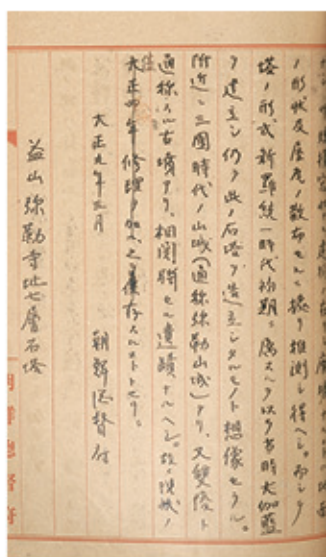
A065-034-001-001



A065-034-001-007



A065-034-001-006



A065-034-001-005



1920년(大正9) 8월 12일 기안 / 20일 접수 (관계번호 文, 82) / 決判 9.9.1.

발신인: 서무부장

송신인: 전라북도지사 앞

건명: 고적 및 유물 보존시설의 건

1920년(大正9) 7월 12일 전회全會 제 2,692호에 의해 조회되었던 고적 유물 보존공사 중 금지 푼말의 기문記文은 별지와 같으며, 귀 도의 휘호방揮毫方<sup>28</sup>이 담당합니다. 기문 중 제 1행은 명칭이므로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석왕리 제1호 및 제2호분 조사 석표 각문刻文은 1919년(大正8) 12월 19일부 文494호에서 회답하였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익산 팔봉면 석왕리 제1호분

- 전라북도 익산군 팔봉면 석왕리

이 분묘는 제2호분과 함께 쌍릉이라고 불리며, 마한 무강왕 및 비의 무덤이라고 전해진다. 종래 조선의 사가史家는 마한의 시조를 무강왕이라 하였고, 무강왕을 기준箕準의 아들 탁추으로 의심하였으며, 이를 기자箕子의 43대손이라 하였으나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다. 1917년(大正6) 조사를 마치고 목관 및 유골을 발견하여 본부 박물관으로 옮겼으나 분묘는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였다.

1920년(大正9) 3월 조선총독부

※ 익산 석왕리 제2호분

- 전라북도 익산군 팔봉면 석왕리

제1호분과 함께 쌍릉으로 불린다. 1917년 제1호분과 동시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도기 파편, 철정 등을 획득하였다. 분묘는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였다.

1920년(大正9) 3월 조선총독부

※ 익산 왕궁평 오층석탑

- 전라북도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

이 지역은 마한 왕궁의 유적지라는 전설이 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다. 다만 규모가 굉장히 큰 건물이 존재했음을, 발굴했을 때의 지면의 현상 및 기와瓦瓦가 산포하는 것을 근거로 추정할 수 있다. 거기에 탑의 형식이 신라통일시대 초기에 속하므로, 당시 대가람을 건립하면서 이 석탑을 조립造立하였다고 상상된다. 부근에 삼국시대 산성(통칭 미륵산성)이 있고, 또 쌍릉이라 칭해지는 고분이 있어 서로 관련을 가진 유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현상 그대로 이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1920년(大正9) 3월 조선총독부

※ 익산 미륵사지 칠층석탑

-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

이 지역은 미륵사의 유적지로서, 지금은 겨우 일부의 초석과 탑, 당간석주가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꽤 장려壯麗하며 경역境域의 광대함이 상상을 초월한다. 거기에 탑의 형식은 한 번도 다른 곳에서 유사한 예를 본 적이 없으며, 그 고대高大한 점에서도 이것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다. 수법에 따라 추측할 때 조립은 왕궁평과 같이 신라통일시대의 초기에 속하며, 절의 창건 또한 동시대일 것이다. 1915년(大正4) 수리를 더해, 초석 및 석주와 함께 보존하도록 하였다.

1920년(大正9) 3월 조선총독부

※ 익산 미륵사지 당간지주

-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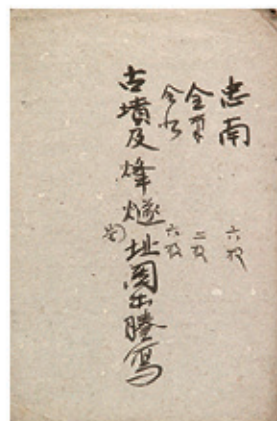
미륵사가 존재하던 때 당櫺을 걸던 간주의 지주로, 절의 창건과 동시에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지금은 간을 잃고 석주만이 남아있다. 당櫺 사지의 유물로 이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1920년(大正9) 3월 조선총독부 (위 석주 제찰 두 개소 同文同文)

28) 글 쓰는 직위로 추정된다.

1915~1923, 『忠南·全南·全北古墳及烽燧址圖出勝寫』, 『文化財記念物關係區域圖』(F158-012)

1915년부터 1923년에 걸쳐 작성된 고분 및 봉수, 기지 도면圖出勝寫이다. 전라북도에서는 6개소가 조사되었고, 익산 지역 도면은 그중 3건이다. 도면은 각각 다른 축척으로 작성되었으며 이곳을 확인하기 위한 주변 지형을 소개하고 있다. 도면 내 유적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의 범위표시는 문화유산을 정비한 후 설치한 방지 목책이거나 유적 범위를 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쌍릉과 왕궁리 오층석탑 도면 주변에는 이곳저곳 지명이 적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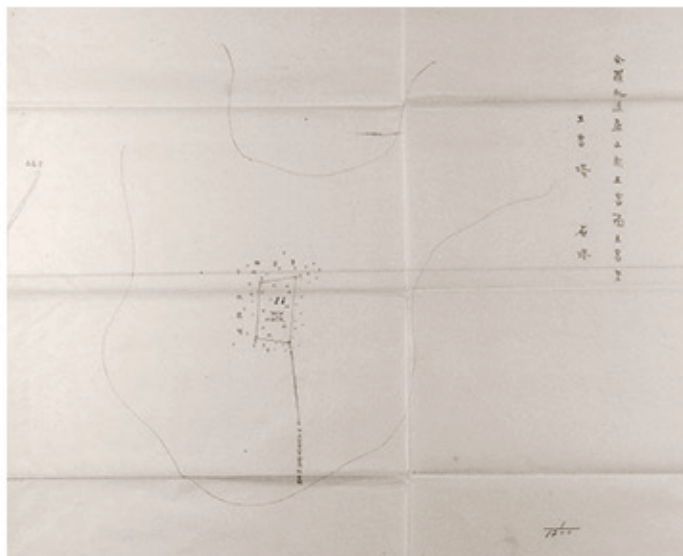
F158-012-001-001



F158-012-004-001(전라북도 익산군 삼기면 연동리(구 석불리) 석불리 석불 1/1200)



F158-012-005-001(전라북도 익산군 팔봉면 석왕리 쌍릉 1/3000)



F158-012-006-001(전라북도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 왕궁탑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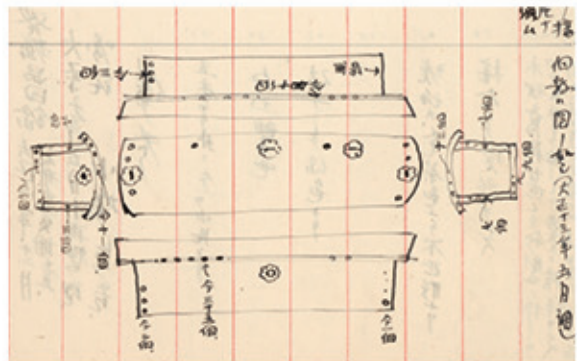


1924,「谷井委員調查蒐集品目錄－蠶島,益山,青陽,夫餘 調查蒐集品目錄」,  
「古蹟調查蒐集品引繼目錄3」(F137-003)

1917년(大正6) 익산 고적조사를 수행한 야쓰이 조사단이 수집한 자료들은 1918년(大正7) 『대정7년도 진열물품청구서大正七年度陳列物品請求書』에 기입되었으며<sup>29</sup> 6년 뒤 1924년(大正13)에는 축적이었던 오바 쓰네키치, 오가와 게이키치, 노모리 겐에 의해 유물들이 재정리된다. 익산은 오바가 담당하였으며 그 목록은 '전라북도 익산군 팔봉면 석왕리 쌍룡(대왕묘) 발굴품 목록'과 '전라북도 익산군 조사 수집품 목록'으로 재구성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오금산토성지, 왕궁리 유적, 쌍룡 주변, 미륵사지가 대상이었다.

29)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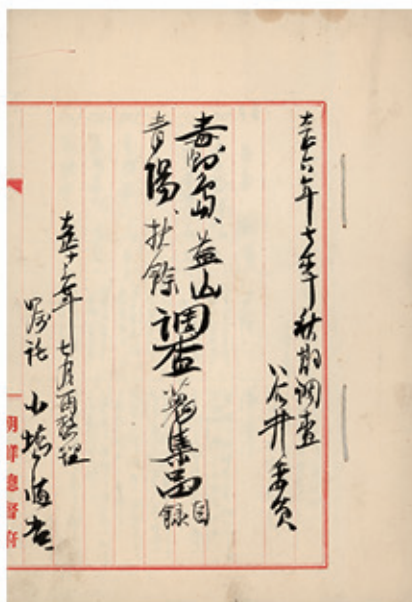
30) F137-003-007-004 도면 상세



F137-003-007-003



F137-003-007-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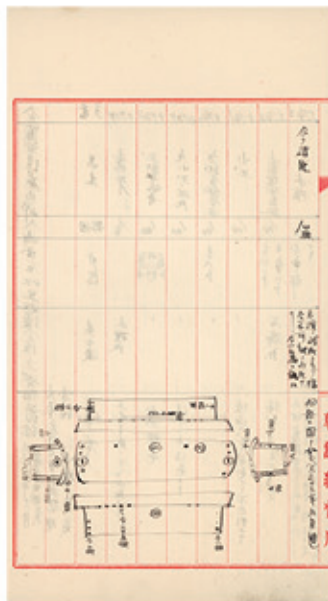
F137-003-007-001



F137-003-007-006



F137-003-007-005





F137-003-007-004

1917년(大正6), 1918년(大正7) 후기 조사 야쓰이 위원  
1924년(大正13) 7월 재정리 측탁 오바 쓰네키치


전라북도 익산군 팔봉면 석왕리 쌍룡(대룡 부분) 발굴품 목록

1917년(大正6) 12월 야쓰이 위원 조사  
1924년(大正13) 5월 말 재정리 측탁 오바 쓰네키치

번호	품명	개수	존법	출처	비고
5937	치아	1개		목관 내	5제 있음, 외부에 작은 파편 하나 있음.
5938	옥제 장구裝具	1개	 지름 8.4분	목관 내	백옥제
5939	환소옥丸小玉 파편	1개		목관 내	유리로 녹색
5940	방공청동좌금 方孔靑銅座金	1개	지름 8분	목관 내	
5941	소옥	1개		목관 내	호박인가? 금차색金茶色으로 부정형
5942	소소도기완 素燒陶器盪	1개	높이 약 2촌, 지름 5촌 6분	석곽 내	집합되어 완형
5943	목관	1개	도면 상세 <sup>30</sup>	석곽 내	목제의 부식이 심하고 ○제의 테두리桴 안 쪽으로 끼어서 간신히 관체를 지탱함. 도금 된 금구 및 못 등 잔존
	목관 파편	1상자		집합 불가능한 소 파편으로 한 상자 에 수납	개수는 도면과 같음.(1924년 5월 조사)
5943-2	목제 받침대	1개		석곽 내 산재	하나의 것이 현재 3개로 분리됨. 원형을 알 고 있음. 현재 임시로 조립해서 한 개로 취 급해서○○○하였다.
5943-3	고제 잔편 古材 殘片	1상자		석곽 내 산재	4편, 용도불명
5943-4	유문 목제 有文 木材		 지름 9.2분	석곽 내	현재 3편으로 원형을 알고 어지럽혀 있는 대 무언가의 받침대와 같고 금박을 입힌 당 초문 있음.

전라북도 익산군 조사 수집품 목록

1917년(大正6) 12월 야쓰이위원 조사  
1924년(大正13) 6월 17일 재정리 측탁 오바 쓰네키치

번호	품명	개수	존법	출처	비고
5944	도기 파편	6개		익산군 오금산, 토성지	소소도기의 작은 파편임.
5945	기와 파편	1개		익산군 오금산, 토성지	
5946	기와 파편	2개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	
5947	기와 파편	5개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	평와平瓦 및 서까래기와椽瓦의 파편으로 ㉠문양 이 포함되어 있음.
5948	도기 파편	1상자		익산 쌍룡 부근 수집품	파편 12점이 있음.
5949	수막새	1개		미륵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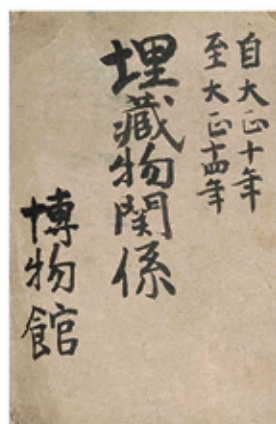


1923~4, 『遺物發見ニ關スル件』, 『大正十~十四年度埋藏物關係』(B007-048)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에 따르면 각지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은 관할 경찰서에 서 보관 후 도지사를 거쳐 조선총독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sup>31</sup> 이후 총독부 박물관에서는 소속 관원을 해당 지역에 보내거나 유물을 직접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가져와서 조사하였으며,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면 유물은 국고로 귀속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이관하였다.

「유물 발견과 관계된 건」 역시 왕궁리 부근 '제석사'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라銅羅와 금불관<sup>32</sup>을 발견하여 익산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하고 전라북도지사 명의로 경무국장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이 문화재 발견 이야기는 신문지상에도 실리며 화제를 끌었으며, 이마니시 류는 「전라북도 서부지역 여행잡기」에서 이 내용을 확인·소개한다.(논고3)

그후 조선총독부 박물관협의회의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가 아미타상 머리 1기와 기와 파편 2점 그리고 동라를 평가한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유물평가서에는 동라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유물은 최종적으로 3점만이 1925년(大正14) 2월 23일 발견품으로 최종 입수되었다.<sup>33</sup> 광복 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인수하여 본관 번호를 부여하였다.<sup>34</sup> 등록된 3점 중 아미타상 머리 1점은 한국전쟁 때 망실되었고, 현재는 「釋寺」 명문 기와 파편 2점만 소장되어 있다.



B007-001-001-001

31) 「古蹟及遺物保存規則」 제3조: 고적 또는 유물을 발견한 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3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지역 경찰서장(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또는 분견소의 장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찰서장이 전항前項의 신고를 받은 때는 바로 전조前條의 사항을 조사하여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32) 보고서에는 아미타상 머리 부분으로 작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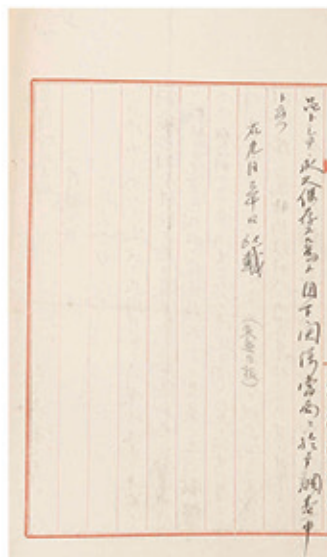
33)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9

34) 본관9815(아미타상두부阿彌陀像頭部), 본관9816(외파편瓦破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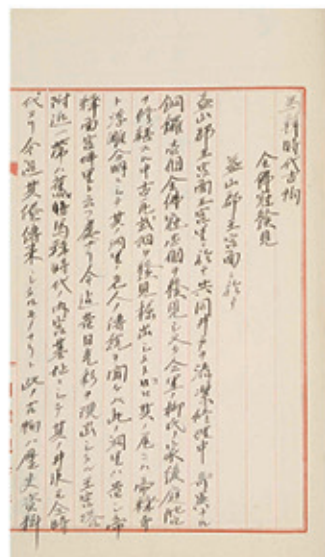
\* 1924. 9. 30일자 동아일보 기사 '마한시대고물馬韓時代古物 금불관발견金佛冠發見'<sup>35</sup>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에서 공동우물井戶을 청소 수리하는 중에 기이한 동라銅羅 1개, 금부처관金佛冠 1개를 발견하였고, 또 같은 마을의 유柳씨 집 뒤뜰 계단을 수선하는 중에 옛 기와 2장式圖을 발견하여 파내었다고 하는 바, 그 기와에는 '제석사帝釋寺'라는 부조浮彫가 나타나 있다. 그 마을의 노인에게 전설을 들은 바 이 마을은 옛날 제석면 궁평리宮坪里라고 하였던 곳으로 지금 옛날의 광채가 드러나는 왕궁탑 부근 일대는 구 마한시대의 내궁內宮 터로서 그 우물도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래되어왔다고 하고, 이 옛 물건은 역사자료로서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목하目下 관계당국에서 조사 중이라고 한다.

35) 동아일보, 1924-09-30, <馬韓時代古物 金佛冠發見>.(관련사진은 고1 참조)



B007-048-004-002



B007-048-004-001

1924년(大正13) 10월 18일

관계번호: 전라북도경찰부 보보 제2046호

발신인: 전라북도지사

송신인: 경무국장

건명: 귀중물 발견의 건

관하管下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 유물을 발견하여 발견자가 보관 중이며 소관인 이리裡里경찰서에서 이를 탐지하여 조사하니 해당 유물은 고고자료가 될 만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사 및 보고합니다.

추가로 현재 물품은 10월 18일 운송편으로 귀국貴局에 완연히 송부를 하였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 1. 종류 및 유형

㉮ 아미타상 머리頭部 1개(길이 약 4촌, 폭 약 2촌 5푼)

㉮ 기와 파편 2개

㉮ 동라銅羅 1개

#### 2. 발견 장소 및 원인

아미타상과 기와는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 유예관柳藝冠이 1921년(大正10)(날짜미상)경 자택 뒤뜰에서 땅을 고르고 있을 때 땅 속에서 발견하였고 동라는 수백 년 전 같은 마을에서 같이 정호井戸(공동우물)를 파고, 이를 사용하던 중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 3. 유래 및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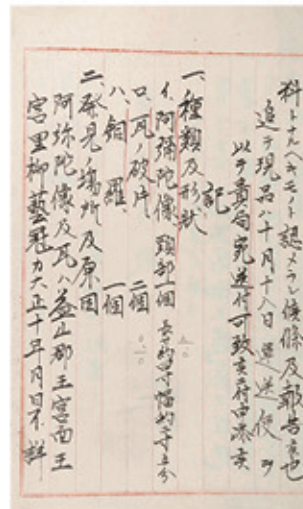
유물이 발견된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에는 신라시대의 유적이라 전해지고 있는 왕궁탑이 현존하며 ... (중략) ... 마을사람에게 전승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왕궁탑의 북쪽 약 2정의 땅에 제석帝石이라 전해지는 기암이 있어 이로 인해 원동元同지방을 제석면이라고 칭하게 되었고, 그 이후 부군을 폐합한 결과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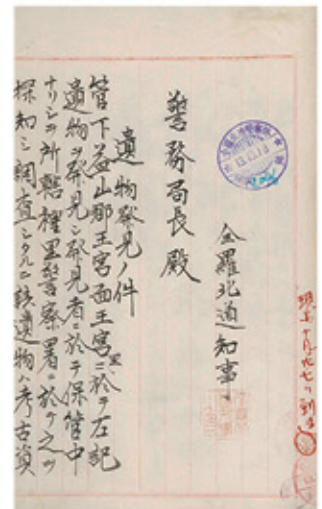
(2) 이곳에서 발견된 옛 기와에는 제석사帝釋寺라는 문자가 있는데 제석帝石과 제석帝釋은 조선어에서 동음이 되는 것으로 같은 지방이 옛 제석면에 사찰이 존재하는 것이 명확해진다.

(3) 왕궁리에 현존하는 독산獨山이라 불리는 구룡에는 오래된 비석이 있어 비와 이슬에 의한 침식에 의해 현재 비문이 판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은 마한시대 왕성 내 궁의 유지遺址가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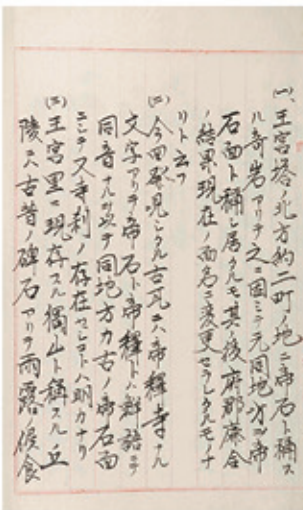
이상 전설 등을 종합한 바 이번 발견 유물들 중에 앞에 기록한 고적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은 기존문헌 자료들의 근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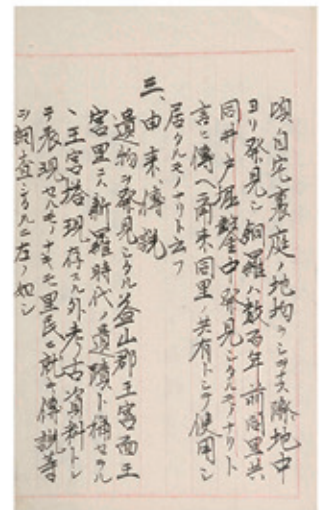
B007-048-003-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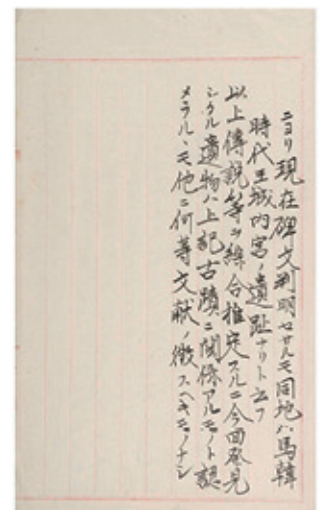
B007-048-003-001



B007-048-003-004



B007-048-003-003



B007-048-003-005



1925년(大正14) 2월 17일 기안 / 23일 결재

발신인: 학무국장

수신인: 전라북도지사

건명: 유물발견에 관한 건

1924년(大正13) 10월 13일 保/募(보협) 2046호로 보고된 유물 아미타상 머리頭部 및 기와 파편을 학술 참고로 처리할 수 있다. 동라는 학술 참고의 자료로 족하다. 이를 반송하여 보내니 종래대로 사용하고, 후진後進은 서로 보완하여 해야될 것을 위임한다.

45

右之通評價候也

大正十四年 二月十七日

朝鮮總督府博物館協議員

藤田亮策

品目	數量	單價	總價	備考
阿彌陀像頭部	一	五〇〇	五〇〇	
瓦破片	二	〇五	一〇〇	

B007-048-002-001

45

學務局長 全羅北道知事

件名 遺物發見ニ關スル件

大正十三年十月十三日 保募二〇四六號ヲ以テ  
御報告ノ遺物阿彌陀像頭部及瓦ノ  
破片ハ學術ニ參考トシテ處理可致候  
銅羅ハ學術參考ノ資料ニ足ナル  
物ニ付及返送候條從來使用ニ來リ  
之者、御交附相成度候也

學務局長

14年2月17日

B007-048-00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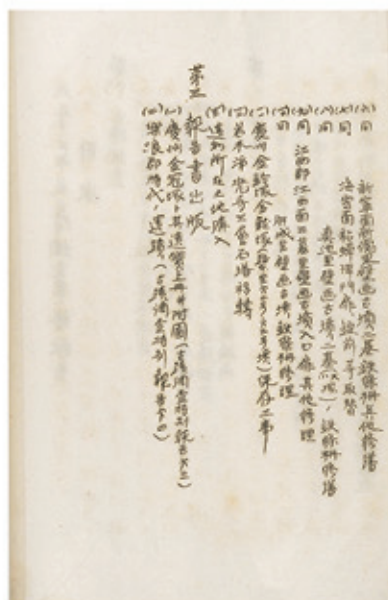
1924,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事務報告』, 『蹟調査委員會ニ關スル綴』(F057-006)

이 문서는 1924년(大正13)까지 실시한 금령총·석리총 및 백제 유적 등에 대한 고적 조사와 보존공사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고적조사 4번 항목에 해당하는 <전북·충남북도에 관한 백제의 유적조사>의 보고 내용에는 조사 날짜가 1925년(大正14) 3월로 작성되어 있다. 이 조사도 1924년 계획의 일부였으며 1924년도 사무보고가 1925년 초반의 조사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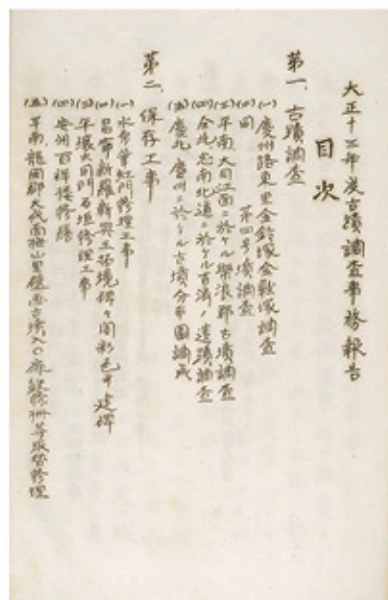
백제 유적 조사 담당 오오하라 도시다케大原利武는 전라북도과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조사하였다. 그는 백제부흥운동기 왜의 구원군이 도착한 곳으로 전해지는 백촌강白村江에 대해 조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북명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F057-006-002-001



F057-006-002-003



F057-006-00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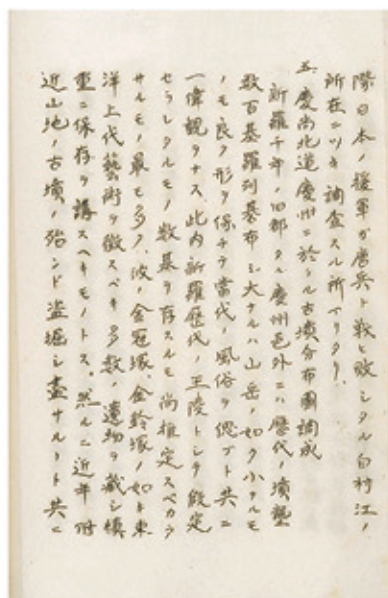
#### 대정 13년도 고적조사 사무보고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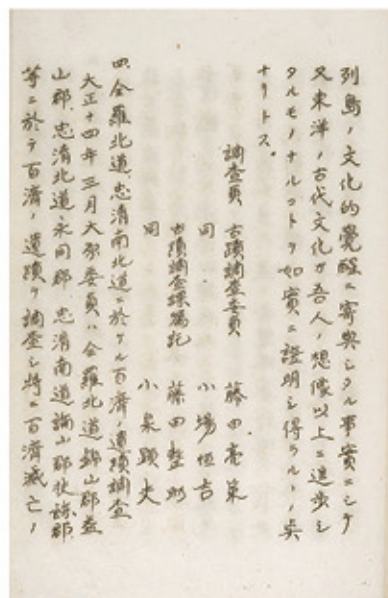
##### 제1. 고적조사

##### (전략)

##### 四. 전북·충남북도에 있어서 백제의 유적 조사



F057-006-002-017



F057-006-002-016

1925년(大正14) 3월 오오하라 위원은 전라북도 금산군, 익산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논산군, 부여군 등에서 백제의 유적을 조사하였는데, 특히 백제 멸망 시 일본의 원군이 당병과 싸워 패한 백촌강 소재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다.



1926, 『廣州船里, 岩寺里等調査報告』, 『大正十二年~十五年復命書』(F004-020)

조선총독부는 1919년 내무부 산하였던 학무국을 총독부 직속으로 승격하였다. 따라서 총독부박물관은 학무국 종교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 후 1921년 10월 학무국에 새로이 고적조사과를 설치하고 '고적, 고사사古寺社, 명승 및 천연기념물 등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과 함께 '박물관에 관한 사항'을 따르게 하였다.<sup>36</sup> 1924년부터는 고적조사과를 폐지하면서 업무들이 종교과로 재차 이관되었다. 종교과에서는 기존 고적조사과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당시 진행 예정이던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에 대한 고적 및 보존상황 조사를 당시 종교과에서 근무하던 기수技手 다나카 슈조田中十藏에게 맡겼다. 그는 조사 명령에 의거하여 1926년(大正15) 두 차례 조사를 실시했는데 두 번째 조사 중 전라북도 익산에 방문하고 합라면 부근(합라)산성을 조사하여 복명서를 제출하였다.



F004-020-002-001

36) 박경식, 1986,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 405쪽.

#### 복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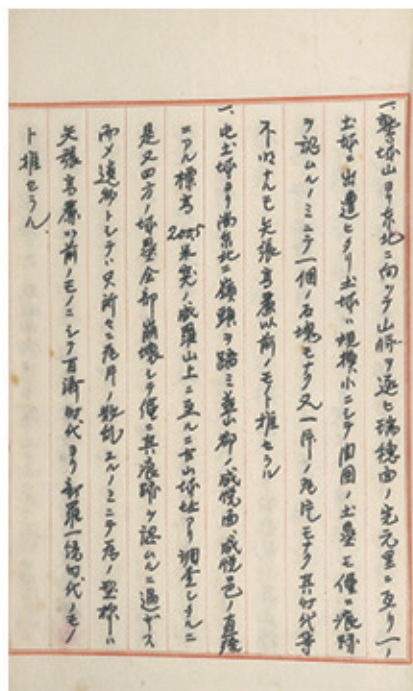
발신인: 다나카 슈조

송신인: 학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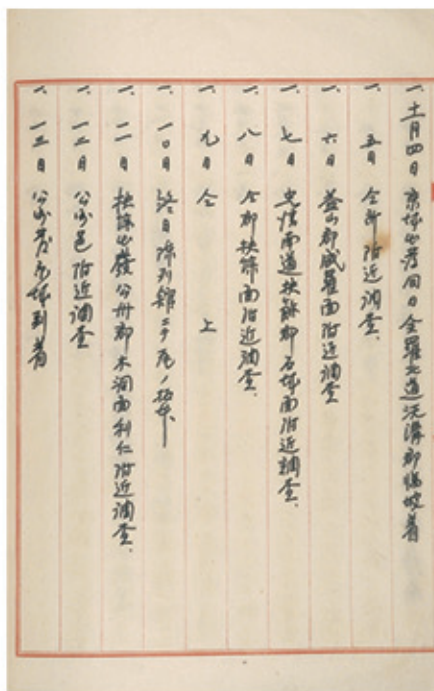
명에 따라 1926년(大正15) 6월 11일 경성을 출발하여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암사리에 도착하여 다음 일정에 의해 조사 및 측량에 종사하였다. 동년 7월 4일 일단 경성으로 돌아와 동년 11월 4일 경성을 출발하여 충청남도 부여, 공주를 조사하고 동년 동월 13일에 경성으로 돌아와 이에 복명함.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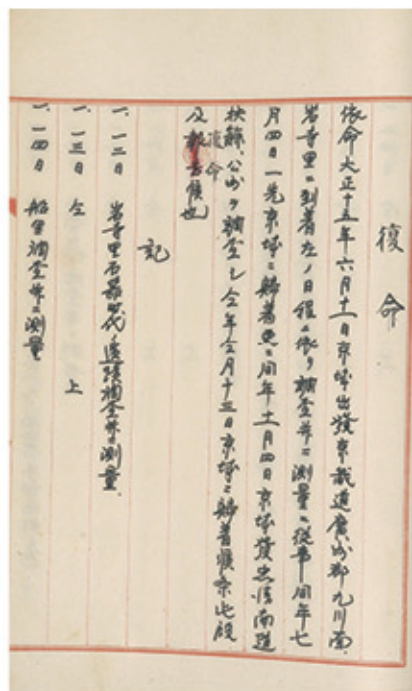
1. 이 토성에서 다시 북쪽으로 영두嶺頭를 넘어 익산군 합라면, 합열읍 직후에 있는 표고 200.5m 합라산 위에 다다르니, 위 산성지가 있어 조사하니 이 또한 사방의 성루城壘 전부 붕괴되어 겨우 그 흔적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고, 그리고 유물은 곳곳에 기와 조각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을 뿐이다. 기와의 형태는 아무래도 고려 이전의 것으로, 백제시대보다는 통일신라시대의 것이라고 추정된다.



F004-020-004-027



F004-020-003-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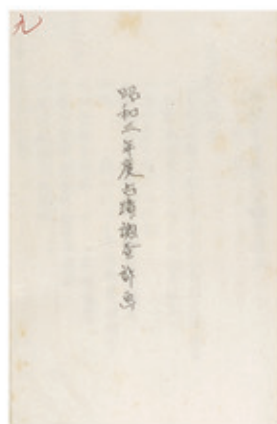
F004-020-003-001

1928, 「昭和三年度古蹟調査計劃」, 『古蹟調査委員會ニ關スル綴』(F057-011)

1928, 「昭和三年度古蹟調査事務報告」, 『古蹟調査委員會ニ關スル綴』(F057-014)

본 문서는 1928년(昭和3) 작성된 고적조사계획 문건이다. 학무국 종교과에서 실시한 제30회 고적조사위원회(1928년 8월 1일)에서는 결의를 거쳐 그 해의 고적조사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고적조사부에서 익산군 금마면 미륵사지에 관한 조사를 계획하였다.

오가와 게이키치는 제32회 고적조사위원회에서 「소화3년 고적조사 사무보고昭和三年古蹟調査事務報告」라는 보고서로 경과를 보고했다. 추가로 「미륵사지유물彌勒寺址遺物」이라는 별도의 문서로 미륵사지를 다녀온 사진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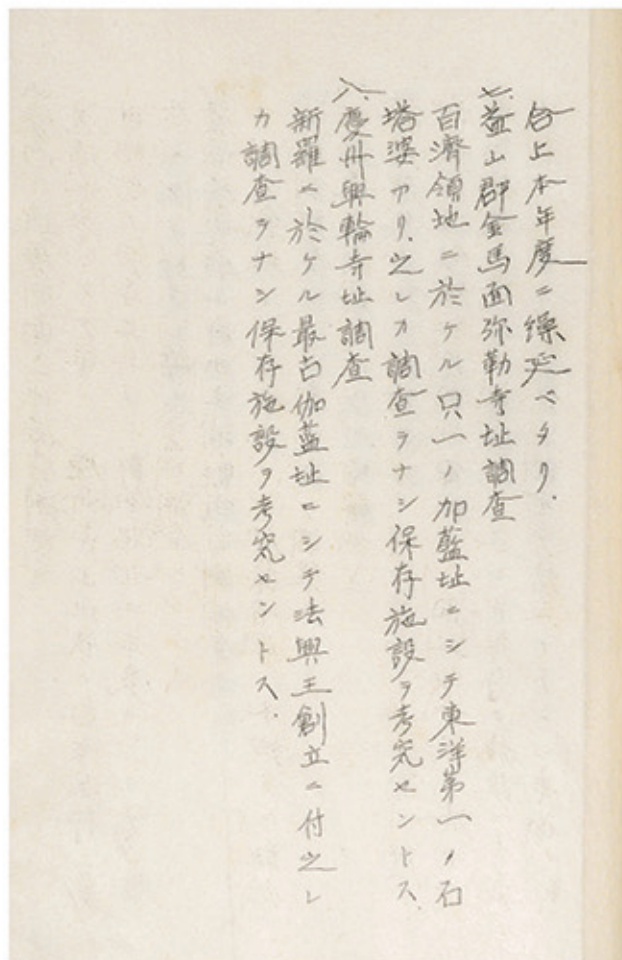
F057-011-001-001

#### 소화 3년도 고적조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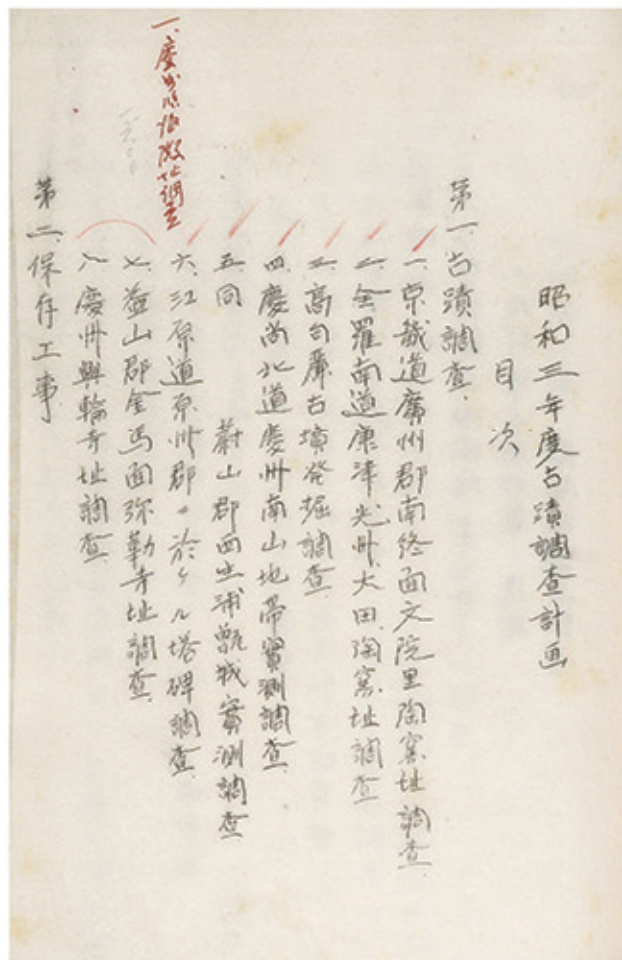
##### 第一, 고적조사

##### 七. 익산군 금마면 미륵사지 조사

백제지역에 있어 유일한 가람지로 동양 제일의 석탑이 있는 곳이다. 이를 조사하여 보존시설 설치를 궁리하여 시도해 보고자 한다.



F057-011-001-006



F057-011-00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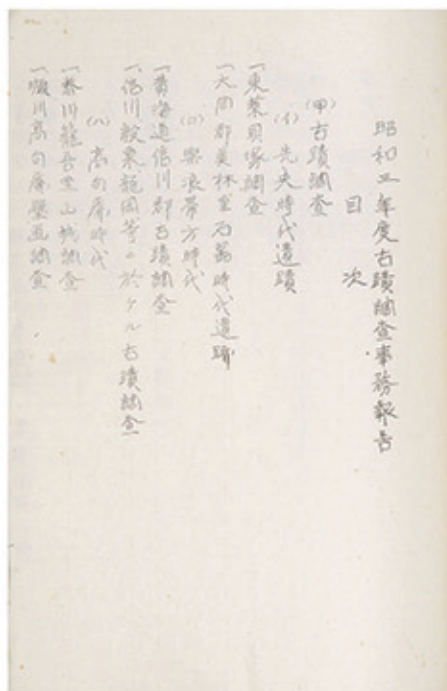
소화 3년도 고적조사 사무보고

(2) 사찰지 및 석조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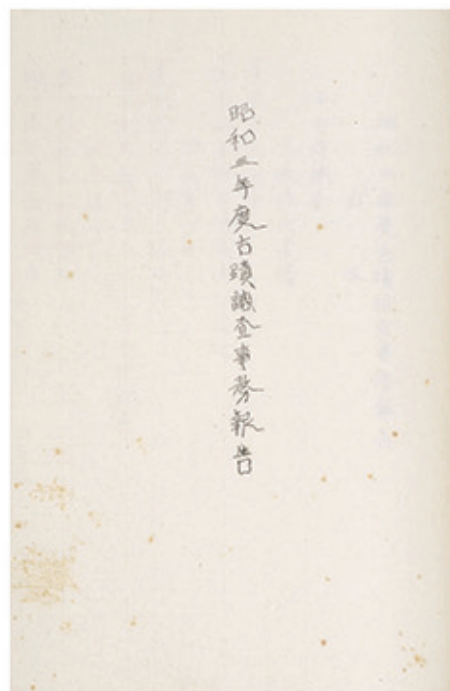
1. 익산 미륵사지 조사

1928년 4월 및 10월 두 차례, 기수 오가와 게이키치는 전북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 미륵사지를 조사하여 동·서 양 사찰지를 서로 대응하여 탑, 금당, 강당 등이 배치되어 있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런 유형은 사찰지로서 매우 희귀한 구조와 배치를 갖는 것이므로 영구보존 계획을 세우고, 1929년에 사유 전답 부분을 구입할 예정이다. 위 사찰지에 있는 서탑(속칭 왕궁탑)<sup>37</sup>은 고적 보존 규칙에 의해 등록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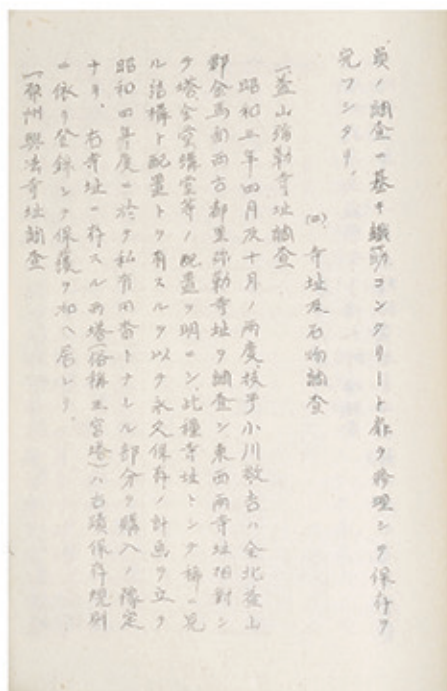
37) 미륵사지 석탑의 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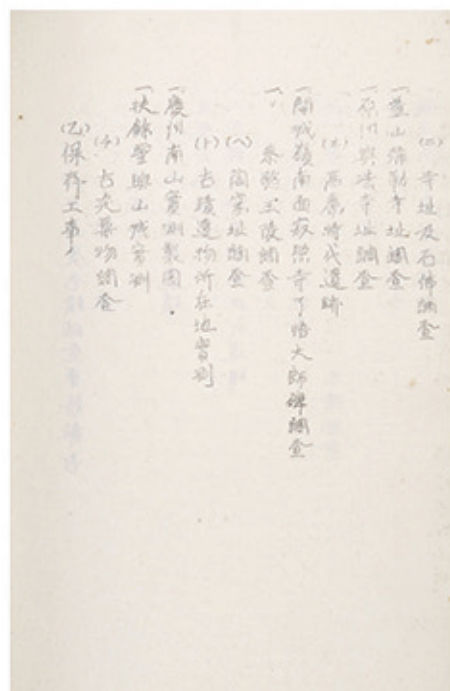
F057-014-001-002



F057-014-001-001



F057-014-001-012



F057-014-001-003

1930, 『慶尙北道慶州郡漆谷郡全羅北道益山郡城址調査』, 『昭和五-七年度復命書』(F007-005)

1930년(昭和5) 종교과 기수 다나카 주조는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성지 조사의 명을 받고 1930년 3월 2일 출장을 시작하여 경상북도 경주와 칠곡을 거쳐 전라북도 익산군에 도착했다. 그는 왕궁면을 중심으로 학현산성과 왕궁리 오층석탑에 관해 조사하고 15일에 복귀, 학무국장 앞으로 복명서를 제출했다.

#### 복명서

1930년(昭和5) 5월

발신인: 다나카 주조 종교과 기수

송신인: 학무국장

1930년 3월 2일 출장을 복명하여 동일 경성을 출발, 경상북도 경주군 양북면, 동동군 강동면, 칠곡군 인동면, 전라북도 익산군 왕궁리 등에 있는 성지城址를 조사하고 동월 15일 귀청하였다.

(중략)

학현산성은 전라북도 익산군·왕궁리 동룡리에 있는데 전주군 경계에 접하는 산 위에 있다. 둘레 약 500미터로 동쪽은 높고 서쪽으로 가면서 급격히 낮아진다. 석축이지만 이미 붕괴되어 오로지 그 주변에 석루石臺가 쌓여 있을 뿐이다. 구축 연대는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토기, 기와 파편 등으로 유추해 보면 백제 말기나 신라통일시대 전후라고 생각된다.

(중략)

#### 별기: 왕궁탑

이것은 이번 용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구 익산읍 근처에 있으므로 일정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왕궁탑은 구 익산읍 남쪽 약 2킬로미터로 읍에서 삼례역으로 통하는 가도街道 왼쪽 밭에 있다. 형제는 별지 사진과 같이 오층으로 마치 부여 평제탑과 유사하다. 탑의 기단부는 전부 흙에 묻혀 있다. 탑이 북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붕괴를 막기 위하여 어느 시대인가 흙을 쌓아 기단을 묻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건설시점은 불명확하지만 이 읍 북쪽 기양리에 있는 미륵사지탑 또는 평제탑 등과 동시대에 건설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탑을 왕궁탑이라고 명명한 것은 어떠한 고사에서 연유한 것인지 추정하건대, 왕궁탑의 사방으로 지금도 토루의 흔적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세히 탐사하니 서쪽 삼례 가도 변으로 다수의 기와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마침 이 토루는 도로에 접해 약 300m 정도가 남아 있고, 북쪽 농지와 소나무 숲에도 동일한 형태의 토루가 있어서, 동북쪽의 경사면에서 그 경사면에 접해 남쪽으로 뻗어나가 탑의 동쪽 논밭 한 쪽에 접하고, 동남으로 이르러 탑의 남쪽 약 100m 떨어진 논두렁까지 이어지고 서쪽으로 뻗어나가 도로변에 이르러 닫힌다. 형상은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지금은 그 서쪽과 북쪽에 있는 것이 토루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단면을 살펴보면 속에는 경복궁 주변에 있는 토벽과 같이 석루 위에 기와를 얹은 토벽이 파손된 형상으로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이것은 사지로서는 아무래도 규모가 거대하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제목으로 다우고 있는 이 탑 뿐이다.

북쪽 가장 높은 곳에는 이 부근에서 보기 어려운 정갈 진귀한 이형의 대리석이 2, 3절 있다. 그 형제로 보건대 정원석으로서 실로 양호한 것이지만 현재 보이는 것은 표면에 텍지라고 판단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사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택 또는 궁궐지일 수밖에 없다. 이곳에 흩어진 기와 조각의 문양 등으로 보면 통일신라 전후의 것이므로 앞에서 누차 언급한 안승 즉 보덕왕이 이 지역에 별국別國을 조영한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 그러나 탑은 이 지역이 백제시대 사지가 아니었다면 궁전을 장식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옮겨 놓은 것은 아닐까. 아무튼 발굴조사를 행하여 현재 조금 유물을 검토하였더니 명확히는 말할 수 없지만 왕궁이라는 이름을 이 탑에 붙이게 된 것은 주위의 토루 등으로 보건대 보덕왕이 별궁을 한 때 건설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보는 바이며 그 기록을 남겨 후일의 참고로 삼고자 한다.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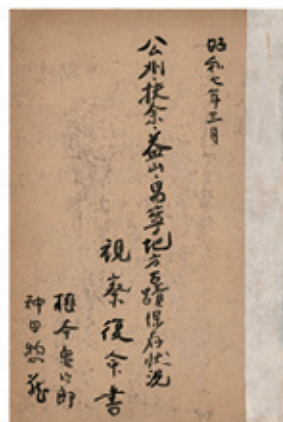


1932, 「公州·扶余·益山·昌寧地方古蹟保存狀況視察復命書」,  
『慶尙北道達城, 慶尙南道陝川, 晉州, 河東 出張復命書 外』(F009-030)

1932년(昭和7) 3월 가야모토 가메지로(龜本龜次郎)와 간다 쇼조(神田惣藏)는 고적유물의 보존상황을 시찰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들은 공주, 부여, 익산, 창녕 등지를 조사하였다.

익산에서는 미륵사지 당간지주와 석탑을 시찰하였다. 당간지주는 동서가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석탑은 서당간지주와 남-북상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석탑의 서남부는 붕괴되어 콘크리트로 보수하였다는 점을 작성하였으며 붕괴된 형태의 시설을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당간지주와 탑은 각각 대칭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에 대한 복원이 필요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동금당지 초석은 16개만 남은 것으로 기록하였다.

한편 미륵사지를 시찰하면서 사역 북쪽에 소재한 화암서원의 화암동문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F009-030-001-001

### 복명서

이번에 소관 등은 공주, 부여, 익산, 창녕 등의 여러 지방에 대한 고적유물의 보존 상황 시찰을 명받고 본월 24일 출발, 순차적으로 여러 지방의 시찰을 마치고 31일 복귀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각지 시찰의 대략을 기록하여 복명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번 시찰에 있어서는 단순히 등록된 고적유물에만 국한하지 않고 예전에 본부 고적조사원의 조사를 거쳤으나 여전히 미등록에 속하는 고적유물에 대해서도 주의할 점이 있고, 새롭게 발견되어 경찰당국에 보관된 매장물, 학교, 군청 등에 보관된 참고자료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부분이 적지 않음을 주의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 함께 대략적으로 기록하여 후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중략)

#### 3. 익산에 대한 시찰 개략

익산에서는 금마면 서고도리에 소재한 미륵사지 시찰만을 시행하였다. 본 사지에서 등록된 것은 다음의 두 점이다.

등록번호 69	당간지주 2기
등록번호 70	석탑 1기

지주는 동서로 마주보고 서 있고, 석탑은 서쪽 지주와 남북선으로 이어지는 지점에 있다. 지주에는 거의 별다른 시설이 없다. 석탑은 그 남서면이 붕괴된 것을 콘크리트로 굳혔다. 앞으로의 붕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악화되어 아름다운 탑의 형태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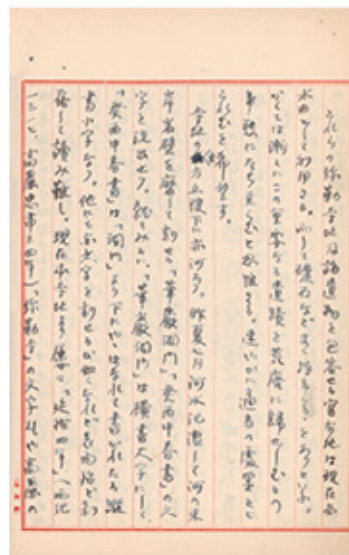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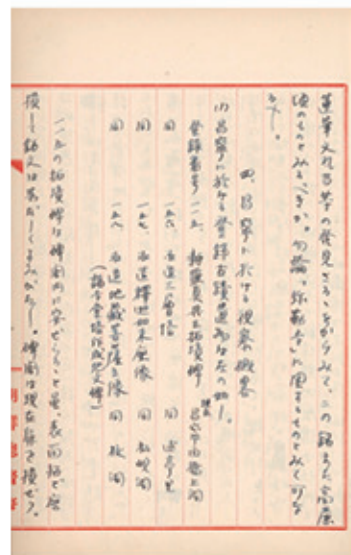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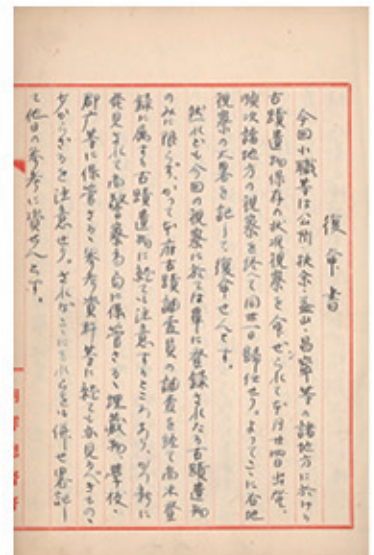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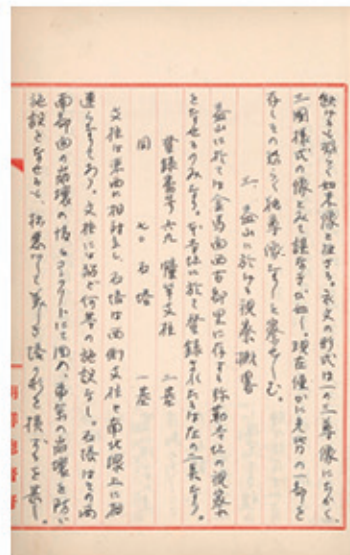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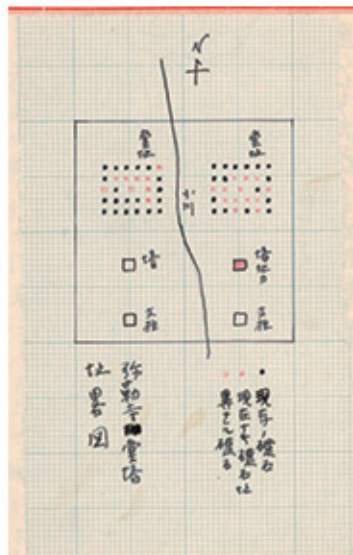
현재 사찰지의 지주, 당탑은 대체로 약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지만 동쪽 탑지로 보는 곳은 현재 그곳에 산재한 (기)초석 모양의 석재로 추정하건대 확실하지 않다. 분명 그 위치에 어떠한 건물이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듯하다. 서쪽 당지로 추정되는 초석군은 현재 역시 두 곳이 있어서, 대체로 도리방향 5칸 보방향 4칸의 금당지 평면을 갖는다. 단, 내진으로 추정되는 초석은 네 개가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추정 복원해 보면 도리방향 3칸, 보방향 2칸 평면임을 알 수 있다. 중앙에 있는 초석은 다른 초석과 달리 원형으로 돌출된 부분이 없고 상면에 어떤 형태나 조각 없이 그저 평평하기만 하다. 아마도 중심 초석이라고 추정되지만 또 다른 석재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확인할 수 없다. 동쪽 당지의 초석은 현재 16개가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추정 복원해 보면 서쪽과 마찬가지로 도리방향 5칸, 보방향 4칸 외곽에 도리방향 3칸, 보방향 2칸의 내진을 갖는 당우堂宇라고 추정된다.

이것 이외에 중앙을 지나는 작은 개울이 있고, 당지 북쪽 논밭 등에 기초석 등의 석재가 산재해 있어 그 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원위치에서 이동한 것이다. 어렵사리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불과 한 두 개에 그치고 있다. 현재 이것들만으로는 어떠한 건축물이 어떻게 있었는지 등은 거의 알기 어렵다.

이 미륵사지 및 여러 유물들이 산포한 관유지는 현재 논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초석 등을 뿔아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점차 이 중요한 유적이 황폐화되어 가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추측된다. 서둘러 적당한 처치를 해 주기를 희망한다.

사찰지 동쪽 구릉 아래에 또한 하천이 있다. 지난 여름 7월 물이 범람하여 하천의 동쪽 암벽에 새겨진 「華嚴洞門」, 「癸酉中春書」의 문자가 셋겨져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華嚴洞門」은 횡으로 적힌 대글자이고 「癸酉中春書」는 「洞門」아래에 조금 떨어져서 종으로 적힌 소글자이다. 그밖에도 문자를 새겨 놓았던 듯 하지만 표면이 거의 다 박락하여 읽기 어렵다. 현재 본 사찰지에서 「延祐四年(서기 1317년, 고려 충숙왕)」, 「彌勒寺」라고 석현 문자기와나 고려의 연화문 와당 등이 여러 번 발견되었으므로, 이 명문 또한 고려 때의 것을 보아야 할 것인가? 물론 「彌勒寺」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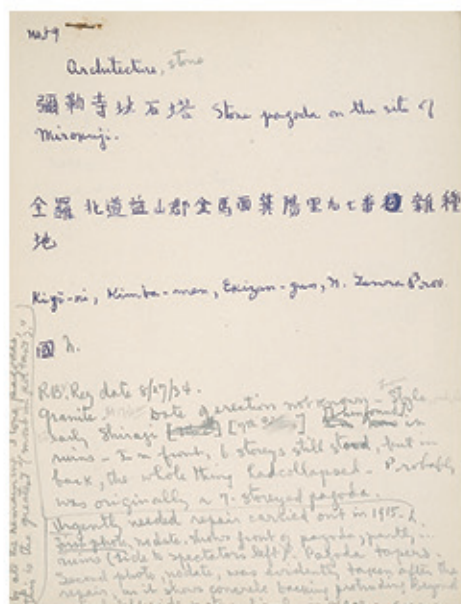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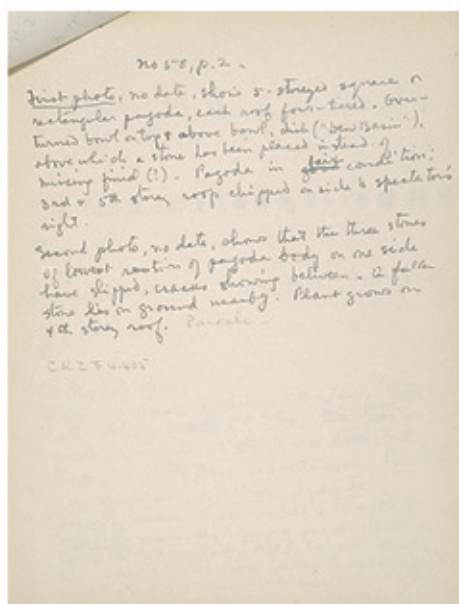
## 1934 이후, 「全羅北道寶物指定目錄」,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一覽」(H052-004)

1930년대에 이르자 총독부는 고적조사와 발굴의 성과를 관리하고 법적인 테두리로 묶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에 이어 1933년 8월 9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제령 6호로 반포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2일 조선총독부령 제137호로 시행하였다.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거한 문화재지정은 1943년까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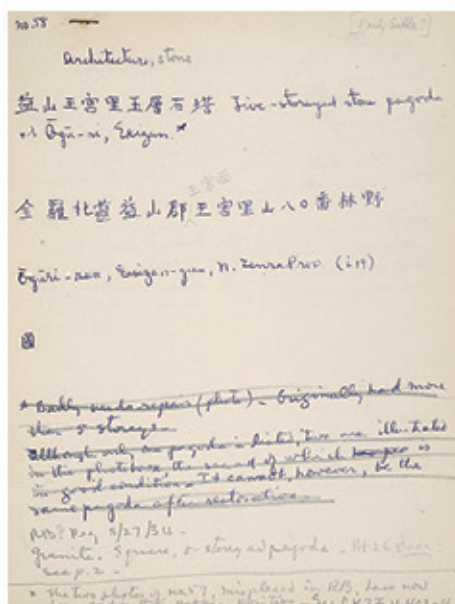
한편 1934년 작성된 이 문서는 전라북도 보물로 지정된 목록에 대해 영문으로도 작성하여 국제적인 홍보 효과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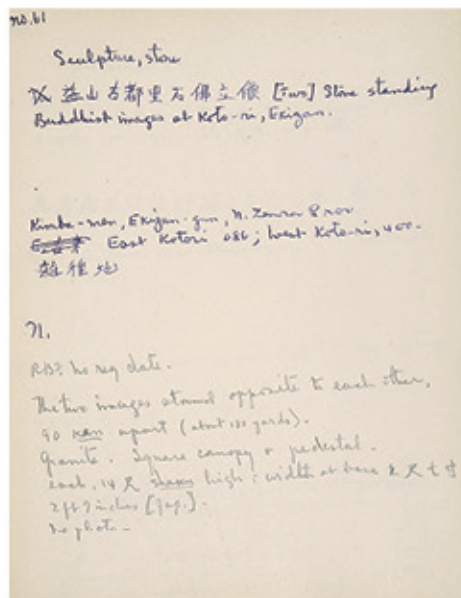
H052-004-043-001



H052-004-04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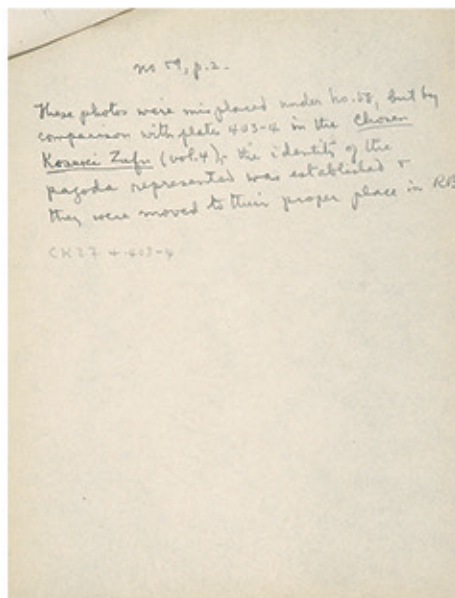
H052-004-042-001



H052-004-045-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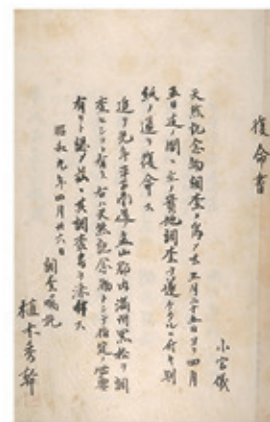
H052-004-044-002



H052-004-043-002

## 1934, 『昭和九年四月復命書』(H054-002)

조선총독부 조사사업의 범위는 고적 뿐만이 아니라 천연기념물도 포함된다. 1934년(昭和9) 측탁을 받아 실시한 우에키 호미키植木秀幹가 남긴 복명서에는 익산군 왕궁면 석왕리에 소재한 밤나무三熟栗가 일 년에 세 번 열매가 열리는 매우 특이한 식물자료라고 판단하였다. 위치를 지적도에 상세하게 기록하였으나 현재 그 자리는 찾아볼 수 없다.



H054-002-001-001

## 복명서

천연기념물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현지조사를 끝내고 별지에 복명함. 우측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그 조사서를 첨부함.

1934년(昭和9) 4월 16일 조사측탁 우에키 호미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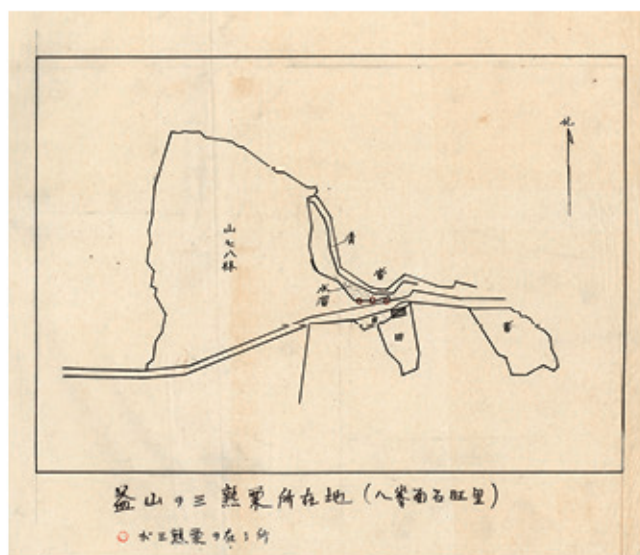
종별	삼숙율三熟栗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군 팔봉면 석왕리 산 78
주소씨명	익산군 삼기면 연동리 이조경李祖鼎
현황	산78번지 낮은 쪽 소구릉에 적송을 주 수목主林木으로 그 동북단은 밤에 접한다. 평지에는 재방모양을 한 곳에 도로를 따라 4~8m 간격으로 세 그루의 밤나무가 있다. 제1호의 수령은 대략 15년이며 흉고직경이 8.5cm, 높이 5m, 줄기 부분까지 2m, 줄기 너비는 2m이다. 줄기 서측은 하늘소의 피해를 입었다. 제2호는 제1호보다 서쪽 6m, 제3호는 제2호보다 서쪽 8m 지점에 있다. 두 그루 모두 20년 살았다.
설명	이상 3그루의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variety)는 6월에 제1회 개화하고 제2회 개화는 7월, 제3회는 강상기에 들어 개화된다. 과실이 익는 것은 제1회는 8~9월, 제2회는 약간 늦어 제3회의 꽃은 거의 과실을 본다. 이상 밤나무의 내력은 불명이라 하여 아마도 야생이라고 운운한다. 『東國輿地勝覽』卷3에 다음의 기사가 있다. 「익산군 당산에 있는 郡서쪽 10리 산에 밤나무가 있는데 1년에 3번 열린다. 그러나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면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 근처의 밤나무는 모두 3번 개화의 경향이 있어 다른 것에 비해 옮겨 심거나 하는 일이 (더러) 생기기도 한다.
비고	1934년 3월 28일 조사.



要 件	保 存	事 由	目 定
			畑舎ノ榮樹ノ果シヲ取ルヲ有ルヤ百ニテ其半取 リテ畑舎ノ上ニテ天照女命ヨリテ傳ヒテ後久メ ベリキヤハ新木ノ樹体ノミナ大ナリニスル餘ノ實弱シ ヲ道邊トシテ取ル處ノ樹性ヲ明クホントハ其群居ノ 保存スルノ必要ナリ

[illegible][illegible]

<p>靈錄舊號</p> <p>名 稱</p> <p>所在地</p> <p>所在城又</p> <p>土地所有者</p> <p>又一座理者</p> <p>靈錄舊號</p>	<p>靈陽の白松</p> <p>廣南南道靈陽郡靈陽邑龍平里</p> <p>靈陽郡靈陽邑龍平里</p> <p>山</p> <p>靈陽郡靈陽邑龍平里</p> <p>寺號</p> <p>寺號</p>	<p>名 稱</p> <p>所在地</p> <p>所在城又</p> <p>土地所有者</p> <p>又一座理者</p> <p>靈錄舊號</p>	<p>三魚潭</p> <p>全羅北道靈山郡八竿浦石龍里</p> <p>靈山郡八竿浦石龍里</p> <p>山</p> <p>靈山郡八竿浦石龍里</p> <p>寺號</p>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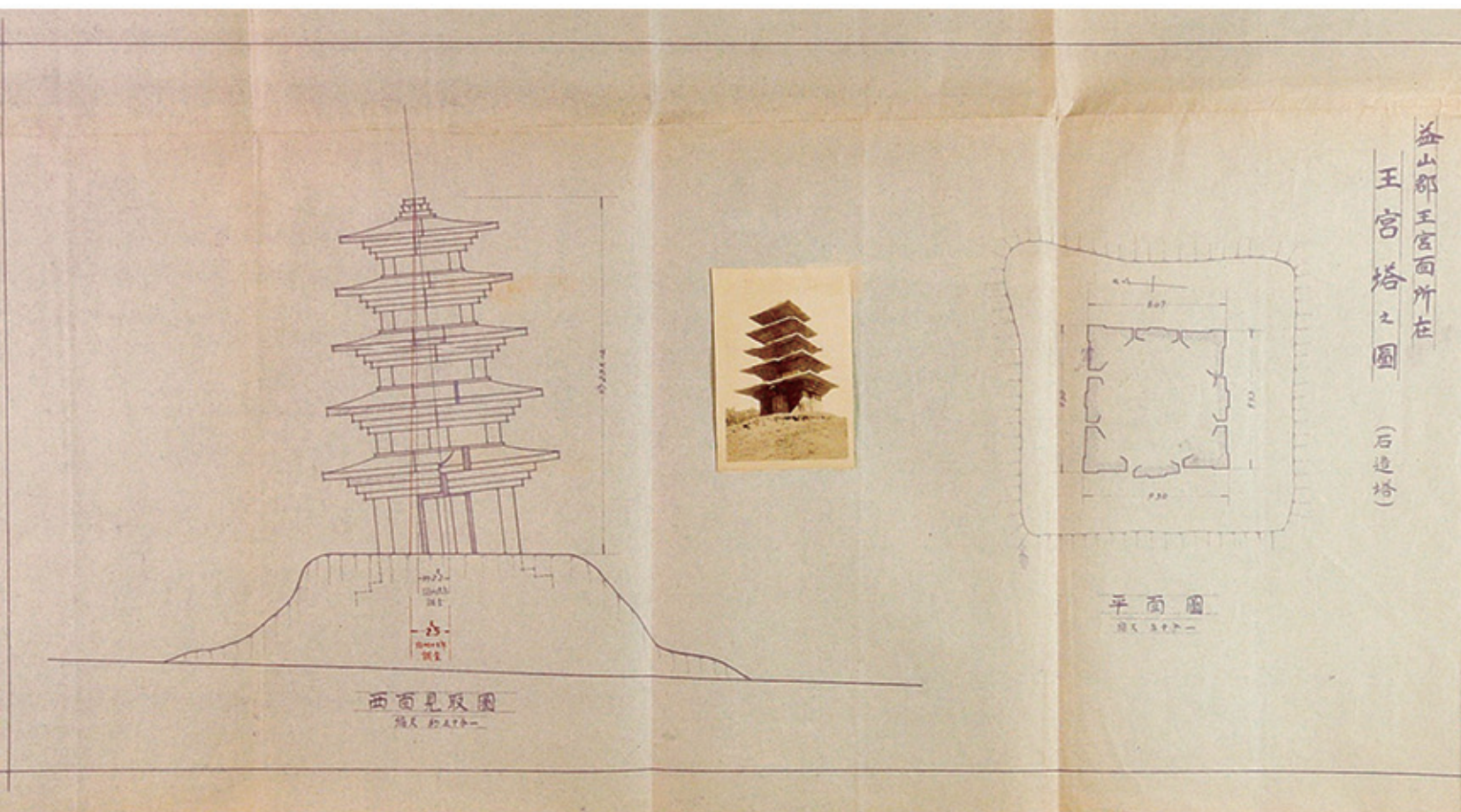




## 1938-40, 『全羅北道益山郡王宮面所在五層石塔修理工事』(A167-001)

왕궁리 오층석탑의 수리공사 요청을 중심으로 1938~1940년에 작성된 문서이다. 이 문서는 21번 문서와 이어지는 맥락인데, 보존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실시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 1938년(昭和13) 11월 21일에 전북지사가 학무국장에게 보낸 「지정보물 수축공사비 하부 신청」에는 허물어지고 있는 왕궁리 오층석탑을 시급히 복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학무국에서는 이에 응답하여 1939년(昭和14) 12월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지사가 다시금 학무국장에게 보낸 문서에는 아직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차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학무국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보존공사가 다소 어려움을 피력했다.

별첨된 왕궁탑 도면은 그 탑이 기울어진 상태를 명백하게 드러낸다. 1934년(昭和9)에는 2.2°였지만 1938년(昭和13)에는 2.5°로 더 심하게 기울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1938년부터 1940년까지 줄기차게 요청한 왕궁리 오층석탑의 보존공사는 광복 후에서야 우리 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관계번호: 전북학 제533호

1938년(昭和13) 11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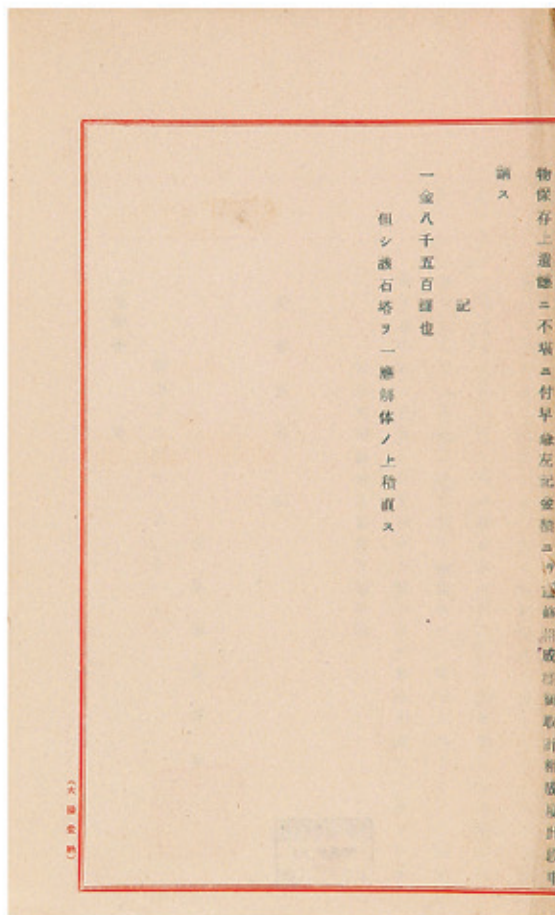
발신인: 전라북도지사

송신인: 학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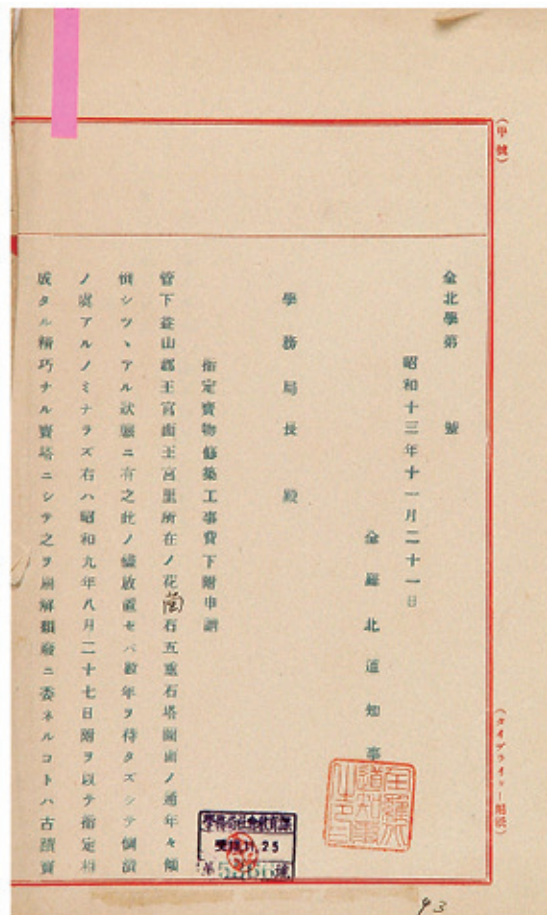
건명: 지정보물 수축공사비 하부 신청

관하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 소재의 화강석 오층석탑은 도면과 같이 해마다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 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는 1934년(昭和9) 8월 27일자로 지정된 정교한 보탑寶塔으로 이를 붕괴되폐崩解頽廢하게 내버려 둬는 고적보물보존 상 유감하기 짝이 없으니 조급히 다음 금액으로 증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이에 신청합니다.

- 금 8,500원: 단, 해당 석탑을 해체하고 다시 쌓아 올리는 것임.



A167-001-005-002



A167-001-005-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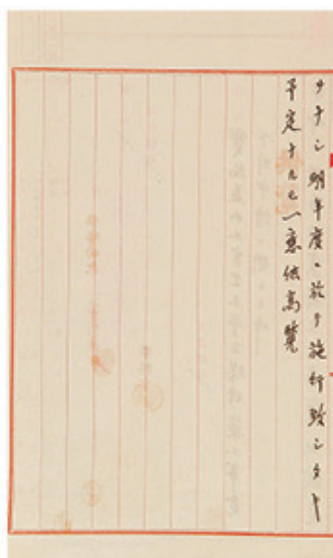


1938년(昭和13) 12월 13일

건명: 보물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수축 공사비 하부 신청에 관한 건 \*공람

본 건은 보존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하고 다음 해에 시행하고자 하는 예정이나 우선 공람하는 바입니다.

- 출장조사와 수리계획서를 제작 할 필요가 있음.



A167-001-003-002



A167-001-003-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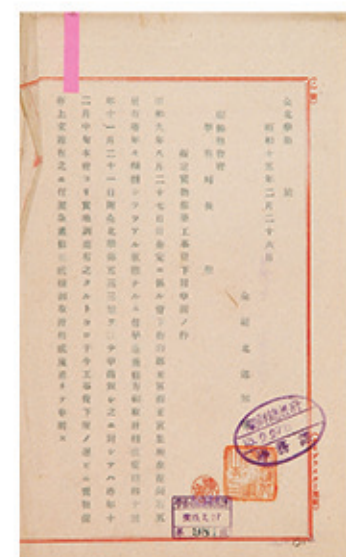
1940년(昭和15) 2월 26일

발신인: 전라북도지사

수신인: 학무국장

건명: 지정보물 수축공사비 하부 신청의 건

1934년(昭和9) 8월 27일자로 지정된 바 있는 관하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 소재 화장석 오층석탑은 해마다 경사가 심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속히 증수토록 조치하여 주시도록 1938년(昭和13) 11월 21일자 전북학 제533호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12월 중순 본부로부터 실지조사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공사비 하부에 이르지 못하여 보물 보존 상 지장支障되므로 시급히 증수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신청합니다.



A167-001-002-001

1940년(昭和15) 3월 13일(기안) / 3월 16일(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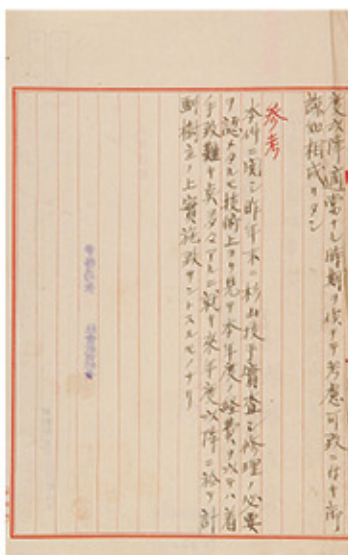
발신인: 학무국장

수신인: 전라북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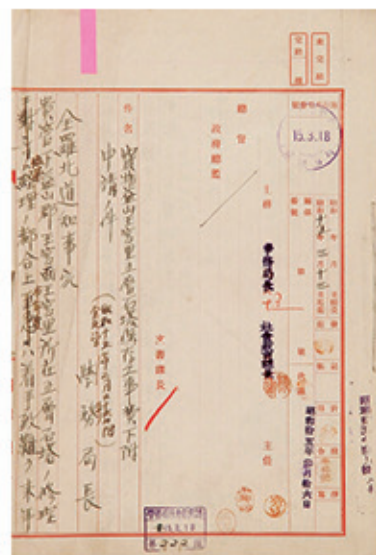
건명: 보물 익산 왕궁면 오층석탑 보존공사비 하부 신청 건

귀 관하 익산군 왕궁면 왕궁리 소재 오층석탑의 수리에 대하여서는 예산경비의 형편상 본년도에는 착수하기 곤란하며 내년도 이후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 고려할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건에 관하여 작년 말에 스기야마杉山 기수가 실사하여 수리의 필요를 인정하였으나 기술상 본년도 경비로는 착수하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어 내년도 이후에 계획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A167-001-00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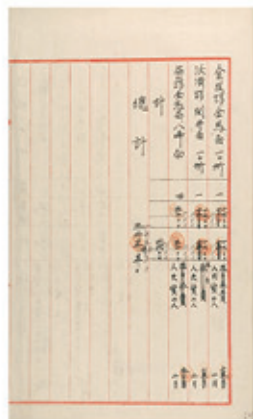


A167-001-001-001

1940,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ノ標建ニ關スル件』,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石標建立ニ關スル件3』(H045-018)  
 1941,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ノ標建製作及建立費ノ件』, 『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石標建立ニ關スル件2』  
 (H044-005)

총독부는 고적조사만큼이나 보존공사도 주요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현상유지를 위한 보존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익산의 문화유산에 관한 대부분의 공사는 석표石標·방지 防柵·목책木柵설치 및 정비였다. 쌍릉과 같은 고적(古墳)의 경우에는 발굴로 인해 굴착된 봉토를 성토하고, 잔디를 다시 심는 공사를 주로 실시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보물고적의 경우에는 석표를 설치하여 고적의 이름과 지정일자를 밝히고 목책을 설치하여 고적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문서에는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의 석표 건립을 위한 건적서가 포함되었으며, 석표에 들어갈 글자 수 및 고적별 석표의 크기 등 통일성을 증시킨 부분도 볼 수 있다. 한편 석표가 건립된 지점을 표시한 석표건립요도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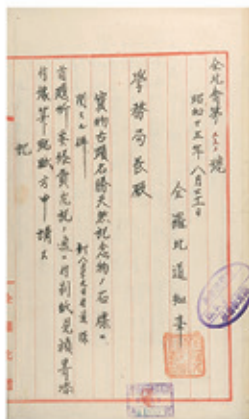
H045-018-065-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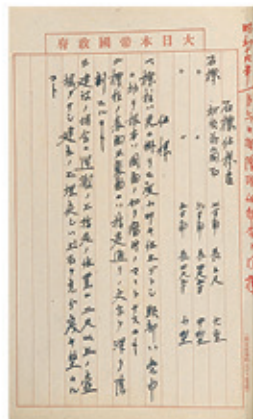
H045-018-065-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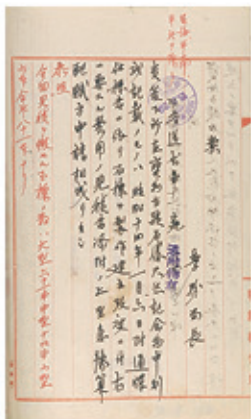
H045-018-065-001



H045-018-064-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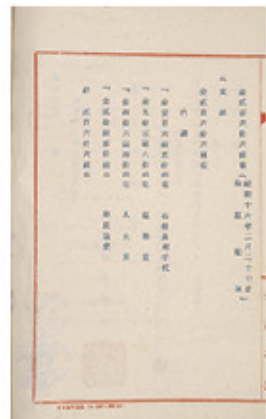
H045-018-067-001



H045-018-066-002



H045-018-066-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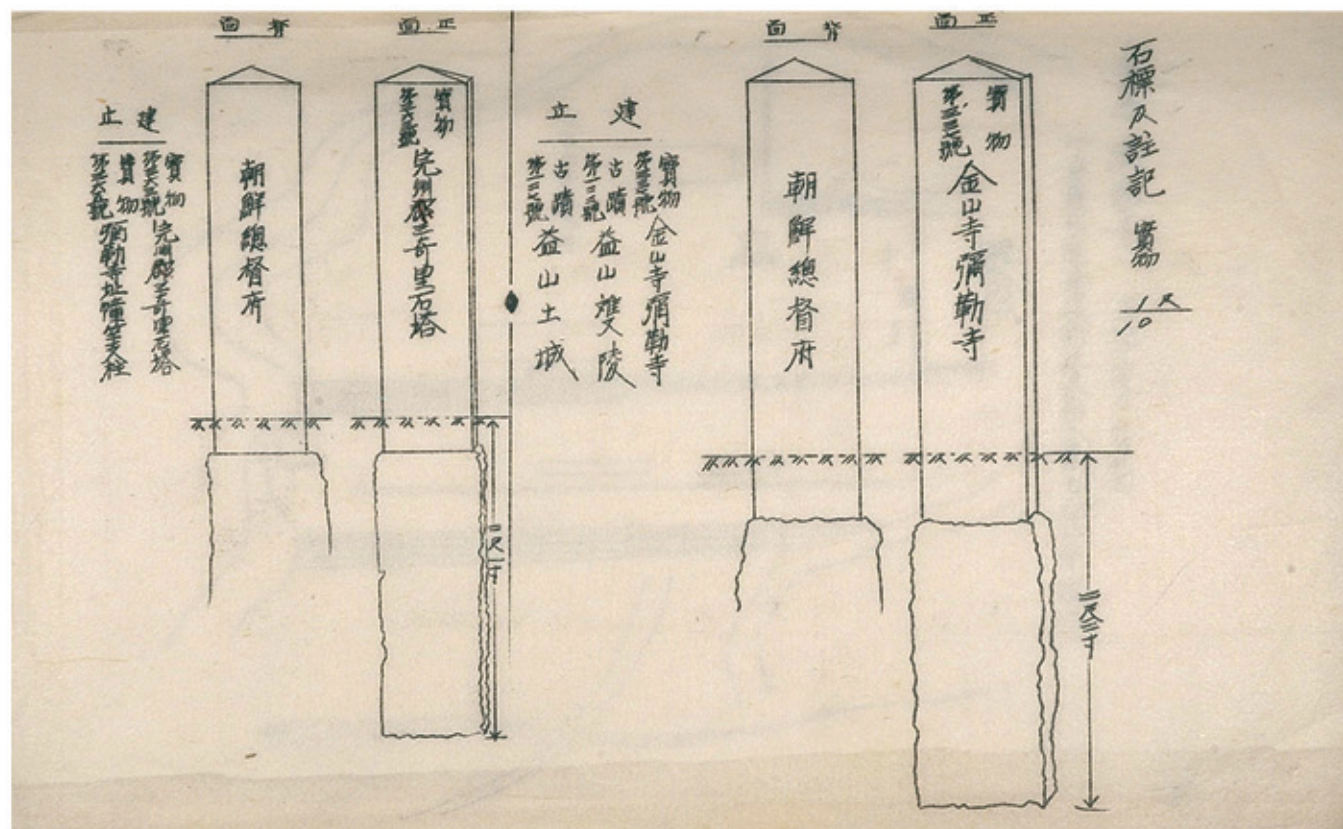


H044-005-00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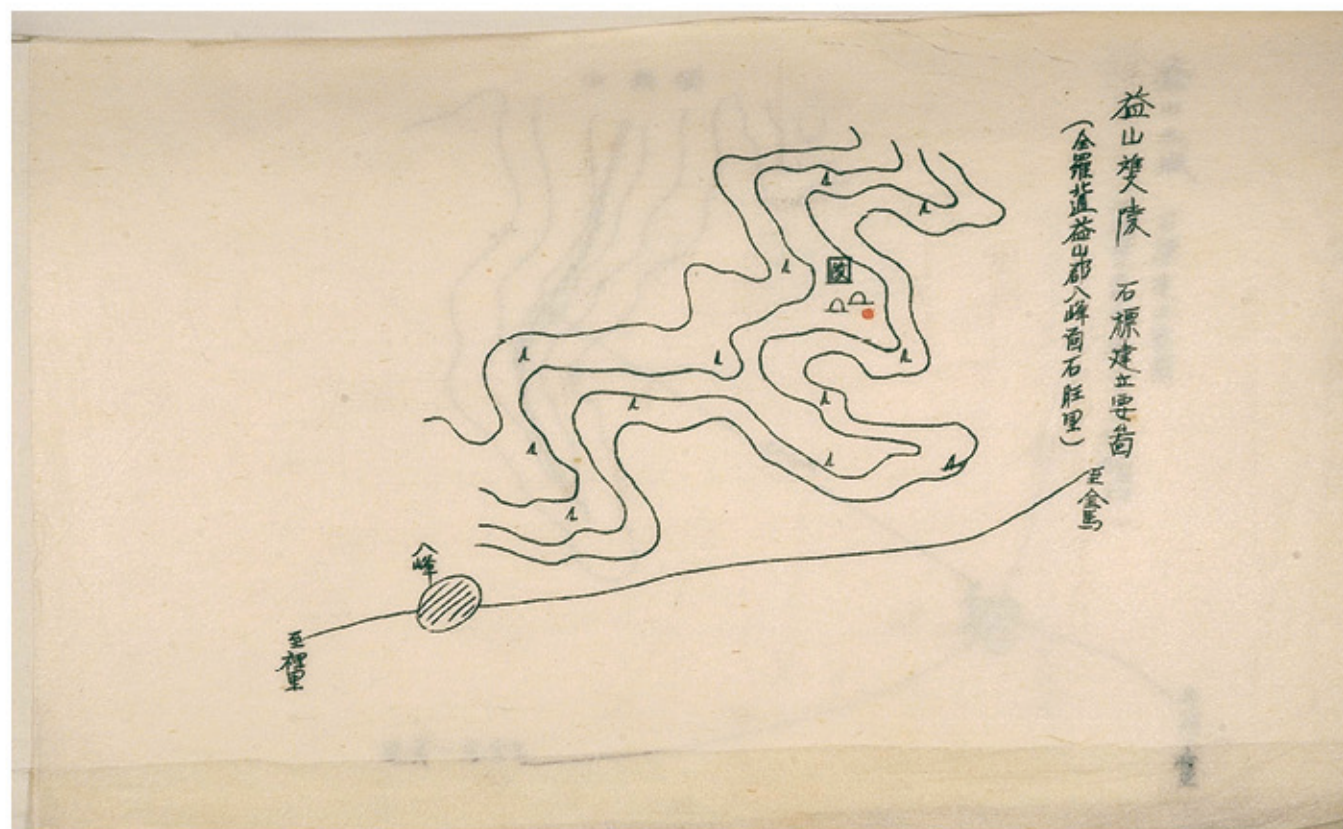


H044-005-00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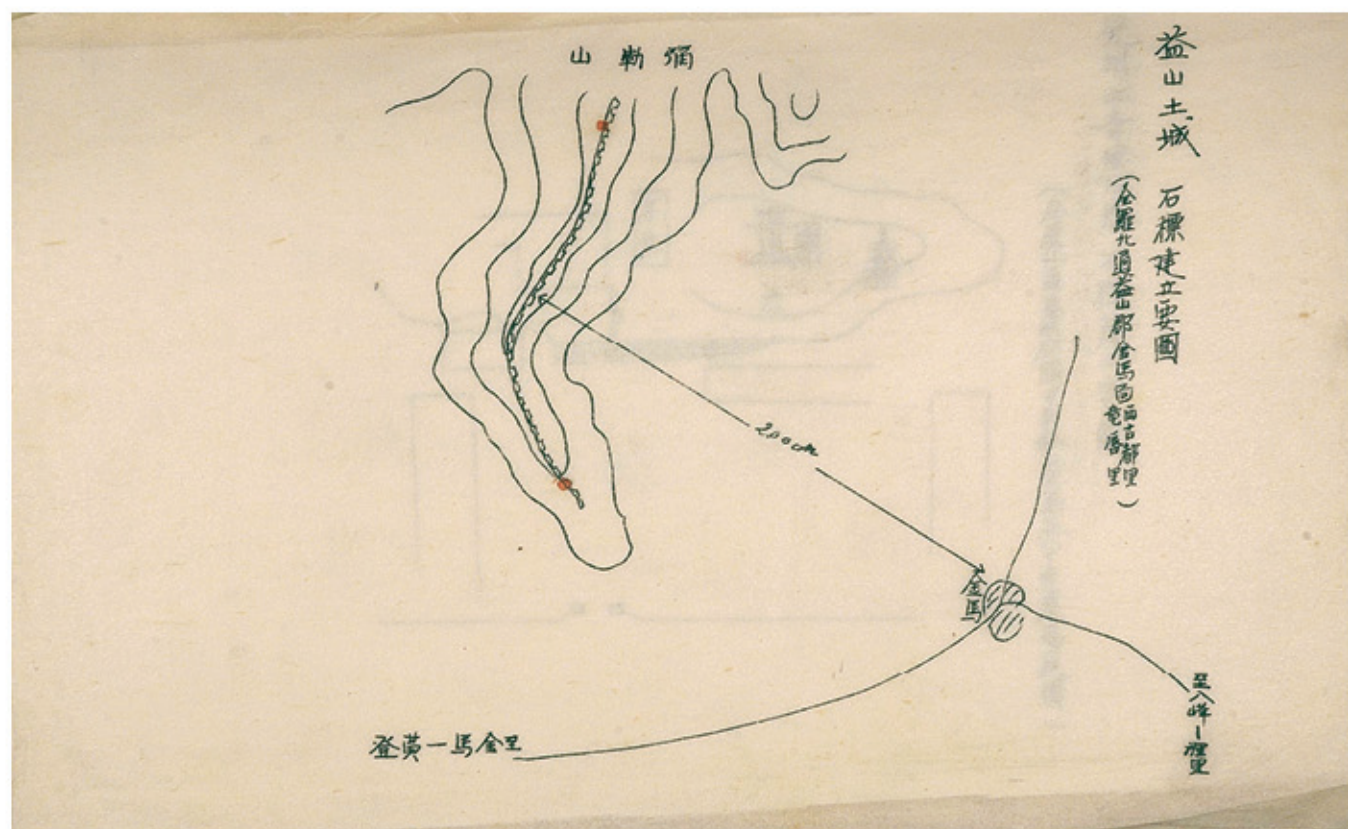


H044-005-00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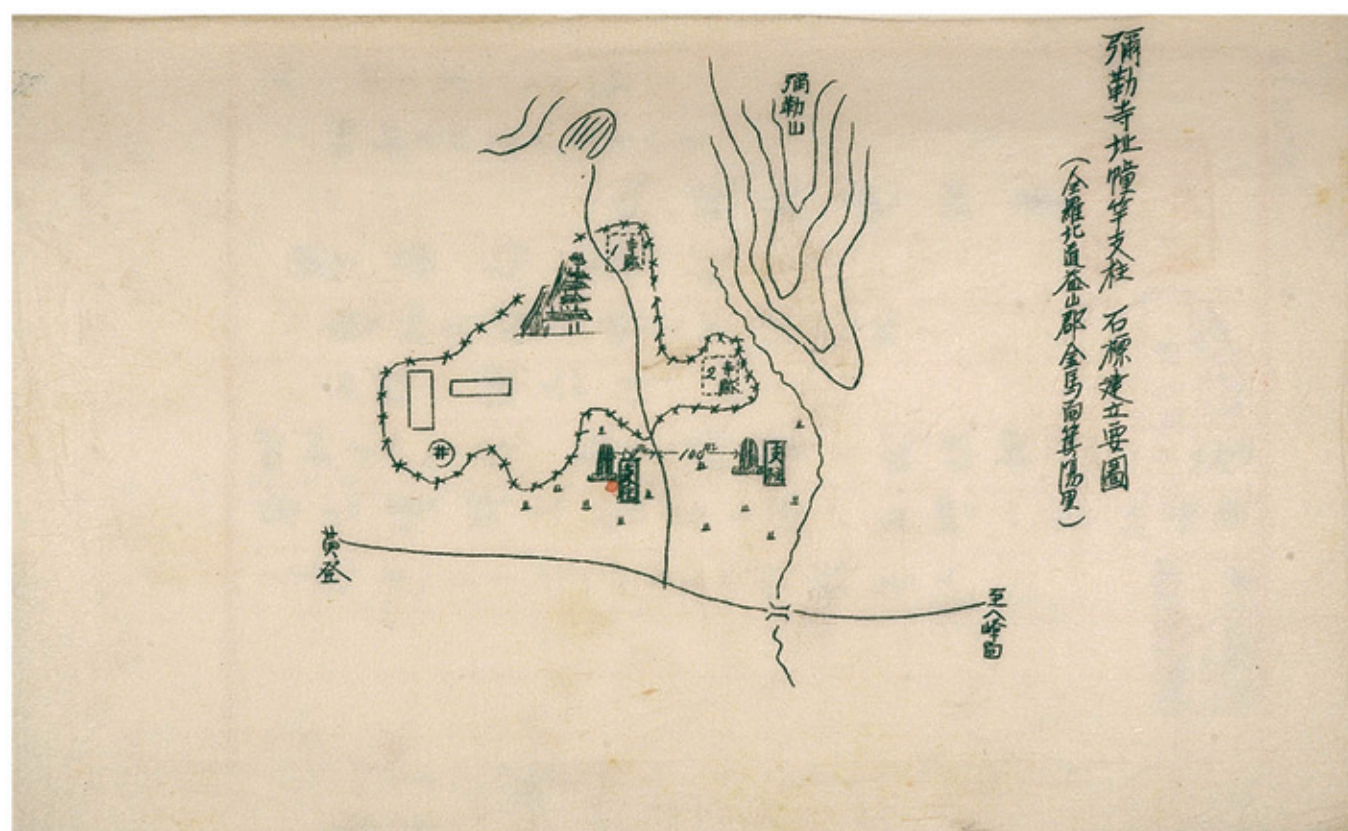


H044-005-004-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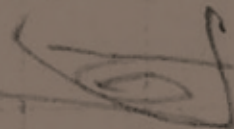
H044-005-005-001



H044-005-007-001





12/43 



# IV

## 부록

### 논고

1.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과 익산의 문화유산  
신민철 |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2. 익산 미륵사지 석탑 수리 역사와 성과  
김현웅 | 국립문화재연구소
3. 광복 이후 익산 지역의 백제 사비기 문화유산 조사  
이경복 |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 번역

1. 關野貞, 1942, 「朝鮮の石塔婆」, 『朝鮮の建築と藝術』.
2. 藤島亥治郎, 1930, 「朝鮮佛教建築史 第二章 益山彌勒寺」, 『朝鮮建築史論』其三.
3. 今西龍, 1934, 「全羅北道西部地方旅行雜記」, 『百濟史研究』.

### 카드

세키노 다다시 필드 카드(関野貞フィールドカード) '익산'

### 인명 소개

참고문헌



#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과 익산의 문화유산

신민철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학예연구사

## I. 머리말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일본의 한반도 조사와 맞물려 수행된 고적조사는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넘어서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 『조선사朝鮮史』 편수과정에서 학술적 뒷받침이 된 중요 사업이었다.<sup>1</sup>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고적조사사업 과정에서 구체화시키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한반도의 역사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조사는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정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와 같은 출판물들은 식민통치의 문화적 면모를 자랑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다.

고적조사사업은 시기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강점기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전라북도 익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1900년 야기 쇼자부로八木裝三郎의 첫 조사 이후 1910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917년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등 많은 일본인 학자들이 이 지역을 다녀갔고, 뒤이어 익산에 소재한 문화유산들이 활자와 사진 등으로 소개되었다.

고적조사사업은 시기별로 조사 주체와 접근 방식이 달랐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제시한 획기는 크게 세키노 다다시가 중심이 된 조사(1915), 고적조사위원회 설치 이후의 조사(1916~1930), 조선고적연구회 설립 이후의 조사(1931~1945)로 나뉜다.<sup>2</sup> 이 사업들은 기획단계부터 삼국시대의 고도古都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sup>3</sup> 하지만 주로 마한, 통일신라 문화유산이 주로 분포한 것으로 분류되던 익산 지역에서는 1920년대부터 조사 보다는 지정, 보존, 정비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시기구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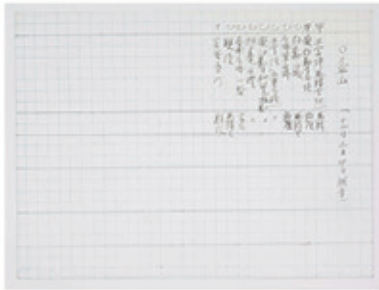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세키노의 조사(1900~1915), 고적조사 5개년(1916~1920), 문화유산의 지정보존(1921~1945)의 3시기로 나누어 일제강점기 익산 지역에서 이루어진 고적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식민통치 이전 세키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적조사에 관해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고적조사 5개년古蹟調査五箇年> 사업 시기에 야쓰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적조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대규모의 고적조사가 끝난 뒤 이루어진 문화유산의 지정과 보존 과정을 돌아보았다.

글을 작성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와 유리건판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sup>4</sup> 이 글이 식민시기 일본인 학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투영된 익산의 문화유산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

- 1) 李成市, 1999, 「黑板勝美(구로이타 가즈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韓國文化』23, 250쪽.
- 2) 김대환, 2017, 「일제강점기 조선고적조사사업과 한국고고학사」, 『韓國上古史學報』97, 82~84쪽.
- 3) 이기성, 2016, 「일제강점기 「古都」의 고적조사」, 『역사와 담론』79, 19쪽.
- 4)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에 관한 검토가 가능한 것은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소장하던 공문서가 온전히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조선총독부 산하의 한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공문서 제도에 따라 총독관방 문서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일반적인 체계와는 달리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는 유물의 보존과 수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보관하였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폭격 등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패망 직전 총독부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서훼손이 없었다. (有光敏—[김성남 譯], 1996, 「一九四五~四六년에 있었던 나의 경험담」, 『韓國考古學報』34.)
- 5) 高正龍, 1996, 「八木裝三郎의 韓國調査」, 『考古學史研究』6, 34쪽.
- 6) 야기의 조사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그 뒤 이루어진 세키노의 조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던 일본 학계에 준 영향은 매우 지대하였다. (국립전주박물관, 2015, 『익산 쌍릉』, 22쪽)



[그림 1] 미곡산성(傳 기준성), 세키노카드 상자 10, 종이번호 053(도쿄대학종합박물관 소장)



[그림 2] 익산(12월 3~4일 조사), 세키노카드 상자 421, 종이번호 022(도쿄대학종합박물관 소장)

## II. 한일 강제병합 전후 세키노 다다시 중심의 고적조사 시기

(1900~1915)

한반도 문화유산에 대한 일본 최초의 현지조사는 1900~1901년 야기 쇼자부로(矢野龍溪)의 방문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개인이나 군부에서 비롯된 조사가 있었지만 이 조사는 관학(官學)에 의한 '최초의 고고학 연구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그는 1900년 10월 27일 부산을 시작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익산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조사는 정식 보고서로 간행되지 않아 그가 익산의 어느 지점을 조사하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sup>6</sup>

야기의 최초 조사 과정에서 얻어낸 다양한 정보에 고무된 일본 내각은 도쿄제국대학 조교수인 세키노 다다시를 1902년 한반도에 급파했다. 조사 후 발간한 『한국건축조사보고(韓國建築調査報告)』는 한반도 역사와 문화재에 관심을 두었던 많은 일본인들에게 일종의 지침서가 되었다.<sup>7</sup>

이후 러일전쟁(1904~1905)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들의 식민통치 논리와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고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1909년 통감부 탁지부는 다시금 세키노를 위촉하여 한반도 전역의 고건축 조사를 맡겼다. 조사는 한일강제합병(1910) 이후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제1과로 인계되었다. 이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본격적 고적조사의 시작이었다.

한편 고적조사와는 별도로 1911년부터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실시한 사료조사사업(史料調査事業)이 있었다. 이 사업에는 세키노의 연구에 결여된 인종적, 민족적 조사 및 석기시대의 조사를 보충하려는 의미가 있었다. 책임자로는 인류학 및 선사학 연구자인 도리이 류조가 임명되었다.<sup>8</sup> 따라서 한반도의 문화유산에 관한 조사는 고적과 사료의 양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에 의하면 세키노와 도리이의 조사는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의 발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sup>9</sup> 그 목적은 고적조사사업 속에서 찾아낸 다양한 유적들을 정치적 선전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익산 지역의 고적조사는 1910년 실시되었다. 세키노는 건축 분야에서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고고학 분야에서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清一)를 조수로 삼아 조사단을 구성하였다.<sup>10</sup> 이들은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제1과 및 구한국 궁내부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았으며 신분은 조선총독부 촉탁이었다. 조사단은 9월 22일 서울에서 출발해 경기도, 평안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북도를 거쳐 전라남·북도를 돌아 마지막으로 익산에 방문하였고, 12월 7일 조사를 종료했다.

『명치43년도 조선유적조사약보(明治四三年度朝鮮遺蹟調査略報告)』에 익산 지역 조사 내용이 들어있다.<sup>11</sup> 조사단은 1910년 12월 2일에 익산에 도착하여 3~4일에 걸쳐 왕궁리 유적(王宮里), 미륵사지, 미륵산성,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왕궁리 오층석탑, 사자암석탑, 고도리 석불입상, 쌍릉, 객사를 조사하였으며, 돌아가는 5일에 미륵산성을 수채화로 남겼다(그림 1).<sup>12</sup> 세키노는 확인한 문화유산을 그 가치에 따라 네 개 등급(甲乙丙丁)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sup>13</sup> 1915~17년 작성된 『조선고적도보해설(朝鮮古蹟圖鑑解説)』에 사진의 해설을 작성하여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당시 시각을 살펴볼 수 있다.<sup>14</sup>

한편 보고 내용에 구리야마가 기술한 「참고의견(申書)」이 덧붙여져 있다.<sup>15</sup> 미륵사지 석탑의 수리가 필요함을 언급한 부분으로 고적조사의 목적에 부응되거나 훼손정도가 심한 건축물의 보존방안도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39쪽; 훈령 15호(1902.7.16.)에 표기된 세키노의 경유지역에 부여와 온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백제 지역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질이 빔어져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이순우, 2004, 『테라우치 총독, 조선의 꽃이 되다』, 하느님, 282쪽.)

8) 藤田亮策, 1953, 『朝鮮古蹟調査』, 『古文化の保存と研究』, 327쪽.

9) 테라우치 조선총독은 조선의 종족 연구가 식민지 등지를 위한 동화정책 상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하였다.(최우석, 2016, 「도리이 류조의 식민지 조선 조사와 일선동조론」, 『동북아역사논총』 53, 404~405쪽.)

10) 세키노 조사단에 포함된 이들은 일제강점기가 끝날 무렵까지 한국 고적조사의 핵심이 되는 고적조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1)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

12) 關野正, 1911, 『朝鮮藝術之研究』續篇.

13) (甲)은 가장 보존이 필요한 것, (乙)은 그 다음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 (丙)은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강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것, (丁)은 보존의 필요성이 가장 낮은 것

14)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鑑解説』卷3; 朝鮮總督府, 1917, 『朝鮮古蹟圖鑑解説』卷5.

15) 이번 회의 조사에 있어서 「1. 지금이 수선을 요하는 것」으로 金山廢彌勒寺石塔・豐巖道碑寺解脫門・光州邑東五層石塔이 있으며, 각각 수리비로 약 5만원·3천원·2백원을 견적한다(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



지금까지 살펴본 식민통치 전후의 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야기와 세키노의 고적조사는 일본 내각의 조사 목적에 따라 한반도의 문화유산을 최대한 폭넓게 조사함으로써 일본인들에게 한반도의 문화재를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세키노 조사단의 익산 방문기간이 짧았던 점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둘째, 한일합병 이전의 조사 사업은 학술적 목적보다는 식민지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문화재의 가치를 네 개 등급으로 나눈 것은 일본의 시각으로 한반도 고적의 성격을 평가한 것이다. 등급을 부여하면서 확인한 유산들 중 일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들은 향후 식민지배를 위한 대규모 고적조사의 시발점이 되었다.

셋째, 세키노에 의한 고적조사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 문화재 조사 계획이 수립된 시기보다 앞선 것이었고 이후 통치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즉 1909~1911년 3년간 실시된 고건축물 및 고적에 대한 등급 부여 작업은 이후 대부분 문화재 지정에 적용되었다.<sup>16</sup>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으로 지정된 고적 및 보물 중에는 세키노가 문화재로 선정했던 것들이 다수 포함되었다.<sup>17</sup>

### III. 고적조사위원회 주도 〈고적조사 5개년〉 사업 시기(1916~1920)

#### 1. 고적조사사업

이 시기 익산에서의 사료·고적조사는 두 차례(1915, 1917) 이루어졌지만, 전국적으로는 고분, 성지, 사원, 폐사지, 석탑 등 1920년까지 지속적인 조사와 발굴이 병행되고 있었다.<sup>18</sup> 익산에 대한 고적조사가 단속적이었던 이유는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이 『재왕운기帝王運紀』, 『고려사高麗史』,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 고려 중기 이후의 문헌기록을 중시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이 방문했던 익산의 문화유산은 현지에서도 ‘마한의 옛 도읍’으로 인식되고 있었다.<sup>19</sup> 그 결과물인 『명치43년도 조선유적조사약보고』에서도 익산 지역 주요 문화유산의 편년은 대체로 마한과 통일신라, 고려시대로 분류되었다(표 1).<sup>20</sup>

조선총독부는 한정된 시간과 재정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일본의 고대 문화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백제’나, ‘신공왕후 정벌설’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한 ‘신라’, 중국에 대한 종속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낙랑과 고구려’, 임나일본부의 소재지로 주목한 ‘가야’ 등의 조사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다른 고적조사 전에 비해 익산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급을 필요로 하는 조사가 적어 주요 관심사로부터 밀려나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15년 사료조사 과정에서 익산 지역의 문화유산이 짙막하게 그 모습을 보인다. 도리이 류조는 1915년 8월 20일부터 시작된 「5회 사료조사五回史料調査」 때 익산에 방문했다. 정확한 일정은 알기 어려우나 도쿄에서 8월 20일에 출발하고 9월 9일 부여에 도착하여 쓴 글에 전라북도를 지나 충청남도에서 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기간 사이에 익산을 거쳐 갔을 가능성이 높다.<sup>21</sup> 이 때 그는 황동면의 지석묘를 확인하였으며<sup>22</sup> 함열면 동지산에서 석적 1점과 석적 파편을 수습하였는데 1916년 작성된 『조선유적유물연구朝鮮遺蹟遺物研究』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sup>23</sup>

【표 1】 명치43년도 조선유적조사약보고 연대분류

지명	추정연대
왕궁평(마한궁지)	마한
미륵사지 석탑	신라
미륵산성	마한(추정)
석불리석불	신라
왕궁탑(오층석탑)	신라
폐미륵사지 당간지주	신라
사자암 석등	고려
읍남 석불(1대)	고려

16) 세키노가 조사한 지방 객사 건물중 일부는 일제강점기 군청 등 행정 건물로 재활용되기도 했다.(藤田亮策, 1951, 『朝鮮古文化財の保存』, 『조선학보』 1, 249쪽.)

17)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

18) 藤田亮策, 1931, 『朝鮮に於ける古蹟調査及び保存の沿革』, 『朝鮮』 199.

1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3에는 후조선 무강왕과 그 비의 능이 익산에 있다는 『고려사』 전주목의 기록이 인용되어 있다.  
“...미륵산석성(彌勒山石城)【민간에서 전하기를 기준이 처음 쌓았다고 하여 기준성(基準城)으로 부른다고 한다.】이 있다. 또 후조선 무강왕武康王과 그 비妃의 능陵【속칭으로 말릉대왕릉末達大王陵이라 부르는데, 백제 무왕武王의 어릴 적 이름이 서동왕童王이라고 한다.】이 있다.”

20) 세키노가 작성한 세키노카드 중에는 미륵사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한 『삼국사기』 신문왕, 성덕왕조가 확인되어 이 절의 초창을 증인신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세키노카드 16)

21) 국립김해박물관, 2016, 『石器時代: 鳥居龍藏調査 流離乾板』, 114쪽.

22) 현재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23) 문서는 1915~1916년에 작성되어 도리이 방문 즈음에 석기가 조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5)

1915년까지 한반도 문화유산에 대한 대략적 조사를 마친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인 고적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손에 넣게 되었다.<sup>24</sup> 통감부 탁지부와 조선총독부 내부부의 위촉을 받아 세키노 조사단이 실시한 고적조사는 문화유산의 상태와 가치를 평가한 예비조사 성격이었다. 포괄적이었지만 깊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규모 후속 조사가 필요하였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사료조사와 고적조사사업을 병합하고 이를 다시 1916년 4월에 총무국으로 이관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이 통합 관장하도록 했다.<sup>25</sup> 고적조사위원회는 기존의 성과를 기초자료 삼아 19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본격적 고적조사를 실시했다.<sup>26</sup>

1916년 7월 4일 설치된 고적조사위원회는 2회 위원회에서 1916~1920년까지의 <고적조사 5개년계획古蹟調査五箇年計劃>을 안건으로 상정했다.<sup>27</sup> 이때 연도별 조사 지역과 시기 등을 결정했는데, 1917년(大正6)년의 조사 지역으로 '삼한, 가야, 백제'가 선정되었다. 문서에서는 '전년도'의 잔여분과 삼한, 가야, 백제에 대한 조사를 위해 경기,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도의 유적을 조사하며, 역사가 시작되기 전有史以前の 유물을 찾아내는 것'을 계획으로 삼았다.<sup>28</sup> 조사 계획에서는 각 시대의 정치적 중심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순수한 유적 및 유물 조사라기보다는 총독부 박물관의 수장품을 채우고, 식민사관에 입각해 조선의 역사를 타율적인 종속 과정으로 틀 지우기 위한 증거를 찾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결국 일본의 고적조사는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문헌사를 보완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sup>29</sup>

이와 관련해 제4회 고적조사위원회에서는 익산 쌍릉이 특별조사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그 뒤 제5회 고적조사위원회에서는 익산이 일반조사 지역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중요한 유적의 조사를 위해 실시하던 특별조사에서 논의를 거쳐 일반조사로 변경되었다는 점은 위원회의 일반·특별조사 평가 기준에 의해 일반조사로 재평가 받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sup>30</sup>

조사 전 작성된 「대정6년도 고적조사계획大正六年度古蹟調査計劃」에서는 성지, 고적, 사지 등 삼한, 가야와 아울러 유사 전의 유적 및 유물을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밝힌 바 있다.<sup>31</sup> 실제 조사는 1917년 5월 7일부터 1918년 1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참여한 조사위원은 세키노 다다시,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이마니시 류々西龍, 도리이 류조, 야쓰이 세이이쓰 5명이며, 그 외 측량·제도·촬영 등을 위해 박물관 직원 4명(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노모리 겐野守健,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사와 슌이치澤俊一), 토목국 직원 1명, 임시 고용인 1명과 통역으로 중추원 직원 2명을 동행시켰다.<sup>32</sup> 이들은 각 지역마다 조사위원을 조사단장으로 삼아 각지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중에서도 익산에 방문한 조사위원은 한사군과 백제의 유적을 담당하였던 야쓰이였다. 야쓰이 조사단(노모리, 오바, 오가와, 측량제도원 3명)은 1917년 9월 21일 서울에서 출발하여 백제의 유적을 조사하고 익산으로 진입했다.<sup>33</sup> 이때 오금산성五金山城, 미륵사지廢彌勒寺, 왕궁리 오층석탑王宮塔, 쌍릉雙陵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발굴한 곳은 쌍릉 한 개소였다.<sup>34</sup> 발굴 후 도면은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에, 수집한 유물에 관한 기록은 『독도·익산·청양·부여 조사 수집품 목록獨島益山靑陽扶餘調査蒐集品』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이때 오금산성에 대해 '쌍릉 조영시기와 유사한 백제시대 말기의 산성이다.'고 밝혔고, 미륵사지에서는 당간지주와 석탑을 보고하면서 '수법이 우아하고(당간지주), 한반도 석탑 중 제일로 치는 것으로 후세에 과시할 만한 것이다(석탑)'고 밝혔다. 왕궁리 오

24) 『朝鮮總督府官報』제1175호(1916.7.4.), 조선총독부 부령 제52호「보존규칙」, 훈령 29호「고적조사위원회 규정」, 훈령 30호「고적 및 유물에 관한 건」

25) 李成市, 1999, 앞의 글, 251쪽.

26) 1909년 시작된 세키노 조사단의 고적조사는 물론, 고적조사 5개년 계획 입안 및 설계자는 야쓰이 세이이쓰였을 것으로 지목되었다.(정인성, 2015, 「일제강점기 羅州 潘南面 古墳群의 발굴과 야쓰이세이이쓰」, 『白山學報』 103.)

27) 고적조사위원회는 조선총독의 고적보존과 조사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고적 유물의 조사, 보존, 공사, 등록에 관한 건을 협의·의결했다. 학식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하고, 간사를 두어 서무를 맡게 했다. 고적조사의 사무는 처음 총독부 서무국 총무과에, 후에 총독부 서무부 문서과에 속하게 하였으며 박물관 측탁 이하 박물관 관원이 일체의 사무를 집행했다.(藤田亮策, 1931, 위의 책, 91쪽;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2013, 『경북지역의 문화재 수난과 국외반출사』, 83쪽.)

28) 『朝鮮總督府, 1917, 「古蹟調査計劃」,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2쪽.

29) 오영찬, 2011, 「朝鮮古蹟研究會의 설립과 운영-1931~1932년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55, 245쪽.

30) 일반조사: 고적조사 5개년 계획에 의거한 연차별 조사  
(조사범위: 先史遺蹟, 古蹟, 史蹟, 建築物, 金石文, 古文書의 조사)  
특별조사: 긴급한 사정이 있어 본년도 내에 발굴·조사하여 관곽棺槨, 부장품 등 유물을 수집하는 조사

31) 『朝鮮總督府, 1920, 「古蹟調査計劃」, 『大正六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32) 국립전주박물관, 2015, 앞의 글, 26쪽.

33) 노모리 겐은 서울에 복귀하여 익산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정인성, 2015, 앞의 글, 163쪽).

34) 『朝鮮總督府, 1920, 앞의 글, 652쪽.

35)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2



층석탑은 ‘폐미륵사 석탑과 같은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이다.’, 쌍릉과 관련해서는 ‘大小 2기의 능묘는 그 구조로 판단하였을 때 백제시대 말기 왕족의 능묘라 할 만한 것이다.’고 보고해 익산의 문화유산 대부분을 마한의 도움으로 판단하던 기존의 생각이 발굴 이후 변했음을 알 수 있다.<sup>36</sup>

특히 쌍릉의 정확한 조사기간은 알 수 없지만 조사 직후 곧바로 나주 반남면 고분군 조사가 12월 17일부터 시작되었으며,<sup>37</sup> 『우메하라 고고자료梅原考古資料』 중 쌍릉 도면에 ‘대정 6년 십이월 십이일 大正六年十二月十二日 拓’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어<sup>38</sup> 1917년 12월 10일 전후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발굴 결과는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와 「야쓰이 고적조사위원 복명서谷井古蹟調査委員復命書」(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9)에 남아있다. 야쓰이는 “예부터 전해지기를 마한馬韓시대의 왕릉으로 여겨졌으나 믿기 어려우며, 그것을 조사하니 쌍릉의 대묘, 소묘 모두 백제시대 말기의 능묘라는 것은 명백하다. 대묘大墓는 그 석곽 및 목관의 구조 웅위雄偉, 부여에서 백제 왕릉으로 전해지는 것에 비해 우수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형식, 용제는 백제의 능묘의 그것과 일치하고 또 그 지형에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도, 분구나 석곽 및 목관 등의 위대함을 생각한다면 백제의 왕릉 또는 그것에 준하는 자의 능묘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 2. 문화유산의 지정과 보존

1916년 7월 4일에는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sup>39</sup>(이하 보존규칙)」이라는 법령을 마련해 고적 및 유물을 발견한 이후의 절차(신고, 등록, 변경, 수선 등)뿐만 아니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식민지 유적과 유물을 전체적으로 통제·관리하고<sup>40</sup> 체계적·일원화된 고적조사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보존규칙」은 문화재의 보존방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유권에 제한을 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령府令으로 정하였으며, 「보존규칙」보다 「유실물법」이 상위법으로 우선하였기에 형식상 미비한 점이 있었다.<sup>41</sup>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소장자를 위한 도굴이나 총독부의 명을 받아 실시한 조사 모두 문화재가 수집·반출되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다.<sup>42</sup>

보존규칙에 의해 「고적 및 유물 대장古蹟及遺物臺帳(이하 등록대장)」에 등록된 문화유산은 1917년까지 193건이며, 1929년까지 총 198건이 기록되었다.<sup>43</sup> 등록대장에는 등록번호가 매겨지고, 명칭과 형태, 소재지, 국유지 및 소유자 여부, 현황, 유래와 전설, 관리보존방법 등이 소개되었다. 익산 지역에서 등록된 문화유산은 총 5건이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2). 등록 후에는 보존시설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등록대장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쌍릉도 1917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부여 능산리고분군 석실과 매우 유사한 백제시대의 능묘’라는 사실로 인해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보존시설이 설치된다.<sup>44</sup>

[표 2] 익산에서 등록된 문화유산(~1933)

등록번호	지정 물건	소재지
제69호	미륵사지 당간지주彌勒寺址 幢竿支柱	금마면 서고도리
제70호	미륵사지 석탑彌勒寺址 石塔	금마면 서고도리
제71호	익산 석불리 석불상益山 石佛里 石佛像	삼기면 연동리

36) 朝鮮總督府, 1920, 「京畿道廣州·高陽·楊州·忠清南道天安·公州·扶餘·青陽·鎭山·全羅北道益山及全羅南道羅州十郡古蹟調査略報告(谷井委員提出)」, 『大正六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593~668쪽.

37) 국립광주박물관, 1988, 『羅州潘南面古墳群』, 30쪽.

38) 국립전주박물관, 2015, 앞의 글, 26쪽.

39) 조선총독부령 제52호, 『朝鮮總督府官報』 제1175호(1916.7.4.).

40) 최석영, 2015, 『일제의 조선朝鮮「식민지 고고학」과 식민지 이후』, 서강대학교출판부, 125~126쪽.

41) 이순자, 2009, 앞의 글, 227쪽.

42) 야쓰이는 나주 지역 특별조사시 ‘웅관에 있을 금동보관, 대도, 칼날, 창, 귀걸이 등이 나오면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概要」, 『大正六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15쪽).

43) 朝鮮總督府, 1917, 『古蹟及遺物登錄臺帳』, 1924, 『古蹟及遺物登錄臺帳抄錄參考書類』.

44) 1940년 보존령에 의해 고적 122호로 지정된다.

제72호	익산 고도리 쌍석불상益山 古都里 雙石佛像	금마면 서고도리
제138호	익산 왕궁 오층석탑益山王宮 五層石塔	왕궁면 왕궁리

한편 익산 지역 1910년대 고적조사사업 중 특기할 만한 사업은 1915년(大正4) 실시한 미륵사지 석탑 수리修理工事이다. 1911년까지 기초조사를 마친 총독부는 1913년부터 수리가 필요한 고적과 건축물에 대해 보존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미륵사지 석탑이 보존공사 응급수리대상에 포함되었다.

미륵사지 석탑은 1910년 조사에서 ‘甲’ 등급을 받았는데, 구리아마는 석탑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그 양식을 판단하자면 약 1,200여 년 전에 건립되어 규모가 장대하고 조선의 석탑 중 이에 비견할만한 것이 없으며 형태 역시 지극히 아름답다. 하지만 크게 파괴, 붕락되고 간신히 존재하는 6층의 탑신이 위태로워 실로 위험한 상황에 가까워져 (수리공사 시) 수리비 약 5만 원, 응급수리비가 약 2천 원이다.”<sup>45</sup>

결국 1915년(大正4) 12월 6층 일부만 남아있던 석탑은 콘크리트를 덧씌워 보강되었다. 그 경비는 1,870원이었다.<sup>46</sup> 하지만 석탑 보존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서는 남아있지 않다. 석굴암, 분황사 등의 보존공사 내역 등의 기록에서는 필요 인원에서부터 비용까지 매우 세밀하게 남아있으므로 정황상 분명히 미륵사지 석탑 보존공사 관련 문서도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그 소재를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1920년대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직접 편찬한 『조선의 박물관 사업과 고적조사 사업』朝鮮ニ於ケル博物館事業ト古蹟調査事業史의 내용 중에는 총독관방 토목국의 고적보존수리 내용이 들어있다.<sup>47</sup> 이 문서에 의하면 1915년 11월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설립되면서 보존수리 사업이 박물관으로 옮겨졌지만 중요한 공사는 모두 박물관의 의뢰를 받아 여전히 토목국이 시공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미륵사지 석탑과 관련한 문서도 이전부터 고적의 수리와 보존공사를 담당해오던 총독관방 내무국 제1과와 토목국에서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생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사업 종료 후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고적 관련 문서들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여지도 있다.<sup>48</sup>

그렇다면 왜 1915년 당시 미륵사지 석탑 고적수리가 정식 수리비가 아닌 응급수리비로 지출되었을까? 일제강점기 당시의 보존공사 지침은 「보물 등 보존공사에 관하여 重要寶物等保存工事ニ關スル要項」에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다.<sup>49</sup> 문서에서는 ‘해당 사물의 역사적·미술적 규모 혹은 학술 연구 자료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고 불필요한 현상 변경을 하지 않고 수선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물의 보존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현상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리비 5만 원은 과도한 지출이었을 것이다. 1915년 한 해동안 사용된 전체 고적 수선경비는 14,558원이었다. 1929년(昭和4)까지 사용된 고적 수리비 중에서 2만 원 이상 지출된 건은 없었다.<sup>50</sup> 따라서 총독부에서는 미륵사지 석탑 전체에 대한 해체보다는 응급수리(1,870원)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의 보존공사는 크게 유지수리와 보존시설 설치로 나누어지는데 익산 미륵사지와 같이 유지수리가 이루어진 사례 이외에는 대부분 보존시설의 설치에 주안점을 두고 공사가 행해졌다. 쌍릉과 관련한 기록으로는 「대정8년도 보존시설의 건大正八年度保存施設ノ件」이 있다. 분묘는 현상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해 봉토를 복구하였으며 주변에

45)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

46)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3

47)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31

48) 현재는 미륵사지 석탑 보수를 위한 실측·보존공사 도면 6매만이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49)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32

50) 藤田亮策, 1931, 앞의 글.



는 목책 및 출입금지 꺾말을 설치하거나 잔디를 식재하는 작업을 수행했고<sup>51</sup> 출토된 유물은 ‘크고 작은 것 구별 없이’ 모두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갔다.<sup>52</sup> 마찬가지로 미륵사지 석탑도 유지·수리하여 초석과 당간지주를 모두 현지에 보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해마다 전국적으로 1만 4천여 원의 경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규칙이 정해진 1916년 이후부터는 점차 그 액수가 감소하여 중요한 목조 건축의 응급설비, 고분 및 석탑의 보존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불과하였다.<sup>53</sup>

요약하자면 1920년까지의 일본의 식민지 문화정책은 기초조사로 파악한 문화재를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 1916년부터 실시된 「보존규칙」과 헌병경찰제도에 기반하여 관리한 수탈적 문화재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쌍릉과 같은 약탈적인 고분 발굴 및 현지 문화재의 총독부박물관 반출에서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sup>54</sup>

익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발굴조사 된 쌍릉도 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발굴된 유물들 중 옮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총독부박물관으로 운송되었다. 옮길 수 없는 유구 자체는 현지 보존하고 「등록대장」으로 관리하였다. 결국 총독부는 「보존규칙」 속에서 한반도의 문화재에 관한 발굴·조사·수리 공사를 통제하였다. 그리고 고적조사 과정에서 익산 쌍릉을 발굴하면서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부각하여<sup>55</sup> 그들이 상상하던 고구려나 신라에 뒤떨어지지 않는, 백제의 찬란한 고대 문화와 연결되는 일본 민족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 IV. 문화유산의 지정·보존 시기(1921~1945)

##### 1. 1920년대의 문화유산 지정·보존

1920년대는 <고적조사 5개년> 사업이 끝나고 고적조사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고적조사과가 창설되던 시점이었다. 정책적 기조에 따라 일본의 고적조사사업은 주요 지역만 발굴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지정·보존·수집품 정리 사업을 해 나가는 ‘정리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sup>56</sup> 발굴의 기회가 줄어든 만큼 더 많은 유물 수집 성과를 올려야 했던 총독부에서는 부장량이 비교적 풍부한 고분 조사에 더욱 집중했다. 특히 이 데올로기적 효용성에 따른 식민사관을 강화시킬 수단을 찾고자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실시된 조사는 대부분 평양·경주·공주·부여와 같은 고도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 익산 지역에 대한 발굴 기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이전까지 등록하였던 문화유산에 대한 보수와 정비활동 속에서 고적 현황을 시찰하고 이를 기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1925년 오오하라 도시다케(大原利武), 1926·1930년 다나카 슈조(田中+藏), 1928년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의 방문은 대부분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오오하라는 백제 멸망 시 일본의 원군이 당병과 싸워 패한 백촌강 소재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익산을 방문하였고, 다나카는 익산의 산성지, 오가와는 익산 미륵사지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이미 발견한 문화유산을 시찰하고 「등록대장」 목록을 기반으로 조사대상의 상황과 맥락을 기술하는데 주력하였다.

51)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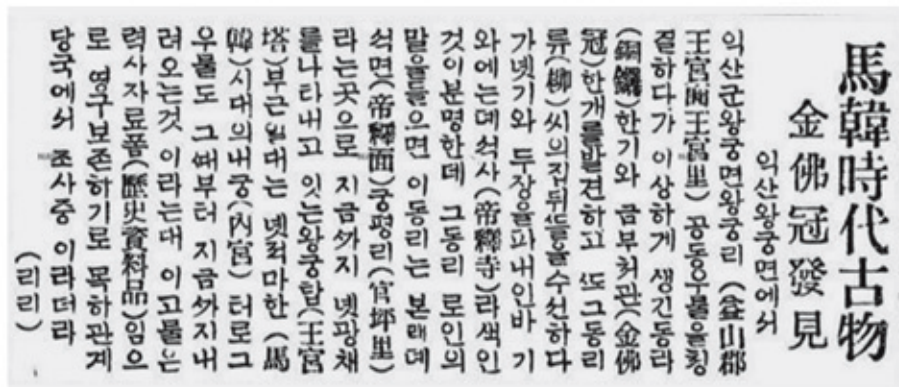
52)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9

53) 이순자, 2009, 앞의 글, 89쪽.

54) 국립중앙박물관·(사)한국박물관협회, 2009, 『한국박물관 100년사-본문편』, 88쪽.

55) 藤田亮策, 1931, 앞의 글, 89쪽.

56) 藤田亮策, 1931, 앞의 글, 99쪽.



[그림 3] 마한시대 고물 금불관 발견 (동아일보 소장, 1924-09-30)

[표 3] 1920~30년까지의 조사

연번	조사연도	조사자	조사유적
1	1925(大正14)	大原利武	백촌강白村江 전투와 관련한 백제유적 조사
2	1926(大正15/昭和1)	田中十藏	익산 합열면 부근 조사(합라산성)
3	1928(昭和3)	小川敬吉	미륵사지(동서 양 사지의 배치구조 등)
4	1930(昭和5)	田中十藏	학현산성, 왕궁탑
5	1929~30(昭和4~5)	今西龍	익산 지역 전반
6	1930(昭和5)	藤島亥治郎	미륵사지 및 왕궁리 오층석탑

개인 연구자의 관심에 따른 익산 지역 조사도 활발히 실시됐다. 특히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진 학자였던 이마니시 류(今西龍,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의 개별조사 결과, 익산 지역이 학술연구의 무대에 올라섰다.

먼저 이마니시는 1929~30년(昭和4~5) 발간한 『문교의 조선文敎の朝鮮』에 「전라북도 서부지방 여행잡기全羅北道西部地方旅行雜記」라는 제목으로 익산 지역 고적조사의 기록을 몇 차례에 걸쳐 연재했는데, 용화산성(미륵산성), 사자사, 미륵사지 석탑과 당간지주, 傳 왕궁지 석탑 제석사, 궁평, 오금산 전설, 석인, 서동전설, 쌍룡 무강왕 등의 정보를 장장 50여 쪽에 걸쳐 정리하였다. 특히 ‘현 왕궁리 궁평 제석사라는 사원의 존재는, 1924년(大正13) 흙 속에서 발견된 기와와 불상으로 인해 알게 됐다’라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sup>57)</sup> 이 기록은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인 「유물발견의 건遺物發見ノ件」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sup>58)</sup> 주민들이 왕궁리에서 공동우물을 청소하다가 동라銅羅와 금불관을 발견하여 이를 「보존조치」에 따라 경찰부에 보고한 것이다. 동아일보에도 이 내용이 같은 맥락에서 기사로 게재됐다(그림 3). 그 후 조선총독부박물관협의회의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가 아미타상 머리 1점과 기와 파편 2점을 참고자료로 평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일부 유물을 제외하고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입수한 것으로 추정된다.<sup>59)</sup>

한편 건축사학자인 후지시마는 1930년에 『조선건축사론 3권朝鮮建築史論: 其三』을 발표했다는데 제2편 「조선불교건축사朝鮮佛教建築史」에서 백제 불교건축과 미륵사를 상세하게 다뤘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미륵사지 가람배치에 관해 서원西院과 동원東院 및 후방의 대규모 가람(中院)을 상정하여 삼원식 가람배치를 구체적으로 추정했다. 또 미륵사가 백제 무왕과 신라 진평왕이 재위했던 632년 이전에 창

57) 今西龍, 1930, 「其4 傳 王宮址 石塔 帝石」, 『全羅北道西部地方旅行雜記』, 572쪽.

58)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3

59)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3



건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가 제시한 품자형品字形 가람배치 복원안은 광복 후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기 전까지 『삼국유사』의 ‘전·탑·낭무廊廡를 각각 세 곳에 세웠다(殿塔廊廡各三所創之)’<sup>60</sup>는 기록과 함께 미륵사지가 통일신라시대의 절터가 아닌 백제의 절터라는 주장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인정받았다.<sup>61</sup>

일반 신문지상에도 익산의 문화유산들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마한 고도 익산>, <마한고도행>과 같은 기사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백제의 무덤 양식으로 확인된 쌍릉의 발굴 성과와는 별개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건마국’ 혹은 ‘준왕의 남천지’, ‘무강왕’이라는 인식 속에서 익산 지역의 문화유산들이 소개되었다.<sup>62</sup>

한편 이 시기에는 현지 주민들이 참여한 고적보존회가 본격적으로 설립되고 있었다. 지방 고적보존회의 설립 목적은 각 지방에 산재한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고적 보존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회의가 진행되었던 고적조사위원회, 고적보물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등은 전국의 고적조사 및 보존에 관한 일을 모두 시행할 재정적, 인적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지역 나름대로의 필요에 따라 고적보존회가 설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삼국시대 고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고적보존회 활동이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경주고적보존회와 부여고적보존회 등은 재단법인으로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이는 지방박물관 설립의 계기가 됐다.<sup>63</sup>

그런데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중에서는 전라북도 고적보존회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수십여 개에 달하던 고적보존회의 기록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1920년대 신문 기사는 전라북도에도 고적보존회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1923년 7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는 ‘김창한 외 몇몇 인의 발기發起로 내장사고적보존회를 조직하고 차등 역사적 고적을 장구 보존하기로 계획 중이라더라(정음)’<sup>64</sup>, 1928년 7월 11일에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금산사 재수선>이라는 제목으로 ‘주승主僧의 동한으로 해마다 (절이)상하야 감으로 이번에 고적보존회에서 응급수선하기로 되어 총독부 재무국에서는 550원을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더라(김제)’라는 기록이 있어 전라북도에서 공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고적보존회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65</sup>

하지만 지역을 좁혀본다면 익산 고적보존회와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찾을 수 없다. 그나마 1928년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기자들이 마한 고도를 답사하기 위해 익산에 방문했을 때 왕궁리 오층석탑이 기울어진 모습을 보고난 뒤 익산에 보존회가 없는 현실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sup>66</sup> 이 기사에 근거하면 1928년까지는 익산 지역에 고적보존회가 설립되지 않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반도 전체에서 고적보존회를 설립한 시기를 보면 1910년대 설립된 단체 수가 23개, 1920년대에는 8개, 1930년대는 17개로 30년간 꾸준히 설립되었다.<sup>67</sup> 이런 점을 미루어본다면 익산 지역에서도 1928년 이후 지방 고적보존회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1920년대에는 ‘문화정책’과 ‘정리의 시대’ 속에서 한반도 유적과 유물, 명승, 천연기념물들에 대한 조사는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재정과 인력의 부족으로 식민사관과 황국 이데올로기를 부각시키기 쉬운 유적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sup>68</sup> 한편 익산처럼 고적이 있지만 발굴의 필요성까지는 없었던 지역에서는 현황 파악과 보존을 위한 시찰조사가 진행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조사 지역의 보존을 위한 지역별 고적보존회가 조선총독부의 지원으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60) 『三國遺事』卷二 武王燦參照.

61) 이병호, 2017, 「일제강점기 익산 지역의 고적 조사와 쌍릉 출토품」, 『百濟文化』56, 333쪽.

62) 동아일보, 1933, <(古都古蹟巡禮(其三))馬韓古都益山>; 1928, <馬韓古都行(1-5)>.

63) 이순자, 2009, 앞의 글, 378쪽.

64) 동아일보, 1923-07-09, <內藏寺古蹟保存會設立>.

65) 동아일보, 1928-07-11, <悠久한 歷史를 가진 金山寺 再修繕>.

66) 동아일보, 1928-07-20, <馬韓古都行(2)> ‘이 천여 년 동안 한 모양으로 荒墟에 고립하여 반도의 興衰성쇠를 閱歷하는 왕궁담은 鳳臺雨洗하야 점차로 礎台가 붕괴되기 시작하니 이미 복으로 수척의 경각을 일으켰는데...(중략) 지방인사들의 무지를 저주치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함께 본노를 금지 못하는 일방고적보존회산출의 급무를 일제히 절규하였다. 신라고도 경주며 백제고도 부여에도 이미 차등 보존회가 조직되어 있는지 오래이거는 그들에 하등 손색이 없는 마한고도 익산에 우금비등 기관이 없었다는 것은...(후략)’

67) 이순자, 2009, 앞의 글, 391쪽.

68) 이 결과물들은 『朝鮮古蹟圖譜』, 『古蹟調査報告』, 『古蹟調査特別報告』로 발간된다.

## 2. 1930~40년대의 문화유산 지정·보존

1930년대 초는 대공황(1929), 만주사변(1931) 등으로 인한 재정 긴축 정책이 심화된 기간이었다. 이때부터 총독부는 고적조사와 발굴 사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는데, 예산 부족과 이데올로기적 효용성의 한계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69</sup> 그에 따라서 전시戰時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박물관과 고적조사위원회의 각종 업무는 모든 부분에서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동안 조선고적조사사업에 관여해온 구로이타 가쓰미板勝美는 정부가 아닌 외부에서 자금을 얻어 고적조사를 계속하려는 뜻을 세웠다.<sup>70</sup> 그리하여 1931년 이와사키 코야타岩崎小彌太<sup>71</sup>의 기부금 6,000원을 시작으로 총독부박물관 외곽 단체인 조선고적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조선고적연구회에서는 규칙을 정하면서 연구회 설립목적은 평양 및 경주를 중심으로 고적을 연구하여 조선 문화의 발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72</sup> 고 하였다. 그런데 조사사업의 세부 규칙 중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잠재되어 있었다. 규칙 제11조는 '조선고적연구회의 발굴조사에서 수집된 유물은 법령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것을 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었다.<sup>73</sup> 이는 기부금과 유물을 교환하고 문화재 반출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었다. 따라서 가시적 성과를 위해 더 화려한, 더 양질의 유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고적과 소장품이 풍부했던 평양과 경주에 연구소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sup>74</sup>

전라북도에는 조선고적연구회가 추구하였던 '발견을 통한 기부금 유치'나 '유물 처분'의 대상에 속하는 사례가 적었고, 자연스럽게 1930년대 발굴조사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익산 지역에서는 발굴 대신 1920년대 정리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시찰조사가 꾸준히 이어졌다.

총독부에서 주관한 공식조사로 1930년 다나카 슈조田中+藏가 실시한 학현산성 및 왕궁리 오층석탑 조사가 있다. 지표조사 결과 학현산성의 초축 시점은 백제 말에서 통일신라시대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왕궁리 오층석탑은 탑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느 시대엔가 흙을 쌓아 기단을 물은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토루 주변의 기와 파편, 왕궁리 북쪽의 '진귀한 이형 대리석'을 고려하여 왕궁리 유적이 아마도 보덕왕의 별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sup>75</sup>

1932년에는 간다 소조耕田惣藏와 가야모토 가메지로樺本龜次郎가 익산 고적 보존상황을 시찰하였다.<sup>76</sup> 그들은 미륵사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는데 특히 금당지 초석의 잔존상태를 파악했다. 남아있는 초석의 개수를 예로 들어 중요한 유적이 급속하게 황폐화되어 가는 상황을 언급, 보존조치가 필요함을 보고했다.

한편 공식적인 방문은 아니었지만 1934년 후지타 료사쿠가 익산을 방문하여 미륵사지와 고도리 석불입상을 촬영한 자료가 남아있다.<sup>77</sup> 또 1937년 조선고적연구회가 일본 궁내성과 일본학술진흥회의 보조금으로 왕궁리사지와 미륵사지를 조사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실제 조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sup>78</sup>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왕궁리 오층석탑 공사 기록이 주목할 만하다. 『유적유물관 계보고遺蹟遺物關係報告』 문서철의 「소화10년도 보존 및 보조공사계획昭和十年度保存及補助工事計劃」 문건에는 1935년도 왕궁리 오층석탑의 보존공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79</sup> 보물로 지정된 이 탑을 3,000원의 경비를 들여 공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공사의 소요 인원으로는 기사 1명과 기수 1명을 할당했으며 이에 대한 감독원으로는 기수 1명

69) 국립중앙박물관·(사)한국박물관협회, 2009, 앞의 글, 139쪽.

70) 이순자, 2009, 앞의 글, 208~209쪽.

71) 일본의 실업가로 미쓰비시三井財閥가 4대 총수이다.

72)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33

73) 오영찬, 2011, 앞의 글, 244~245쪽.

74)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7

75)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18

76)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12, 『유리원판에 비친 한국의 문화유산』, 166쪽.

77)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34

78)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1





지정문화재는 「보존령」에 의거하여 1943년까지 계속해서 지정된다. 지정된 문화재는 보물 419건, 고적 145건, 고적 및 명승 4건, 천연기념물 146건, 명승 및 천연기념물 2건이다. 익산에서 지정된 문화유산 종류로는 보물과 고적이 있다. 1934년 최초 지정 당시에는 왕궁리 오층석탑(보물 58호), 미륵사지 석탑(보물 59호), 연동리 석조여래좌상(보물 60호), 고도리 석불입상(보물 61호)이 이름을 올렸다.<sup>82</sup> 이와 관련하여 1934년 작성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일람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一覽』의 보물 지정 목록에 대한 영어 번역문도 수록되어 있어 일본의 한반도 문화유산 정책의 국제적 홍보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83</sup> 이후 1940년 7월 추가 지정 시 미륵사지 당간지주(보물 365호)와 익산 쌍릉(고적 122호), 익산토성(고적 127호)의 3건이 추가되었다.<sup>84</sup>

문화유산 지정 정책의 결과가 최종 집성된 것이 1942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이다(그림 4). 목록에 등재된 익산 지역 문화유산의 수는 총 24개 소이다.<sup>85</sup> 흥미로운 점은 미륵사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석탑과 당간지주 보존공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미륵사지는 향후 보존 범위에 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30~40년대 익산 지역 문화유산 고적조사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굴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익산 지역의 문화유산은 단편적인 현지조사가 총독부에 의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1933년 「보존령」에 근거한 보물 및 고적 지정 사업이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둘째, 지정 후 보존에 관한 업무는 각 지방이 담당하여 보존 수리 계획과 예산 부분을 총독부와 협의하였다. 하지만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38년 국가총동원령 실시와 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총독부 차원에서의 재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표 5] 일제강점기 지정 목록표

지명	현 유적명	추정연대	1910년 關野正	1924년 등록번호	1933년 등록번호	1940년 추가지정	2017년 현재
왕궁평(마한궁지)	왕궁리 유적	마한	甲				사적408호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	신라	甲	70호	보물59호		국보11호
미륵산성	미륵산성	마한?	乙			고적127호	전북기념물12호
석불리 석불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신라	乙	71호	보물60호		보물45호
왕궁탑(오층석탑)	왕궁리 오층석탑	신라	甲	138호	보물58호		국보289호
폐미륵사지 당간지주	미륵사지 당간지주(2기)	신라	乙	69호	보물365호		보물236호
사자암 석등	(사진에는 석탑 촬영)	고려	乙				
읍남석불(1대)	고도리 석불입상(2기)	고려	乙	72호	보물61호		보물46호
쌍릉	쌍릉	마한?→백제	乙			고적122호	사적87호
객사 및 삼문	객사	조선후기	乙				



## V. 맺음말

이상 일제강점기 익산 지역 고적조사사업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00년부터 1920년까지 진행된 고적조사사업 중 대표적인 세 번의 조사는 1910년 세키노의 조사와 1915년 도리이의 조사, 1917년 야쓰이의 조사이다. 1910년 조사에서는 가급적 폭넓은 고적을 확인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이 때 익산에서 발견한 10개소의 문화유산 중에서 광복 이전까지 보물·고적으로 지정된 것이 7건으로 세키노의 조사가 이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1915년의 조사는 익산의 선사 유적·유물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지석묘와 석검 등을 발견하여 익산 지역의 선사 문화를 최초로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1917년 조사에서는 1910년의 조사를 기반으로 쌍릉에 대한 발굴 및 익산 소재 유적에 대한 세부 현황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때 조사된 유물은 대개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졌고 그중에서도 쌍릉 목관은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석실이나 봉분과 같이 보존 가치를 가진 유구에는 보존시설을 설치하는 등 간단한 보수정비가 이루어졌다.

1920년부터 총독부는 예산과 인력을 평양과 경주 등 풍부한 부장량을 가진 고분 발굴에 집중시켰다. 따라서 이때부터 익산 지역에서는 「보존규칙」과 「보존령」에 의거한 고적의 지정과 정비 사업을 주로 실시하였다. 한편 고적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시찰과 개인 학자들의 연구여행 속에서 익산의 모습들이 종종 확인된다.

일제강점기 동안 분야를 막론하고 조사자들이 얻어낸 다양한 정보는 일본 내지内地로 전달되었다. 고적조사 과정에서 얻어낸 정보로 재생산된 한반도의 역사상은 『조선 고적도보』, 『고적조사보고』와 같은 출판물에서 보이듯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정치적 선전물로 이용되었다. 사실상 ‘조사’라는 단어는 원활한 식민지 통치를 위한 역사 왜곡의 다른 이름이며, 그들이 제출한 보고서인 『고적조사보고』는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하기 위한 지식 권력의 산물이었다.<sup>86</sup>

고적조사사업은 학문이 아닌 편중된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었고 식민지에서 식민자(the colonizer)가 실시한 고고학 조사는 주체의 목적과 이념에 맞게 항상 재구성되고 조작되었다.<sup>87</sup> 또 단기간 진행된 고적조사 과정에서 졸속 발굴, 발굴 유물·도면 자료 정리 미비, 보고서 미간 등으로 인해 일제강점기 익산의 문화유산들은 일본인 학자들의 관점대로 부여된 ‘기준성(基準性), 왕궁리 유적: 마한’이나 ‘연동리 석조 여래좌상, 미륵사지 석탑: 통일신라’ 같은 어색한 이름표를 부여받았다. 문화유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그들이 미륵사지 석탑의 콘크리트 보수 공사, 쌍릉의 잔디식재나 봉토복원 등 보존공사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심으로 순수한 목적이며 한국인들의 발양(發揚)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고히 쌓아올린 것처럼 보였던 조선총독부와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지금 사상누각처럼 흩어져 버렸고 그 자리에는 자료라는 잔해만 남았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고적조사사업의 해석을 온전히 마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익산 지역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의 연구 성과가 점점 축적된다면 이 지역의 옛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더욱 다양해 질 것이다.

86) 전경수, 1997, 「궁궐과 파행의 한국인류학 백년(1)」, 『韓國學報』86, 30쪽.

87) 김대환, 2017, 앞의 글, 95쪽.

# 익산 미륵사지 석탑 수리 역사와 성과

김현용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 I. 머리말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전통건축은 목조木造 문화권이라는 큰 양식적 범주 안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건축양식은 각 나라의 환경적 여건, 생활 양식,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특히 목탑, 석탑, 전탑 등 다양한 불탑의 건축은 이러한 양식적 차별성을 보다 뚜렷하게 보여준다. 고대 인도의 스투파stupa에서 유래된 불탑은 당시의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이자 한·중·일의 건축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연구 대상이다.

동아시아의 불탑 건축을 논할 때 흔히 한국은 석탑의 나라, 중국은 전탑의 나라, 일본은 목탑의 나라라고 일컫는다. 이는 각국 탑의 구조 및 양식, 재료적 차이에 의한 것이며, 현존하는 탑의 수적 우위에 의한 영향이 크다. 한국의 경우 전체 국가 지정(국보, 보물) 석조문화재의 30% 이상을 석탑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 지정문화재 등까지 다수의 석탑이 존재한다. 석재는 목재에 비해 내구성도 우수하고 변형의 위험이 적지만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건축 재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에서 석탑의 건립이 활발했던 것은 화재, 부식 등에 취약한 목탑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양질의 석재가 풍부하여 공급이 용이해 일찍부터 석공 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석탑은 ‘돌’이라는 재료적 특성 때문에 대개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구조물로 인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석탑들은 창건 연대가 목조건축물 보다 수백 년 이상 오래된 것들이 많고 대부분 야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풍화 및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반부 적심의 유실로 인한 구조적 불안정 및 구성석재의 변위, 파손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은 7세기에 창건된 후 1,3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몇 차례 수리, 개축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추론만 가능할 뿐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과 같이 역사가 오래된 석탑들은 원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상륜부는 원형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가 드물다.

석탑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기록은 일제강점기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및 수리 행위는 조선총독부와 같은 관공 주도하에 일본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때의 사진이나 도면 자료 등이 전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의 석탑 수리는 대부분 응급보수 성격으로 이루어져 원형에 대한 고증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수리 과정에서 부재의 위치가 바뀌는 등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리장엄구 등 석탑에서 발견되는 유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축조기법, 수리기술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1970년대 이후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기록화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 비로소 수리보고서 발간과 보존처리 분야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과학적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한 석탑의 수리 및 보존처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 미륵사지 석탑은 현존하는 석탑 중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으로서 역사적 가치, 보존 상태, 시공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직접 수리를 시행한 사례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해체 전 석탑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해체작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학술조사 및 기술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 및 보존처리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석탑의 수리품질 향상은 물론 유사 석조문화재의 보수·복원 방법론 제시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 II. 미륵사지 석탑 연혁

### 1. 발굴 및 정비 경과

#### 1) 미륵사지 발굴조사

발굴조사 전 미륵사지는 서탑과 당간지주 정도를 제외하고 사지 대부분이 논과 밭으로 개간되어 전체적인 유구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최초의 발굴조사는 1966년 미륵산 아래에 있던 노상리(露上里)의 하지보(夏至澳) 설치 작업 중 석재유구가 노출되어 긴급조치로 실시되었으며 같은 해 미륵사지는 사적 제150호로 지정되었다. 미륵사지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는 1974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동탑지 발굴 및 서탑 기초조사'가 시작이다. 이를 계기로 동탑은 기존의 목탑설 대신 석탑이라는 고고학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고 미륵사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후 미륵사지가 주요 정비 대상 사적에 지정되면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5개년씩 3차에 걸쳐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미륵사지는 탑과 금당이 각각의 회랑으로 둘러싸여 동원(東院), 중원(中院), 서원(西院)의 3원으로 구성된 3탑3금당의 독특한 가람배치로서 『삼국유사』의 '殿塔廊廡各三所創之'라는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sup> 또한 미륵사가 백제시대에 창건된 후 다양한 변천을 겪으면서 조선시대인 16세기 전후까지 경영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백제 최대의 가람으로 미륵사지의 전체 규모가 확인된 것은 중요한 성과였다.<sup>2)</sup>

#### 2) 미륵사지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유구 정비, 배수로 정비 및 신설, 조경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굴조사와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되었다. 유구 정비는 1983년 동탑지 주변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1985년 서탑 주변 정비 등 1988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는



[그림 1] 미륵사지 전경(1910년)  
『조선고적도보』 4권



[그림 2] 미륵사지 발굴조사 전경(1988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소장)

1) 김현용, 2016, 「익산 미륵사지 복원정비 현황과 과제」, 『익산 미륵사지 유구 보존과 복원정비 방안』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7쪽.

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6, 『미륵사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I』, 35쪽, 527쪽.

3) 김현용, 2016, 앞의 글, 9쪽.



[그림 3] 정비 후 미륵사지 전경(1999년)  
(전라북도 소장)

데 주로 발굴조사를 통해 노출된 유구를 정리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1983년에 마련한 ‘미륵사지 유구정비 기본방침’에 따른 것인데 발굴로 노출된 유구의 보호, 석재의 드잡이 및 이전 설치, 구지표 노출 정비, 배수시설 설치 및 잔디식재 등이며, 특히 유구가 유실된 부분에 대한 신석재의 보충을 억제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sup>3)</sup>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개관 등으로 인해 정비계획을 보완할 필요성이 생겼다. 일부 유구는 이미 침하나 이완 등의 변형이 발생하였고 관람 시설도 미비한 상황이었다.<sup>4)</sup> 이에 1997년 ‘미륵사지 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 후 유구의 노출 및 잔디식재를 기본으로 전시, 휴게, 관람 시설의 보완 등을 위한 종합 정비(1998~1999)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 방법은 발굴로 노출된 유구의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반면 장기적인 유구의 보존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석재가 유실된 부분에 대한 신재 보충을 억제함으로써 우수의 침투 및 구조적 불균형에 의한 석재의 전도, 이탈, 침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률적으로 잔디를 식재함으로써 유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석재 표면의 풍화를 가속화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표 1] 연도별 미륵사지 발굴조사 경과

구분	연도	조사범위	비고
1차 5개년 (사역 중심)	1980	동탑지 및 동원 금당지 주변	동탑 노반석 출토
	1981	서원 금당지 주변, 중원 목탑 및 금당지 주변	-
	1982	서원 북·동편 주변 등	3원 가람배치 확인
	1983	강당지 및 북편 석축, 북승방지	-
	1984	당간지주 주변 지역	남원영역 확인
2차 5개년 (사역 외곽)	1985	사역 북편지역, 중원 회랑지 등	후대건물지(고려~조선) 확인
	1986	사역 서북편지역, 동원 금당지 서편지역 등	-
	1987	사역 남편지역, 연못지 및 주변	연못지 확인
	1988	강당지 동편지역, 동승방지 일부, 동탑지 하부 사역 북편 대밭 및 사역 동편 와요지	고려시대 와요지 확인
	1989	북승방지 일부, 연못지, 사역 동편 와요지, 사역 북편 대밭	조선시대 와요지 확인
3차 5개년 (사역 남편)	1990	동승방지 동편 대배수로	-
	1991	동탑지 기반부, 연못지, 사역 남서편(전시관 설립부지)	-
	1992	동원 지역, 사역 북동편 지역, 연못지, 전시관 미확인 지역	-
	1993	중심곽 미확인지역, 연못지 및 중앙진입로	통일신라시대 와요지 확인
	1994	후대 남회랑지 주변, 연못지 입수로 및 남측지역 통일신라 와요지, 사역 서편지역(보완)	남회랑지 영역과 연못지 조성 연대 확인

4)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07, 『미륵사지 유구 정밀실측 및 보존관리 학술용역』, 98쪽.

5) 하루는 무왕과 부인이 함께 사자사(獅子寺)에 가 고자 용화산 밑의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나타나 왕이 수레를 멈추고 경의를 다했다. 부인이 왕에게 큰 절을 지어 줄 것을 청하자 왕이 이를 허락하고 지명법사를 찾아가 연못을 메운 입을 묻으니 신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우고 평지를 만들었다. 이에 미륵(彌勒) 삼회(三會)를 범상法像으로 하여 전殿, 탑塔, 남廊, 무廡를 각각 세 곳에 짓고 미륵사라 하였다. (일연·리상호·강운근, 1999, 『사진으로 함께 읽는 삼국유사』, 203쪽).

## 2. 관련 문헌기록

미륵사는 『삼국유사三國遺事』 무왕조武王條<sup>5)</sup>의 기록에 의해 백제 무왕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09년 1월 석탑 1층 중앙의 심주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물로 구성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이 때 수습된 유물 중 사리봉영기壽利奉迎記의 명문을 통해 서탑에 사리를 봉안한 때가 기해년己亥年(639)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설화로 전해지던 미륵사의 창건 배경, 주체, 성격 등이 역사적 사실로 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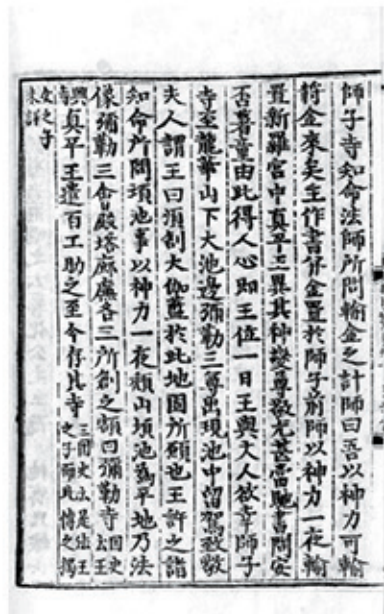
혀지고 금속류, 유리류 등 다양한 유물들의 절대연대가 확인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해체 전 미륵사지 석탑은 반파되어 6층 일부까지만 남아있던 상태에 1915년 일본인들이 무너진 부분에 콘크리트를 덧씌워 보강한 상태였다. 그 이전의 모습은 18세기 강후진의 『와유록臥遊錄』에 수록된 『유금마성기遊金馬城記』에 석탑을 무너진 상태의 7층으로 기록하고 1층부 주변의 석축을 묘사한 내용이 확인되는 정도이다.<sup>6</sup> 안타깝게도 창건당시 석탑의 원형과 이후 변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양곡집陽谷集』, 『금마지金馬志』 등으로 부분적인 추론은 가능하다.

석탑의 붕괴와 관련된 내용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성덕왕 18년(719년) “9월 미륵사에 ‘震’(벼락 또는 지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18세기 문헌인 『금마지』에는 “기록을 살펴보면 성덕왕 29년(730년) 6월 벼락雷擊으로 무너졌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두 기록은 벼락 또는 지진이 발생한 연도가 상이하고 미륵사에 있던 탑들(목탑, 동 석탑, 서 석탑) 중 어떤 탑을 지칭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해거국사비문惠居國師碑文』에는 922년 ‘개탑開塔’이라는 명문이 있는데 이 또한 어떤 탑을 언급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개탑’의 개념도 모호하다. 다만 ‘개탑’의 대상을 서탑으로 가정하면 15세기에 작성된 『점필재집佔畢齋集』과 16세기의 『양곡집』에 탑의 붕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16세기까지는 큰 변화 없이 탑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8세기 문헌인 『와유록』의 “100년 전에 무너졌다.”라는 내용까지 종합해보면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석탑이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석축은 17~18세기 경 보강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sup>7</sup>

한편 근대 이후의 자료로는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관보』 등이 남아있는데 당시 시행한 ‘미륵탑 보존공사(1915년)’, ‘미륵사지 석탑 보수공사(1980년)<sup>8</sup>’에 대한 내용과 미륵사지 석탑의 문화재 지정 관련 자료들이다.



[그림 4] 『삼국유사』 卷第2 紀異第2 武王條

6) 김현용, 2015,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현황 및 방법』, 『석조문화재 수리와 보존관리』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53쪽.

7)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7, 『彌勒寺址 石塔 解體調査報告書 V』, 325쪽.

8) ‘미륵사지 석탑 보수공사’는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1980년에 공사비 1,716천원을 투입하여 1915년 석탑 내부 등로천장에 설치한 철문 에 대한 보강, 등로임구 보호철문 설치, 피파침 설치 등을 시행한 것으로서 석탑 자체의 해체수리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

9)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7, 앞의 글, 326쪽.

[표 2] 미륵사지 석탑 관련 주요 자료<sup>9</sup>

구분	시기	주요 내용
『三國遺事』 卷第2 紀異 第2 武王條	7세기	“...殿塔廊廡各三所創之, 額曰彌勒寺...” (...전, 탑, 회랑, 부속건물을 각각 세 곳에 세우고 미륵사라 하였다...)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德王18年條	719년 (성덕왕 18년)	“...秋九月 震金馬郡彌勒寺” (...가을 9월에 금마군 미륵사에 벼락(또는 지진)이 일어났다.)
『惠居國師碑文』	922년 (후백제)	“...龍德二年夏 特被彌勒寺開塔之 恩仍...” (...용덕 2년 여름 오로지 미륵사 탑을 일으켜 세운 은혜로 인하여...)
『朝鮮王朝實錄』	1407년 (태조 7년)	의정부議政府에서 각 지역의 명찰名刹을 가려내 자복사資福寺로 지정했는데 미륵사가 익주益州의 자복사로 선정
『佔畢齋集』 시집 제21권	15세기 작시 1640년 간행	“〈益山彌勒寺石浮屠〉鬼功民力竟茫茫上軼龍華萬仞岡...” (귀공인지 민력인지 끝내 아득하기만 하여라. 위로 용화산 만 길 등성이를 능가하였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3 全羅道 益山郡 佛宇條	1530년 (중종 25년)	“...新羅眞平王遣百工助之 有石塔極大 高數丈 東方石塔之最” (...신라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 도왔다. 매우 큰 석탑이 있는데 높이가 수 장(길)이며, 동방 석탑 중 최대이다.)
『陽谷集』 卷第8	1571년 (선조 4년)	“...華山西麓古伽藍 吉地相傳冠海南 石塔聳空三百尺 最宜彌勒與同龕” (...화산 서쪽 옛 가람, 해남의 으뜸이라 서로 전하는 길지, 공중에 우뚝 솟은 삼백 척 석탑, 미륵이 함께하는 감실이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구분	시기	주요 내용
『臥遊錄』遊金馬城記	1738년 (영조 14년)	"...彌勒山西麓 有古彌勒寺基... 田畦中有七層石塔 極其高大 皆用石屏 累疊甃成以石柱支其四隅 世所謂東方石塔之最者 非虛語也 百年前因霹靂毀其一半 而下遊石門能通出入遂與三人同人遊玩緣西壁陟塔上有數三農人挾田器臥於其上..." (...미륵산 서쪽 기슭에 옛 미륵사 터가 있다... 밭두렁 가운데 대단히 크고 높은 7층 석탑이 있다. 모두 돌을 사용해서 둘러막고 겹겹이 포개 쌓아올려 단장해 놓았다. 돌기둥이 그 네 모서리를 받치고 있다. 세간에서 말하는 동방 석탑 중 최고라는 이름은 헛소리가 아니다. 100년 전에 벼락霹靂이 떨어져 그 절반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석문이 있어 세 사람이 함께 불편 없이 업사리 드나들 수 있다. 장난삼아 서쪽에 두른 벽으로 탑에 올라간 농부 세 사람이 농기구를 끼고 그 위에 누워 있다...)
『金馬志』古蹟條	1756년 (영조 32년)	"...彌勒寺塔在彌勒寺舊處之南 高十餘丈 俗傳東方石塔之最者 下通八間可容人出入 世稱象八陣法有生殺間云不知何年 爲雷所擊而西一半頽落 厥後經浩劫而亦不益崩 按然黎記述 新羅聖德王二十九年六月雷擊而崩" (...미륵사 탑은 옛 미륵사의 남쪽에 있다. 높이가 10여 장치이며 동방에서 가장 높은 석탑으로 속설에 전해지고 있다. 아래의 통하도록 나뉜 칸으로 사람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세칭 팔진법 모양이라 하고 있다. 세우고 허물어짐이 어느 해인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벼락 친 곳 서쪽 반은 피락되었다. 흔들렸음에도 큰 탑은 그 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무릇 기록을 살펴보면 신라 성덕왕 29년(730년) 6월에 벼락雷擊으로 무너졌다고 한다.)
『朝鮮古蹟圖譜』4권	1910년 조사 1917년 간행	세키노 다다시彌野貞과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의 석탑 및 주변 석재에 대한 실측조사 및 사진 촬영 실시 무너지고 교란된 상태의 석탑 사진 수록
조선총독부 공사 서류철 - 미륵탑 보존공사	1915년	교란된 석탑 부재 및 석축부 정비, 벌어진 틈 진흙 메움 및 시멘트몰탈 바름, 줄눈처리, 간주석 추가 설치, 옥계석 인조석 보형, 내부천장 철제보 설치, 붕괴면 콘크리트 보강 등 실측도 및 설계도(현재 국가기록원 소장) 석탑 수리 1,870원, 목책 및 환경정비 375원
조선총독부 관보 제2290호	1934년	1933년 조선총독부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원기념물보존령> 공포에 따라 1934년 미륵사지 석탑을 보물 제59호로 지정
관보 제3333호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의하여 미륵사지 석탑을 국보 제11호로 지정(1962. 12. 20.)
미륵사지 석탑 보수공사 실시	1980년	석탑 동로 입구 보호 철문 설치, 내부 천장 기존 1법 보강(스테인리스판 씌움, 도장), 낙뢰 방지를 위한 피뢰침(1개소) 설치
金製舍利奉迎記	639년 봉안 2009년 발견	"...我百濟王后 佐平沙宅(壬)積德女 種善因於曠劫 受勝報於今生 撫育萬民 棟梁三寶 故能 謹捨淨財 造立伽藍 以己亥年正月廿九日 奉迎舍利 ..." (...우리 백제왕후는 좌평 사택(탁)적덕의 딸로서 오랜 세월 동안 선인을 섬기시어 금생에 뛰어난 과보를 받으셨다. (왕후께서는)만민을 어루만져 기르시고 삼보의 동량이 되셨다. 때문에 삼가 깨끗한 재물을 회사하여 가람을 세우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 3. 일제강점기 수리공사

#### 1) 공사 개요

미륵사지 석탑을 대상으로 한 근대적인 조사는 1910년에 세키노 다다시彌野貞,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등이 석탑과 주변 석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 처음이다. 이때 작성된 실측도면과 사진자료가 국가기록원에 남아있어 당시 무너지고 교란된 석탑의 형상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15년 조선총독부 주도로 ‘미륵탑 보존공사’가 실시되었는데 반파되어 6층 일부까지만 남아있던 석탑에 콘크리트를 덧씌워 보강한 것이었다. 공사비는 석탑 수리에 1,870원, 목책 및 환경 정비에 375원이 사용되었다.<sup>10)</sup>

당시 ‘미륵탑 보존공사’의 범위는 공사 전·후 사진자료와 실측도면, 설계도면 등을 비교해보면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설계도면에는 범례凡例가 기재되어 있는데 일종의 일러두기 개념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되어 당시의 공사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콘크리트 보강 전의 석탑은 동측면과 북측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특히 서·남측면은 1층 정도만 남았는데 나중에 석축을 해체하면서 추가로 확인되었다.

10)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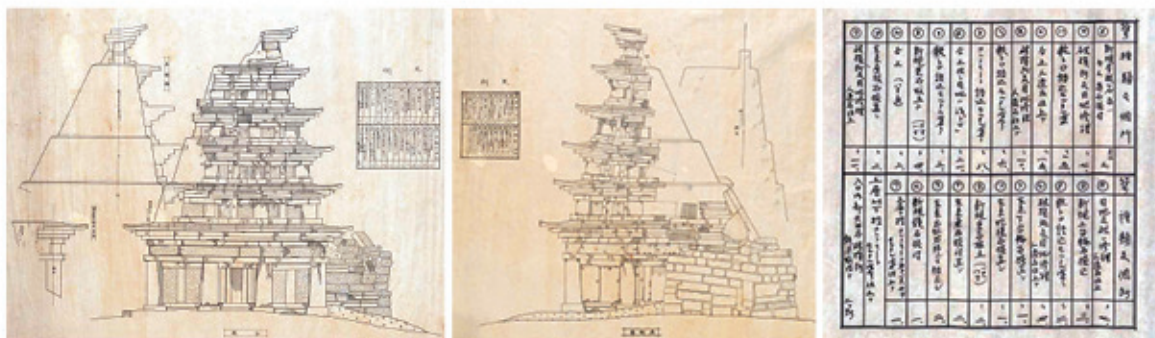




[그림 5] 1915년 공사 전 미륵사지 석탑(동측, 남동측, 서측)(『조선고적도보』, 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6] 실측도면(동측면, 북측면, 평면) (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7] 설계도면(동측면, 북측면, 범례/1915년) (국가기록원 소장)

## 2) 공사 내용

1915년 수리공사의 주요 내용은 석탑 주변에 흩어져 있거나 교란된 석재들을 수습하여 석탑과 석축을 정비하고 서측면을 중심으로 무너진 부분에 콘크리트<sup>11)</sup>를 타설하여 보강한 것이었다. 즉 석탑의 전면 해체수리가 아닌 붕괴되어 위태로운 부분을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추가적인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보수 성격으로 판단된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석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재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면 해체수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2009년 석탑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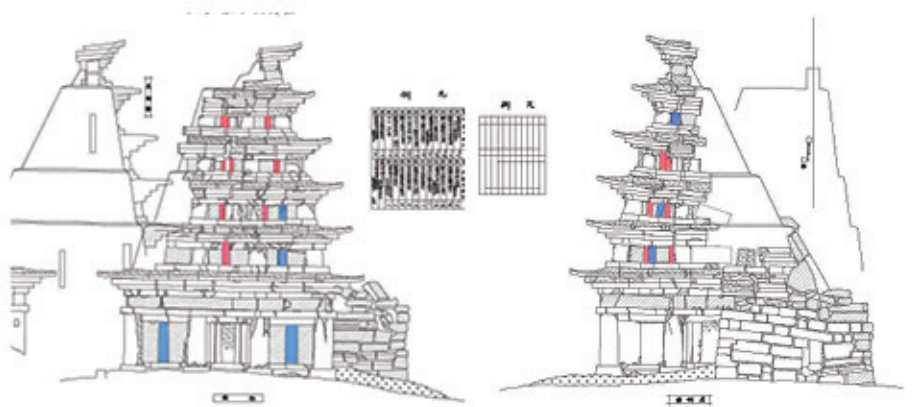
그 외의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도면의 범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수리한 부분에 일련번호를 넣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석탑의 십자형 통로 내부 등 부재 사이의 간격이 크게 벌어진 곳에는 진흙 또는 잡석을 채워서 메우고 시멘트모르타르를 발라서 마감하였다. 옥개석 등 외부 부재 사이의 틈새에는 시멘트로 줄눈 처리를 하고 일부 옥

11) 석탑 해체조사 당시 콘크리트 시편을 채취하여 성분분석 등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콘크리트 단면에 공극이 발생해 있는 등 다짐이 치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멘트 함유량은 9.6~23.7%로 편차가 크고 압축 강도는 평균 155kgf/cm<sup>2</sup>로 확인되어 보통 콘크리트(210~300kgf/cm<sup>2</sup>) 보다 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2005, 『미륵사지 석탑 콘크리트 성분분석 및 강도조사 보고서』, 26~36쪽 참조)





[그림 8] 해체 전 미륵사지 석탑(동측, 남동측, 서측/1990년대)(전라북도 소장)



[그림 9] 간주석 설치 현황(1915년 설계도면)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2 참조)

■ 1915년 이전 ■ 1915년 추가



[그림 10] 등로 천장 보강철물(동측)



[그림 11] 보강철물 수습 후

개석의 파손되어 없어진 부분을 인조석(시멘트)으로 보형하였다. 남측면 등에서는 일부 신석재를 보충하거나 전도 또는 변위가 심한 부재들을 드잡이하여 재설치하였다.

또한 옥개받침석 등 불안정한 곳의 하부에는 '대정4년大正四年'을 음각한 간주석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실측도면과 설계도면을 비교 검토한 결과 1915년 공사 이전에 설치된 간주석이 11개, 공사 당시 추가된 것이 14개로 확인되었다. 이 간주석에 대해서는 양식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석탑의 원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층부의 경우 포벽석 이하는 대부분 턱맞춤이나 얇은 홈을 파서 부재들을 끼워 맞추는 결구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간주석은 별도의 가공 없이 단순하게 끼워 넣은 형식인데 간주석들의 크기 및 가공도 차이가 크고 일부는 간주석의 상부, 하부, 후면에 와편, 잡석 등을 고이거나 채워 넣은 것도 있었다. 따라서 간주석은 창건 당시의 원형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석탑 조립 시 1915년에 추가된 간주석(大正四年 음각)은 제외하고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그 이전에 설치되었던 간주석만 재설치 하게 되었다.

한편 석탑 1층 내부 십자형 통로의 동측과 북측에는 파손된 천장석 하부에 각각 2개 석의 철물(H형)을 보강하였다. 통로 양쪽 벽에 홈을 판 후 좌우로 밀어서 끼워 넣은 것인데 1980년 석탑 보수공사 시 스테인리스판, C형강을 덧붙여 보강하고 부식을 막기 위한 도장 작업이 실시되었다.

### III. 석탑 해체조사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무왕대에 건립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최고最古, 최대最



大 석탑이자 미륵사지 서원西院에 위치한 서 석탑이다. 고대의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고대 건축의 실제 사례로써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 우리나라 불탑 연구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은 해체 전 남아있던 6층까지의 높이가 약 14.2m이고 상·하 이층으로 구성된 기단의 전체 폭은 약 12.5m이다. 평면은 3칸×3칸의 정방형이며, 각 층 모서리에는 귀퉁음이 반영된 우주隅柱를 세우고 각 면에 2개씩의 탕주撐柱를 설치하였다. 1층 기동석 하부에는 초석과 초반석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기동과 기동 사이에는 인방석 등을 설치하여 목조 건축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각 층 옥개석은 목조 건축물의 지붕처럼 양곡陽曲과 안허리곡이 가미되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석탑 1층 내부에는 ‘十’자형으로 공간을 형성하였는데 동, 서, 남, 북 사방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다른 석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구조이다. 석탑 내부의 중앙에는 맨 밑에 심초석心礎石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1층부터 4층까지 총 17개의 심주석心柱石이 연속된다. 맨 위 심주석은 상륜부의 찰주撐柱를 받칠 수 있는 홈이 가공되어 있었고 맨 밑의 심주석에는 사리장엄구를 봉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탑 1층부에 보강된 석축은 서측 출입구를 기준으로 좌·우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축조 방식과 구성 석재의 종류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미륵사지 석탑은 전라북도에서 1998년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노후화 및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1999년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체보수가 결정되었다. 당시에는 석탑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체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보수 방법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전라북도는 석탑 보수를 위한 가설덧집을 시설하였고 2001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본격적인 석탑 해체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외부 부재 587개, 석축 부재 853개, 적심 부재 1,000여 개를 수습하고 콘크리트는 총 185톤을 해체하였다. 또한 해체조사와 연계하여 사리장엄구 등 유물 수습조사, 기단 부 발굴조사 등 다양한 조사연구가 실시되었다.



[그림 12] 6층부 전경(전라북도 소장)

### 1. 6층~1층 해체조사

6층은 대부분이 유실되어 북동측 모서리 부분만 남은 상태였다. 전반적으로 서측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상·하옥개받침석 이하로는 콘크리트가 보강된 상태였다. 6층에는 옥개석, 상·하옥개받침석, 기동석, 탑신받침석이 각 1개씩 남아있었는데 상·하옥개받침석과 탑신받침석은 모두 2단으로 가공되었다. 하옥개받침석은 풍화가 심하고 탑신받침석은 하단 대부분이 파손된 상태였다.

5층은 동측과 북측면 일부만 남아있었다. 옥개석, 상·하옥개받침석, 기동석, 면석, 탑신받침석이 남아있었고 상·하옥개받침석과 탑신받침석은 6층과 동일한 2단 형식으로 가공되었다. 각 부재들은 틈이 벌어지고 변위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적심부는 부정형 석재와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었다.

4층 역시 동측과 북측면에 옥개석, 상·하옥개받침석, 기동석, 면석, 탑신받침석 등이 남아있었다. 하옥개받침석은 1단으로 단 수가 줄어들었고 탑신받침석은 2단으로 5, 6층과 동일하였다. 옥개석 1개는 유실부를 콘크리트로 보강한 상태였고 옥개석 사이에 틈이 많이 발생한 곳은 시멘트모르타르가 채워져 있었다. 외부 부재 후면의 적심부가 접하는 위치에서는 흙을 다져 채웠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적심부는 석재의 수



[그림 13] 5층 옥개석 평면



[그림 14] 4층 심주석(찰주받침)





[그림 15] 4층 옥개석 평면



[그림 16] 3층 하옥개받침석 평면



[그림 17] 2층 탑신받침석 평면



[그림 18] 발견된 소호편

량이 증가하였으나 상당부분 콘크리트가 채워진 상태였다. 한편 4층 중앙의 중간 정도 높이에서 심주석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해체 후 보존처리 과정에서 이 심주석의 상면에 채워진 콘크리트를 제거하자 찰주(樑柱)를 꽃을 수 있는 원형 홈(직경 35~38cm, 깊이 9.5cm)이 발견되었다.

3층도 동측과 북측 일부에 옥개석, 상·하옥개받침석, 기둥석, 면석, 탑신받침석 등이 남아있었다. 1단 형식으로 가공된 하옥개받침석과 탑신받침석은 파손된 것이 많았고 특히 탑신받침석의 경우 원래의 부재인지 의심스러운 정도의 작은 석재들이 대부분이었다. 상층부에 비해 적심석들 사이에 채웠던 흙의 양이 증가하였으며, 하부로 내려올수록 점점 적심석의 수량이 많아지면서 콘크리트 양은 줄어드는 양상이었다.<sup>12)</sup>

2층은 3층보다 부재 수량이 증가하여 동측면의 경우 하부로 내려올수록 보다 안정적인 입면에 가까워지는 모습이었다. 3층과 동일하게 1단으로 가공된 하옥개받침석과 탑신받침석은 파손이 심한 상태였다. 적심부는 콘크리트가 점점 줄어들어 남측과 서측 모서리 주변 정도만 남아있었고 대부분은 크고 작은 부정형의 적심석으로 채워진 상태였다. 한편 2층 옥개받침석 층위의 적심 속에서 납석제 소호편 2점이 발견되었다. 그중 1점은 표면에 “大伯士奉聖...”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는데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했던 양식의 소호小壺 편으로 추정되었다.<sup>13)</sup> 발견된 위치로 보아 후대의 석탑 수리 과정 또는 석탑이 무너진 후 틈새 사이로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층은 해체 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둥석, 면석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고 평방석, 인방석 등 1단으로 가공된 얇은 부재들이 대부분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층 돌레에 보강된 석축을 해체한 후 새롭게 드러난 서측면 등은 즉시 보강이 필요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후 안정적인 조립을 위해 전면 해체가 불가피하였다.

1층은 다른 층에 비해 남아있는 부재가 월등히 많아 완성도가 높고 목조건축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고대건축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층 내부에 조성된 십자형 통로 공간과 심주의 구성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양식과 구조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또한 귀솟음과 민흘림이 반영된 기둥석과 별석으로 구성된 초석, 처마 끝의 반전이 뚜렷한 옥개석, 상·하 이층기단도 목조건축의 수법을 반영한 것이다. 2층 이상이 단순한 조적식組式 구조인 반면 1층은 기둥석에 하인방석, 면석, 창방석이 턱맞춤으로 결구되는 방식으로써 가구식架式 구조 기법이 반영된 것이다.

1층 해체작업은 현장여건과 안전을 고려하여 외부 부재를 시작으로 석축과 적심석을 번갈아가며 진행하였다. 기울거나 벌어져 위험한 부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나가면서 해체하고 초석 이하 및 기단부는 발굴조사와 연계하여 해체를 실시하였다.<sup>14)</sup> 1층에서 해체된 부재는 옥개석, 상·하옥개받침석, 포벽석, 평방석, 창방석(상인방석), 기둥석, 면석, 문설주석, 하인방석, 고막이석, 초석, 초반석, 십자형통로 구성 부재 등으로써 석탑 전체 외부 부재의 약 59%에 이른다. 따라서 해체 및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1층 내부의 십자형 통로 공간은 좌·우에 벽체를 쌓아올리고 그 위에 천장받침석을 내쌓은 후 천장석을 얹은 형식이다. 통로의 중앙, 즉 석탑의 중심에는 심초석과 심주석이 위치하고 심주석은 1층부터 4층까지 독립된 구조로 남아있었는데 3차원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서측방향으로 약 4°정도 기울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7, 앞의 글, 329쪽.

13)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04, 『彌勒寺址石塔 解體調査報告書Ⅱ』, 144쪽.

14)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7, 앞의 글, 330쪽.





[그림 19] 해체 전 1층 동북측 전경



[그림 20] 1층 탑신 및 등로천장석 평면



[그림 21] 서측 등로 입구 전경



[그림 22] 사리장엄구 발견(2009년 1월)



[그림 23] 사리장엄구 최초 노출 상태



[그림 24] 해체 전 석축 전경

2009년 1월에는 1층의 첫 번째 심주석<sup>15</sup>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각종 유물들은 심주석 중앙의 구멍 안에 봉안되어 있었는데 심주석 둘레에는 석회를 발라 밀봉한 상태였다. 발견된 유물 중 금판으로 제작된 사리봉영기에 백제왕후가 재물을 회사하여 가람을 세우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모셨다는 내용의 명문이 확인되어 석탑의 건립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졌다.

한편, 같은 해 12월 등로 바닥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진단구<sup>16</sup>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들은 대부분 파편 상태로 남측 바닥석 하부 토층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었는데 토제 나발<sup>17</sup>製螺髮, 청동 뒤꽂이<sup>18</sup>를 비롯해 금동제, 유리제, 철제 등 종류가 다양하였다.<sup>16</sup>

## 2. 석축 해체조사

해체 전 석탑 1층 둘레에 축조되어 있었던 석축은 17~18세기 경 석탑의 추가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 보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축은 서측 출입구를 기준으로 2개의 구역(북서석축, 남서석축)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석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서측면 등 가려져있던 1층의 모습이 새롭게 드러났고 건물지 부재 등 다양한 석재들이 수습되었다.

북서석축은 북측 출입구에서 서측 출입구까지의 구역으로써 상·하단의 구분이 없고 하부로 갈수록 석재들의 구성이 불규칙한 모습이었다. 해체 과정에서 강당지, 승방지, 금당지 등 미륵사지의 건물지 초석들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미륵사의 일부 또는 전체가 폐사된 이후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남서석축은 남측 출입구에서 서측 출입구까지의 구역으로써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북서석축에 비해 정돈된 모습이었는데 1915년 수리공사 시 상당 부분을 재정비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7</sup> 남서석축 내부에서는 완형에 가까운 석탑 부재, 팔각당 간석(길이 약 319cm, 하단 직경 36cm, 상단 직경 32cm), 석인상 등이 발견되었다. 한편 석축 내

15) 이 심주석은 가로, 세로가 약 100cm이고 높이가 약 75cm이다. 유물이 봉안되어 있던 사리공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약 25cm이다. 또한, 심주석은 가로, 세로가 약 150cm이다. 따라서 사리장엄구를 봉안한 핵심시설로서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고구려석보다 남조석(1尺≒25cm)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6)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2, 『彌勒寺址石塔 基壇부 발굴조사보고서』, 171~177쪽.

17) 남서석축에 사용된 석재는 북서석축에 비해 크기 및 형태가 일정한 편이었다. 특히 외부면에 사용된 석재들에서 꽤기 자국과 같은 재가공 흔적들이 자주 발견되었는데 북서석축에서는 파손된 형태의 석재들을 그대로 사용한 데 반해 남서석축에서는 기존 석재들은 쪼개거나 다듬어 활용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형태의 축조가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1, 『彌勒寺址石塔 解體調査報告書Ⅳ』, 193쪽.)





[그림 25] 기둥석 보강 장대석



[그림 26] 장대석 하부 받침석



[그림 27] 노출된 1층 서측면



[그림 28] 남서측 석인상 발견(2008년)



[그림 29] 초석 및 기단부 평면

부에서는 1층 기둥석 등이 바깥쪽으로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강한 모습이 확인되었다. 각 기둥석과 간주석 위치에 장대석을 보강하였는데 특히, 귀기둥석 주변을 집중적으로 보강한 모습이였다. 이 장대석들의 하부에는 별도의 석재를 안쪽으로 기울여 받침으로써 장대석이 바깥쪽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8</sup>

한편 해체 전 석탑에는 3기의 석인상(남동·북동·북서측)이 남아있었는데 오랜 세월 외기에 노출되어 풍화 및 마모가 심한 상태였다. 그런데 남서석축 해체 중 하층기단 모서리에 인접한 위치에서 석인상 1기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 석인상은 상태가 양호하고 발견 당시 두상과 몸체 주변에 석재를 둘러쌓아 보호한 모습이였다. 석인상의 조성 시기 및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단순한 조각 수법, 토속적인 느낌,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고려 말 이후 민간신앙이 결합된 수호상의 의미로 추정되었다.

### 3. 기단 해체 및 발굴조사

#### 1) 기단 해체조사

미륵사지 석탑의 기단은 금당지, 목탑지와 유사한 가구식架構式 이층기단이다. 기단은 석축에 가려져 있던 부분이 드러나면서 동, 서, 남, 북 사면의 전체적인 모습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재들이 기울거나 벌어지는 등 변위가 심한 상태였으며, 유실된 부재가 많았다. 하층기단은 면석처럼 가공된 지대석과 갑석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인 반면 상층기단은 지대석, 면석, 우주석, 갑석으로 구성되는데 갑석은 모두 유실된 상태였다. 1915년 수리공사 전 실측도와 사진을 살펴보면 하층기단이 흙으로 덮여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하층기단 갑석은 동측과 남측 일부라도 남아있을 수 있었던 반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상층기단 갑석은 전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륵사지 인근에 반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상층기단 갑석으로 추정되는 부재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sup>19</sup>

미륵사지 석탑의 기단은 일반적인 석탑들과 달리 탑신에서 분리되어 있어 상부하중을 직접 지지하지 않는 구조이다. 따라서 석탑의 규모에 비해 크기가 작고 두께가 얇은 부재들로 기단의 구성이 가능했다. 상층기단 남서측 모서리에는 민흘림이 반영된 우주석 1개가 남아있었다. 상층기단면석은 약 3°정도 안쪽으로 기울어져 이 우주석에 턱맞춤 방식으로 결구되는데 석축 해체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계단면석의 측면 기울기와도 같아 기단에도 안솔림 기법이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계단은 대부분 유실되어 극히 일부만 남아 있었는데 석축 해체 후 북측과 서측에서도 부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미륵사지 건물지 기단의 경우 계단이 접한 부분에

18)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7, 앞의 글, 331쪽.

19)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1, 앞의 글, 145쪽.



는 면석을 설치하지 않은 반면 석탑에는 계단이 접한 상층기단에도 면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물론 후대에 기단의 보강을 위해 추가로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시공방법 상 상층기단을 완성한 후 하층기단과 계단을 동시에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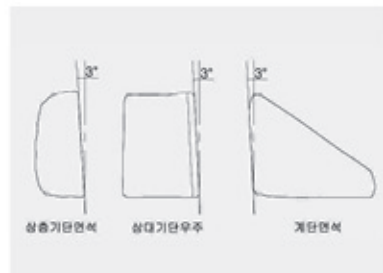
## 2) 기단 발굴조사

1층 초석이하 부분과 기단부 해체는 발굴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초석의 침하, 기울어짐 등의 변위가 확인되어 석탑 기초부의 조성기법, 구조적 상태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였다. 또한 기초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층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밀한 조사가 요구되었다. 발굴조사는 고고학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자칫 과도한 발굴로 인해 기초부의 구조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신중한 논의 끝에 조사범위는 가능한 최소화하여 기초 토층의 원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발굴조사는 북측면을 기준으로 기단 외곽의 동·서 방향으로 탐색트렌치를 설치하고 기단 내부는 통로 하부의 토층을 경계로 초반석 중간 높이까지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륵사 창건 당시 대지 조성을 위해 구축한 성토층과 석탑 기초를 조성하기 위해 다시 되파기한 굴광선堀光線 및 토석다짐층(12~16계) 등 전반적인 조성기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20</sup> 또한 초반석 중간부터 상면까지 약 35cm 내외 두께의 토층은 돌이 혼합되지 않은 토사로만 판축한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기단 내부에 전체적으로 동일한 커를 형성하고 있었다.

발굴조사 및 해체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미륵사지 석탑의 축조순서는 대지 성토 → 기초부 되파기 → 토석다짐 → 초반석 설치 → 토사다짐(판축) → 심초석 및 초석 설치 → 내부 적심석 설치 → 초석 사이 및 십자통로 하부 토석다짐 → 고막이석 및 통로바닥석 설치 등이며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1층 기동석 등 외부 부재와 적심석을 번갈아 쌓으면서 석탑을 완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형의 훼손 우려로 직접 발굴을 하지 못한 부분은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보완하는 한편 허용지지력시험을 통해 기초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기초는 석탑을 다시 쌓아 올리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조사연구 성과

미륵사지 석탑 해체조사는 석탑 해체와 관련된 전 과정을 상세하게 조사하되 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해체조사는 석탑의 해체 전 현황과 해체작업 과정에서의 상황, 해체 후 정밀조사를 통해 석탑의 구조 및 양식, 훼손 현황, 축조 기법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여 설계 및 시공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해체조사를 통해 확보된 정보는 원형 연구, 보존처리, 구조 보강 및 공법 개선 등 석탑 수리과정 전반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었다. 따라서 해체조사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건축, 보존과학은 물론 고고학, 미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미륵사지 석탑에서는 층수, 체감 등 창건 원형에 대한 확정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석탑 내부의 구조 및 보존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석탑의 세부적인 보수정비 방법을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1년부터 다양한 조사연구를 통해 석탑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축적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석탑의 보수정비 방향 및 기술적 방법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단일



[그림 30] 상층기단 및 계단 부재 기틀기



[그림 31] 해체 및 발굴 완료 후 평면



[그림 32] 서측 탐색트렌치 내부 현황

20) 석탑의 축기부는 지표면에서 동측 약 230cm, 서측 약 210cm 정도의 깊이까지 사질토 또는 사질점토에 활석을 혼합한 토석혼축 다짐으로 조성하였으며, 굴광선은 하층기단지대석의 바깥쪽(동측 190cm, 서측 97cm)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체 전 석탑 하층기단의 전체 폭이 대략 12.5m 내외임을 감안하면 축기부의 전체 범위는 약 15.4m 내외임을 알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2, 앞의 글, 41쪽.)

석탑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거쳐 세부적인 방법론을 정리해나간 과정들은 기존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다.<sup>21)</sup>

석탑의 보수정비와 관련하여 진행된 학술·기술 연구는 크게 ‘기초조사연구’, ‘보존과학 조사연구’, ‘구조 및 재료 연구’, ‘수리기술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기초조사연구’는 미륵사지 석탑의 현황과 원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사연구로써 석탑의 해체 전·후 과정에 대한 기록화는 물론 문헌자료 고찰, 기반부 발굴조사, 출토유물 조사연구, 원형고증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보존과학 조사연구’는 석탑 및 주변의 보존환경 조사, 표면오염물 조사연구, 가공도 및 풍화도 조사, 파손부재 보강처리 기술연구 등 원래의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보존처리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조 및 재료 연구’는 붕괴원인 조사연구, 구조안정성 평가 연구, 신석재 공급지 조사연구, 무기질 보수재료 연구, 기초토층 보강방안 연구 등으로 석탑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리기술 연구’는 석조문화재 관련 지반보강, 금속보강 방법 등 그동안의 연구 성과로 정리한 기술을 실제로 출원한 것이다.<sup>22)</sup>

한편 2009년 1월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백제지역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발견된 유물 중 사리봉영기의 명문(己亥年, 百濟王后, 造立伽藍, 奉迎舍利 등)을 통해 미륵사의 창건 배경과 주체, 석탑 건립 시기 등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미륵사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급증하였고 고고학, 역사학, 미술공예, 불교문화, 고건축, 보존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미륵사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기도 하였다.

## IV. 석탑 보수정비

### 1. 보수정비 기본원칙

1999년 문화재위원회에서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보수를 결정할 당시의 기본방침은 남아있던 부분까지 보수하되 해체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기로 한 것이었다. 또한, 신재의 보충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원래의 부재를 보존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하였다. 2001년 6층 해체를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석탑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석탑 보수정비 안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문가 검토는 물론 국내·외 공개발표, 간담회, 현장설명회 등 신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결국 2011년 문화재위원회에서 미륵사지 석탑을 남아있던 6층까지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미륵사지 석탑은 해체조사 과정에서 7층 이상 원형을 확증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과도한 추정에 의한 복원 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또한 남아있던 부재들은 압축강도 등 물리적 성능이 신석재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부 하중이 증가하면 원부재의 재사용 범위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미륵사지 석탑은 원래 남아있던 6층까지만 보수<sup>23)</sup>하여 역사성과 진정성을 보존하기로 하였다. 국제적인 문화재 보존 이념에 기초하여 정리한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륵사지 석탑은 7층 이상의 부재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에 의한

21)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7, 앞의 글, 333쪽.

22)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7, 앞의 글, 334쪽.

23) 보수補修는 보강補強과 수리修理가 합쳐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보강은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견고히 하는 행위이고 수리는 문화재의 훼손된 부분을 원상대로 고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문화재청 고시 제2009-74호.)



복원이 되지 않도록 남아있던 6층까지 보수·정비하여 역사성과 진정성을 보존한다.

둘째, 원형 보존을 위하여 훼손된 부재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보강 후 재사용 비율을 높이고 원형이 잘 남아있는 것은 최대한 보존, 활용한다.

셋째, 구조적 안정성 확보 등 원래의 기법만으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실험연구 등을 통해 검증된 현대적 기법을 최소한으로 보완, 보강토록 한다.

넷째, 조사, 연구, 보수 과정은 정밀하게 기록하고 자료화 및 공개하여 활용되도록 한다.

한편 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미륵사지 실사 당시 세계유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복원을 지양하고 현상을 보존하여 수리하는 방법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사례에서도 이를 참고할 것을 권유하였다. 2015년에 미륵사지를 포함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에는 9층 복원에 대한 요구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신석재를 사용하여 9층으로 복원된 동탑에 대한 대다수 부정적 여론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석조문화재일수록 새롭고 완전한 형태로 복원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 2. 석탑 보수 현황

### 1) 보존처리

1,300여년의 긴 세월이 지나면서 석탑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석재들은 풍화로 인해 약화되고 균열, 절단 등 훼손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석탑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최대한 원부재를 재사용하는 것이다. 다양한 양상으로 훼손된 부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재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오염물 세척, 균열 충전, 구조보강, 유실부 보형, 절단면 접합, 풍화면 강화처리 등 체계적인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미륵사지 석탑의 경우 절단되거나 일부가 유실된 부재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실부에 대한 보형 및 구조보강 등 과학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보강 재료의 선정 및 보강 기술에 대한 실험연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모재母材의 2차 파손을 최소화하면서 보강 부위의 성능을 개별 부재의 강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실험 결과 화강암의 금속보강재로는 티타늄이 적합하고 과도한 보강 시 오히려 2차 파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보강재는 석재 간 접합 단면적의 0.3%를 기준으로 부재별 풍화도에 따라 보강비를 조정하는 것이 안정적이었다. 또한 부재별 작용 하중의 유형 및 거동 특성에 따라 금속보강재의 위치, 수량, 두께, 매입 깊이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구조 보강 등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하여 석탑 원부재의 재사용 비율을 40%대에서 7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 2) 석재 가공

석탑을 안정적으로 조립하기 위해서는 결손된 부재의 보충 및 유실 부분의 보형 처리 등에 신석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미륵사지 석탑에 사용된 화강암은 미륵사지 복원의 미륵산에서 채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미륵산에서 직접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익산 지역 채석산지에 대한 암석학적 조사연구를 통해 가장 유사한 암질의 화강암(황등석)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석은 채석산지 현장조사(색상,



[그림 33] 균열부 충전



[그림 34] 금속재 보강 접합



[그림 35] 보형부 마감가공



[그림 36] 채석산지 조사



[그림 37] 원석 할석



[그림 38] 정다듬 가공

절감, 결 방향, 이물질)를 거쳐 1차로 선정된 것을 대상으로 품질시험(압축강도, 비중, 흡수율)까지 거쳐 합격된 것만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였다. 반입된 원석은 석탑 원부재의 가공도 및 풍화도를 고려하여 흑두기, 정다듬(거친정, 고운정), 도드락다듬 등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으로 가공하여 원부재와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미륵사지 석탑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들은 노출 부위, 조립 위치, 결구 방법 등에 따라 하나의 부재 내에서도 각 면의 가공도가 다르다.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고운정다듬~도드락다듬 정도로 세밀하게 가공된 반면 상·하 부재끼리 서로 맞닿는 면은 거친정다듬으로, 노출되지 않는 면은 거친정다듬 또는 흑두기 정도로 거칠게 가공되어 있다.<sup>24)</sup>

부재 표면의 거칠기에 따른 마찰력은 고운정다듬시 가장 크고 도드락다듬, 거친정다듬 순으로 마찰력이 줄어든다.<sup>25)</sup> 즉 부재 사이 접촉면의 가공도가 고운정다듬 정도 일 때 수평 거동에 의한 변위(미끄러짐 등) 위험성이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륵사지 석탑 부재들은 상·하 접촉면이 대부분 거친정다듬 정도로 가공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원부재의 거친 접촉면은 공극을 충전하여 보완하고 신석재로 보충되는 부재는 접촉면을 고운정다듬 정도로 가공하여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보존처리 과정 중 원부재의 유실된 부분을 신석재로 보충하여 접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최대한 접합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여 세밀하게 가공하였다. 정다듬만으로는 표면의 거칠기로 인해 석재 접합의 정밀도가 떨어져 구조적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3) 석탑 조립

미륵사지 석탑은 2013년 말 조립에 착수하여 2017년 현재 6층까지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다. 석탑 조립에 앞서 우선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석탑의 건축 특성에 따른 조립 기준의 설정, 구조적 취약부에 대한 보강, 원부재의 형상을 변형하지 않고 최대한 재사용 한다는 것이었다. 미륵사지 석탑의 조립 기준은 바로 석탑 정중앙에 위치한 심초석(心礎石)이다. 심초석은 석탑 내부의 1층부터 4층까지 17개가 연속되는 심주석(心柱石)을 맨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부재이다. 심초석은 원래 1층 초석들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된 것으로써 석탑 조립 시 지상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부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심초석을 기준점(B.M.)으로 설정하여 석탑 조립의 중심축(十字)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초석, 고막이석, 기둥석 등을 조립해나갔다. 이후의 조립 과정은 가설덧집에 고정하여 설치한 중심축을 기준으로 심초석 위로 올라가는 심주석에 중심선을 표시한 후 이를 수직으로 연장하여 각 층위의 조립 기준으로 삼아서 조립 공정의 일관성과 정밀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과 같은 전형적인 양식의 석탑들은 대부분 1개의 층을 2~3켜로, 각 커는 1개의 부재로 조성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위 부재들은 석탑의 하중 대비 안정적인 두께를 유지하고 조립 시 주변에서 간섭하는 부재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미륵사지 석탑은 대부분의 부재들이 석탑의 하중에 비해 상당히 얇고 넓은 형식인데다 각 층별, 켜별로 여러 개의 부재들이 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조립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 해체조사 과정에서 1단의 얇고 긴 판재 형식으로 가공된 옥개받침석, 탑신받침석, 인방석 부재들은 대부분 절단 등 파손이 심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특히 1층 기둥석 등의 턱맞춤 결구 방식은 부분적인 침하나 이탈 방지에 효과가 있겠지만 대부분 결구부 끝단이 마모되거나 파손된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24) 김현용, 2015,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현황 및 방법』, 『석조문화재 수리와 보존관리』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59쪽.

25) 홍석일 외, 2011, 『석탑의 불연속면 거칠기에 따른 구조거동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27-10, 67쪽.





[그림 43] 석탑 동북측 전경



[그림 44] 석탑 남동측 전경

또 부재 표면의 거칠기로 인하여 상부 하중이 부재 간 접촉면에 고르게 전달되지 않고 일부 지점에 집중되어 휨 파괴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조립 시에는 이러한 접촉면의 공극을 무기질 재료 등으로 충전하여 등분포하중을 유도함으로써 석탑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미루사지 석탑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들은 같은 층,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길이, 폭, 두께 등이 제각각이었다. 석탑의 안정적인 조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공수평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주변 부재와 높이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고임쇠 등을 사용하여 보완할 수밖에 없었다. 해체조사 과정에서도 다수의 철제 고임쇠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부식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석탑 조립 시에는 부식에 강한 티타늄편을 고임쇠로 사용하였고 그 주변에는 무기질 재료 등을 충전하여 고임 지점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부재 규격이 상이하여 정밀한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부재의 재가공 보다는 새롭게 보충되는 신석재의 형태 및 규격을 조정하여 시공 오차를 줄여나가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조립을 진행하였다.

## V. 맺음말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문화유산은 가능한 원래의 모습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고유의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어 후대에 전승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원형의 손상에 따른 과도한 개입은 그것의 본질적인 속성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건축문화재는 대부분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전해지기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창건 당시의 모습을 온전히 보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수리, 보강, 수복, 복원 등 다양한 행위가 요구되는데 각각의 건축 특성과 제반 여건에 따라 세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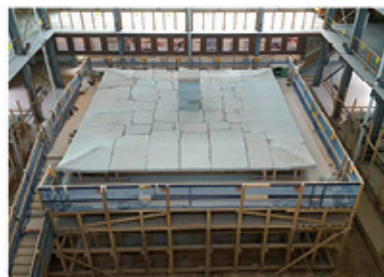
[그림 39] 기초도층 보강 판축(2014년)



[그림 40] 심초석 및 초석 조립



[그림 41] 사리봉안식(2015년 12월)



[그림 42] 1층 조립 후 전경(2016년)

인 방법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건축문화재의 수리와 복원은 원래의 양식, 재료, 기술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탐구를 통해 그것의 가치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보존하고 추정에 의한 과도한 복원은 지양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래의 재료와 기술만으로 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거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방법을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보완은 가능한 원래의 것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고대의 목조와 석조 건축기법이 조합된 독특한 양식의 석탑으로서 현존하는 석탑 중 직접적인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 미륵사지 석탑은 1,300여년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반파되어 상당 부분이 유실되었고 남아있는 석재들도 대부분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수리방법만으로는 석탑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에서는 오랜 기간 다양하고 심도 있는 조사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보존처리 및 구조보강 기술 등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원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여 석탑을 안정적으로 조립함으로써 수리 품질의 향상은 물론 유사 분야의 수리 방법론 제시 등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년에 가까운 긴 세월동안 하나의 석탑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수리한 예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였으며, 우리나라 석조문화재 수리역사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1915년 일본인들에 의한 수리공사는 석탑의 무너진 부분에 콘크리트를 덧씌움으로써 역사적, 미학적 관점에서 끊임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비록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석탑의 수명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정비 안을 결정할 당시에도 복원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창건 원형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한 복원이 되지 않도록 남아있던 6층까지 현상을 보존하여 수리하는 것이 현시대에서는 최선이라는 판단이었다. 과연 무엇이 석탑의 역사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하루하루가 고민과 번뇌의 연속이었다. 어쨌든 이제 미륵사지 석탑은 100년 만에 다시 태어났다. 이에 대한 평가는 후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 광복 이후 익산 지역의 백제 사비기 문화유산 조사

이경복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학예연구사

## 1. 머리말

백제 사비기 익산 지역과 관련된 역사서의 기록은 극히 단편적이다. 『삼국유사』에 미륵사 창건 설화가 채록되어 있고 『삼국사기』에 대관사와 미륵사 관련 기사가 짝막하게 전하고 있을 뿐이다.<sup>1)</sup> 조선시대 편찬된 각종 기록은 백제 사비기 익산 지역의 문화 유적들이 오랜 전승을 거치며 마한의 유적으로 혼동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쌍릉은 후조선 무강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기록되었고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는 마한의 궁실과 내궁으로 전해져 내려왔다.<sup>2)</sup>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은 익산에 소재한 문화유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쌍릉을 발굴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쌍릉은 백제 사비기의 황혈식 석실분으로 밝혀졌으나,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 오층석탑을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유물로 추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유적에 대한 조사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광복 이후 익산 지역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정비는 1960년대에 들어와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발굴은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이 수립된 1980년대 이후에 집중되었다. 익산 지역 백제문화유산 조사는 정부의 문화재 정책과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조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과 관련 연구 성과는 다시 문화재 정책과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 글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루어진 익산 지역 사비기 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배경 및 성과와 한계를 간략히 개관하고자 한다. 아울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추진 동기와 수립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재 정책과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1950~60년대

한국전쟁의 참혹한 결과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다. 1950년대는 국가의 모든 자원이 전후 복구와 경제적 궁핍의 극복에 투입된 시기였다. 이 시기의 문화재 정책은 ‘무위방임시기無爲放任時期’<sup>3)</sup>로 표현될 정도로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1961년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행정 조직과 법률적 근거가 갖추어졌으나, 1960년대

1) 『삼국유사』 권1, 기이, 무왕 ;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8년 6월 ; 같은 책, 신라본기, 성덕왕 18년 9월.

2) 익산을 마한이 개국한 곳으로 보고 쌍릉을 마한과 관련시켜 기록한 조선 최초의 관찬 사서는 『고려사』 지리지이며 이러한 인식은 후대로 내려갈수록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3) 문화공보부, 1979, 『문화공보 30년』, 오양걸, 1995, 『한국의 문화행정체계 50년 : 구조 및 기능의 변천과정과 그 과제』, 『문화정책논총』7에서 재인용.



[그림 1] 1966년 미륵사지 전경(국가기록원 소장)



[그림 2] 1966년 미륵사지 발굴사진(국가기록원 소장)

4) 동아일보, 1956-06-30, <백제 고적 스캔들 3 - 익산의 미륵사지 대석탑>.

5) 동아일보, 1963-04-06, <국보 11호 와병臥病, 금가고 기울어>.

6) 황수영, 1962, 「익산 미륵사지의 백제 석등」, 『考古美術』 3-12.

7) 국가기록원, 1966, 「익산 미륵사지 처리」, 관리번호 : BA0119559.

「미공법 480호」(U.S. Public Law 480 Act, 약칭은 PL480)은 미국 잉여 농산물의 처분과 후진국에 대한 식량 원조를 목적으로 1954년 제정되었다. PL480 관련 협정에 의거하여 수혜국 정부는 식량 원조에 수반되는 자조조치를 실시하도록 요구되었다. 한국 정부는 PL480에 따라 1956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미국 잉여농산물(소맥분, 옥수수, 원면 등)을 도입하였고 수혜 복구, 농업기반시설 조성, 영세민 구호 등 각종 자조활동을 전개하였다.

8) 정희섭, 1968, 「특집: 자조근로사업」, 『地方行政』 17.

9) 경향신문, 1965-07-30, <재해사업 실시>.

10) 홍사준, 1966, 「백제 미륵사지 발굴작업 약보」, 『미술사학연구』 70, 192~193쪽.

11) 국가기록원, 1966, 앞의 글.

12) 경향신문, 1968-12-23, <버림받은 문화재>.

13) 정영호, 1994,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 오층석탑의 고찰」, 『마한 백제 문화와 미륵사상대산 김삼룡 박사 교회 기념』, 608쪽.

14) 국가기록원, 1962, 「문화재(국보 58 익산왕궁리) 보수 계획 의뢰」, 관리번호 : DA0122564.

지정문화재의 보호는 단위 문화재에 국한되었으며 문화재 복원 정책은 원형의 보존유지를 위한 부분적인 보수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1962년 미륵사지 석탑이 국보로 지정된 데 이어 그 이듬해에는 익산 미륵사지 당간지주와 왕궁리 오층석탑, 쌍릉이 보물과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나 익산 지역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보존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당시 백제 문화유산의 현황에 대해서는 몇몇의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왕궁리 오층석탑은 “창고되락蕭古頹落한 자태로 보리밭 가운데 울연兀然히 서 있었다.”<sup>4</sup>고 기록되었으며 미륵사지 석탑은 “탑 전체가 동북쪽으로 약5도 내지 10도쯤 기울었으며 석재 사이의 양회가 터져 금이 가 있고 탕석 한 개도 빠져나온 채 15도쯤 기울어 있다”고 보도되었다.<sup>5</sup>

1960년대 중반까지 미륵사지에서는 주민들에 의한 경작과 석재의 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방치된 유적을 조사하고 발견된 문화재를 수습한 것은 몇몇의 선학들과 지역 인사들이었다. 이 때의 조사 내용과 수습된 유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고 있으나 홍사준과 황수영 등은 미륵사지를 조사하고 석등 부재 및 와전瓦片을 부여박물관에 이관했는데 이 때 발견된 석등 부재는 백제 석등 부재로 추정되기도 하였다.<sup>6</sup>

1965년 겨울 미륵사지에서는 소규모 저수지를 축조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공사는 「미공법美公法 480호」에 따라 농경지의 가뭄과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조근로사업 사업으로 계획된 것이었다.<sup>7</sup> 「미공법 480호」와 관련된 자조근로사업은 농지 확장과 개량, 제방과 도로 건설 사업위주로 이루어졌는데<sup>8</sup> 1965년 자조근로사업의 참여자에게는 1일 근로의 대가로 1인당 소맥분 3.6kg이 제공되었다.<sup>9</sup>

저수지 공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미륵사지 석탑 북쪽 약 95m 지점의 동서 방향으로 굴착한 도랑에서 건물지의 석재가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황수영, 강인구, 홍사준을 중심으로 발굴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4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긴급 발굴이 실시되었다. 발굴조사의 범위는 현재 확인된 미륵사지의 강당지와 강당지 서쪽 건물지 일부에 해당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초석과 장대석 등의 석재와 고려시대 연화문수막새, 청자편, 청동보살손 등이 출토되었다.<sup>10</sup> 이 발굴조사는 1966년 6월 미륵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나<sup>11</sup> 짧은 발굴 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미륵사지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지극히 부족한 것이었으며 후속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는 1968년 7월 문교부 산하의 문화재관리국과 국립박물관을 공보부와 통합하여 문화공보부를 발족시켰다. 문공부는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걸쳐 「문화재개발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전국의 지정·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지역에 따라 3개 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전라도 지역의 조사 책임자는 최순우였다. 조사에서 드러난 문화재 관리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미륵사지 역시 ‘당간지주 괴멸로 탑신이 쓰러져 있고(중략) 이웃 주민들이 돌로 부수어 써서 탑신이 기울고 있다는 것, 이와 같은 현상은 사지 곳곳에 펼쳐져 있어 손댔 여지가 없을 정도이다’<sup>12</sup>라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왕궁리 오층석탑은 1952년 이래 정영호에 의해 조사되었는데 당시의 기단부는 토단부로 덮여 있어서 기단부의 구조와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고 1층 탑신의 부재 사이가 벌어져 보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sup>13</sup> 석탑의 보수에 대한 필요성은 1960년대 초반에도 제기되었으나<sup>14</sup> 실제 해체 보수가 시작된 것은 1965년 11월이었다. 석탑의 해체 보수는 1966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석탑의 해체가 진행되던 1965년 12월 5





[그림 3] 왕궁리 석탑 해체(한정호 소장)



[그림 4] 왕궁리 석탑 해체(한정호 소장)



[그림 5] 왕궁리 석탑 1층 옥개석 사리공(한정호 소장)

일 1층 옥개 상면 중앙 적심부의 방형 석재에 마련된 2개의 사리공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동쪽의 사리공에서는 장방형의 금동합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금제 사리합이 있었으며 금제 사리합 안에는 녹색의 유리병이 놓여 있었다. 서쪽의 사리공에서는 장방형의 금동합이 확인되었고 그 안에서는 19매의 금강반야바라밀경이 들어 있는 금제 합이 놓여 있었다. 이어 12월 10일 1층 탑신부의 중앙에 놓인 사각형 심초석 상면에서 품자品字로 뚫린 3개의 사각형 사리공이 발견되었는데 3개의 사리공 가운데 동쪽의 사리공에는 금동여래입상 1개와 청동방울 1개가 들어있었고 북쪽의 사리공에서는 향류香類로 보이는 검은색 파편과 철편 1개가 확인되었으나 서쪽의 사리공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sup>15</sup>

석탑 기단부의 네 모서리에는 중앙의 심초석을 중심으로 4개의 팔각 석주가 놓여 있었는데 이 석주들은 1층 탑신의 귀퉁이를 받치고 있었으며 석재 사이에는 장대석이 여러 단으로 올려져 있었다.<sup>16</sup> 심초석 위에서는 방형석과 잡석으로 3층까지 쌓아 올린 찰주刹柱가 확인되었으며, 기단부의 잡석과 면석 등의 파손 석재가 다수 발굴되어 기단의 원형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석탑의 적심부와 기단부에서는 석탑제보다 연대가 앞서는 석재와 와당 등이 발굴되었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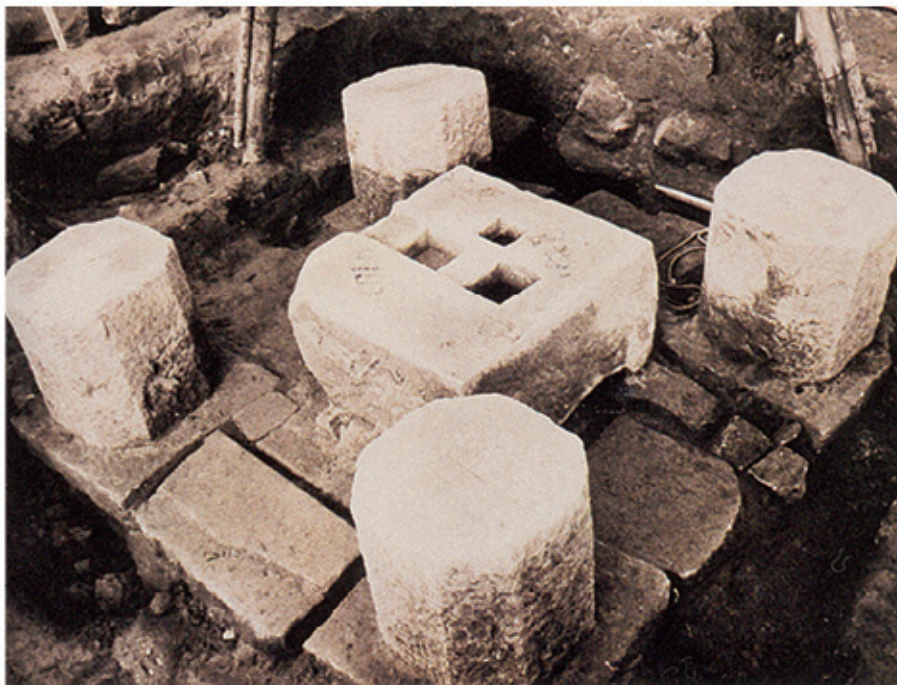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세키노 다다시彌野貞는 왕궁리 오층석탑이 미륵사지 석탑과 동일한 양식이며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유섭은 세키노의 견해를 비판하고 왕궁리 오층석탑이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함께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백제 말기의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sup>18</sup> 이후의 연구에서 왕궁리 석탑을 백제 석탑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통일신라의 전형양식典型樣式 석탑과도 다르다고 하여 편년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sup>19</sup>

광복 이후에도 왕궁리 오층석탑은 일반적으로 백제~통일신라 초기의 작품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석탑의 해체 조사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석탑의 조성 연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석탑 적심부와 기단부에서 확인된 구석재와 기와편은 석



[그림 6] 왕궁리 석탑 내부도면(도쿄대학총합연구 박물관 소장)

- 15) 황수영, 1966a,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내 발견 유물」, 『고고미술』 7권 1호, 157쪽.
- 16) 정영호, 1994, 「익산 미륵사지석탑과 왕궁리 오층석탑의 고찰」, 『마한 백제 문화와 미륵사 상·대산김삼룡 박사 고회 기념』, 610~611쪽.
- 17) 황수영, 1966b, 「익산 왕궁리 석탑 조사」, 『고고미술』 7권 6호, 202~203쪽.
- 18) 고유섭, 1939, 「조선탑파의 연구 2」, 『진단학보』 10, 69쪽, 98~101쪽.
- 19) 고유섭, 1941, 「조선탑파의 연구 3」, 『진단학보』 14, 210쪽~212쪽.



[그림 기 왕궁리 석탑 1층 심초석과 팔각석주(왕수영 1966a)]

탑이 후대에 건립되었다는 추정의 근거가 되었으며, 석탑의 기단부는 출토된 부재를 바탕으로 복원되었다. 특히 심초석 사리공에서 발견된 금동여래입상은 이 석탑의 건립 연대를 나말여초로 끌어내리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다.<sup>20</sup>

석탑의 해체 보수와 함께 석탑 주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져 건물지와 천랑지穿廊址가 확인되었고 왕궁리 유적은 백제 궁성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되었다.<sup>21</sup> 석탑의 해체 보수와 주변의 발굴조사는 몇몇의 단편적인 기록에 대략적인 면모가 드러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당시 발굴된 자료들은 왕궁리 유적의 조성 시기 및 변천 과정, 사리장엄구의 제작 시기, 석탑의 건립 연대에 대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석탑의 해체 보수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는 매우 단편적인 형태로 전해지고 있어서 사리장엄구의 제작시기 및 석탑의 조성연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 3. 1970년대

1970년대는 민족주의적 문화재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시기였다. 「문화재보존관리 5개년계획」(1972), 「문예중흥 5개년계획」(1973) 등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를 위한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 정부 문화재 정책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추진되었다. 무령왕릉(1971), 천마총(1973), 황남대총(1973~1975) 등 삼국시대 왕릉급 고분들의 연이은 발굴은 정부의 문화재 정책 입안의 직접적 배경 또는 결과물이었다. 1972년 확정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은 경주 지역 문화유산의 정비와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동기에서 추진되었으며,<sup>22</sup> 「문화재보존관리 5개년계획」과 「문예중흥 5개년계획」

20) 정영호, 앞의 글, 613쪽.

21) 동아일보, 1966-06-04, <穿廊址 등 발견-익산 왕궁탑 발굴 작업 끝내>.

22) 매일경제신문, 1971-06-07, <1차로 경주단지 관광지 종합개발>.



또한 문화재 정화를 통한 관광지 개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문화재 보수 정책의 중점은 문화재를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되살리고 국민정신을 함양하며 국난 극복의 슬기를 배우는 교육도장으로 조성'하는 것이었다.<sup>23</sup>

이 시기 민족주의적, 개발지향적 문화재 정책은 지역 사회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였다. 특히 무령왕릉의 발굴은 익산 지역 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필요성과 개발 욕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였다. 1971년 익산군은 모지墓積山성(왕궁리 유적)에 대한 사적지 지정을 신청했는데 그 배경에는 무령왕릉 발굴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sup>24</sup> 1973년 7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익산군 문화재보호협회, 익산군 미륵산지구 관광개발추진위원회에 소속된 지역 인사들은 '미륵탑 복원 건의서' 2부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통령 앞으로 작성된 건의서 1부는 문공부에 접수되었으며 국무총리 앞으로 작성된 건의서는 당시 공화당 소속 익산 지역 국회의원 채영철에 의해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전달되었다.<sup>25</sup> 김종필은 1971년 무령왕릉 출토 유물의 공주박물관 보관을 약속한 바 있으며,<sup>26</sup> 「문예중흥 5개년계획」에 따라 조직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재정책을 총괄하였다.<sup>27</sup>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의서는 1974년 미륵사지 동탑지 발굴과 미륵사지 석탑 조사의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문화재 정책과 익산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지역 연구 기관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1973년 10월 1일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 익산 지역 유지들이 익산군 일원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연구·교육을 담당할 연구소 설립을 원광대학교 박길진 총장에게 건의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sup>28</sup> 연구소는 1차 사업으로 미륵사지 동탑지 발굴조사와 미륵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를 계획하여 이듬해 발굴에 착수하였다. 또한 연구소는 1970년대 익산 지역의 백제 문화유산의 조사와 연구를 주도하고 다수의 학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익산 백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환기 시켰다.

익산 지역 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또 하나의 계기는 무왕의 익산천도 관련 내용이 실려 있는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의 공개였다. 일본의 불교사 연구자 마키다 타이로牧田晴亮은 1953년 교토의 청련원에서 이 문헌을 최초로 조사하였고 그 연구 결과는 1970년 1월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の研究』로 출판되었다.<sup>29</sup> 이 문헌의 내용에 자극을 받은 홍사준은 같은 해 7월 왕궁리 유적을 답사하고 가로 250m 세로 500m의 직사각형 성곽 흔적을 확인하였다.<sup>30</sup> 앞서 서술한 바 있는 1971년 익산군의 왕궁리 유적에 대한 사적지 지정 신청도 『관세음응험기』의 익산 천도 기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마키다 타이로는 1971년 3월 한국을 방문하여 황수영에게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の研究』를 전달하였다. 황수영은 이를 바탕으로 『관세음응험기』의 무왕 관련 기사를 상세히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1</sup>

백제 무왕왕이 지모밀지로 천도해서 정사를 새롭게 조영했는데, 정관 13년 기해(639) 겨울 11월에 크게 천둥치고 비가 와서 제석정사가 화재를 입어 불당과 7층 부도, 낭방이 모두 타버렸다. 탑 아래의 초석 가운데 갓가지 7보가 있고 또 불사리와 수정병이 있었다. 또 동편에 『금강반야경』을 새겨서 목칠함에 보관해 두었다. 초석을 열어보니 모두 타버렸는데, 오직 불사리병과 『반야경』을 담은 목칠함은 그대로 있었다. 수정병의

23) 전재호, 1998,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 정책」, 『사회과학연구』 7,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4) 경향신문, 1971-08-02, <모지산성 사적으로 지정>.

25) 국가기록원, 1974, 「미륵사지 석탑 기초조사 사업시행」, 관리번호 : BA0120817.

26) 경향신문, 1971-07-14, <김총리 약속 학술적 연구 끝나면 공주박물관에 보관>.

27) 경향신문, 1973-10-20, <르네상스 한국 80년대 두시, 난제 안은 1차 문예5개년진흥계획 주안점>.

2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6,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어제와 오늘』, 59쪽.

29) 牧田晴亮, 1977, 「백제 익산천도에 대한 문헌자료」, 『마한백제문화』 2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0) 동아일보, 1970-07-04, <백제 무왕 때 궁터 발견>.

31) 황수영, 1973, 「백제 제석사지의 연구」, 『백제 연구』 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이하 제석사지에 관한 내용은 황수영의 글을 요약하였다.



[그림 8] 1974년 미륵사지 동탑지 발굴(국가기독교원 소장)



[그림 9] 미륵사지 동탑지 발굴(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소장)

내병과 외병을 살펴보니 대개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사리가 모두 없었는데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병을 가져다 대왕에게 드렸더니 대왕이 법사를 청하여 곧 참회하고 병을 열어보니 불사리 6과가 내병에 고스란히 있었는데 밖에서 보아도 6과가 모두 보였다. 이에 대왕과 모든 궁중의 사람들이 더욱 더 공경하고 믿어서 공양하고 다시 절을 지어 봉안했다.<sup>32)</sup>

황수영은 또한 ‘궁평宮坪’ 또는 ‘내궁內宮 터’로 구전되어 내려온 곳에서 수습된 ‘제석사帝釋寺’ 명 명문과, 백제 연화문수막새, 목탑지 심초석 등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곳이 제석사가 있었던 장소라고 추정하였다. 이어 그는 『관세음응험기』에 기록된 백제 무광왕武廣王은 무왕과 동일 인물이며, 무광왕의 천도지로 기록된 지모밀지柸基蜜地는 ‘모지밀’이라는 지명으로 전해지던 왕궁리 석탑 북쪽의 구릉지대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의 종류와 봉안 방식이 『관세음응험기』에 묘사된 제석사 탑의 사리장엄구와 매우 유사함을 지적하고 왕궁리 석탑과 제석사 탑의 친연성에 주목하였다. 그는 익산 지역이 국도國都의 요건인 성지와 궁지, 사원지, 왕릉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물적 증거는 무왕 대의 별도 경영 또는 천도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다. 『관세음응험기』의 내용과 이에 관한 황수영의 견해는 왕궁리 유적을 무왕의 천도설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인식의 전환점이 되었고,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의 관련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마키다 타이로는 1976년 열린 제3회 마한백제문화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관세음응험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간략히 발표하였다.<sup>33)</sup> 『관세음응험기』에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쓰여진 3개의 관세음응험기 기사와 부록으로 더해진 백제 불교관련 기사 2개가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에 따르면 『관세음응험기』는 8세기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11세기 이후 일본의 청련원에 소장되어 있었다. 백제 불교관련 기사는 백제 승려 발정發正에 관한 기사와 무광왕의 천도 및 제석사 창건 관련 기사이다. 발정에 관한 기사는 8세기 당書에서 편찬된 『법화전기法華傳記』와 일치하고 있으나 무광왕 관련 기사는 전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는 비록 『관세음응험기』의 신화적 내용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고 무광왕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기록은 왕궁리 석탑 출토 유물과 제석사지와 관련된 자료로서 귀중한 문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문화재 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새로운 자료의 소개는 익산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정비로 이어졌다. 1974년 5월 23일 미륵사지 석탑 보존 방향과 주변부 발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미륵사지 석탑 조사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석탑 주변과 동탑지를 발굴조사하고 석탑의 보강 방안을 조사 검토하기로 결정되었다.<sup>34)</sup> 석탑의 조사와 동탑지 발굴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담당하였다. 석탑의 실시된 기초조사에서는 석탑 부재의 실측, 석재의 풍화도 조사, 콘크리트와 기타 구조 보강물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미륵사지 동탑지는 1974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발굴조사되었다. 1975년 9월 23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1차 발굴지 주변 4m 범위에 대한 추가 조사와 발굴 후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 1차 조사 당시 동탑지 주변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고 초석과 장대석 몇 개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었다. 동탑지 발굴조사에서 기반부의 구조와 크기가 확인됨으로써 동탑도 서탑과 비슷한 크기의 석탑이었다는 것이

32) 百濟 武廣王 遷都柸基蜜地 新營精舍 以貞觀十三年歲次己亥冬十一月 天大雨 遼災帝釋精舍 佛堂七級浮圖 乃至廊房 一皆消盡 塔下礎石中 有種種七寶 亦有佛舍利 碎水精瓶 又銅作紙 寫金剛波若經 貯以木漆函 殷礎石開視 悉皆消盡 唯佛舍利瓶與波若經漆函與故 水精瓶內外微見 蓋亦不動而舍利悉無 不知所出 將瓶以歸大王 大王請法師 殷即懺悔 開瓶視之 佛舍利六個悉見於是 大王及諸宮人倍加敬信 發即供養 更造寺貯焉

33) 牧田錦亮, 1977, 「백제 익산천도에 대한 문헌자료」, 『도론내용』, 『마한백제문화』 2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이하 내용은 牧田錦亮의 글을 요약하였다.

34) 국가기독교원, 1974, 「미륵사지 석탑 기초조사 사업시행」, 관리번호 : BA0120817.



밝혀졌으나 심초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출토된 주요 유물은 금동풍탁金銅風鐸, 녹유서까래기와, 유리파편 등이었는데 금동풍탁은 백제의 풍탁이 완전한 형태로 출토된 최초의 사례였다.<sup>35</sup> 2차 조사에서는 탑에 사용된 석재들과 함께 동제여래입상, 동제풍탁, 철제 은정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품 가운데 대형 풍탁은 통일신라시대 범종형식과 유사하며 소형 풍탁은 그보다 시대가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적어도 나말여초 무렵에는 동탑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sup>36</sup> 그러나 이 발굴조사는 석탑의 복원 및 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정된 목적에서 실시된 것으로 미륵사지 전역에 대한 발굴은 후일로 미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왕궁리 유적은 1976년 11월에 들어서야 최초 발굴이 이루어졌다.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성벽의 축조기법 및 유적의 대략적 형태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학술적 목적에서 발굴을 실시하였다. 조사의 범위는 토성으로 알려져 있던 왕궁리 성지의 원형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조사와 일부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에 한정되었고 석탑지에 대한 조사는 제외되었다. 발굴은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되었고 이듬해 5월까지 유적 실측과 측량이 진행되었다. 궁장지와 건물지는 대부분 경작이 이루어져 유구가 파괴된 곳이 많았으나 궁장宮牆의 일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궁장 하부의 가공석과 적실석이 확인됨으로써 토성으로 알려져 있던 성벽은 궁궐의 담장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석탑 북쪽에서는 금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금당지와 강당지의 계단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를 비롯하여 백제 연화문수막새, 인장과, ‘관공사官宮寺’ 명 암키와, 정원석 등이 출토되었다. 조사 결과 백제말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확인됨에 따라 왕궁리 유적을 백제 무왕대의 천도지遷都地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37</sup>



[그림 10] 1976년 왕궁리 유적 궁장 서벽 발굴 모습(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소장)



[그림 11] ‘대관공사’·‘관공사’가 새겨진 기와(국립전주박물관 소장)

#### 4.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과 1980년대 이후

광복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익산 지역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조사는 긴급 구제발굴이나 개별 문화재의 보수와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의 조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익산 지역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은 1970년대 말부터 계획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포함되면서 시작되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는 1979년부터 1988년까지 179억 원을 들여 서울, 공주, 부여, 익산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대비하여 서울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고도민족문화유적 종합복원계획’이 별도로 추진되면서 충남과 전북 지역의 백제 문화유산은 ‘중서부 고도지구 문화유적지 정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적인 발굴과 정비가 진행되었다.<sup>38</sup>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계획되기 시작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1971년 4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이 신범식 문공부장관에게 부여의 백제문화유산 개발계획 입안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sup>39</sup> 계획에는 현재 부여군에 소재한 백제역사문화재현단지 조성구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는 김종필 국무총리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40</sup> 비슷한 시기에 문화재관리국은 전국의 문화재를 권역별로 관리하려는 계획에 착수하고 금강유역의 문화유산을 ‘백제문화권’으로 명명했다.<sup>41</sup>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문화재관리국의 계획은 대통령의 지

35)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75, 「익산 미륵사지 동탑지 및 서탑지조사보고서」, 『마한백제문화』 창간호,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6)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77, 「미륵사지 동탑지 2차발굴조사보고서」, 『마한백제문화』 2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7) 정명호, 1977, 「익산 왕궁리 성지 발굴조사 약보고」, 『마한백제문화』 2,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8) 최진룡, 1989, 「백제문화권 개발」, 『문화재』 22, 국립문화재연구소.

39) 매일경제 1971-04-19, <박대통령 부여개발에 마스터 플랜>.

40) 그의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1970년대 문화재 정책에 대한 그의 영향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 1998. 4.22. 「부여에 간 김종필 “백제문화 증흥을”」.

41) 경향신문, 1971-05-10, <문화재>.

시와 관련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관련 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문화재 관리계획은 독립적인 실행계획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및 '4대강 개발계획'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의 문화재 정책은 대표적인 문화재의 정비와 발굴, 주변 정화를 통한 관광지 개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도 그 연장선상에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1977년에 들어와 정부 주요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개발 기본 방향은 백제문화권을 신라문화권과 함께 우리나라의 2대 문화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었으며 12개의 개발대상지역은 구드래, 무량사, 장곡사, 공주, 유성, 동학사, 갑사, 마곡사, 관촉사, 익산,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등 사적지와 자연경관을 포괄하는 것이었다.<sup>42</sup> 이 사업은 1972년부터 추진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응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정비는 관광개발 목적에 종속된 형태로 진행될 우려가 다분하였다. 개발사업 추진 보도 이후 유적의 복원과 관광 개발에 앞서 광범위한 학술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발에 따른 유적의 훼손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sup>43</sup> 이러한 우려의 배경에는 경주관광종합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발굴과 복원, 유적의 훼손 사례가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1978년 정부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단계별 계획을 확정하였는데, 1단계 기초조사, 2단계 정화사업, 3단계 관광개발사업으로 이루어졌다.<sup>44</sup> 문화공보부는 백제문화권 정비를 서울지구, 공주지구, 부여지구, 익산지구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조사 용역을 의뢰하였다. 조사와 정비의 기본방향은 김원용, 황수영, 진홍섭, 최영희 등 13인으로 구성된 학술조사지도위원회가 결정하였으며 익산 지역의 기초조사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담당하였다.<sup>45</sup>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1978년 7월 5일부터 10월31일까지 익산군과 인근 지역에 소재한 46개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유적의 연혁에 대한 문헌 조사, 유적의 개요 및 현황, 보존 관리 상태, 유물과 유적의 실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위원회는 8개의 정비 대상 유적을 선정하였다.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유적은 ①쌍릉, ②미륵사지, ③왕궁토성, ④제석사지, ⑤석불리 석불좌상, ⑥태봉사 삼존석불, ⑦미륵산성, ⑧사자사였다.<sup>46</sup>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1979년 공산성, 부소산성, 미륵사지의 보수와 정화를 위한 측량, 토지 매입을 필두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1980년도 문화재 사업 분야의 예산은 1979년보다 오히려 축소되었고<sup>47</sup> 익산 지역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과 정비는 1980년 2월 29일 중서부고도지구 문화유적지 정화 10개년계획이 확정되면서 비로소 구체화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정화는 1988년까지 2단계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1983년에 마무리되는 1단계 사업에서는 7개 주요 유적의 정화 보수가 추진되고 2단계에는 단위 문화재의 발굴조사와 정화 보수가 추가될 예정이었다. 1단계 사업 대상 유적지는 공산성, 송산리,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이었으며 2단계 사업에는 벽골제, 고도리 석불입상, 신흥리 백제 도요지에 대한 보수정화와 제석사지와 석불사지(연동리 사지) 발굴조사가 포함되었다.<sup>48</sup>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80년대 이후 익산 지역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980년 이후 3차에 걸쳐 진행된 미륵사지 발굴조사는 1996년 마무리 되었다. 17년이 소요된 장기간의 발굴조사는 창건 당시의

42) 매일경제신문, 1977-06-07, <건설부 연내 세 부계획 확정 내년부터 부여 공주 관광 개발 12 개 거점 위주로>.

43) 동아일보, 1977-08-27, <백제문화권 개발>.

44) 경향신문, 1978-04-17, <백제문화권 개발에 첫 손>.

45) 최진용, 1989, 앞의 글.

46)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79, 『백제고도 익산 지역 문화재현황 조사보고서』, 『마한백제문화』 3.

47) 동아일보, 1979-12-18, <문화재분야 축소>.

48) 경향신문, 1980-03-04, <문공부 문화재 관리 국 10개년 계획 확정발표 본격 착수>.



미륵사의 구조와 규모, 미륵사의 존속 기간, 가람 배치의 역사적 변천 등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2009년 1월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미륵사지를 비롯한 익산 지역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사리장엄구 발견 이후 건축학, 고고학, 보존과학, 미술사학, 역사학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익산을 사비기 백제의 역사와 문화의 또 다른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왕궁리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8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60년대와 70년대의 제한적인 조사를 통해 왕궁리 유적이 백제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유적의 전체적인 구조 및 성격, 조성 시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20년 이상 계속된 발굴조사에 의해 왕궁리 유적의 전모가 밝혀졌으며 새로운 자료들이 연이어 확인되며 유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제석사지에 대한 최초의 발굴은 1993년 11월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당시의 발굴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담당하였는데 목탑지 남쪽과 서쪽의 일부에 해당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제석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졌다. 발굴조사에서 목탑지, 금당지, 강당지의 위치와 규모가 밝혀지고 중문지와 동회랑지, 동건물지 등의 부속 건물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또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백제 와요지로 알려져 왔던 제석사지 폐기장을 시굴 조사하였다. 시굴 조사 결과 다량의 백제 연화문수막새, 평기와, 벽체편과 각종 소조상 甁造像片 등이 확인되었다. 제석사지 폐기장은 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해 2016년부터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으나 폐기장의 전체적인 규모가 밝혀졌고 시굴조사에서 출토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의 연화문수막새와 다양한 형태의 소조상편을 비롯하여 벽체편 등이 다량으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 5. 맺음말

백제 사비기 익산에 대한 역사서의 기록은 매우 소략하고 단편적이다. 집단적 기억은 과거 사실을 불완전하고 변형된 형태로 담은 채 오랜 세대를 거쳐 상상과 뒤섞여 이어져 내려왔다. 광복 이후 막연하게 마한 또는 백제의 문화유산으로 전승되던 유적들은 방치되어 있었고 유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체계적인 발굴조사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익산 지역 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는 1960년대에 들어서야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사의 내용도 개별 문화재의 보수를 위한 조사와 긴급 구제발굴조사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70년대 정부의 민족주의적, 개발지향적 문화재 정책과 새로운 자료의 출현은 익산 지역 사비기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으나 조사의 범위는 개별 유적의 일부에 한정되었다. 197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추진된 백제문화권개발사업도 문화유산의 정비를 통한 관광지 개발이라는 개발지향적 목적에서 계획되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백제문화유산의 보존과 조사 필요성에 대한 학계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존재했다. 또한 1970년대의 무분별한 발굴과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백제문화권에 대한 장기간의 발굴조사계획과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이어졌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1980년대 이후 이루어진 익산 지역 사비기 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의 토대가 되었다.

광복 이후 이루어진 발굴조사는 백제 사비기 익산의 실상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들을 세상 속으로 드러냄으로써 익산이 백제 사비기 역사에서 또 다른 중심이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왕궁리 유적은 백제의 궁성으로 조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미륵사지와 제석사지는 백제 왕실이 조성한 백제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출토된 자료들이 역사서의 공백을 메우고 잊혀진 사실을 밝혀내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자료에 대한 해석도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르다. 백제 사비기 익산 경영의 성격에 관해서는 천도설, 별도설, 신도설, 별부설 등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별 유적들의 조성주체와 조성시기를 밝혀내고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다.

사비기 익산 지역 백제문화 유산에 대한 발굴조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일제강점기 조사 이후 100년 만에 쌍룡이 재발굴되고 있으며 제석사지와 미륵사지 주변부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도 계획되고 있다. 사비기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밝혀줄 새로운 자료들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關野貞, 1942, 『朝鮮の石塔婆』, 『朝鮮の建築と藝術』.

이 글은 전국에 걸쳐 실시된 고적조사사업의 결과물 중 하나로 1912년부터 1913년까지 잡지 『국화國華』에 5차례에 걸쳐 게재되었다. 세키노 사후 1942년 제자들이 그의 연구를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간한 『조선의 건축과 예술朝鮮の建築と藝術』에 재수록되었다.

그는 한국에 남아있는 석탑을 시대별로 다루었는데 익산 지역에서는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리 오층석탑을 『삼국사기三國史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지역 기록인 『금마지金馬志』 등 관련 문헌을 근거로 통일신라시대의 탑으로 비정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현황은 본인이 수행한 고적조사 기록에서 발췌하여 두 탑이 신라 전성기의 문화를 투영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1. 신라통일시대의 탑과

신라통일시대<sup>2</sup>란 선덕여왕 때 김춘추가 섭정하여 활발히 당의 문화를 수입하였던 때부터 시작하여 신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끝나는 약 300년간을 일컫는 명칭이다. 이 시대의 예술은 당풍의 양식에 크게 감동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점차 고유 특색으로 발전시킨 시대이다. 당풍의 웅대함과 화려함에 비교하면 신라에는 오히려 우아하고 정교한 미가 담겨 있다. 무릇 국민적 취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우리는 당대當代の 유물인 탑과塔婆를 살펴보면 바로 그 특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丙. 미륵사 석탑과

마한의 옛 도읍 익산(전라북도) 미륵산(또는 용화산이라고도 한다)의 남서 기슭에 미륵사지가 있다. 석탑 1기가 상당히 훼손되어 홀로 서 있다. 이 탑은 아마도 오늘날 반도에 존재하는 석탑과 중 가장 크지만, 그 건립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삼국사기』에 성덕왕 18년(719) '가을 9월 금마군 미륵사에 벼락이 쳤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 사찰을 의미한다. 금마군이란 이 지역의 신라 때 옛 명칭이다. 그렇다면 이 사찰의 건립은 성덕왕 이전 즉 적어도 지금부터 1,200년 전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명확하며, 석탑 또한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미륵사, 용화산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무강왕武康王이 인심을 얻어 마한국을 세우고, 하루는 선화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고자 산 아래 큰 못가에 이르렀는데, 세 미륵불이 못 속에서 나왔다. 부인이 임금께 아뢰어 이곳에 절을 짓기를 원하였다. 임금이 허락하고 지명법사에게 가서 못을 매울 방술을 물었더니, 법사가 신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으로 못을 메워 이에 불전을 창건하고 또 세 미륵상을 만들었다. 신라 진평왕眞平王이 백공百工을 보내어 도왔는데, 석탑이 매우 커서 높이가 여러 길이나 되어 동방의 석탑 중에 가장 큰 것이다."하였다.

무강왕에 대해서는 승람에 '쌍릉은 오금사 봉우리의 서쪽 수백 보 되는 곳에 있다. 『고려사』에는 후조선後朝鮮 무강왕武康王 및 비妃의 능이라 하였다. 속칭 말통대왕릉末通大王陵이라 한다. 일설에 백제 무왕의 어릴 때 이름이 서동인데, 말통은 즉 서동이 변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무강왕은 위만에게 쫓겨서 평양을 떠나 마한에 국가를 세웠던 후조선의 기준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이 마한에 온 것은

1) 번역은 서동천(한양대학교)이 담당하였다.

2) '신라통일시대'는 1925년 조선사편수회 편수 강령에서 결정되었다.(김영하, 2011, 『신라통일론의 제적과 함의』, 『한국사연구』153, 48쪽.)



[제330도] 폐미륵사 다층석탑\*

\* 사진캡션은 원문을 따랐다.



[제331도] 폐미륵사 다층석탑 배면

기원전 194년으로 불교가 유입되기 전이다. 신라 진평왕 때와는 거의 800년의 차이가 있는 것도 모순이 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탑의 연대와 관련하여 지난 3월에 발행한 잡지 『조선과 만주朝鮮及滿洲』에 하나의 가설을 게재했다. 지금 그 요점을 다음에서 기재하고자 한다.

나는 이 탑의 형식을 보전대 백제의 구도舊都 부여에 있는 대당평백제탑大唐平百濟塔과 연대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그보다 조금 뒤에 건설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탑과 동일한 형식이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왕궁탑에 관해서는 다음 항에서 다룬다. (왕궁탑에서) 나는 우리의 아스카飛鳥시대와 네이라쿠루寧樂시대 초기 사이에 해당하는 문양이 새겨진 막새기와를 발견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이 탑을 지금에서부터 약 1,230~1,240년 전 쯤의 것이라고 상정하고자 하는 바이다.

대략 이 지역은 마한시대의 구 도읍지이지만, 백제가 점령한 후에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익산 지역이 한 때 중요해진 시기는 신라 문무왕 14년(674, 일본 백봉白鳳 2년, 당 상원上元 원년)에 고구려 종실 안승을 이 지역 영주로 봉하고 보덕왕이라고 칭했던 때에 해당한다. 문무왕 20년 3월에는 금은기 및 잡채 백단을 하사하고, 왕의 누이를 아내로 시집보냈다. 신문왕 3년(683, 백봉白鳳 11년, 당 홍도弘道 원년)에는 소판蘇判에 봉하고 김씨 성을 내렸으며 좋은 집과 땅을 주어 수도에 머물도록 하였다. 안승이 왕실 인척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화는 아침 이슬처럼 짧았다. 신문왕 4년 10월에는 안승의 부하 장수 대문이 이 지역에서 모반하여 처형되었다. 남은 무리가 읍성을 거점으로 저항을 계속하다 결국 패망하였다. 왕은 그 잔당을 남쪽의 군읍으로 이주시키고 그 지역을 금마군이라 하였다.

이는 문무왕 14년 처음으로 안승이 보덕왕에 봉해지고 불과 10년이 지나서의 일이다. 그 후 이 지역이 다시 중요한 곳으로 되는 일은 없었다. 지금 미륵사의 유적지를 보면 전면에 당간지주가 좌우로 마주보고 서 있고 서로 약 40칸이 떨어져 있으며, 전쪽 당龕 문門 무廡의 유적과 초석이 여전히 그 연혁을 대변하고 있다. 이 가람이 거대 가람이었다는 것은 한 눈으로 보아도 명확하다. 특히 석탑은 매우 대규모의 것으로 도저히 왕이나 제후가 외호해 주는 힘이 없으면 건립하고자 하는 시도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본인은 이 양식을 보고 1,230~1,240년 전의 것이라고 추정하였는데, 이 시기는 보덕왕 안승의 전성시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미륵사 역시 안승이 창건했다고 보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승람』에서 말하기를 안강왕安康王 및 부인은 보덕왕 부처夫婁로 보고, 진평왕은 문무왕의 잘못된 구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실로 하나의 억측에 지나지 않지만 안강왕은 안승왕, 진평왕은 신문왕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도 다소의 인과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승람』 쌍릉의 항에 후조선 무강왕 및 비룡이라고 하여, 별도로 백제 무왕릉이라는 속설을 게재하였다. 지금 만약 『승람』에서 미륵사 창건자라고 하는 무강왕이 백제 무왕의 오기라고 하면 신라 진평왕과 거의 동시대에 해당하므로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어 그 공사를 도왔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이 설에 의하면 미륵사는 백제 무왕이 창건한 것으로 무왕 재위는 수당隋唐 사이에 해당하고, 서기 641년에 사망하였다. 그러나 신라 진평왕은 그 9년 전(632)에 사망하므로 미륵사 창건 연대는 적어도 632년 이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 탑이 창건과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분황사탑보다 2년, 대당평백제탑보다 28년 이상 앞서서 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실로 오늘날 조선에 남아 있는 최고最古의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은 그 양식으로 보아 이에 찬성하기 어렵다. 오히려 보덕왕 때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잠시 동안 의심을 남겨둔 채 뒤에서 논하는 바를 기다려보고자 한다.

탑은 전부 돌로 쌓은 것이고 현재는 6층으로 되어 있지만 당초에는 아마도 9층이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동측면이 겨우 남아 있고 다른 세 면은 붕괴되었다. 1층의 넓이는 한 변 27척의 방형으로 기둥으로 각 면을 3칸으로 나누었고, 중간에 입구를 만들었으며 옆 칸에 창 모양을 만들었다. 내부에는 한 변 3척 2촌 8푼의 방형 심주가 있다. 외부는 각 층에 3단의 옥개받침으로 옥개석을 지탱하였다. 옥개석은 얇은 판석으로 만들었다. 처마는 깊고 모서리로 갈수록 양곡이 두드러진다. 전체 형상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엄청난 외관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지 않고, 수법은 우수하며 형상은 웅건雄健한 기상을 품고 있다. 오늘날 조선에 남아있는 최대의 석탑으로 그 연대는 아마 분황사 탑, 대당평백제탑에 이어 가장 오래된 유구 중 하나로 신라 전성기의 문화를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귀중한 표본인 것이다.

#### 丁. 익산 왕궁탑(오층석탑)

마한 왕궁지라 불리는 익산 왕궁평 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 이곳은 먼 옛날 마한 왕궁이 있던 장소이며, 이후 그 폐허가 사찰이 되어 이 탑을 세웠던 것이다. 그 연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륵사 석탑과 동일한 형식으로 규모가 다소 작을 뿐 그것과 거의 동시대에 지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그 곁에서 하나의 막새기와 파편을 발견하였다. 그 문양을 보면 약 1,230~1,240년 전의 것으로 이것은 이 탑의 연대를 판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익산읍지』, 『금마지』에 ‘세속에서 전하기를 마한 때에 조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황당하여 논하기 어렵다.

탑은 오층으로 기단은 현재 흙 속에 매몰되어 있다. 높이는 단위로 27~28척, 각 층 탑신은 다소 넓고 처마는 길게 나왔으며, 지붕 경사는 완만하다. 안정감 있고 장중한 외관을 확인할 수 있다. 처마의 3단 옥개받침은 중후하며 옥개석은 매우 경쾌하여 신라 후기의 석탑과는 확연히 다른 외형을 보여준다. 상륜은 노반露盤, 복발覆鉢, 수화受華 및 가장 아래의 1륜을 남기고 있을 뿐으로 상부는 손실되었다.



[제332도] 익산 왕궁탑

본편은 국화 제267호[명치45년(1912) 8월], 제271호[대정원년(1912) 12월], 제277호[대정2년(1913) 6월], 제278호[대정2년 7월], 제280호(대정2년 9월)에 게재했고, 『조선의 석탑파』의 전문에 있다. 다만 후술한 「신라시대의 건축」 기타의 내용과 중복되는 곳도 적지 않지만, 이것을 생략하기 어려워 그대로 게재하는 것으로 했다.

藤島亥治郎, 1930, 「朝鮮佛教建築論 第二章 益山彌勒寺」, 『朝鮮建築史論』其三

이 글은 후지시마 가이지로가 1922~1929년까지의 한반도 건축조사 과정에서 『건축잡지建築雜誌』에 게재한 내용을 묶어 발간한 『조선건축사론朝鮮建築史論』의 일부이다. 그는 신라와 백제의 사찰건축에 매우 관심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익산 미륵사는 그의 큰 관심 대상이었다.<sup>1)</sup>

이 글에서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내용은 가람배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삼국유사三國遺事』를 참고해 「미륵삼회彌勒三會」를 범상으로 삼고 전·탐·남무 각 세 곳을 창건하였다.<sup>2)</sup> 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서원西院과 동원東院의 존재와 함께 후방의 대규모 가람(中院)을 상정하여 품자형品字形 삼원식 가람배치를 구체적으로 추정했다. 그가 제시한 가람배치 복원안은 광복 후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륵사지가 통일신라시대의 절터가 아닌 백제의 절터라는 주장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인정받았다.<sup>3)</sup> 또 『삼국유사』, 『동국여지승람』을 기반으로 백제 무왕과 신라 진평왕이 재위했던 632년 이전에 지배자의 권세와 재력에 의해 미륵사가 창건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기존까지 제시되어오던 통일신라 초기의 사찰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 제2편 조선불교건축론

### 제3절 백제의 불교건축

(전략)

#### 제2항 백제의 사찰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백제의 사찰은 다음 표와 같다.

사찰명	초창연대	소재지	소재건축명	비고
?	침류왕 2년(385)	한산	-	(주3) <sup>4)</sup>
왕흥사	법왕 2년(600) ~ 무왕 35년(634)	부여	-	(주4) <sup>5)</sup>
철약사	법왕 2년(600) 이전	?	-	(주5) <sup>6)</sup>
오합사	의자왕 15년(655) 이전	?	-	(주6) <sup>7)</sup>
천왕사	의자왕 20년(660) 이전	?	탑	(주7) <sup>8)</sup>
도양사	의자왕 20년(660) 이전	?	탑	(주7)
백석사	의자왕 20년(660) 이전	?	강당	(주7)
미륵사	무왕 대(600~641)?	익산군	당탑 유적지 있음	

1) 1926, 1928년 미륵사지를 방문했다. 『건축잡지』에서 미륵사 부분은 1930년(소화5) 5월 작성되었다.

2) ‘殿塔廊廡各三所創之’ 『三國遺事』卷二 武王燬參照

3) 이병호, 2017, 「일제강점기 익산 지역의 고적조사와 쌍골 환도품」, 『百濟文化』56, 333쪽.

4) (주3) 『삼국사기』(침류왕) 2년 봄 2월, 한산에 불사를 창건하였다. 승려가 10인이었다.

5) (주4) 『삼국사기』(법왕) 2년 봄 정월, 왕흥사를 창건하였는데, 승려가 30인이었다.  
『삼국사기』(무왕) 35년 봄 2월, 왕흥사가 완성되어.....

6) (주5) 『삼국사기』(법왕) 2년, 왕이 철약사漆岳寺에 행차하다.

7) (주6) 『삼국사기』(의자왕) 15년 여름 5월, 붉은 말이 북악 오합사에 들어갔다.

8) (주7) 『삼국사기』(의자왕) 20년, 바람과 비가 폭풍처럼 쏟아져 천왕사·도양사 두 절의 탑에 벼락이 치고, 또 백석사 강당에도 벼락이 쳤다.

이 사찰들은 하나도 상세히 알기 어렵고, 또 하나의 사찰지寺址조차 정확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위에 언급한 사찰들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왕흥사로, 실로 신라의 흥륜사興輪寺·황룡사皇龍寺, 우리(일본)의 사천왕사四天王寺·법륜사法隆寺 등과 필적할 만한 중요한 사찰이면서 또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 정확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삼국사기』에서는 법왕法王 3년(추고천황 8년)에 시작되어 무왕武王 35년에 공사를 마친, 34년 정도를 소비한 대공사이다. 우리의 법륜사에 앞서 기공되어 늦게 완공되었다. 그 규모와 경관의 장대함에 대해서도 『삼국사



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즉 무왕 35년 조에 ‘왕흥사가 완성되었다. 그 사찰은 물에 인접하고 색채가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왕은 항상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 행행(行幸)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삼국유사』에서 「사비 언덕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가히 10여 명이 앉을 만하다. 백제 왕이 왕흥사에 가서 예배하려고 할 때는 먼저 이 돌에서 절을 올렸다. 이 돌이 스스로 따뜻해졌고 그래서 돌석(突石)이라고 명명하였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의자왕 20년(600) 조에 ‘6월에 왕흥사의 여러 중들이 배의 돛대와 같은 것이 큰 물을 따라 절 문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등에서 살펴보면 물이라 함은 필시 왕도 남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금강을 말하는 것이다. 또 왕궁도 강에 인접해 있다는 것은 『삼국사기』 무왕 35년 조에 ‘3월, 궁궐 남쪽에 우물을 파고, 20여 리 물을 끌어왔다. 주변으로 버드나무를 심고, 물 가운데에 섬을 만들었다. 방장 선산을 모방한 것이다.’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알 수 있다. 왕흥사에 행차했다는 것도 납득된다. 이런 점에서 현재 대당평백제탑(大唐平百濟塔)이 있는 사찰지도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왕흥사지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또 『삼국유사』에 ‘그 사찰은 또한 미륵사라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 익산군 미륵사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또한 위 문헌들과 맞지 않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왕흥사 가람배치의 연구는 오랫동안 건축사계의 현안인 아스카시대 사찰 가람배치의 기원을 가장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음에 틀림없으므로 언젠가 이 사찰지가 완전히 발견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저자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현재 마한 혹은 백제 왕이 창건했다고 전해오는 사찰지는 전라북도 익산군 미륵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상세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중략)

## 제2장 익산 미륵사

### 제1절 서론

백제에서 건립한 사찰은 문헌에서 보듯 그 수가 적지 않지만 유구 및 유적을 찾아낼 수 있는 사찰은 대당평백제탑을 제외하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셋 정도 사찰지에 대한 소개를 보았지만 대부분은 후대의 사찰지를 논하기 위해 보충하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팔목할 만한 발견은 없다. 여기에서 보고하는 미륵사도 전하기로는 마한시대 또는 백제시대의 것이라고 칭해지고 있으나 확실치 않다. 세키노 박사는 이를 통일신라 초기에 조성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배치는 매우 특이하여 주목할 부분이 있다. 전하는 것처럼 백제 무강왕 때 초창했다는 설도 여전히 버릴 만한 것은 아니고 또 통일신라시대에 초창했다고 하는 것도 백제 가람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 여기에서 장을 구성하여 논하고자 할 따름이다.

미륵사지는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에 있다. 면사무소 소재지 서쪽으로 약 0.5리 떨어진 산 중 계곡에 있다. 북으로 기준산성이 의연하게 삼각형의 바위 봉우리를 둘러싸고 서 있으며 그 지맥은 사찰지를 동서로 감싸며 사찰지 입구에서 끝난다. 남쪽 언덕에는 쌍룡(雙龍)이라고 불리는 왕룡이 있다. 산 속이지만 마한의 왕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백제시대를 통해 지방의 요지 중 하나였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사찰 영역은 놀랄 만큼 광대하다. 유물 중에는 명치43년(1910) 세키노 박사가 조사

[제89도] 미륵사지 전경(사지 중앙 구천溝川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후지시마 촬영 1926.4)



한 이 석탑이 조선 최대의 석탑으로서 매우 유명할 뿐이라는 점 외에는 달리 특별한 연구가 없었다. 그러나 이 지역 현장에는 탑지塔址, 당지堂址가 있고 주초柱礎도 엄연히 남아 있으므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평면 연구에 의해 가람 구성의 진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저자는 여기에서 주로 평면적 조사와 그 보고를 하겠다.

또 최근 이 사찰지가 점차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총독부에서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소화3년(1928) 겨울 종교국원의 현지답사도 있었기에<sup>9)</sup> 다소 구체적인 연구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발표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 제2절 초창 및 연혁

### 제1항 초창

#### 『삼국유사』 무왕 조에

하루는 왕과 부인이 사자사에 행차하고자 하였다. 용화산 아래 큰 연못가에 이르렀다. 미륵삼존이 연못 속에서 출현하였다. 가마를 멈추고 경의를 표하였다. 부인이 왕에게 이르기를, 모름지기 이곳에 대가람을 창건하기를 심히 원하는 바입니다.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지명의 거처로 가서 연못을 매울 것을 물으니 신력으로 하루밤에 산을 허물어 못을 메우고 평지로 만들었다. 이윽고 미륵삼존을 법상으로 삼고 전 탑 남무 각 세 곳을 창건하였고, 현판은 미륵사라 하였다. 국사에서 이르기를 왕흥사라 한다. 진평왕이 100여 명의 장인을 보내어 이를 도왔다. 오늘도 이 사찰이 남아 있다. (주략註略)

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에는

미륵사는 용화산에 있다. 세간에서 전하기를 무강왕이 이미 인심을 얻고 마한국을 세웠다. 하루는 선화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행차하고자 하였는데…(삼국유사와 동일한 연기가 실려 있다.)…이윽고 창건하고, 또 두 개의 미륵상을 만들었다. 신라 진평왕이 100여 명의 장인을 보내 이를 도왔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무강왕은 마한에 후조선後朝鮮을 세운 기준基準이라고 하는 설과 백제 무왕이라는 설이 있다. 전자는 마한 건국전설과 마한 국도國都, 마한 왕궁지 및 미륵사 북쪽의 기준산성 등 그밖에 이 부근에 전설이 많은 이유에서 출현하기 쉬운 설이지만 당시는 불교가 아직 조선에 도래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후자는 백제 무왕과 진평왕이 동일한 연대이고, 『삼국유사』에도 명기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설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두 왕이 재위하던 시대인 632년

9) 오가와 게이키치의 1928년 조사를 말한다.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6)



이전에 창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키노 박사는 이 지역 왕궁탑 앞에서 얻은 파바 문양 수막새가 우리의 아스카飛鳥시대와 네이라쿠寧樂시대 중간에 속하는 형식이며 왕궁탑과 미륵사탑이 양식상 동시대에 성립하는 것으로 고찰·추정하였으나(번역 1), (필자는) 위 설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신라는 문무왕 14년(671년<sup>10</sup>, 백봉白鳳2년, 당 상원上元 원년)에 고구려의 종실 안승을 이 지역의 영주로 봉하고, 20년에는 왕의 여동생을 그 처로 삼게 하였다. (안승은) 한 때 호화를 누렸지만 따르는 무리의 반역에 의해 신문왕 4년(684) 복주伏誅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이 사실에 의해 안승 부부에 의해 (미륵사가) 초창되었다고 보고 그 시기를 671~684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시대적으로도 왕궁탑과 대략 일치하므로 거의 정당한 해석이라고 본다. 특히 세키노 박사도 지적한 것처럼 무강왕 및 부인은 보덕왕 안승 부부라고 보면, 진평왕은 신문왕의 잘못된 구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초창 연대는 더욱 범위를 좁혀서 681~684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아직 정설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직 『삼국사기』에

(성덕왕) 18년(719)…… 가을 9월, 금마군 미륵사에 벼락이 쳤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미륵사가 창건됐던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탑의 양식만을 보고 초창初創이 이 탑의 건립연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경주 황룡사와 같이 초창 이후 87년이 지나 겨우 9층탑을 건립하여 완성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 비견할 수 있는 반도 최대의 석탑인 이 대석탑의 건립이 미륵사가 창건된 후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로 석탑 건립과 관련하여 최대한 후대로 추정할 수 있는 시기가 671년이므로, 백제 멸망 이후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는다. 또 진평왕이 죽은 지 39년이므로 반드시 이 초창은 백제 말기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 가람배치법은 분명히 알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며, 저자는 사찰 영역 전체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귀중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 제2항 연혁

미륵사는 그 후 계속 존재하여 적어도 고려시대까지는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이 부근에서 정말 많은 기와 파편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고려시대 연호와 명문 기와도 출토되고 있다. 또 『삼국유사』는 ‘오늘날까지도 이 사찰이 남아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그 저자 일연이 사망한 시기 즉 고려 충렬왕 15년(1289) 이전까지는 존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제3절 현상

### 제1항 개설

사지寺址는 동·서·북으로 산에 둘러싸인 남북으로 긴 평야에 걸쳐 존재하고, 두 개 천이 남쪽으로 흐르고 남쪽에는 새로운 도로가 있다. 북쪽에 치우쳐 작은 마을이 있고 그 밖에는 논으로 개간되어 있다. 오로지 석탑이 서 있는 토지만 총독부에서 매수하여 귀중히 보존하고 있다. 탑이 남쪽으로 약 25도 기울어 있기 때문에 대략 이를 기준으로 사찰의 남북을 결정하고 실측하기로 했다.

10) 오기이며, 674년이다.



[제90도] 동당간지주  
(후지시마 촬영 1926.4)



[제91도] 미륵사 서탑(동쪽에서)  
(무라카미 덴코村上天紅 촬영)



[제92도] 서탑 초층 상세  
(동면, 북쪽을 바라보고)  
(후지시마 촬영 1928.8)



[제93도] 서탑 사우 석조(동남쪽)  
(후지시마 촬영 1928.8)

## 제2항 주요 가람지

새 도로에서 동쪽의 개천을 따라 금마산(용화산 또는 기운산)을 바라보며 북북서 방향으로 590척(옛 도로에서 690척) 떨어져 당간지주가 있는데, 동서로 294척 떨어져서 두 개의 당간지주가 있다. 서쪽 것은 유려한 안상이 새겨진 기단에 서 있고, 높이 약 13척이다. 현재는 기단 대부분이 진흙 속에 묻혀 있고 전체적으로는 무너질 위험이 있는 상태이다. 동쪽 것은 기단이 흙 속에 매몰되어 있지만 곳곳하게 바로 서 있다. 간단하면 서도 강렬한 느낌의 주변 테두리를 갖는 신라시대 당간지주 중에서도 수작에 속한다.

또한 북쪽으로 222척 올라가면 318척 간격을 두고 서쪽에 대석탑, 동쪽으로는 탑지가 있다. 그 북쪽으로 105척 떨어져서, 동서 306척 간격을 두고 건물지가 있다.

여기에서 부락까지 약 540척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한 면의 논이 펼쳐져 있는데, 군데군데 기와편이 발견되었지만 특별한 건물지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이 주요 가람지라고 할 수 있지만 동쪽 탑지를 동탑원東塔院이라고 하고 서쪽 대석탑 및 건물지를 서탑원西塔院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 제3항 서탑(즉 대석탑, 미륵사 석탑)

이 탑은 이미 아주 유명하며 세키노 박사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조사 보고가 있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에서는 필요한 항목만을 언급하기로 한다.<sup>11)</sup>

본 탑은 이미 『여지승람』에서 '석탑이 있는데 매우 크고 높이는 여러 장에 이른다. 동방의 석탑 중 가장 크다'라고 특기한 바 있듯이 조선 석탑 중 최대의 규모로 걸출하고 웅장한 형상 또한 조선 탑 중에서 최우수작의 하나라고 할 만하고, 건축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실사례이다.

이 탑은 결실되어 현재는 동쪽 면이 가장 잘 남아 있고, 겨우 6층까지만 확인되며, 다른 세 면 중에서도 특히 서쪽은 붕괴가 심해 세키노 박사가 조사했던 때에는 달걀을 쌓아 놓은 것처럼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급히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 현재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로 굳혀 놓았다. 따라서 외관이 심하게 훼손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붕괴된 부분의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콘크리트 아래에 묻혀있기 때문에 탑의 복원에 대해서 궁리해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를 잃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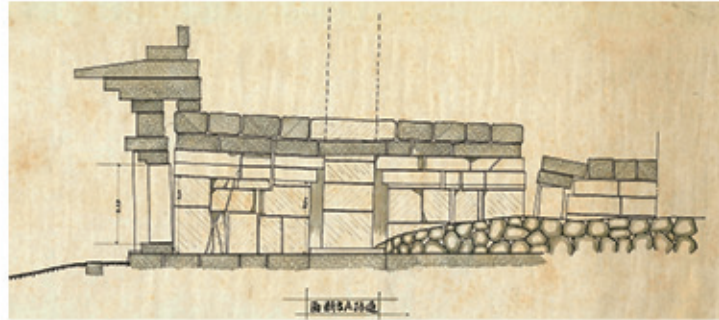
1층 평면은 대략 정방형으로 동변의 길이는 27.18척(조선총독부 토목부 조사, 이하 『토목

11) 關野博士, 『新羅時代の建築』, 『建築雜誌』第307號,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중 谷井濟一氏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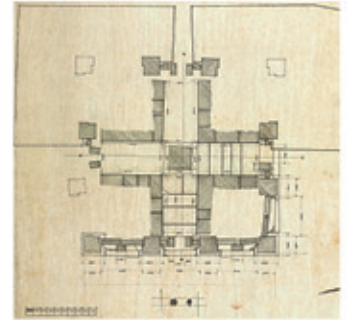




[제94도] 미륵사 서탑 동측 입면도  
(조선총독부 실측)



[제95도] 미륵사 서탑 단면도  
(조선총독부 실측)



[제96도] 미륵사 서탑 평면도  
(조선총독부 실측)

부」라고 기록함)(세키노 박사에 의하면 27.33척)(야쓰이 씨에 의하면 27.3척)이고, 2.45척 정도의 각주가 있어서 있으며, 각 변을 세 칸으로 나누어 좌우 칸은 석벽으로 채웠고, 중앙에는 소형의 각주를 더해 중앙에 입구를 만들어 내부로 통하도록 하였다. 이 통로는 평면에서 십자형으로 교차하고, 교차점에는 3.29척 정도의 방형석주(方形石柱)가 있다. 즉 이 탑의 찰주이다. 이 기둥은 1층 위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단면도에 의하면 적어도 이 바로 위에 방형 공간이 있거나 또는 이 이상에는 목제 찰주가 세워져 상륜부 밑면까지 이어지고, 상륜은 목조탑과 완전히 동일하게 금속으로 감싸여 있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수리로 인해 그 유물이 콘크리트 아래에 묻혀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입면 1층 기둥은 초석 위에 세워져 있고 높이 6.78척으로 횡부재에 걸쳐 있다. 포벽(包壁)을 올리고 다시 3단의 옥개받침석을 구성하였다. 그 위로 처마가 있는 얇은 옥개석을 올렸다. 처마 지붕곡은 처마 끝으로 갈수록 양곡이 심해지고, 지붕의 물매(기울기)는 약하다. 그 위로 2층을 올렸다.

2층 이상은 모두 동일하여 4면이 3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일한 수법이다. 단지 처마 높이는 1층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처마 깊이 등 상층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한다. 6층의 처마 끝단까지 현재 남아 있다. 총 높이는 대략 37척 정도이다.

이와 같이 이 탑은 목탑 형식을 돌을 사용하여 모방한 것으로 당시 목탑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이 탑의 연구는 실로 중요하다. 이 탑에 대한 부가 사항은 복원론(제 4절)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 제4항 서금당지

서탑 중심에서 북쪽으로 105척 떨어진 논 속에 서금당지가 있다. 초석 20개가 남아 있어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당우(堂宇)였음을 알 수 있다. 도리(정면)방향으로 42척 보(측면)방향으로 30.7척이다. 기둥 간격은 거의 동일하고 실측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략 8, 9척 정도이지만 측면 2칸만 7.4척으로 되어 있다. 초석의 형상이 특이하여 다른 사례가 없다. 먼저 초석 아래 4평방척의 정방형 화강암 판석을 깔았고, 초석은 2.5평방척( $m^2$ )에 높이 2.85척이다. 그 위에 높이 4.5촌 직경 1.8척 정도로 원형관이 돌출되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의 초석은 다른 곳에는 없다. 원래 조선시대의 건축은 이 형식에서 더 높게 팔각기둥으로 만들어 나무 기둥에 절반 정도를 차지하도록 구성하거나 경회루와 같이 누각 아래를 거의 석주로만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조선시대 건축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라시대 사지에서 이러한 경



[제97도] 서금당지(남쪽 방향에서)  
(후지시마 촬영 1926.4)



[제98도] 동탑지(동금당지에서)  
(후지시마 촬영 1928.8)



[제99도] 동금당지(서반, 남에서)  
(후지시마 촬영 1928.8)



[제100도] 중강당지 추정(동남에서)  
(후지시마 촬영 1928.8)

우는 특수한 사례에 속한다. 이 초석을 창건 당시의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초석의 조각 방식 등으로 볼 때 다소 의문이였다. 그러나 이를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더라도 조선시대까지 이 사찰이 존속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초석은 고려시대에 건물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설치했던 것으로 석주의 시초는 고려시대라고 인정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초석 아래의 판석은 모두 마루의 대용으로 사용되었다고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석 사이 지면에도 판석이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초석에 대한 현재 또 다른 가정은 이 장대한 초석 위로 판마루가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초석 측면에 무엇인가 맞춤을 위한 홈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지금 당장 그렇게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제5항 동탑원

동탑원은 서탑원과 정대청 관계에 있다. 동일하게 동탑지와 동금당지가 있고, 상호간의 거리와 규모도 또한 일치한다. 동탑지에는 현재 토단만 남아 있고, 석탑이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흔적이 없으므로 동탑은 목조탑이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된다.

금당지는 논 가운데 있고 초석에는 불에 탄 흔적이 명확하므로 화재로 붕괴되었고, 마찬가지로 20개의 초석이 남아 있다. 동일하게 정면 5칸 측면 4칸의 건물로 도리방향 42척, 보방향 31척이다. 따라서 그 규모도 서금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금당은 창건 당시의 건물이 일찍 무너져 서탑원 만이 석탑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서금당은 고려시대에 초석을 교체하였다고 하지만 옛 것을 개축한 것이므로 그 평면은 창건 당시의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제6항 후방 사찰 영역

건물지에서 540척 북쪽으로 높이는 5척 정도 올라가면 마을이 시작된다. 정확히 동탑원의 축선과 마을이 만나는 마을 입구에서 6개의 초석이 남북으로 3개씩 2열로 배치되어 있어 어떠한 건물지였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동서 약 100척으로 측정되지만 돌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 혹은 중탑원의 주요 건물지(아마도 강당)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 북쪽으로 약 80척 떨어진 길 위에 5개의 초석이 있고,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70척 떨어진 지점에 대규모의 거석이 하나 있다. 길이 약 15척이고 단면은 방형의 한쪽 면을 경사지게 잘라 낸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으며, 높이는 약 4척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놓았다. 뚫은 흔적이 명확한데 미완성이다. 이 북동쪽에 초석 5개가 잔존한다. 그 북동쪽으로 40척 떨어져서 개천이 있는데, 여기에 건축용 석재가 2개 있다. 철재를 꽃았을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있고, 좁은 석재로 초석 형태의 무엇인가를 조각한 점 등으로 보아 북문의 석재인 듯하다. 개천을 건너면 대나무 숲이 나온다. 그 북쪽은 산세가 시작되어 경사가 급하고 사찰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마을 입구에서 개천까지 700척이다.

마을이 생기고 마을 사람들이 빈번히 사찰지 석재를 사용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건물지 등도 완전히 불분명해졌다는 점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 제4절 복원론

### 제1항 총론

이상의 현상을 보아도 이 사찰은 다른 사찰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저자는 사찰지에 대하여 동탑원, 서탑원 그리고 중탑원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이유는 동탑원과 서탑원이 동서로 동일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양쪽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 독립성을 갖는 것, 그리고 특히 『삼국유사』에서 이른바 ‘이육고 미륵삼존을 법상으로 삼고 전·탑·낭무 각 세 곳을 창건하였다.’라고 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이다. 즉 미륵삼존의 출현지에 각각 하나의 가람을 건설하여 전, 탑, 회랑을 갖추었다고 하므로, 동탑원 및 서탑원은 각 협시불의 가람이 된다. 이 전설은 정말 사실일 것이라고 저자는 믿는다. 현재 유적지가 명확하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중존 미륵불을 위한 중탑원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기에 아마도 마을 입구의 건물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 이렇게 통상의 사찰 가람과 동일한 규모의 가람이 3개소 조영되었다는 것은 그 가람의 전체규모가 어떠했을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양쪽 탑원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동탑원을 거론하여 논하고자 한다. 탑과 금당의 중심거리는 105척, 탑의 크기는 27.33척, 금당 정면 42척, 측면 30.7척이다. 그 배치는 건물과 탑이 남북으로 늘어 서 있는 것은 경주 황룡사 및 나니와難波 사천왕사와 같고 소위 백제양식의 칠당가람百濟樣七堂伽藍의 형식이다. 크기는 동탑원이 사천왕사나 법룡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서 그 크기를 비교해 놓았다.

	탑, 금당 중심거리	탑 크기	금당 정면	금당 측면
익산 미륵사	105척	27.33척	42척	30.7척
나니와 사천왕사 (四天王寺建築論 참조)	99.96척	23.52척	54.1척	42.34척
아스카 법룡사 (法隆寺建築論 참조)	103척	21.15척	45.9척	35.3척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세 사찰은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룡사와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갖는다. 만약 법룡사 가람을 90도 회전하면 거의 익산 미륵사와 동일해 지는 것이다. 탑은 오히려 익산의 탑이 더 크지만, 실제 쌓여 있는 것에 의한 것으로 만약 석주의 중심 거리를 취한다면 25척 정도인데 그래도 여전히 사천왕사보다도 큰 치수이다. 이를 통해 얼마나 큰 석탑인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륵사는 하나의 탑원조차도 법룡사에 비견될 정도로 대가람이고, 그중 중탑원은 황룡사에 비견될 정도의 대가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대규모의 가람은 일본, 중국, 한국을 통틀어 다른 곳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제101도] 거가공석  
(후지시마 촬영 1928.8)

## 제2항 동탑원 사용척도에 대하여

우선 초창 당시에 사용한 척도에 대하여 논해보자. 이를 위해 당탑의 중심거리를 보면

	현재 척도	동위척	당척
탑에서 금당 중심까지의 거리	105	89.2	107.14
탑에서 당간지주 중심까지의 거리	222	188.7	226.73
두 금당 중심 간 거리	306	260.2	312.2
두 당간지주 중심 간 거리	294	250	300.0
두 탑 중심 간 거리	327	277.9	333.87

위와 같고, 어떤 것도 명확히 겹치지 않는다. 특히 양쪽 당간지주 간 거리는 동위척東魏尺의 경우 250척이고 당척唐尺은 300척으로 딱 떨어지는 치수이다. 또 참고자료로 기재한 옛 도로(신 도로에서 남쪽으로 100척)에서의 거리와 마을 입구에서의 거리를 측정하면

	현재 척도	동위척	당척
옛 도로에서 당간지주까지	690	586.7	704.1
마을입구에서 금당 중심까지	540	459.1	551.0
옛 도로(남대문)에서 마을 입구(중탑원 강당)까지	1557	1324	1588
도로에서 북문까지(사찰영역 남북)	2259	2188.6	2625.97

위와 같다. 결국 이것만을 가지고는 척도가 어떠하다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대로 보류하고 탑의 각 부분에 대하여 그 비교를 해 보면

	현재 척도	동위척	당척
동측면 1층 복단 기둥 두께	2.53	2.151	2.582
동측면 1층 복단 기둥 높이	6.75	5.739	6.888
1층 기둥 중심거리	24.77	21.063	25.26
1층 남단 기둥 두께	2.35	1.98	2.28
두 탑 중심간 거리	2.43	2.07	2.48
1층 창방부재 높이	0.87	0.74	0.89
1층 포벽의 높이	1.71	1.45	1.74
1층 처마 높이	11.91	10.13	12.15
2층 높이	6.3	5.36	6.43
1층 지붕폭	35.11	29.86	35.83
2층 기둥 높이	2.25	1.91	2.29
3층 기둥 높이	1.88	1.60	1.92

다음과 같고 이를 통해서 보아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서금당에 대해서는,

	1	2	3	4	5	전장	동위척	당척
도리방향(동측면)	7.7	8.9	8.9	9.0	7.5	42	35.7	42.9
보방향(남측면)	8.0	7.4	7.4	7.9		30.7	26.1	31.3



결국 이 건물이 동위적인지 당척적인지는 현상만 가지고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금당에 만약 당척을 적용했다고 하면

도리방향 전장 43척(8+9+9+9+8)척 / 보방향 전장 31척(8+7.5+7.5+8)척 일 것이다. 보방향의 측면 칸 중 중앙 칸이 다른 칸보다 다소 좁은 것은 조선 건축의 특징인데, 동금당이나 서금당도 이 형식인 것은 자연히 그 발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혹은 또 전혀 다른 척도가 사용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당척이므로 여기서는 잠시 이 척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범룡사 가람과 크기에 있어서 각 탑원과 거의 비슷하므로 그 회랑도 비슷한 길이를 갖지 않았을까 한다. 이 추정에 의해 판단한 것이 [제102도]이다.

### 제3항 복원 추정 설명

당간지주간 거리는 당척으로 300척이다. 금당간 거리 또한 대략 동일하다. 이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동서로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일 뿐 당초 계획은 300척을 표준으로 했던 듯하다. 이는 동서 양 탑원의 가람 중심축 거리로 가장 기본적인 수치이다. 따라서 이를 사찰지 구획 단위로 하면, 동서로 한 단위씩 합해서 세 단위로 마치 산 사이의 평지를 꼭 채우게 되었다. 즉 900 내지 1,000척이 동서 경계의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남북구획에 관해서는 당탑간 거리 107척이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탑이 기준선 상에 있고 중심이 되도록 치수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범룡사 가람의 크기에 맞추어서 각 탑원 회랑 길이는 동서로 200척, 남북으로 300척이라고 가정하면 양 탑원 사이에 폭 100척의 공간이 남는다. 이것이 중탑원에 이르는 중앙참배도中央參詣道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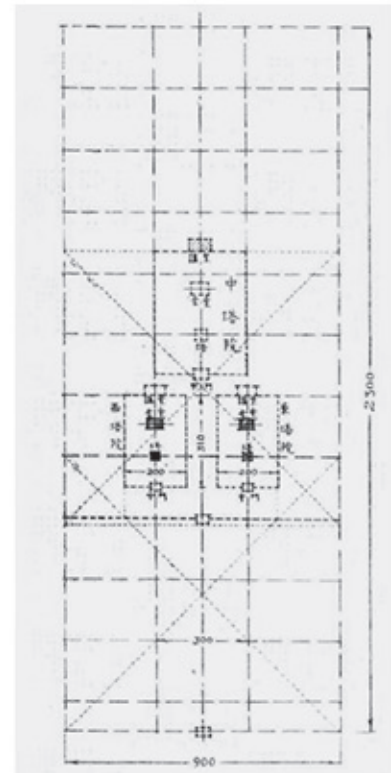
탑에서 당간지주까지의 거리는 약 227척, 그리고 탑에서 약 200척 남쪽, 중문에서 약 100척 남쪽에 담을 설치하고 중앙에 하나의 문을 설치하였다고 가정하여 남대문南大門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앞에 동서로 당간지주가 양립兩立했다고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바깥은 사찰지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약 700척 남쪽으로 주택지가 있는데 옛 도로에 접하여 있으므로 혹은 여기에 총문總門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 구역을 사전지寺前地라고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남대문을 지나 중탑원에 도달하는 오솔길이 하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거의 참배도參詣道가 남아 있는 흔적일 것이다. 이 길을 따라서 북쪽을 바라보면 금마산<sup>12</sup> 정상이 눈에 들어온다. 가람이 20° 북동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도 이 산정상을 바라보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숭고한 산악을 정복으로 두고 사찰을 세우는 기법은 가람을 보다 숭엄崇嚴하는 것으로 조선의 사찰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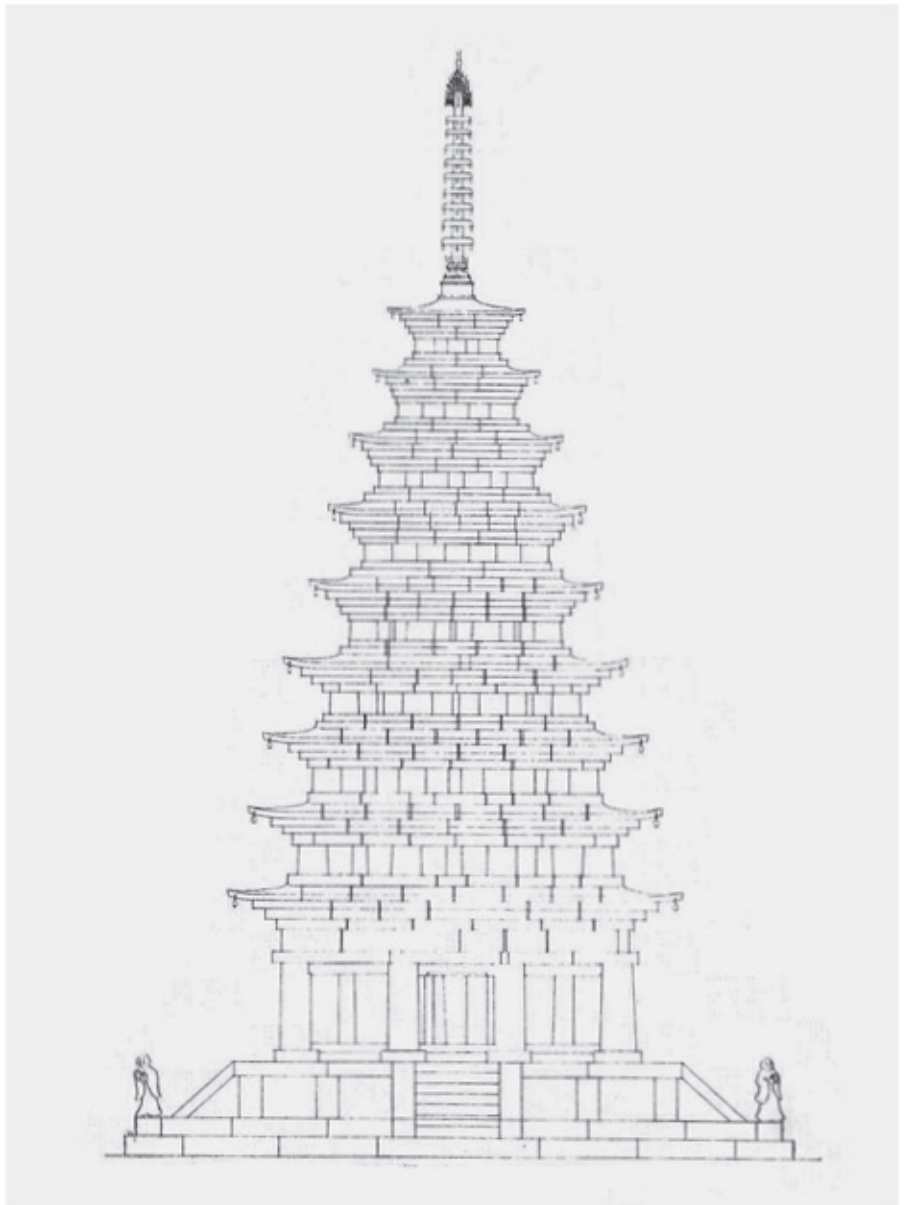
### 중탑원

남대문을 들어가 동탑원과 서탑원의 사이를 지나면 중탑원에 도달한다. 주요 본존 미륵불이 안치된 가람이다. 강당지 비슷한 것이 마을 입구에 있고, 동서로 100척에 달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미루어 보건대 중탑원은 대략 황룡사 정도의 규모를 갖는 것은 아닐까? 따라서 가람은 동서로 약 300척이고, 남북으로는 400척이라고 가정하여 위 그림[제103도]과 같은 가람을 가상으로 작성하였다.



[제102도] 미륵사 추측 복원도  
숫자는 동위척 (후지시마 제도 1930.5.4)

12) 미륵산의 오기로 추정된다.



[제103도] 익산 미륵사 서탑 복원도(서쪽면, 후지시마 가이지로 복원 및 제도 1928.9)

당간지주에서 중탑원 강당까지의 남북은 정확히 900척이다. 즉 한 변이 900척인 정방형의 사찰 영역 안에 세 개의 탑원을 배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 뒤로 700척 떨어져서 북문이 있다.

따라서 추정하건대 사찰지 남북으로 2,300척, 중앙에 900×900척 규모의 주요 가람지가 들어서고 전후를 승방 건립지로 사용하였으며, 또 주요 가람지를 남북으로 나누어 북쪽은 중탑원, 남쪽은 동서로 삼분하여 동탑원 및 서탑원을 배치했던 것은 아닐까?

#### 제4항 서탑의 복원

서탑은 제 6층까지 가까스로 남아있으며 정확한 전체 형태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람에 따라 이를 7층이라고도 하고 9층이라고도 한다. 저자는 조선총독부 토목부가 작성했던 실측도에 의해 균형상 이를 9층 탑파로 보고 복원을 시도하였



다. 조금이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이를 언급하고자 한다. 상륜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조 찰주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보통의 목탑 상륜과 동일하게 표현하였다.

세부는 논의로 하고 대체적인 균형에 대해 알아보자. 그 얼마나 굳건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지붕의 양곡, 처마의 두께 등에서 우리의 약사사(藥師寺) 동탑과 공통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륵사 서탑	황룡사탑
총 높이	76.97척 = 약 80 당척	225척
탑신 총 높이	57.67척 = 약 60 당척	183척
상륜 길이	19.3척 = 약 20 당척	42척
총 높이와 1층 높이의 비율	2.82	3.57
총 높이와 상륜 길이의 비율	0.25	0.19

이 비율에 의하면 황룡사탑은 미륵사 석탑의 약 세 배 크기로 계획되었다. 비례가 다른 것은 목탑과 석탑의 차이라고 추정된다.

## 제5절 결론

이 사찰은 이렇듯 간단하면서도 정연한 사찰 배치법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 균형감도 훌륭하며 사방의 웅대한 풍경을 고려한 점도 반도에서 비할 곳이 없는 가람을 출현시킨 것이다. 서탑과 같이 반도에서 가장 큰 대석탑이 탄생한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찰이 결코 개인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필시 지배자의 권세와 재력에 의해 건설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이 사찰이 처음 창건되었던 연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척도는 당척을 적용해 보았지만 동위척을 적용해도 자연수 척도로 측정되므로 건조 연대로 보면 이 방법이 정당할지도 모른다. 가람배치법은 단순한 백제식 가람법이다. 그 규모는 매우 범룡사와 닮아 있다.

이상으로 보면 가령 서탑은 (통일)신라 초기의 것이고 세키노 박사가 언급한 것처럼 안승왕의 조영이라고 하여도, 창건 연대는 백제 무강왕의 연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즉 백제 사찰건축의 계획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백제양식 칠당가람의 정통 계열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익산군은 일본에서 백제 왕경 부여에 이르는 도중에 있는 요충지이다. 여기에서 산맥 하나를 넘으면 왕경이다. 이를 통해 보면 백제시대에도 상당한 요지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마한의 도읍지이기도 하다.

이 사찰을 단순히 신라초기 사찰이라고 넘겨짚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바이다.

今西龍, 1934, 『全羅北道西部地方旅行雜記』, 『百濟史研究』.

이 글은 일본에서 ‘조선사학의 개척자’라 불리어온 이마니시가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익산 등 전라북도 서부 지역을 여행하며 작성한 수기에 가까운 글이다.<sup>1</sup> 이 글은 1929년부터 30년까지 잡지 『문교의 조선文敎朝鮮文敎の朝鮮』에 6차례에 걸쳐 게재되었고, 이마니시 사후 1934년 그의 연구를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발간한 『백제사연구百濟史研究』에 재수록되었다.<sup>2</sup> 익산에서는 금마金馬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용화산성(미륵산성), 사자사, 미륵사지 석탑과 당간지주, 傳 왕궁지 석탑 제석사, 궁평, 오금산 전설, 석인, 서동전설, 쌍룡 무장왕 등의 정보를 장장 50여 쪽에 걸쳐 정리하였다.

비록 그의 학문적 시각에는 식민주의가 깔려있었지만 당시까지 전해 내려오던 전승과 본인의 답사 내용을 전달자의 입장에서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거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록에 보이지 않았던 전승을 채록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관찰된다.<sup>3</sup>

## 제7장 익산군(금마)

1) 도쿄제국대학 재학시절의 이마니시는 고고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의 지도교원이던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의 영향으로 조선사를 전공하였다. 1916년에 그의 인생은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여 조선총독부가 기획하던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에 촉탁으로 임명되어 본격적으로 식민지조선의 역사서 편찬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1922년 ‘조선사편찬위원회’, 1925년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 편찬사업에서 고대사 부분의 기술을 맡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심화찬, 2013,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 -이마니시 류가 구축한 조선의 歷史像』, 『한국사학사학보』 28, 286~288쪽.)

2) 『文敎の朝鮮』 45·46·58·60·61·63호(1929년 5, 6월 / 1930년 6, 8, 9, 11월)

3) 그는 저작 대부분에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계몽주의적 시선에 입각해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할 사람들”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 글에서도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가령 자신(일본)들은 미륵사지 석탑에 대해 보존공사를 멋지게 실시하였는데 수리된 다음에는 조선인들이 물건을 버리고, 낙서를 하는 모습들이 정말 기분이 나쁘다는 언급이 그러하다. 또한 자신들의 식민 등치에 대한 정당성을 기반으로 조선의 풍습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내용에서 자기들의 문명성과 대비된 야만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今西龍(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역), 2008, 『신라사 연구』, 서경문화사, 500쪽).

4) 金馬郡 本百濟金馬渚郡 景德王改名 今因之領縣三

5) 金馬郡本馬韓國(後朝鮮王箕子 避衛滿之浮海而南 至韓地開國 號馬韓) 百濟始祖溫祖王并之 自後號金馬渚 新羅景德王 改今名 至高麗 屬于完山州 忠惠王後五年 以元順帝奇皇后外鄉 陞爲益州 有彌勒山石城

6) 이마니시가 수정한 부분의 고려사 원문은 ‘來屬’이다. 이마니시는 경덕왕 때 지명에 따라 원문을 ‘屬于完山州’로 수정하였다.

7) 本朝 太宗13年, 例改今名爲君

익산군은 대정3년(1914) 구 익산군과 여산군·용안군·함열군(남이면 내 3리를 제외), 임피군(동이면 내 1리를 제외)을 병합하여 1개 군으로 하고 군치郡治를 신설하였다. 구 익산 군치 소재지는 지금 금마면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곳에서 내가 본 지역은 지금의 금마면 부근이므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익산군은 예전 금마군이라 불렸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금마군은 본래 백제의 금마저군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오늘날까지 그대로 따른다. 영현縣은 3개이다.’<sup>4</sup> 라고 하였고 오늘날이라 함은 고려시대 인종 대를 칭한다. 『고려사』 지리지에는 ‘금마군은 본래 마한국이다. (후조선의 왕 기준이 위만衛滿의 난을 피해 남쪽 바닷길로 왔는데, 한의 땅에 이르러 개국하고 마한이라 불렀다.)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이 병합한 후 금마저라고 불렀다. 신라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에 이르러 완산주에 소속시켰다. 충혜왕 5년에 원元 순제順帝 기황후奇皇后의 외향이라 하여, 승격시켜 익주가 되었다. 미륵산석성彌勒山石城이 있다.’<sup>5</sup> 라고 기록하였다. (완산주라는 글자는 원문을 내가 조금 고쳐 쓴 부분이다.)<sup>6</sup>

『여지승람』의 기사에서는 조선시대의 연혁을 덧붙여 ‘본조 태종太宗 13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군으로 만들었다.’<sup>7</sup> 고 하여 익주를 익산으로 고쳤다고 기록하였다. 또 경덕왕은 신문왕이라고 정정하였다. (지명 개칭의 원인은 태종 13년에 도호부 이하의 자격을 갖는 군현의 명칭에 주자자가 있으면 이를 대신하여 山이나 川자로 바꾸고, 주자가 붙는 것은 주나 목의 자격을 갖는 지역의 지명으로 한정한다고 하였다.) 『고려사』 지리지, 『여지승람』 모두 기준왕에 대한 설을 기록하고 있지만, 권람의 양촌陽村 『웅제시주應製詩註』에는 마한에 대하여 적기를 ‘마한은 지금의 전라도 지역에 해당한다. 후조선의 왕 기준이 위만의 난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왔다. 금마군에 이르러 개국하여 마한이라 칭하고 52소국을 통치하였다. 사군이부四郡二府 때를 지나 백제 시조 온조왕 26년에 이르러 이를 병합하였다. 군을 본래 금마저라 하였다. 또 익주라고 칭하였다. 미륵산석성이 있는데 전하는 말에는 기준이 쌓기 시작하였다고 하여 기준성이라고 일컫는



다고 한다'<sup>8</sup> 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기준이 금마군에 옮겨와서 마한국을 세웠다는 기록은 적지 않다. 이 설을 누가 만들어 낸 것인지 아직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고려 말부터 조선 초 무렵에 생겨난 것으로, 이것이 결국 일반인들에게 사실로 인식되어 고사古史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이 설을 답습하여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다.

옛 익산 지방이 백제시대에 금마 또는 금마저라고 불린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명칭에서 추정하건대 모든 선학들이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 지역은 마한 50여 국 중 하나인 건마국乾馬國 지역이었다. 따라서 마한을 구성하는 여러 국 중 한 국가의 도읍이었던 것에는 이론이 있을 리 없지만 이를 곧바로 마한 대왕의 도읍지였다고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한이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였는지는 의심스러운 사실이고, 또 가령 그러하다 하여도 이 왕도를 금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기준이 금마 땅으로 건너와서 왕국을 건설하였다는 것은 고문헌에는 보이지 않고, 또 어떠한 증거도 없는 일이다. 서기 3세기에 작성된 진수의 『삼국지』 한전韓傳에는 '마한은 50여 소국으로 나뉘어 있고, 풍습에 기강이 부족하고 국읍에 수장이 있다 해도 율락에 잡거하여 제대로 제어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열거한 50여 국 가운데 백제百濟 즉 백제百濟나 건마乾馬 등이 있다. 그러므로 마한을 통일한 왕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적어도 백제왕이나 건마왕은 마한국왕은 아니었다. 이 글에서 기준에 대해서는 '준은 이미 참호參號하여 조선왕이라고 칭하였다. 멸망한 연나라 사람인 위만의 공격을 받아 그 좌우에 궁인을 거느리고 도망하여 바다로 나가 한지韓地에 살았고, 스스로 한왕이라 칭하였다가 그 뒤로 절멸하였다. 지금도 한인은 여전히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인에 대한 기록 뒤에 有와 耆라는 두 자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지금 한인 가운데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다'<sup>9</sup> 라고 적혀 있지 '지금 한인들이 여전히 제사를 지낸다'<sup>10</sup>라고는 적혀 있지 않으므로 한인 가운데 일부가 그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한인은 삼한三韓의 소국 중 어느 한 두 국가라고 해석해도 무방하지만, 또한 위씨 조선을 거쳐 낙랑군 당시까지 남아서 기자의 자손이라고 자칭하던 한인韓人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예부터 소위 만이蠻夷가 중국 문화를 조금씩 받아들여 명현名賢의 자손이라고 칭하거나 불리게 된 것으로 일본에서도 산 속에 다이라平氏 일가의 후손이 생겨난 것과 동일한 심리 상태이다. 『삼국지』에 기록된 바는 전술한 바와 같지만, 『후한서』에서 보면 이와 조금 다르다. 여기서 주의해야만 하는 것은 『후한서』는 『삼국지』에 기록된 것보다 한 시대 이전 후한의 일을 기록한 서적이지만 『삼국지』가 저술되고 나서 약 200년 뒤인 유송劉宋 시대에 편찬되었으며, 『후한서』 동이전은 『삼국지』나 『삼국지』가 참고자료로 활용한 어환魚豢의 『위략魏略』을 채록한 것으로서 『삼국지』 동이전의 윤색 또는 초략이라고 할 수 있어서,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비중을 두지 않는 역사책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 동이전은 매우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처음 조선왕 준은 위씨에게 패하여 이속고 그 남은 무리 수천을 이끌고 도망쳐 바다로 나가 마한을 공격하였고, 이들을 부수고 자립하여 한왕이 되었다. 준 이후로는 절멸하였고, 한인이 자립하여 진왕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삼국지』에는 '한지에 들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한서』에는 '마한에 들다'라고 적혀 있다. 기준이 해로로 한지에 들어간 것을 사실로 가정하면 그 지역은 지리상으로 추정하건대 마한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지점이 건마, 즉 익산이라는 것은 고사 기록에는 적혀 남아 있지 않다. 또 『삼국지』에는 진한만을 옛 진국辰國이라고 하였는데, 『후한서』에는 마馬·변弁·진辰의 삼한이 모

8) 馬韓即今全羅道界 後朝鮮王箕準避衛滿之亂 浮海以南至金馬郡 開國號馬韓 今益山郡所統小國五十二 歷四郡二府之時 至百濟始祖溫祚王二十六年并之 郡本稱金馬潛 又稱益州 有彌勒山石城 謠傳箕準時築 古謂之箕準城

9)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

10) 今韓人猶奉其祭祀

두 옛 진국이라고 기록하였고, 기씨가 멸망한 뒤에 마한인이 자립하여 진왕이 되었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후한서』에 의하면 적어도 마한은 진왕에 의해 통치되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진국이나 진왕 등의 문제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편의 논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본인의 현재 연구 수준으로는 결국 이도 저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될 따름이다. 따라서 여기서 멈추고 진왕이라는 자는 마한 50여 국 중 하나인 월지국月支國(『후한서』에는 목지국目支國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이미 당나라 때의 『후한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다.)에서 통치했다고 되어 있으므로 가령 마한이 진왕에 의해 통일되었다고 하여도 그 마한왕의 도움은 건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이 외에 백제가 일시라도 건마에 도움을 정했다는 속설도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주절주절 논하는 것은 그만두고자 한다. 요컨대 일체의 잘못된 전설은 기준이 마한에 들었다고 『후한서』에 있는 것을 마한의 금마군에 들었다고 오역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익산이 마한시대에는 건마국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논조로부터 너무 벗어나서 여행 잡기의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서술하였다. 계속하면 끝이 없으므로 여기서 생략하고자 한다.

금마에는 고대 유물과 유적이 많다. 고구려가 멸망했기 때문에 신라 문무왕은 고구려 왕족인 안승을 이 땅에 봉하고 작은 고구려 왕국을 십 수년간 존속하였는데, 그 기간의 유물·유적은 제외하여도 따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백제시대에 특별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 땅의 형세는 전북 대평야에 인접하여 멀리 전남을 제압하였고, 뒤로는 지탱해 줄 수 있는 산세가 있으며, 북으로는 금강에 가까워 충청으로 이어진다. 읍 북쪽으로 1리 떨어진 곳에 미륵산, 일명 용화산이 있는데 표고 430m이고, 이 산의 동쪽으로 나란히 표고 307m의 산과 표고 156m의 고갯마루가 연이어 솟아 있다. 지역의 어떤 사람은 이 산을 용화산이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착각으로 이 산에는 이름이 없는 것 같다. 용화산 즉 미륵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읍 뒤로는 100m 정도의 언덕이 있는데, 이 산이 금마산이고, 읍 서쪽으로 128m 높이에 위치한 것이 보덕산성이다. 기타 낮고 평평한 언덕이 대지를 이루며 이리평야 북쪽으로 이어진다. 미륵산에서 북쪽 군산방면으로 남쪽에 언덕이 이어지는 것도 또한 낮아서 대지를 이루는 정도에 그친다. 지금 익산읍은 하나의 촌락을 이루며 외롭게 남아 있다.

#### 제1. 용화산성(일명 미륵산성)

이 산성은 예로부터 유명한 것으로 『승람』에 ‘용화산은 군 북쪽 8리 떨어진 곳에 있고, 일명 미륵산이라 한다’<sup>11)</sup> 라고 하였고 또 ‘기준성은 용화산 위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기준<sub>箕準</sub>이 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석축 둘레는 3천 9백 자이고 높이는 8자이다. 시내와 우물이 있다’<sup>12)</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용화산은 이미 기슭한 것처럼 언덕 사이에 우뚝 솟아 있다. 본인이 서남쪽 기슭에서 산으로 올라가 보았지만 등산하기 좋지 못하였고 남쪽에서 오르는 것이 좋았다. 둘 다 사자암을 통과한다.

성벽은 산 최고봉(표고 430m)을 감싸고 계곡을 끼고 동쪽으로 내려가며 구축되어 있다. 정문은 동쪽인 듯하다. 이 높은 봉우리는 대지<sub>臺地</sub>의 형상을 이루어 넓게 펼쳐져 있다. 『문헌비고』에 ‘남쪽을 용화산이라 부르는데, 그 위에 기준 고성이 있다. 남쪽에 장군봉이 있는데, 구멍이 있어 기름 몇 말을 담을 수 있으므로 속칭 등잔암이라 한다.’<sup>13)</sup>

11) 龍華山在郡北八里一名彌勒山

12) 箕準城在龍華山上 俗傳箕準所築 故名蕭石築周三千九百尺 高八尺 有溪有泉井



라고 하였는데, 장군봉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산성은 십 수년 전에 세키노 박사가 총독부 고적조사원으로서 조사하여 『조선고적도보』로 정리되었는데 당시에는 성 내외가 낮은 초원이었기 때문에 전경이 잘 찍혀 있다. 그러나 그 때부터 십 수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소나무가 무성히 자라서 전망이 좋지 못하다. 풀이 뻗뻗해서 성벽 일부를 사진 찍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이 산성의 축조 연대는 백제일지도 모르지만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기준이 축조했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이 땅에 도읍을 정하고 마한왕이 되었다고 하는 속설에서 비롯된 전설이므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성내의 장군봉에서 북쪽을 조망하면 정북 1리 정도의 언덕 위에 성지城址가 보인다. 육지측량부 1/50,000 지도와 맞추어 보면 이는 낭산 폐현지이다. 『승람』 여산군조에 따르면 ‘군의 서쪽 8리에 있다. 토성土城 옛터가 있는데, 둘레가 3천 9백 척이고, 안에 샘물이 두 군데 있다’<sup>14</sup>라고 한다.

## 제2. 사자사獅子寺

용화산 남쪽 산 정상 가까운 곳에 외롭게 있는 작은 사찰이다. 『여지승람』 익산군 불우佛宇조에 ‘사자산은 용화산 위에 있다. 양쪽에 바위가 벽처럼 서있고 굽어보면 땅이 보이지 않는다. 구불구불 이어진 바윗길을 움켜잡고 오르면 곧 지명이 머물던 곳이다’<sup>15</sup>라고 하였다. 지명知命은 서동 무강왕 전설에 나오는 백제의 승려로, 서동이 언덕처럼 쌓아 올린 황금을 그 청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신라의 궁중까지 옮겨놓았다고 하는 신승이다. 이 설화는 일본의 시기산信貴山 초고손시지朝護孫子寺 조사祖師 신력 전설과 유사한 것으로, 그 본래 유래는 중국 또는 인도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조사는 하지 않았다. ‘양쪽 바위가 벽처럼 서있다’는 표현은 좁은 사역의 서쪽 경계에 두 개의 거암이 있고, 장벽의 형태로 솟아 있어 그 사이를 겨우 몸을 통과시킬 정도의 틈이 있다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안쪽(※)과 동쪽은 암석 골짜기인데 통로가 없고 다만 남쪽이 뚫려 있어 급한 경사의 도로가 있다. 좁은 사역으로 추정하건대 예전의 사자사도 하나의 작은 암자였음이 분명하다.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저물어가는 대지의 여기저기에서 하나 둘 켜지는 불빛은 등잔인지 어선인지, 고지의 여름밤의 온화한 느낌은 기분을 좋게 해 주지만, 좁은 건물 속에는 어디에서 찾아왔는지 부랑자들과 게으른 학생들로 가득하다. 야심한 시각에 찾아오는 녀석도 있지만 함께 뒤섞여 잠을 자니 불쾌함을 넘어 한심하기만 하다. 특히 주의할 것은 중등학교 정도의 생도가 제복을 입고 찾아와서는 게으른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다. 산사에서 독서한다는 조선의 예로부터의 풍습으로 이곳에 와서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다. 이런 것이 청년 생도들의 특징인 모양이다. 나는 ‘여름 방학 중 절에 가 있었습니다’라고 생도가 말하는 것을 몇 번이고 들었다. 절에 가면 아마도 이런 생활을 하는 모양이다. 나는 실내에서 잘 수 없었으므로 골짜기 옆 축축한 느티나무 아래에서 어둠이 밝기를 기다렸다. 상상한 사자사의 1박과 실재는 차이가 심하게 컸다. 이 절은 명치明治 말년 폭도가 붕기하던 때에 하나의 거점이었으므로, 우리 육군에 의해 불타 없어졌던 것을 다시 재건한 것이라고 한다. 불타 사라진 건물은 지명이 건설한 평장한 건물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찰에 그런 건물이 가능했을까, 지명의 건축물이 남아있을 리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다.<sup>16</sup> 불타 사라진 건물도 현존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라는 사실은 남은 초석이나 기와를 보아도 명백하고, 그 사찰 내 생활도 비슷하리라는 것도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이전에 치안을 위해 불태워서 없앴 군인들의 행동은 정당하고 또 필요한 것이었

13) 益山彌勒山 南曰龍華 上有箕準古城 南有將軍峰 有窟可容油數斛 俗稱燈臺巖

14) 朗山廢縣 在郡西八里 有土城古基 周三千九百尺 內有二泉

15) 獅子庵 在龍華山上 兩庵如壁 府臨無地 石逕勾連 攀緣而升 乃知命所住處

16) 정미의병丁未義兵(1907) 시기 일본군의 초모화 작전으로 사자사가 소실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이를 난폭하다고 평가한 인쇄물을 본 적이 있지만, 그렇게 평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만 알고 반만 이해한 무리에 지나지 않다. 가능하다면 재건한 지금의 사찰도 철폐하는 편이 풍기를 위해 좋을 것이다. 이런 절이 없었다면 나는 풀로 덮인 사지寺址에서 옛 성승聖僧이 작은 방장에서 세속을 피해 불도를 행하는 면모를 그리워할 수 있었을 텐데, 『승람』에 의하면 미륵산에는 이 외에 심곡사, 장안사가 있지만 지금은 심곡사만 남아있다고 한다.

### 제3. 미륵사지 석탑彌勒寺址 石塔 및 당간지주석幢竿支柱石

미륵사지는 미륵산 남서쪽 산 아래 논밭 속에 있고, 연못을 매우고 건설하였다는 전설에 부합하는 지세를 갖는다. 석탑 앞에 수십 칸 떨어져서 당간지주 하나가 서 있고, 초석 여러 개가 남아 있어 과거의 장대함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석탑은 매우 거대한 것으로, 『승람』에 ‘탑이 있는데 매우 거대하다. 높이는 수십 척이고 동방의 석탑 중 가장 높다’<sup>17)</sup> 라고 적혀 있는 대로 동방 제일이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뒤쪽은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총독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보존공사를 시행하여 지금은 뒤쪽이 콘크리트로 굳혀져 있다. 이 석탑에 대해서는 『조선고적도보』 및 기타에서 세키노 박사 등의 조사 결과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수리 후 현재 탑 하부 공간은 절식자 숙박소라도 되었던 것인지 오이나 수박 껍질이 흩어져 있고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또한 낙서도 많아서 실로 불쾌함이 극도에 달했다. 지방의 자랑으로 삼을 만한 유물·유적 등이 지방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나는 보통학교 등에서 이것을 주의하고 보호하도록 학생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애항심 육성에도 효과가 있어 훈육 상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찰 및 석탑은 사비시대 백제왕조가 국력을 다하여 건립하였을 것이다. 다만 당간지주는 고려시대의 것일지도 모른다. 고려시대에는 또 장려한 과거의 면모가 사라진 듯하다. 조선시대가 되어서도 태종 7년 정해(황기皇記 2067년)에는 중신宗中韓宗의 명찰名刺로서 자복資福 사찰로 지정되었다. 『여지승람』에도 현존 사찰로 실려 있으므로 폐사된 것은 명백히 연산군 이후이다. 그 창설에 대하여 삼국유사는 백제 무왕이라고 하였고, 무왕에 대한 설명은 서동전설을 바탕으로 - 이 전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하고자 한다. - 즉 서동이 신라 진평왕의 딸을 왕비로 들이고 백제 왕위에 올랐다고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의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모름지기 이곳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그것을 허락했다. 지명법사에게 가서 못을 매울 일을 물으니 신비스러운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매우고 평지를 만들었다. 이에 미륵삼존을 법상法像으로 하여 전殿과 탑塔과 낭부廊廡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彌勒寺라고 하였다. (국사國史에서는 왕흥寺王興寺라고 했다. 진평왕이 여러 공인工人들을 보내서 이를 도왔는데 그 절은 지금도 남아 있다. 삼국사三國史에 이를 법왕法王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파부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자세히 알 수 없다.)<sup>18)</sup>

여기에서 ‘국사에서는 왕흥사라고 했다’라는 것은 서동을 무왕이라고 추정하여, 무

17) 有石塔極大 古數丈 東方石塔之最

18) 一日王與夫人欲幸師子寺至龍華山下大池邊 彌勒三尊出現池中 留駕致敬 夫人謂王曰 演劇大伽藍於此地 固所願也 王許之 詔知命所問填池事 以神力一夜填山填池為平地 乃法像彌勒三尊殿廊廡各三所創之 額曰彌勒寺(國史云王興寺 眞平王遣百工助之 至今存其寺 三國史云是法王之子 而此傳之獨女之未詳)



왕이 유명한 왕흥사를 창설하였다는 것이 『삼국사기』에 있으므로 왕이 창립한 미륵사를 바로 왕흥사라고 단정한 것으로 이 단정은 착오이다. 미륵사와 왕흥사 두 절을 모두 무왕이 창건했더라도 전혀 다른 사찰이다. 내가 부여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왕흥사는 왕도와 금강을 사이에 두고 강 서쪽으로 지금의 장암리 근처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익산 등에 있었을 리가 없다. 미륵사가 신라시대에도 특수한 거찰이었던 것은 『삼국사기』 신라 성덕왕 18년 조에 ‘가을 9월 금마군 미륵사에 벼락이 쳤다’<sup>19)</sup> 라고 특기한 것만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이 신라의 일대 국가적 사건이었다. 소요산遼山 연기사煙起寺 『사적기』에 의하면 백제의 효순왕(법왕)이 승려를 화엄사에 보낸 것, 무왕이 미륵사를 세운 것, 신라 김대성이 토함산 불국사를 세운 것이 불교계의 대사건이었다.

이 미륵사 탑은 백제시대 건조물이라고 인정된다. 부여의 평백제기平百濟記를 새긴 탑<sup>20)</sup>, 익산의 전왕 왕궁지 탑, 고부 탑림리 탑<sup>21)</sup>과 동일한 형식이다. 그 특색으로 탑신, 옥개받침, 옥개 등의 각 부분에 거대한 돌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고, 다수의 석재를 늘어놓거나 혹은 겹쳐서 구성했으며, 지붕곡 및 물매가 적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탑의 그림은 『조선고적도보』 및 기타에서 누누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 제4. 전왕 왕궁지 석탑王宮址 石塔, 제석礎石

『여지승람』에는 ‘왕궁정王宮井은 군의 남쪽 5리에 있다. 옛날 궁궐터라고 세상에 전하고 있다’<sup>22)</sup> 고 적혀 있다. 이 옛 궁궐지라는 곳은 익산을 동쪽에서 뻗어 나와 남쪽으로 좁고 길게 이어지는 대지 남쪽 변에 위치하고, 전주 방면에서 금마군 구 익산읍으로 이어지는 가도는 이 대지 서쪽 기슭을 따라 남북으로 뻗어 있다. 이 대지 남단에 유명한 석탑이 있는데 왕궁지라고 칭하는 것은 이 석탑 소재 지점 북쪽에 지형을 따라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짧아 대체적으로 장방형을 이루는 공호空壕와 토루土路를 쌓은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걸음으로 측정하건대 동서 폭 80보 내외, 남북으로 300보를 넘지 않는다. 남북 2정町, 동서 0.5정 정도일 것이다. 위치에 따라서는 호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지금은 소나무 숲이 되어 눈대중으로 어렵거나 걸음으로 재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확하지는 않다.

이 경역 내 중앙부에 4개의 석회암이 있다. 노출된 높이는 2, 3척 내외인데, 깊이 묻혀있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다른 곳으로부터 운반해 와서 놓은 것임은 명백하다. 이 네 돌의 겉면에 물로 침식되고 소발굽에 밟힌 흔적과 같은 것이 각각 3, 4개소 정도 있다. 이를 제석礎石이라 칭하거나 혹은 제석帝石이라고 쓰기도 한다. 익산군에 있는 중등학교의 교원 모두가 썼다고 생각되는 『익산 구도 탐방 안내』에는

무왕 신마가 올라타고 바위 위에서 사방을 둘러볼 때의 흔적이라고 하거나 또는 하늘에서 큰 소가 내려와 바위를 밟았던 족적이 남은 것이라고도 한다. 아무래도 황당무계한 향간에 떠도는 설이다. 조금 믿을 만한 이야기는 과거 이 땅에 왕궁을 건설했을 때 토벽 또는 기와로 사용해야 하는 흙을 소발굽으로 밟아서 다졌는데 그 흔적이 화석화되어 제석으로 불린다는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 책에 향간의 전설을 수록한 것은 기쁘지만, 진흙이 화석으로 변했다는 가정은 최근에 발생했을 것이기에 이것이야말로 기록하거나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이다. 이 돌은 석회가 굳은 것이므로, 시멘트가 묻혀진 것은 아니다. 완전한 천

19) 秋九月 震金馬郡彌勒寺

20) 현재의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이다.

21) 현재의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이다.

22) 王宮井 在郡南五里 世傳古宮闕遺址

연의 기암(奇岩)이다. 사찰의 정원석이었던지 혹은 다른 것이었던지 신성한 의미로 안치했을 터이다. 이러한 돌은 다른 곳에도 있었던 것 같다. 『삼국사기』백제 근구수왕 원년 조에는 근구수 태자가 고구려군을 추격하여 수곡성 북서쪽에 이르렀다가, 귀환할 때에 돌을 쌓아서 표식을 삼았는데, 그 위에 오른 것을 기록하여 ‘그 땅에 암석 틈이 말굽처럼 생겨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부르기를 태자마적(太子馬迹)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 태자마적은 앞에서 언급한 제석과 동종의 돌일 것이다. 설마 태자마 제석을 쪼개서 익산까지 옮겨 온 것은 아닐 것이고, 하물며 이것은 소 발굽 모양이다. 소위 마제석의 종류는 일본 내지 곳곳에도 있다. 기후(岐阜)의 고구마야마(小熊山)에도 노부나가(織田)의 마제석이 있다. 이는 부드러운 사암에 누군가가 거짓으로 말굽의 흔적을 새긴 것으로 자연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익산 것과는 차이가 있다. 마제석 전설은 일종의 재미있는 전설이다. 과거 평양의 모란대 아래에 있었지만 지금은 강 속으로 잠겼다고 하는 동명왕 조천석(朝天石)도 이런 종류의 돌이었을 것이다. 또 「익산 구도 탐승 안내」에는 ‘현 왕궁리 궁평(宮坪)에 제석사라는 사찰이 있었다는 것은 대정 13년(1925) 흙 속에서 발견된 기와 및 불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귀중한 기사가 있다. 궁평 지역은 뒤에서 기술하듯이 이 왕궁지라고 칭하는 대지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다. 나는 기와도 불상도 보지 못했지만, 만약 제석사라고 쓰인 기와가 나왔다면 그것은 우제석이 있던 북쪽 땅에서 출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옛 궁궐지라고 불리는 대지는 무엇의 터일까? 혹은 이를 기준의 왕지라고 하고 마한시대의 것이라는 설도 있지만 이 설은 역사학상에서 보면 단연코 근거가 부족한 속설이다. 나는 이런 낭설이 퍼지는 것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이 터는 하나의 토성지로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혹은 고읍이 있었던 지역일지도 모른다. 혹은 후대에는 제석사라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다. 만약 전설에 비증을 둔다면 보덕왕 안승의 궁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안승의 일은 뒤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석탑(속칭 왕궁지 탑)은 왕궁지라고 칭하는 고지에 접하여 그 남쪽에 별도로 구획되어 있다. 소위 왕궁에서 약 20척 낮은 지점에 서 있고 대지의 남단에 있으므로 전망하기에 좋다. 그 소재지에는 인공이 가해진 방형의 대지가 있다. 특히 그 남변과 같은 쪽에는 하나의 단이 만들어져 있으며 오래 전 석제 울타리가 있었던 흔적이 존재한다. 탑은 이 방형단 서쪽(마주보고 좌측)에 편중된 지점에 흙을 쌓고 그 위에 있다. 동행하여 주었던 야마구치 테루요시(山口照吉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올해(소화3년(1928)) 3월 그가 방문하였던 때에는 이 탑의 동북쪽 40칸 정도 지점에 하나의 커다란 초석이 발굴되어 있었다고 한다. 나와 그가 이것을 탐색하였지만 누군가 옮겨간 것인지 묻은 것인지 찾아내기가 불가능했다. 이 탑은 거대해서 일찍이 세키노 박사의 조사를 거쳐 『조선고적도보』 제4권에 신라통일시대의 것으로 수록되었다. 선생은 부여에 있는 평백제의 기록을 새긴 유명한 탑을 신라통일시대의 것이라고 여겼다. 이 비문은 재래의 탑에 새긴 것이므로 물론 통일 전 백제시대의 것이다. 소정방은 백제를 제압하고 바로 그 공적을 부여에 있었던 석탑이나 대석조에 새긴 것이다. 이 부여의 석탑은 백제시대의 작품이므로, 형식이 동일한 속칭 왕궁지의 이 석탑은 백제시대의 것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당하다. 다만 공예품의 형식 등은 정치상의 변화와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동일 지방에서 백제 말기와 신라 초기 사이에서 확연히 다른 형식 수법의 차이가 있을 리 만무하다. 공예품 등은 공인이 모본으로 삼는 것에 따라서 복고적 제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또는 새로운 의장(意匠)이 유행하지 않은 체로 잠재하다가 발견 및 계승되



는 사례도 있다. 진화에 더하여 변화가 일어난다. 진화에도 더딤이 있고 변화에도 완급이 있다. 나는 속칭 왕궁지 석탑은 백제시대의 형식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백제시대의 작품이라는 것은 아니다. 정치상으로 백제시대의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 시대 전후에 제작된 작품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예품의 제작 연대 등은 명기銘記가 없다면 백년을 단위로 하여도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작자의 의지나 일정치 않은 변화 속도도 고려하지 않고 공예품 제작 연대를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의논은 그만두고 나는 이 석탑을 백제시대 형식이라고 말하지만, 이를 만든 시점이 백제시대이거나 보덕국시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써 둔다.

이 석탑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대하다. 건축 측면에서의 정확한 조사는 세키노 박사의 『조선고적도보해설』이 출간될 때에는 반드시 수록될 것이므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오층의 소박한 장엄함을 구비한 뛰어난 수작이지만, 현재는 기단이 없는지 묻혔는지 보이지 않고 토단 위에서 있으므로 심하게 뒤물려 있다. 미륵탑은 그 구조의 성질에 의해 초석은 있지만 기단이 없다. 그러나 그것과 구조를 달리 하는 이 오층탑은 없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석마저도 보이지 않아서 의심스럽다. 혹은 현재 토단 내부에 어떠한 시공을 행하여 탑에 상당하는 기단을 구성하여 놓은 것일까? 아니면 이 토단은 기단이 결핍되고 느슨해지게 되면서 그 붕괴를 막기 위해 흙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본래 기단은 이 토단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완전한 초심자인 나로서는 파내보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 세키노 박사의 조사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본인의 정말로 허술한 실측을 기록해 놓고자 한다.

제1층의 탑신부는 폭 약 8척 5촌, 높이 약 4척 5촌이며 석제 8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또 그 위의 옥개받침은 4개의 석제인데 계단형으로 내밀어졌다. 제 2층 탑신석 아래의 옥개석은 석제 9개로 구성되었고 탑신부는 하나의 석제이다. 제 1층 내부는 석제가 충실히 짜이지 않고 부정형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석제 틈으로 들여다보니 이 비어있는 부분은 몇 개의 판석을 쌓아서 채워놓았는데 제 2층 탑신석 아래에 닿아 있다. 추정하건대 제 2층 위쪽의 무거운 하중이 상대적으로 얇은 석제인 제 1층의 탑신석에만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부 중량을 적석에도 부담하도록 한 것이리라. 제 3층, 제 4층의 탑신석은 각각 2개의 석제로 구성되어 있고, 제 5층은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각 층 옥개석의 지붕쪽에는 약간의 양쪽만을 표현하였다. 각각의 네 구석에는 구멍이 있는데 종이나 풍경을 달기 위해서이다.

「익산 구도 탐방 안내」에는 이 탑에 대하여 지역의 전설이 실려 있다.

마한이 점차 세력이 쇠퇴하여 고구려가 이를 통합하려고 할 때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음책陰策으로 명승 도선道詵은 완산 땅이 웅크리고 있는 개의 형상과 닮아서 개의 꼬리에 해당하는 마궁 앞에 이 석탑을 세우고 그 꼬리를 제압하고자 했다. 탑이 완성된 날부터 3일 간 완산 땅이 암흑 속에 있었다고 한다.

지역 전설에 필자의 의견을 더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것은 전설 기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재법이다. 이 지역은 원래 제석臺石이 있었으므로 제석면이라고 불렸고, 석탑이 있으므로 탑리라고 불렀는데 대정 3년(1914)부터 왕

궁면 왕궁리로 개칭하였다. 이 개칭은 근거가 분명치 않은 것으로 옛 명칭이 더 낫다.

#### 제5. 궁평宮坪<sup>23</sup>

앞에서 언급한 석탑의 소재지인 속칭 왕궁지에서 동쪽으로 약 10정 떨어진 곳에, 북쪽의 우제봉(烏濟峰)에서 남쪽으로 뻗어나간 대지의 끝에 궁평이라고 부르는 땅이 있다. 속칭 왕궁지의 대지와 이 궁평이라는 대지 사이에도 북쪽에서 뻗어 나온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이 곳에는 어떠한 전설도 없다고 한다. 이 근처 일대는 지금 왕궁면 왕궁리 행정구역에 속한다. 궁평에는 옛날 왕궁이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옛 문헌 속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듯하다. 혹서기 중에도 일부러 답사 해 보았는데 이 대지에 고사찰지라고 추정되는 것은 있었다. 또 대지 남단에 소나무가 무성한 방형의 고분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있다. 높이 7척, 경사면의 길이 40척 정도로 방형 비석 받침의 파편으로 보이는 화강석 파편이 여럿 발견되었다.(전판536, 왕궁1) 이 주변은 그러한 돌이 채석되지 않는 지역이다. 고분 끝자락에 새로운 묘가 있다. 궁평이라는 이름은 어떤 궁궐의 소속지였으므로 붙여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에서 전설도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궁평리에 동라(銅羅)가 마을의 공유물로 전해져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았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통의 황동제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리의 울림은 매우 좋았다. 동라를 치면 그 울림이 길게 이어져서 끊이지 않고, 비로소 끊어지려 하면 다시 한 번 올라가며 길게 이어지는 진귀한 물품이었다.

#### 제6. 보덕사지報德寺址, 보덕국報德國, 오금산五金山 전설

익산을 서쪽에 오금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다. 이 산은 읍의 북동쪽에 있는 금마 및 기타 산들 몇 읍의 북서쪽에 있는 약 60m의 봉우리들과 연결되어 있다. 오금산의 동서 양쪽으로 봉우리가 있는데, 서쪽 봉우리는 표고 128m, 동쪽 봉우리도 높이는 큰 차이가 없다. 보덕산성이라고 칭하는 것은 서쪽 봉우리에 있다. 즉 표고 128m의 높은 봉우리에서 시작하여 산세를 타고 동서로 뻗어나가 좌우 산동성(山洞城)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다시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좌우의 성벽이 서로 만나는 곳에 성의 정문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남쪽에 면한 하나의 계곡을 포함한 것으로 토성이다. 본인은 시간 부족, 폭서, 피로 등으로 실제 조사를 못하였지만 토성지는 산 아래에서 바라보며 판명하였다. 『승람』에는 ‘보덕성은 군에서 서쪽으로 1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터가 가까스로 남아있을 뿐이다’<sup>24</sup> 라고 하였고, 최근에 편찬된 『문헌비고』에는 ‘보덕성은 서쪽으로 1리 떨어진 곳에 있고 그 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sup>25</sup> 라고 되어 있다. ‘터가 가까스로 남아 있을 뿐’이라는 기술이 300년 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바뀌었지만, 이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군에서 1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실제와는 맞지 않는 듯하다. 보덕산성은 군 서쪽 1리가 아니라 적어도 2, 3리 정도 떨어져 있다. 혹 산성 이외에 산 아래에 별도로 보덕성이 있었던 게 아닌지 조사해 보았지만, 실재하지 않았던 듯하며 거리에 착오가 있었던 듯하다. 혹 1리라는 표현은 이 산성이 있는 오금산 기슭까지를 가리키는 것인지 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오금산 위의 서쪽 봉우리는 보덕산이고, 동쪽 봉우리가 진짜 오금산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설명은 맞지 않는 것으로 모두 합하여 오금산이라고 칭하는 듯하다.

보덕산성은 보덕의 산성이다. 보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역사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여기서 설명해 두고자 한다. (중략) 조정에서는 하나의 독립국처럼 대접해 주었지

23) 현재의 제석사지이다.

24) 報德城 在郡西一里 遺址僅存

25) 報德城 在西一里 遺址尙存



만, 사신과 관련된 일체를 다자이후太宰府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더하여 후에는 조정에서도 특별히 사신을 보내주었다. 이 국가에서 일본에 사신을 보낸 마지막 해인 임오는 신라 신문왕 2년이다. 이 다음해인 계미년 10월에 신문왕은 보덕왕 안승을 불러서 소판蘇判의 작위를 제수하고 왕도인 경주에 머물도록 땅과 건물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해(황기 1344년) 11월에는 안승의 조카 대문大文(혹은 실복悉伏이라고도 한다)이 금마저에서 신라에 모반을 일으켜 처형당했다. 남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관리를 살해하고 읍을 거점으로 반기를 들었다. 신문왕은 이를 평정하고 그 사람들을 나라 남쪽의 주군으로 이주시켰으며 왕국을 폐廢하였으며, 그 땅을 금마군이라고 하였다. 이 국가가 존재한 것은 14년간으로 일본에는 개국 이듬해부터 사신을 보내고 그 왕이 신라 경주로 옮겨가기 전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왕국이 철폐되었으므로 3년이 지난 지 통천왕 원년에는 서기에 '3월 기묘, 투화投化한 고려인 56명을 히타치노쿠니常陸國에 머물게 하고 전답과 식량을 주어 생업을 도모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고려인이 투항하여 온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혹은 안승의 보덕국의 백성으로 츠쿠시樂業에 있던 자들이 국가가 망하자 그대로 투항한 것은 아닐지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익산 고읍 지역은 회고적 풍습이 많은 곳이다. 그렇다면 보덕왕궁이나 정청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산성은 왕궁 소재 지점이 아니다. 오로지 전시의 수비지이다. 부여족이 일반적으로 큰 물가에 인접해 거주를 정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큰 강이 없다. 이 석탑이 있는 전傳 왕궁지 등은 보덕국 왕궁지로서 가장 유력한 참고장소일 뿐이다.

#### 제7. 인석人石(고도리 석불입상)

인석이라고 칭하는 석물石物은 익산 고읍의 정남으로 여러 정町 떨어진 논 속 흙 언덕 위에 옥룡천을 끼고 좌우에 대칭하여 서 있다. 양자의 거리는 1.5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석탑이나 제석이 있는 전 왕궁지 북서쪽에 해당하며, 왕궁지 서쪽의 전주가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 옥룡천이란 익산 고읍에서 정남쪽으로 흐르는 작은 개천이다. 동쪽의 석인은 서쪽을 바라보고, 서쪽의 석인은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 뒷쪽에서 바라보면 상부를 방형의 첩이 있는 모자 형태로 조각한 석주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보면 모자를 쓰고 긴 소매의 옷을 입은 승려 형태의 석인이다. 기둥 1면을 이용한 조각으로 양팔의 손은 긴소매에서 가슴 아래로 나와 있다. 눈대중으로는 18척을 조금 넘는다. 동쪽 석인 옆에 작은 비문이 세워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다.

#### 군남석불중건기郡南石佛重建記

읍의 남쪽에 쌓으로 된 돌이 있는데 높은 언덕 위에 크고 우람하며 그 모습은 부처가 가만히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다. 옛 사람이 처음 세우기 시작했을 때에는 대개 수문의 허虛<sup>26</sup>를 막기 한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중간에 무너지고 쓰러져서 오늘까지 수백 년 동안 쓸쓸히 있었다. 마침 우리 고을의 수령으로 황후黃后<sup>27</sup>께서 오게 되었다. (중략) 서쪽으로는 높은 제방을 쌓았고, 남쪽으로는 탑 주변에 숲을 만들었다. 이번 여름 다시 석인을 세우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가마를 끌고 들로 나아가 고을 어른신들과 함께 그 곳에 가보니 석인은 비스듬히 쓰러져 흙속에 묻혀 있었다. 바람에 닳고 비에 씻겨나가서 (하략) 또 마산의 동쪽에 돌로 만든 말구유가 있었는데 땅에 묻힌 지 오래된 것을 파내어 남쪽의 음마제飲馬堤 사이에 두었다.

26)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지세가 약하고 비어있는 자리를 뜻한다.

27) 당시 익산군수 왕종석黃鍾奭을 지칭한다.

또 비석의 뒷면에는 창시할 때 본 군수 황종석이 말하였다고 하며 석인을 다시 세운 관계자들의 성명을 열거하였다. ‘함풍<sup>30</sup> 8년 5월 세움’이라고 날짜를 적었다. 이에 의하면 이 석인은 익산을 수문의 허포를 막는 압승<sup>31</sup>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전해지며, 이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발에 쓰러져 있었던 것을 군수 황종석이 다시 세웠던 것이다. 앞에서 기록한 고창읍의 석주에서도 수문에 돌을 세웠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문과 수구의 허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선의 여러 읍에 존재했을 법한 것들이다. 고창의 것은 탑의 형태를 하고, 여기 익산의 것은 불상의 형태를 하고 있다. 불교를 신봉하는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최근의 학자들은 입석을 보고 남근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도 현대의 음란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비문에 기록된 말구유란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물으니 잘 몰랐다. 말구유는 것은 사찰지 등에 잔존하는 장방형의 석조로, 취사장 저수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라. 지금 여러 곳에 존재해 있음에 틀림없으므로 찾아보면 발견될 것이다. 또 이 석인에 대해서 「익산 구도 탐승 안내」에 지방의 전설을 기록하였는데

석인은 음성<sup>32</sup>과 양성<sup>33</sup>이 있다. 어떤 시대부터였는지 역눌려져 있던 성적 욕구에 고뇌하면서도 하천을 사이에 두고 1년 동안 대치하며 있었는데 음력 12월 30일, 이 밤만큼은 해금되어 선달 그믐날 오후 12시에 얼어 있는 강을 건너 두 석인은 서로 만나 포옹하고 새해 첫날의 닭이 울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 1년을 또 보낸다고 한다.

라고 기록하였다. 재미있다고 생각하여 나는 마을 사람 두세 명에게 이 전설의 유무를 질문했지만 그들은 숨기는 것이 있는 듯, 이를 부정하고 어떤 전설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 제8. 서동전설(오금산전설)

익산에서 유명한 것은 서동전설이다. 이 오금산은 앞에서 언급한 보덕산성이 있는 산이다. 『승람』에서는 ‘오금사는 보덕성<sup>34</sup> 남쪽에 있다. 서동<sup>35</sup>이 어머니를 지성으로 섬겼는데, 마을 캐던 땅에서 갑자기 오금<sup>36</sup>을 얻었다. 뒤에 그는 임금<sup>37</sup>이 되어 그 땅에 절을 짓고 오금사라 하였다고 세상에 전한다’<sup>31</sup> 라고 하였고, 「익산 구도 탐승 안내」에는 현존의 전설을 기록하여

28) 승정<sup>28</sup> 원년은 1628년이므로 승정 기원 후 4주갑의 무오년은 1858년이 된다.

28) 邑之南有雙石 峻峻魁傑 其形如佛初想 石人初立之始 蓋水門之防虛也 不幸中間廢臥 寥寥幾百年于茲矣 惟我地主黃候來矣 (中略) 西築窺見之提 南靈塔郊之數 今夏又營立之議 肩輿野行 同我父老 視其處 則雙石丈人 僵寢頽埋 風塵雨洗 (下略) 又馬山之東有馬石槽 年久埋沒 復今焉拔靈南有飲馬提間 崇祿紀元後四戊午四月下沅 群民蘇輝建羅記

30) 지세의 나쁜 기운을 누르는 것을 뜻한다.

31) 五金寺 在報德城男 世傳童童事母至孝 掘墓葬之地 忽得五金 後爲王創寺其地 因名焉

백제 무왕은 어릴 때 이름을 서동이라 하였고, 이 땅에서 어머니와 함께 궁핍하게 살았고 항상 마를 캐서 사장에 팔아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5개의 금괴를 채굴하게 되었다. 이는 지극한 효가 하늘에 통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져 나라 민중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다. 후에 신라로부터 그 아름다움으로 소문이 자자한 선화 왕비를 얻어서 백제의 왕위를 계승하였다. 금괴는 사자사 지명대사의 통력으로 왕비의 생가 신라 임금에게 하룻밤 만에 보냈다. 어머니를 위하여 오금산 속 이 땅에 하나의 당우를 건립하고 오금사라 칭하였다. 지금 여전히 사찰의 유적이 남아 기와 파편 등이 계곡 사이에 쌓여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왕을 모두 서동대왕이라고 칭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서동전설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유사』일 것이다. (중략)  
이 전설은 매우 복잡한 것이다. 본래 무강왕을 주인공으로 한 것이지만, 『유사』의 편집자는 무왕으로 고친 것이다. 왕이 연못에 사는 용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덕왕 안승의 선조가 물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과도 통한다. 확실히 야나기다 구니오柳田國男씨의 이야기였다고 기억하는데, 서동이 황금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이야기는 일본에도 흔한 스미야키초자炭焼長者 전설의 일종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지명법사의 금 운반은 일본 시기산信貴山 초고손시지朝護孫子寺 연기에서 보이는 신력 전설과 같다. 비설事說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 제9. 쌍릉雙陵 무강왕

『동국여지승람』에 ‘쌍릉은 오금산 봉우리의 서쪽 수백 보 되는 곳에 있다. 『고려사』에는 후조선後朝鮮 무강왕武康王 및 비妃의 능이라 하였다. 속칭 말통대왕릉末通大王陵이라 한다. 일설에 백제 무왕의 어릴 때 이름이 서동인데 말통은 즉 서동이 변한 것이라고 한다.’<sup>32</sup>라고 되어 있다. 이 능의 소재 지점에 대하여, 육지측량부 1/50,000 지도에 익산 고도에서 이리로 가는 가도 북쪽에 소재한다고 기입되어 있지만, 이는 완전히 착오로 본인은 이 지도를 보고 찾았다가 대혼란을 겪은 한 사람이다. 실은 여기에서 훨씬 북쪽인 보덕산성지 아래에서 오금산 봉우리 남쪽방향에 있는 것이다. 승람의 기사가 맞다. 이 쌍릉은 무강왕 및 왕비의 능이라고 예전부터 전해지고 있다. 이 능은 왕씨 고려시대에도 도굴된 적이 있다. 황금을 산처럼 쌓았다는 서동 무강왕과 왕비의 묘라면 필히 금정金挺 수백 판도 함께 부장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도굴했을 것이다. 『고려사』 권124 정방길전에 방길이가 정승이었던 때에 도둑이 금마군 마한의 시조 무강왕릉을 도굴했기 때문에 포박하여 감금하였다고 하며 『동국통감』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충숙왕 16년 기사(황기 1988년) 3월이라고 하였다. 무강왕은 혹은 호강왕虎康王이라고도 쓴다. 고려에서는 혜종왕의 휘諱가 무武이므로 이를 피하여 호虎라는 글자를 사용한 것이다. 이 고분은 세키노 박사, 야쓰이 학사 등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는데 물론 이미 도굴된 후였다. 하지만 유물이 조금은 있었다. 내용은 『조선고적도보』 3권에 실려 있다. 분묘의 형식은 백제 말기의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무강왕이란 어떤 사람인가? 『삼국유사』는 백제 무왕이라고 하고, 『고려사』는 마한 왕이라는 전설을 기록하였고 『승람』은 한지韓地에 들어 온 기씨箕氏 왕 즉 후조선의 왕이라고 하였다. 백제 무왕인 듯하지만 전혀 증거로 삼을 자료가 없다. 혹은 보덕국 관계자일지도 모르지만, 물론 안승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불명확하다고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 제10. 잡기

### 금마산

금마산은 익산 고읍의 북쪽에 접하는 표고 120m의 밥을 쌓아 놓은 듯한 형태의 작은 산이다. 나는 그 동쪽에 있는 이보다 조금 높은 산인가하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승람』에 ‘건자산은 군의 북쪽 1리 떨어진 곳에 있는 진산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금마산이다. 최근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勝之進씨로부터 “여지승람의 고사본에 건자산을 건여산乾予山이라고 쓴 것이 있다. 추정컨대 본인은 마의의 오자라고 생각하며, 조선의 음으로는 마에 해당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32) 雙陵在五金寺峰西數百步 高麗史云 後朝鮮武康王及妃陵也 俗號末通大王陵 一云百濟武王小名善童 末通即善童之傳

### 치천雉泉 전설

익산 고읍의 서쪽으로 10정 떨어진 곳에 용출하는 냉천冷泉이 있는데 치천이라고 한다. 옛날 한 마리의 꿩이 다리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 샘에 담그고 있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효험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피부병 환자들이 목욕하기도 한다. 일본 곳곳의 온천 발견 설화에서도 많이 있는 종류이다.

### 지석支石

가끔 인용되는 이규보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에 ‘예양에서 낭산朗山으로 갔는데, 모두 하룻밤씩 자고 갔다. 다음날 금마군으로 향하려 할 때 이른바 지석支石 이라는 것을 구경하였다. 지석은 옛날 성인聖人이 고여놓은 것이라고 세상에 전하는데 과연 기이한 자취로서 특이하였다. 다음날 이성에 들었다’<sup>33</sup> 라고 적혀 있다. 나는 글을 읽고 거대한 지석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물을 보니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부석浮石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다. 용화사의 사자사에서 남쪽으로 산을 내려오면 정확히 산기슭 옆의 신통리 뒤에 도달하여, 하나의 바위 위에 거대한 바위가 얹힌 채로 남아 있는 하나의 기이한 광경이 있다. 맑은 물로 상하 두 돌 사이를 청소하면 그 사이로 명주실이 통과한다는 전설이 있고, 음력 선달그믐 밤에 돌 옆에서 불을 붙이면 거대한 평음과 함께 높이 공중으로 떠오른다고도 전한다.

### 재생 소나무

쌍룡 옆에 있어서 배어 내면 바로 짝이 난다고 한다. 이런 종류의 설화에 대해서는 시라이白井 박사가 『식물요이고植物妖異考』 속에서도 다루었다. 또 『대동야승大東野乘』에서 인용한 도서 중에도 있다고 기억하는데, 경주의 백률사栢栗寺 소나무도 자르면 그루터기에서 짝이 나온다고 적혀 있다. 이 소나무는 익산 읍내 공자묘<sup>34</sup> 부속 숲 속의 1년에 세 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밤나무와 함께 보호해야 할 천연기념물이다.

익산 읍내 부근에는 옛 기와가 흩어져 있는 곳이 적지 않다. 금마보통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채집하도록 시켜서 모은 것 중에는 ‘연우4년延祐四年’, ‘미륵수용천彌勒藏龍泉’, ‘금마저金馬渚’ 등의 문자기와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길어지므로 그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금마의 조사를 위해 금마보통학교 교장 고토 시게오後藤茂夫씨 및 훈도 김봉곤 외 여러 사람이 후의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며, 또 이리고동여학교장 나카니시 초지로中西長次郎씨가 「익산 구도 탐승 안내」를 빌려주어 조사에서 지대한 편의를 얻게 된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한다.

나는 금마를 본 뒤에 충청남도 논산군에 이르러, 논산읍에서 이 여행 중 기거를 함께 하며 성실히 안내의 노고를 다한 조시학趙視學과 헤어져 읍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 날에는 예전부터 알던 논산군수 이치노사와市之澤 씨 및 그 자제분에게 안내를 받아서 쌍계사를 조사하였다. 전라도 서부 여행은 금마에서 끝났으므로 쌍계사 조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기로 하고 여기에서 이 여행 잡기를 마친다. 소화5년(1930) 7월.

33) 自高山至禮陽 自禮陽至朗山 皆一宿而去  
明日將向金馬郡 求所謂支石者觀之 支石者  
俗傳古聖人所支 果有奇迹之異常者 明日入  
伊城

34) 익산 향교의 대성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세키노 다다시 필드 카드(関野貞フィールドカード) ‘익산’

세키노 다다시 필드 카드(関野貞フィールドカード)는 도쿄제국대학 공학부 조가학과(造家學科(현재의 건축학과)) 교수인 세키노 다다시가 일본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인도, 유럽 등 세계 각지를 조사하며 작성한 기록물이다. 이 카드는 세키노 사후 오랜 기간 동안 도쿄대학 생산기술연구소(東京大學生産技術研究所)에 보관되다가 2003년 도쿄대학 총합연구 박물관(東京大學総合研究博物館)으로 이관되었으며, 2004년 목록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sup>1)</sup> 2015년 디지털 기록 작업이 완료되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sup>2)</sup>

조사카드는 크림색(호린노랑색)을 띤 캐비닛 판(12.0×16.2cm)과 흰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방안을 넣은 판(12.0×16.2cm)의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드 일부에는 작성일이 기록되어 있다. 후자에는 정리를 위해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순번이 우측 하단에 매겨져 있다.

익산 지역에 관한 조사 카드는 총 35매가 작성되었다.<sup>3)</sup> 세키노 조사단은 방문조사 전후로 참고 자료들을 작성하였는데, 『후한서(後漢書)』 동이전 마한조, 『진서(晉書)』 마한조, 읍지 『금마저금馬渚』가 이에 해당한다. 조사는 1910년 12월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었다. 5일 세키노는 미륵산성을 수채화로 기록했는데 그림은 조사 목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조사 날짜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이 카드를 바탕으로 작성된 『명치43년 조선유적조사약보(明治四三年朝鮮遺蹟調査約報告)』는 익산 지역에 관한 첫번째 구체적인 조사 기록물로 남았다. 목록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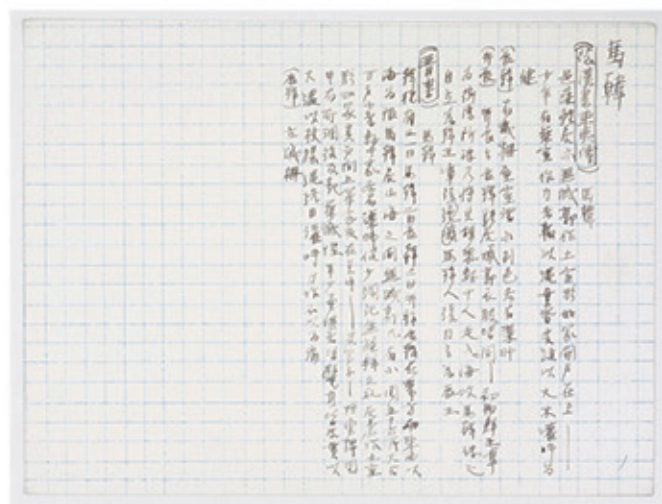
1) 早乙女雅博, 2004, 「関野貞とフィールドカード」, 『東京大学総合研究博物館 標本資料報告』 53, 1쪽.

2) [http://umdb.um.u-tokyo.ac.jp/DAnnex/sekino\\_cards/home.php](http://umdb.um.u-tokyo.ac.jp/DAnnex/sekino_cards/home.php)(세키노카드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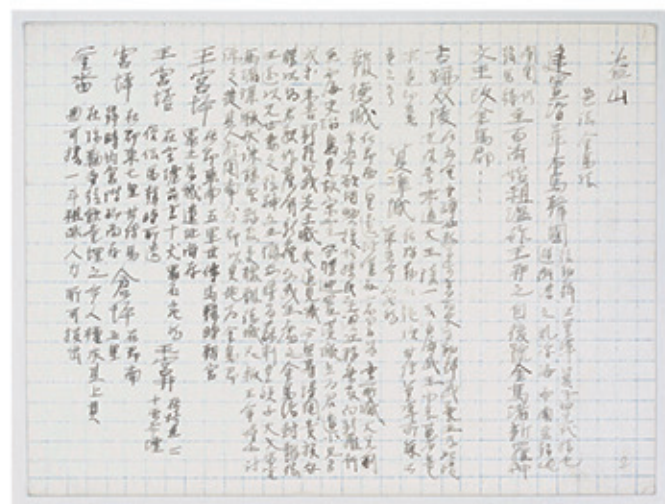
3) 35매 중 연번 18(2), 24(1)의 3매는 중복사진이라 제외하였다. 연번 18 ‘미륵사적’은 동일 도면이나 스캔된 밝기가 다른 2매가 추가로 존재한다. 연번 25 ‘미륵사 석탑’은 크림색 용지에 약실 측한 도면을 흰 용지에 다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번	관련	제목	방문일	비고	판형	상자번호	종이번호
1	익산 지역	마한(『후한서(後漢書)』 동이전, 『진서(晉書)』)		馬韓條	흰색	10	063
2	익산 지역	『금마저金馬渚』			흰색	10	062
3	익산 지역	『금마저』 산천 용화산		위치도	흰색	10	061
4	왕궁리	왕궁평			흰색	10	060
5	왕궁리	오층석탑(왕궁탑)			흰색	10	058
6	왕궁리	왕궁탑(익산군 제석면 탑리)			흰색	10	059
7	왕궁리	왕궁탑	1910.12.4.		크림색	29	081
8	왕궁리	왕궁탑 옥개위평면도	1910.12.4.		크림색	29	080
9	왕궁리	왕궁탑 1층 처마 세밀도	1910.12.4.		크림색	29	079
10	왕궁리	왕궁탑 석할(石割) 제1	1910.12.4.		크림색	29	077
11	왕궁리	왕궁탑 석할(石割) 제2	1910.12.4.		크림색	29	078
12	왕궁리	궁평			흰색	10	057
13	고도리 석불입상	석인			흰색	10	056
14	연동리 석불좌상	석불리 석불(구문천면 석불리)	1910.12.3.		흰색	10	046
15	연동리 석불좌상	석불리 석불광배 중심식(中心飾)	1910.12.3.		흰색	10	047
16	미륵사 / 쌍룡	미륵사, 쌍룡, 청심루		삼국사기	흰색	10	055
17	미륵사	미륵사「구례화엄사적」			흰색	10	054
18	미륵사	미륵사적		동일3매	크림색	29	026
19	미륵사	미륵사 석탑	1910.12.3.		흰색	10	048
20	미륵사	미륵면 노상리 석탑	1910.12.3.		크림색	29	072
21	미륵사	노상리 석탑(1층 처마 공포)	1910.12.3.		크림색	29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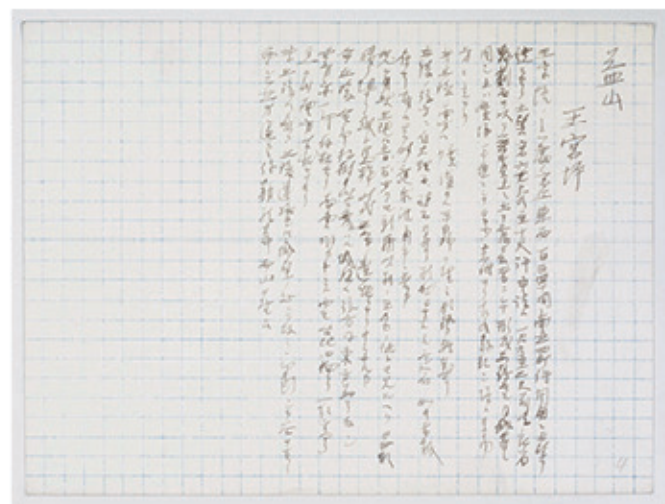
22	미륵사	미륵사석탑 절단도(1)	1910.12.3.	크림색	29	074
23	미륵사	미륵사석탑 절단도(2)	1910.12.3.	크림색	29	075
24	미륵사	미륵사 석탑(隅柱)	1910.12.3.	동일2매 흰색	10	049
25	미륵사	미륵사 석탑(中心柱)	1910.12.3.	흰색	10	050
26	미륵사	미륵사 당간지주 대좌	1910.12.3.	크림색	29	082
27	미륵산성	미륵산성	1910.12.3.	흰색	10	051
28	미륵산성	미륵산성(傳 기준성)	1910.12.5.	흰색	10	053
29	사자암	미륵산 사자암 석등(혜설)	1910.12.3.	흰색	10	052
30	사자암	미륵산 사자암 석등(도면)	1910.12.3.	흰색	10	045
31	익산 지역	익산(12월 3일-4일 조사)	초안	흰색	423	023
32	익산 지역	익산(12월 3일-4일 조사)	최종안	흰색	421	022



1. 『後漢書』동이전, 『晉書』(100310733\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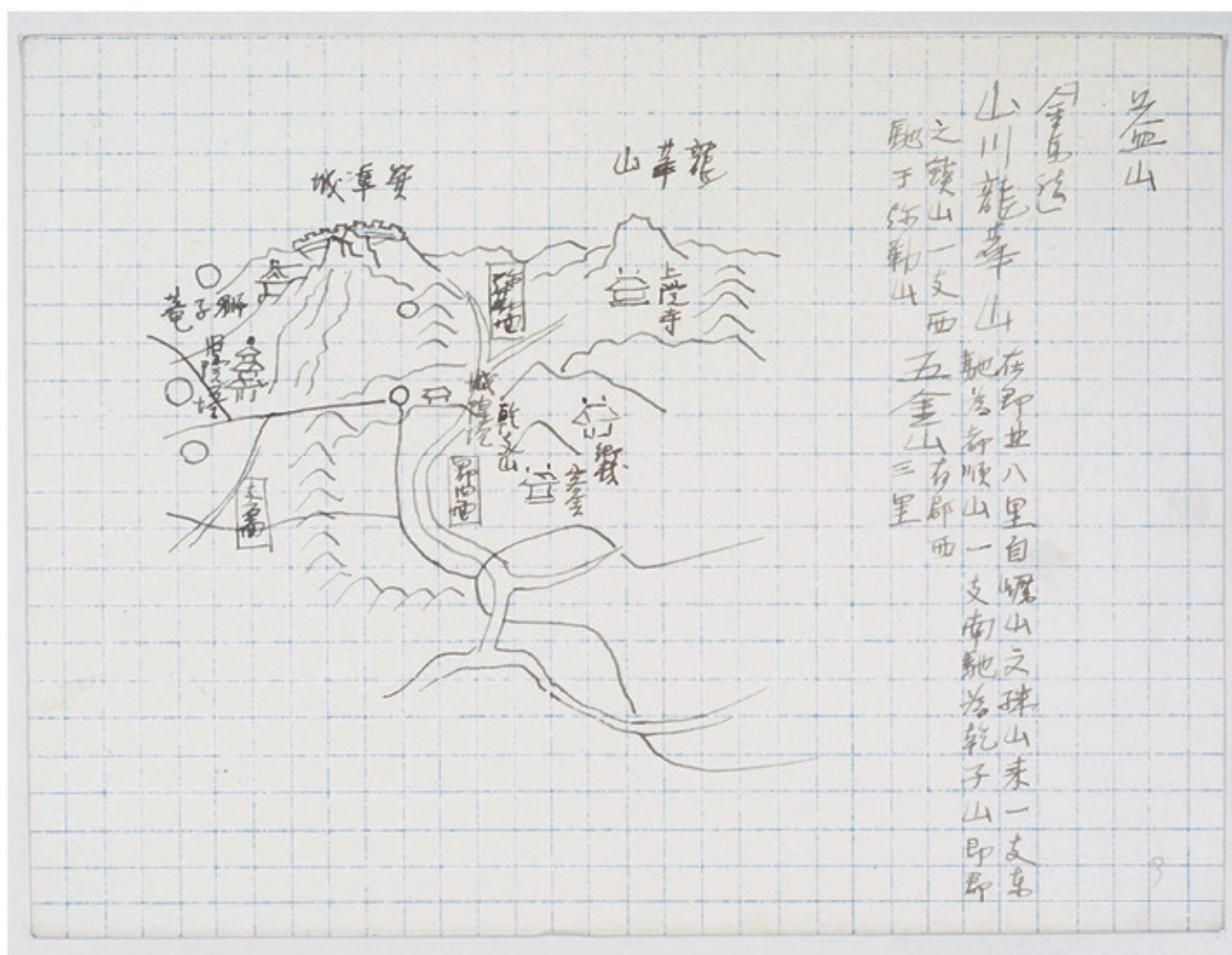


2. 『금마저』(100310531\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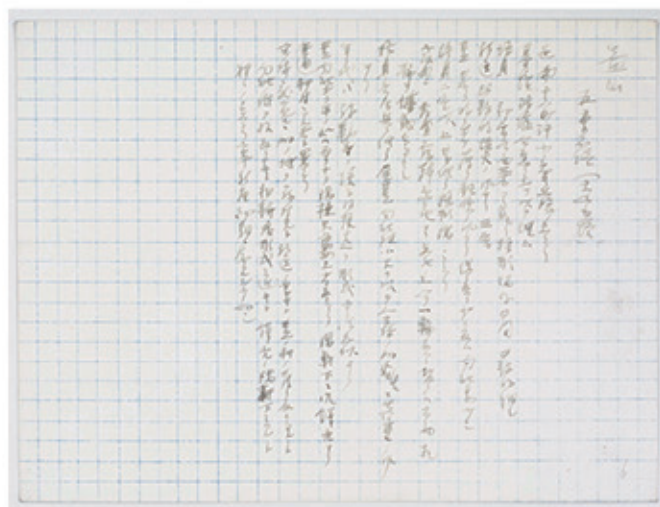


4. 왕궁평(100310127\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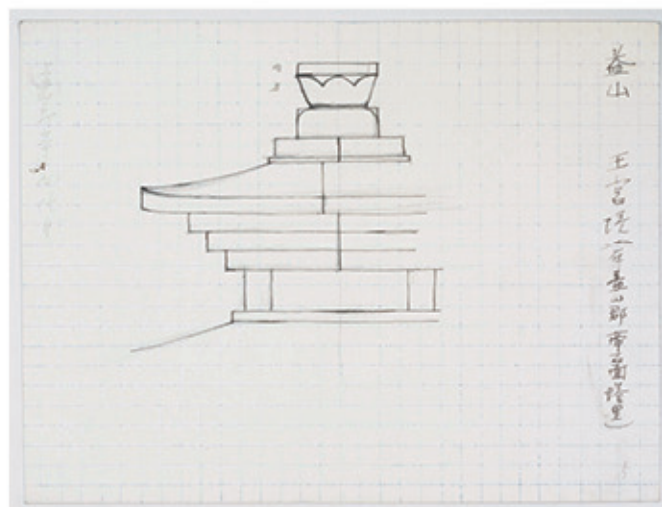




3. 『금마저』산천 용화산(100310329\_s)



5. 오층석탑(왕궁탑)(100309723\_s)



6. 왕궁탑(익산군 제석면 탑리)(100309925\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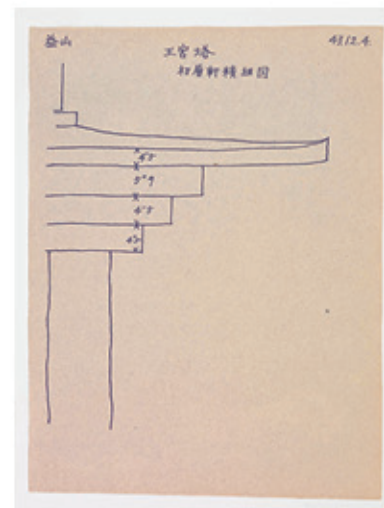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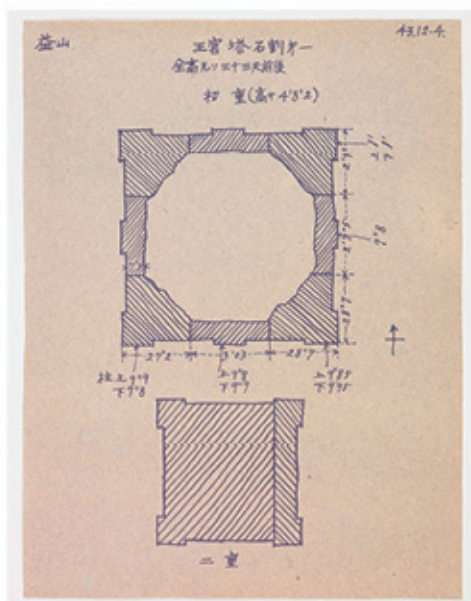
7. 왕궁탑(290008281\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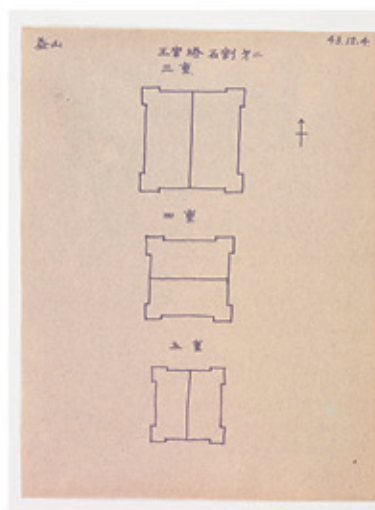
8. 왕궁탑 옥계위평면도(290008180\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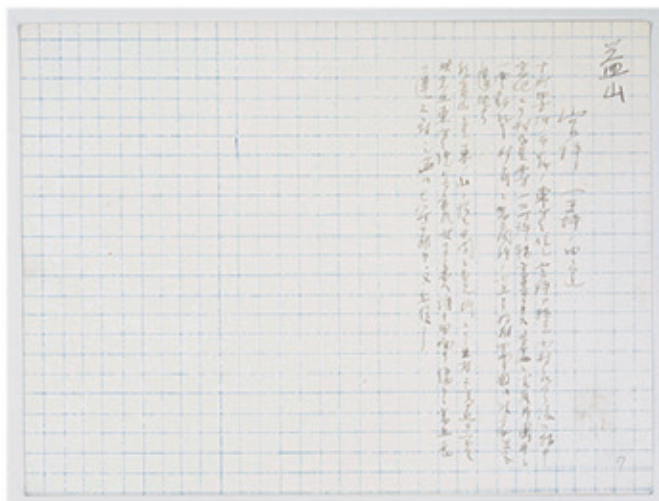
9. 왕궁탑 1층 처마 세밀도(290008079\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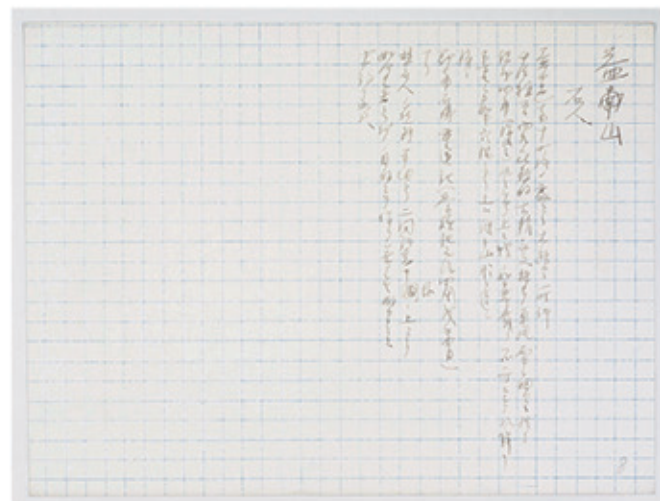
10. 왕궁탑 석함石割 제1(290007877\_s)



11. 왕궁탑 석함石割 제2(290007978\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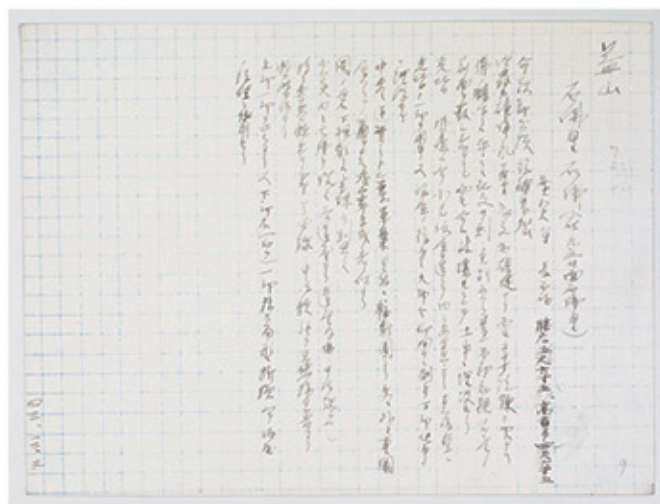


12. 궁평(100309521\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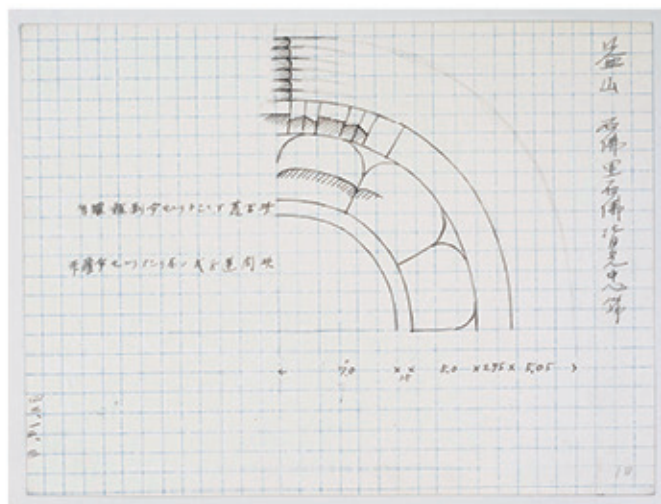


13. 석인(100309319\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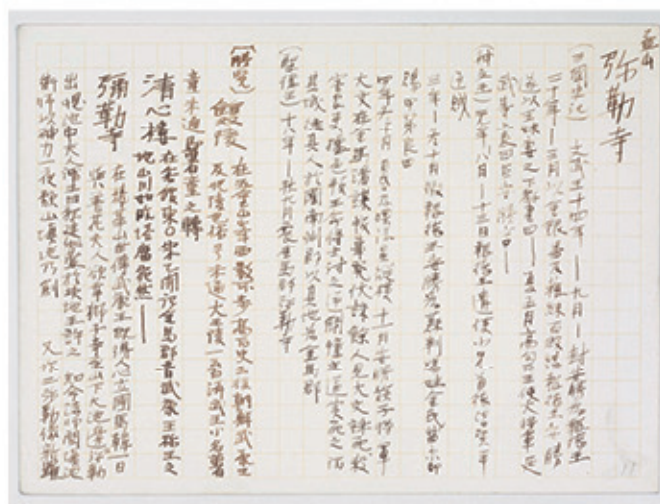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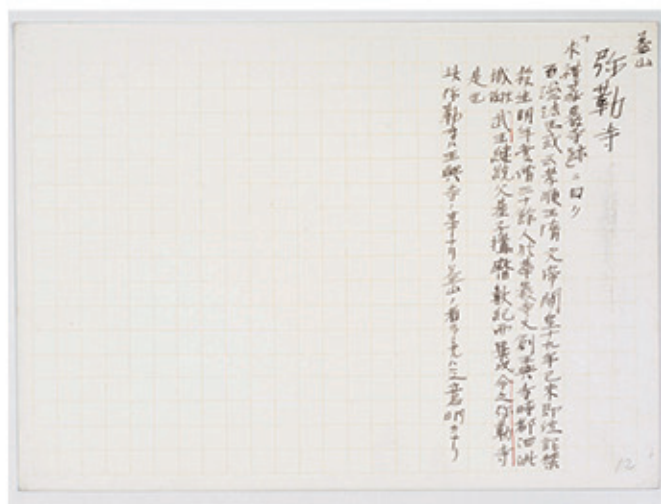
14. 석불리 석불(구문천면 석불리)(100308006\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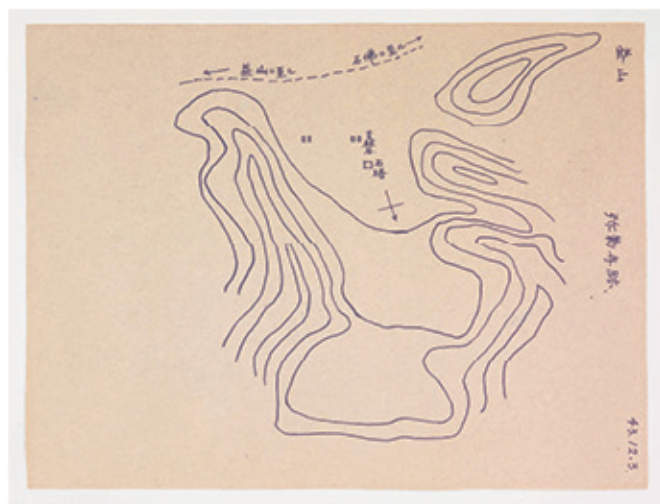
15. 석불리 석불광배 중심식(中心飾)(100308208\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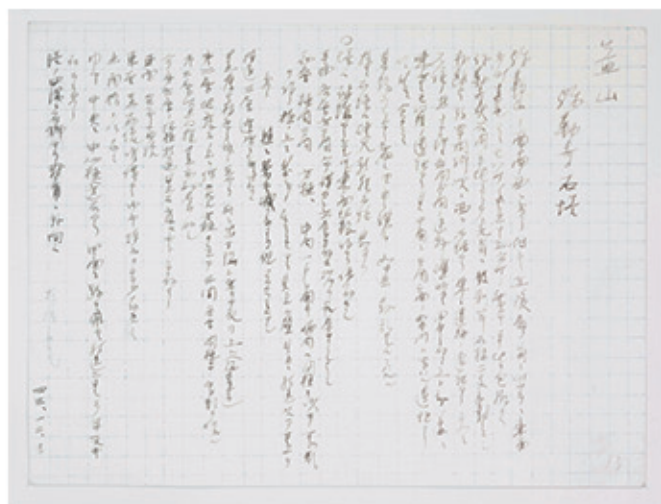
16. 미륵사, 쌍굴, 청심루(100309117\_s)



17. 미륵사 「구례화엄사적」(100309016\_s)



18. 미륵사적(290002726\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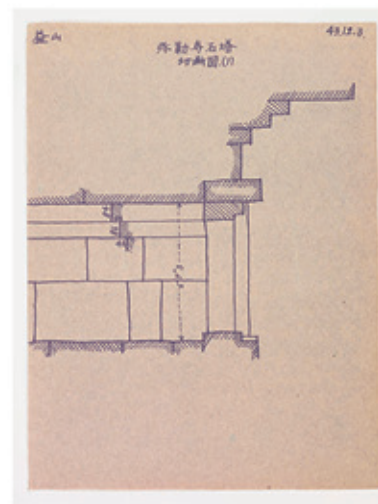
19. 미륵사 석탑(100317734\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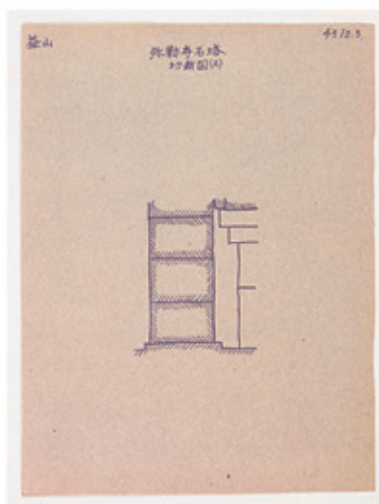
20. 미륵면 노상리 석탑(290007372\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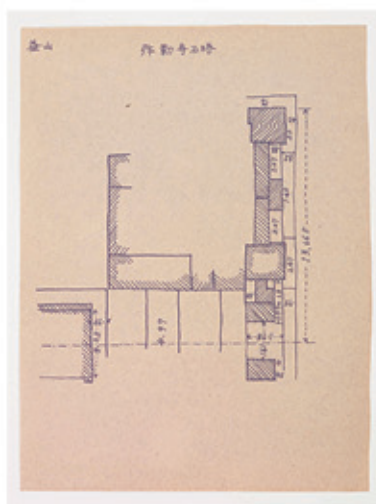
21. 노상리 석탑(1층 처마 공포)(290007473\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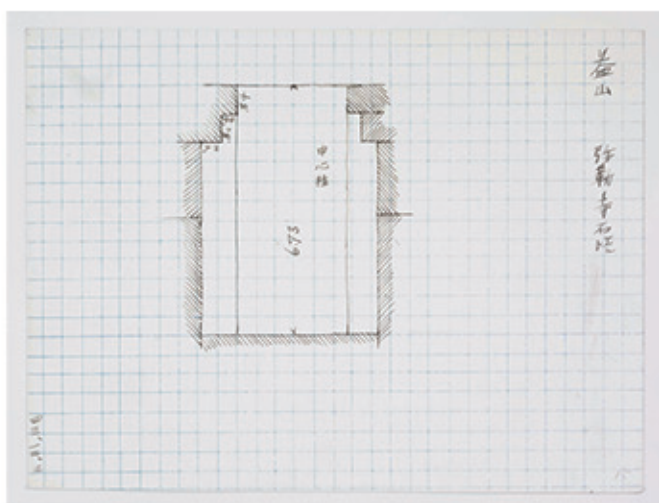
22. 미륵사석탑 절단도(1)(290007574\_s)



23. 미륵사석탑 절단도(2)(290007675\_s)



24. 미륵사 석탑(隔柱)(100317835\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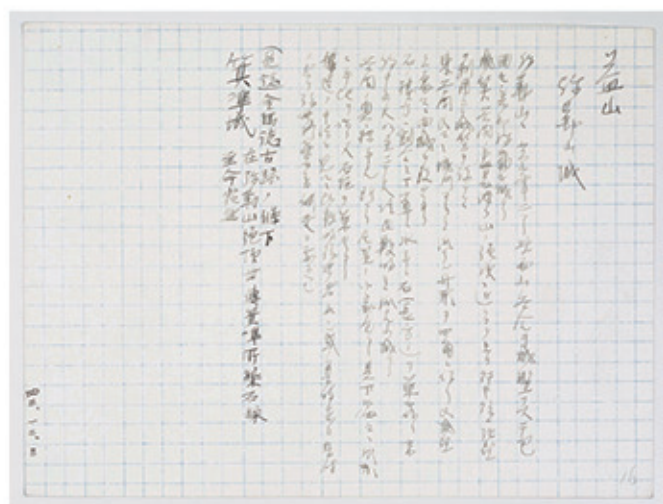


25. 미륵사 석탑(中心柱)(100317936\_s)



26. 미륵사 당간지주 대좌(290008382\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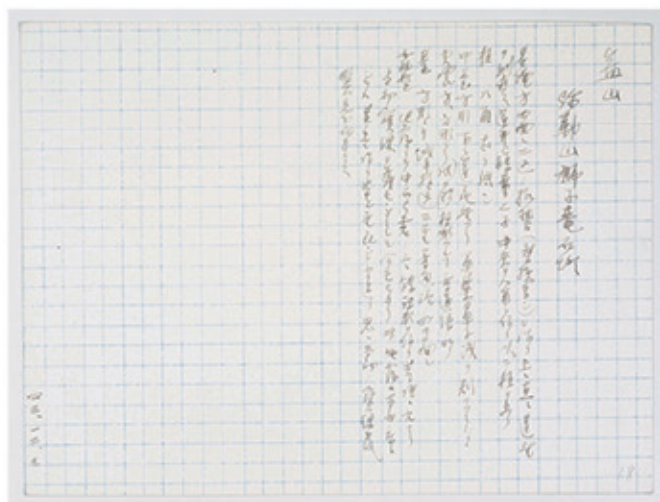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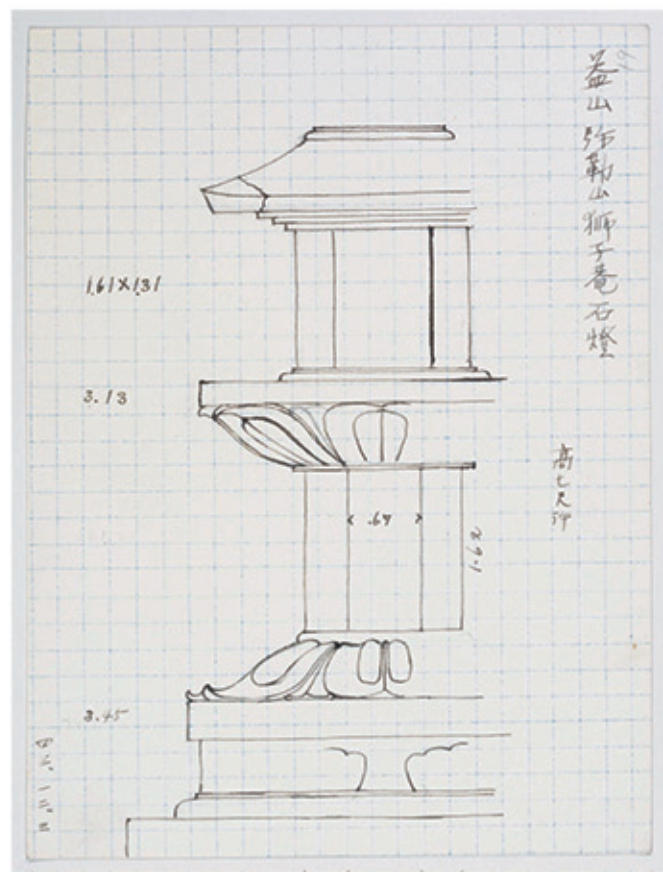
27. 미륵산성(100308410\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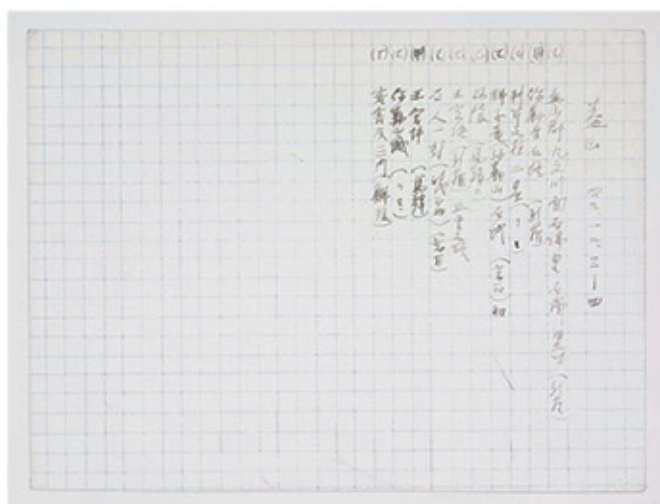
28. 미륵산성(전 기준성)(100308814\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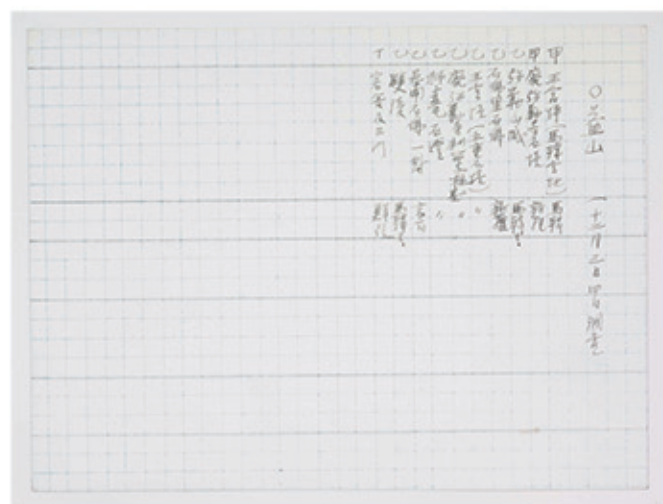
29. 미륵산 사자암 석등(해설)(100308612\_s)



30. 미륵산 사자암 석등(도면)(100307804\_s)



31. 익산(12월 3~4일 조사)(4230103029\_s)



32. 익산(12월 3~4일 조사)(4210102524\_s)



## 인명 소개

이 보고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관련 인물 해설이다. 인물해설에 참고한 자료목록은 다음과 같다.<sup>1)</sup>

### 가야모토 가메지로(梶本龜次郎, 1901~1970)

가야모토 모리토(梶本杜人)라는 이름으로 고적조사보고서, 논문 등을 간행한 바 있으나 본명은 가야모토 가메지로이다.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다. 주로 낙랑 및 고구려 고분의 발굴에 참여하였으며, 다수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외에도 웅기 송평동 패총, 김해패총, 대봉동 지석묘 등 선사시대 유적 발굴조사에도 참여하였다. 한반도에서 고적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참가하였는데 낙랑 고분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많은 유적을 발굴했다. 광복 후 일본에서 국립박물관 나라분관, 도쿄국립박물관 고고과 유사실장(有佐室長)을 지냈고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다.

### 간다 소조(神田惣藏, 불명)

조선총독부 직원록에는 기록이 없다. 하지만 1922년 유물조사정리 작업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속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2)</sup> 대구 비산동 고분군(1923), 공주 학봉리·송산리 고분군(1927), 익산 미륵사지(1932), 대동강변 낙랑·오야리 고분군(1930~35) 조사를 수행하였다. 출장이 없는 평시에는 유물 목록 작성과 정리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sup>3)</sup>

###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 1874~1946)

1896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1902년 강사, 1905년 조교수 겸 사료편수관이 되었고, 같은 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1915년부터 한반도 고적조사사업에 참여해 '임나일본부'를 찾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1916년 고적조사위원회가 발족되며 고적조사위원으로 임명되었고, 본격적으로 한반도 고적조사에 투신했다. 1919년 사료편찬관 겸 도쿄제국대학 국사학과 교수가 되었다. 1922년부터 『朝鮮史』 편수에 집중하였으며, 1931년 조선고적연구회 설립 등에 깊이 관여하며 한반도 고적조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1938년 도쿄제국대학 교수를 정년퇴직하였으며, 일본고고학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저서로는 『大日本古文書』, 『新訂増補國史大系』, 『朝鮮史』가 있다.

###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使一, 1882~불명)

1909년 도쿄제국대학 공학부 건축학과를 졸업한 건축학연구실 출신이며 세키노의 제자이다.<sup>4)</sup> 1902년과 1909~1915년 세키노 조사단에서 고고학 분야의 야쓰이 세이이치와 함께 공학분

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반도 고건축 조사의 한 축을 담당했다. 1915년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세키노, 구로이타, 이마니시, 도리이 조사위원을 보조하는 촉탁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일본으로 돌아와 교직을 맡다가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대만총독부 영선과 기사로 대만에 일본식 건축물을 도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 노모리 겐(野守健, 1887~1970)

세키노 다다시의 친동생이다.<sup>6)</sup> 서양화가의 길을 걷던 중 세키노의 권유와 1916년도에 실시된 낙랑 고분의 조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촉탁이 되어 총독부박물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에 배운 실측과 측량 기술을 바탕으로 낙랑토성 주변에 산재한 낙랑 고분의 분포조사를 전담하였다. 조선 각지에서 발굴조사를 수행했는데 공주 송산리, 평양 오야리, 강동군 만달산록 등을 발굴했다. 특히 1927년 공주 자기 요지에 대한 조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했다. 저서로는 『高麗陶磁の研究』가 있다.

### 다나카 쥬조(田中十蔵, 불명)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와 소속 기수(技手)였다. 1910년 총독부 직속기관이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근무하였으며 측량과와 측지과를 거쳐 1922년 학무국 고적조사과로 소속이 바뀌었다. 1925년 고적조사와 폐지에 따라 학무국 종교과로 옮기게 됐고 1939년까지 학무국 사회교육과에서 촉탁 직을 수행했다.<sup>7)</sup> 주요 조사업무로는 평남 평양, 황해 봉산(1922), 평북 태천 산성지(1927), 중남부 산성지(1928), 중부 산성지(1929), 익산 학현산성, 왕궁리 오층석탑, 부여 정림사지(1930) 등이 있다.

###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3)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하여 1893년부터 도쿄제국대학 이과대학 인류학 교실에 고용되어 츠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 교수의 지도를 받았고 1905년 강사에 취임했다. 1910년 조선총독부의 촉탁을 받아 인류학·민속학·고고학 조사를 1916년까지 수행한다. 1916년 고적조사위원으로 임명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선사 이전의 유적·유물 조사를 담당했다. 수차례에 이루어진 그의 조사는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관점을 정립시켰고,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는 주요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1921년 『滿蒙の有史以

前』으로 문학박사를 받은 후 1922년 조교수로 승진하고 이학부 인류학 교실 주임이 되었지만, 1924년에 사직했다. 그 후 요대 遼代의 연구에 주력했고, 1939년부터 1951년까지 베이징 옌정 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1852~1919)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1910년 제3대 한국통감을 겸임하였으며 1910~1916년까지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으로 근무했다. 1916년 내각 총리대신에 임명되면서 한국을 떠났다.<sup>8</sup> 한국의 고적조사사업 계획을 세워 세키노, 도리이 등을 초빙하였고, 조사 결과물로 『朝鮮古蹟圖譜』를 발간, 정치적 선전물로 활용하였다. 그가 총독 시절 수집한 수많은 자료들이 현재 테라우치문고寺内文庫로 남아있다.

#### 사와 슌이치(澤俊一, 1891~1965)

1912년 조선총독부 관방 총무국의 촉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 종교과, 사회과, 사회교육과를 거쳤다.<sup>9</sup>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각종 유리건판 사진은 대부분 그가 촬영한 것인데 도리이, 세키노, 구로이타가 실시한 초기 고적조사는 물론 아리미쓰와 같은 고적조사 3세대 연구자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중요한 유적과 유물 사진 촬영을 전담하였다. 경상남북도 선사조사(1917), 성지 탐사(1919), 경주 금령총(1924), 서봉총(1926), 웅기 송평동(1930)조사에 참여했고 조선고적연구회 소속으로 경북 석탑(1933), 영주 부석사(1935), 부여 능산리고분군(1937)을 조사하였다.

#### 세키노 다다시(関野貞, 1868~1935)

1895년 도쿄제국대학 공학부 조가학과造家學科<sup>10</sup>를 졸업하고 나라현의 기사를 거쳐 1901년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 교수가 되었다. 1902년 『韓國建築調査報告』를 작성하였으며 1909년부터 꾸준히 한반도 각지에서 고건축뿐 아니라 일반 유적·유물까지 조사를 진행하여 『朝鮮古蹟圖譜』<sup>11</sup> 작성의 기반으로 삼았다. 1916년 고적조사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는 주로 한사군과 고구려유적의 발굴조사를 담당했으며, 그 기록이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에 실렸다.

대표적 저서로는 『韓國建築調査報告』, 『朝鮮藝術之研究』, 『朝鮮美術史』가 있다. 특히 낙랑군과 고구려 유적의 조사연구에 공

을 들여 『樂浪郡時代の遺蹟』, 『高句麗時代之遺蹟』 등의 저술도 남겼다.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 야기 쇼자부로(八木惣三郎, 1866~1942)

1900년부터 1901년까지 도쿄제국대학 이과대학 인류학교실 소속으로 최초로 한반도 고적조사를 진행한 고고학자이다. 이 왕직박물관과 중국 여순박물관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저서로는 『日本考古學』과 『考古學研究法』 등이 있다.<sup>12</sup> 학력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한문에 능통했으며, 도리이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학력은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3</sup>

####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 1880~1959)

1907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교토제국대학원에 입학, 일본 고대사를 전공하였다. 1909년 세키노의 한국 조사에 조수로 내정된 이마니시가 다른 조사를 수행 중이었던 관계로 야쓰이가 대신 참가하게 되었다. 이후 세키노가 사양으로 유학하기 전까지 실시한 거의 모든 조사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朝鮮古蹟圖譜』의 편집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21년 보고서 미간의 책임과 부친의 병간호를 이유로 일본으로 돌아갔다.<sup>14</sup>

1909년 탁지부 건축소 발행 『韓紅葉』에 그가 게재한 「上世に於ける日韓の關係」라는 글 속에 그의 한국관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朝鮮藝術の研究』에 「慶州の陵墓」, 낙랑군과 고구려 유적에 관한 「古蹟調査特別報告」의 제1책, 제4책, 제5책을 공저共著했다. 그가 제출한 각 지역의 유적 조사보고서가 1916년 『大正五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와 1917년의 『大正六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에 실려 있다. 그의 촬영기술은 『朝鮮古蹟圖譜』 작성에 공헌했다.

#### 오가와 게이이치(小川敬吉, 1882~1947)

1916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촉탁으로 총독부박물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고적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실시하는 발굴조사를 보조하는 역할이 부여되었다.<sup>15</sup> 1916년에는 세키노의 협력자 중 한 사람으로 주로 낙랑군과 고구려 고분군의 발굴조사에 참여했다. 1917년에는 야쓰이 위원을 중심으로 한 조사단에 참가했다. 그는 『朝鮮古蹟圖譜』 발간에 깊이 관여하여, 제8책부터 제14책까지의 자료 정리와 편집을 담당했다.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1878~1958)

1903년 도쿄미술학교 도안과圖案科를 졸업하고 1912년부터 조교수로 재임하던 중에 세키노 다다시의 권유로 종종 한반도에 건너와 고구려 고분 벽화를 주로 모사하였다. 1916년에 학교를 사임하고 조선총독부박물관 사무총탁이 되어 서울로 이주해 각종 고적조사사업에 참여하였다. 주로 낙랑 및 고구려 고분 발굴을 담당하였는데, 1924년 행정 정리로 해임된 후 다시 동경에 술대학 강사로 재직하였다. 1931년 조선고적연구회가 발족한 이후 연구원으로 위촉되어 낙랑 및 고구려 고분의 발굴에 참여하였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실물대 모사는 그의 특기였다. 저서로는 고적조사 특별보고인 『樂浪郡時代の遺蹟』, 『高句麗時代の遺蹟』이 있다.

오오하라 도시다케(大原利武, 불명)

1922년부터 1933년까지 고적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1922년 고적조사위원으로 위촉 되었으며, 1928년에는 중추원 촉탁이라는 직책을 받았다. 1921년부터 부여 능산리, 강서 우현리를 조사하였고, 황해도 봉산과 해주(1923), 김제 벽골제와 부여 청마산성, 평남 강서대묘(1925), 함경 웅기폐총(1926), 용강, 은율 고분(1928) 등을 조사했다. 특히 1925년에는 충남과 전북 동지에서 백제부흥운동기 왜의 구원군이 도착한 곳으로 전해지는 백촌강白村江의 소재지를 조사한 바 있다. 저서로는 『朝鮮史大系』, 『新義州案内: 滿鮮漢代五郡二水考』, 『概説滿洲史』 등이 있다.

우에키 호미키(植木秀幹, 1882~1976)

1904년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뒤 1907년 한국으로 건너와 농공상부 소속 농림학교 교사가 됐고, 수원농림학교의 교수를 거쳐 1925년 총독부 직속 입업시험장의 4등기사로 근무했다. 한국의 수목을 채집하여 3만여 점의 식물 표본을 만들었으며 광복 후 일본으로 돌아갔다.<sup>16</sup>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

1903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조선사를 전공했다. 1906년 경주 답사로 처음 조선에 왔다. 다음 해인 1907년 김해폐총을 최초로 발견한 사실은 유명하다. 1916년 조선사 편찬 촉탁 및 고적조사위원으로 임명되어 본격적으로 한반도 고적조사에 관여했다.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의 절반 이상,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의 3/4 이상이 이마니시의 결과물이다. 문헌사를 전공하였지만 한반도 고적조사에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

『朝鮮古代史の研究』가 있다. 1926년 5월에는 경성제국대학교 수로 임명되어 조선사 강좌를 담당했고, 교토제국대학 교수도 겸임했다.

쿠니에다 히로시(國枝博, 1879~1943)

도쿄제국대학 건축학과 졸업 후 1906년 내한했다. 1908년 한반도에서 공포된 건축소분과규정에 따라 공사와 건축계장 및 토목기사 임시세관공사부 부장 겸임으로 건축직 최고 책임자가 됐다. 1910년 회계국 영선과로 자리를 옮겼고, 조선총독부 주 설계자인 게오르그 데 라란데G.de Lalande가 사망하자 그가 남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조선총독부 청사 건설을 마무리했다. 1918년 조선총독부를 사직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sup>17</sup> 당시 결재권자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쿠니에다는 1913년 석굴암 공사 전체 책임관, 1915년 분황사의 보존공사 책임관을 맡은 기록이 남아있어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미륵사지 석탑 보존공사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 1899~2002)

세키노의 제자이자 일제강점기 고건축 연구의 중심에 서있었던 인물이다. 1923년 도쿄제국대학 공학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한반도로 와 경성고등공업학교(서울공대의 전신) 교수에 부임하면서 조선총독부 내무국 기사를 겸임하였다. 건축학과 스승인 세키노의 지도 아래 조선건축사를 본격적으로 배웠다. 1930년 『朝鮮建築史論』을 출간하였는데, 그중에서도 〈新羅王京復原圖〉는 현재까지도 그 정확성으로 이름이 높다. 1929년 도쿄제국대학 조교수에 임명돼 1960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한반도 고건축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오층탑을 중심으로 하는 시텐노지四天王寺 건축을 나라奈良식으로 복원·설계하여 1968년 일본예술원이 수여하는 은사상恩賜賞을 받았다.<sup>18</sup>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1892~1960)

1918년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문부성 유신사료편찬소 및 궁내성 제릉료講陵寮 근무를 거쳐 1922년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에 고적조사 사무 촉탁 및 고적조사위원으로 부임했다.<sup>19</sup> 1923년에는 조선총독부 감사관이 되어 학무국 조선총독부박물관 주임으로 근무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조교수로 임명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연구회 간사로서 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연도별 사업 계획부터 보고서 출판까지 담당하였다. 1945년까지 다수의 선사·역사시대 유적을 조사했다. 1922

년 고적조사보고 제1책 『慶尙南北道忠清南道古蹟調査報告』와 제2책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을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와 공저했다.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는 일본고고학협회위원장, 도쿄예술대학 교수,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 1) ① 국립중앙박물관·(사)한국박물관협회, 2009, 『한국 박물관 100년사 - 본문편』, 사회평론.
- ②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4, 『일제기 문화재 피해 자료』, 사회평론.
- ③ 정인성, 2011, 『일제강점기 고구려유적 조사·연구 재검토(1~4)』, 동북아역사재단 사료라이브러리.
- 2)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163쪽.
- 3) 이순자, 2009, 앞의 글, 366쪽.
- 4) 이승원, 2009, 『발굴조사에서 측량기술과 도면의 발달: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漢江考古』3, 21쪽.
- 5) 許長鼎, 2011, 『臺灣日治時期建築家栗山俊一之研究』, 國立臺北藝術大學 建築與古蹟保存研究所 석사학위논문.
- 6) 노모리野守 가문에 양자로 입양되어 성이 바뀌었다.
- 7)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총독부 직원록 자료.
- 8) 김문식, 2011, 「데라우치 문고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146쪽.
- 9) 최석영, 2015, 『일제의 조선朝鮮「식민지 고고학」과 식민지 이후』, 서강대학교출판부, 247~248쪽.
- 10) 지금의 도쿄대학 공과대학 건축학연구실에 해당한다.
- 11) 『朝鮮古蹟圖鑑』(전15책)는 고고학, 미술사, 건축사의 각 분야를 망라한 자료로 그가 1책(1915년)부터 15책(1935년)의 편집을 주도했다.
- 12) 日外アソシエーツ, 2004, 『20世紀日本人人名事典』.
- 13) 최석영, 2010, 「일제의 도쿄제국대학 인류학교실의 창립과 운영」, 『韓國史研究』151, 371쪽.
- 14) 정인성, 2015, 「일제강점기 나주 반남면고분군의 발굴과 야쓰이세이이쓰」, 『白山學報』103, 181쪽.
- 15) 후지시마 가이지로(이광노 역), 2011(증보판), 『韓의 건축문화, 나의 연구 60년』, 공시, 33쪽.
- 16) 박성래, 2011, 『인문과학사2』, 책과함께, 428쪽; 이경준, 2006, 『산에 미래를 심다, 현신규 박사이야기』, 서울대학교출판부, 32~33쪽.
- 17) 김태정·김순일, 1993, 「1905-1910年 來韓한 日本人 建築技術者 岩田五月滿, 國枝博, 渡邊節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9권8호, 107~108쪽.
- 18) 후지시마 가이지로(이광노 역), 2011, 앞의 글, 496~499쪽.
- 19) 김대환, 2016,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업에서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의 역할」, 『한국상고사학보』91, 121쪽.



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단행본

- 국립중앙박물관, 199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 원판 목록집I-V』.  
국립중앙박물관·(사)한국박물관협회, 2009, 『한국 박물관 100년사 - 본문편』, 사회평론.  
국외소재문화재재단(황수영 편), 2014,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 사회평론.  
박성래, 2011, 『인물과학사2』, 책과 함께.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6,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어제와 오늘』, 원광사.  
이경민, 2010, 『제국의 렌즈』, 산책자.  
이경준, 2006, 『산에 미래를 심다, 현신규 박사이야기』,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순우, 2004, 『테라우치 총독, 조선의 꽃이 되다』, 하늘재.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일연·리상호·강운구, 1999, 『사진으로 함께 읽는 삼국유사』, 까치.  
정인성, 2011, 『일제강점기 고구려유적 조사·연구 제검토(1~4)』, 동북아역사재단 사료라이브러리.  
최석영, 1997,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서경문화사.  
\_\_\_\_\_, 2015, 『일제의 조선朝鮮「식민지 고고학」과 식민지 이후』, 서강대학교출판부.  
今西龍(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역), 2008, 『신라사 연구』, 서경문화사.  
藤島玄治郎(이광노 역), 2011, 『韓의 건축문화, 나의 연구 60년』, 곰시(중보판).

보고서·도록

- 국가기록원, 1962, 「문화재(국보 58 익산왕궁리) 보수 계획 의뢰」, 관리번호: DA0122564.  
\_\_\_\_\_, 1966, 「익산 미륵사지 처리」, 관리번호: BA0119559.  
\_\_\_\_\_, 1974, 「미륵사지 석탑 기초조사 사업시행」, 관리번호: BA0120817.  
국립광주박물관, 1988, 『羅州潘南面古墳群』.  
국립김해박물관, 2016, 『石器時代-烏居龍藏 調査 流離乾板』.  
국립문화재연구소, 1992, 『사자암발굴조사보고서』.  
\_\_\_\_\_, 2011, 『미륵사지 석탑해체조사보고서IV』.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04, 『彌勒寺址石塔 解體調査報告書II』.  
\_\_\_\_\_, 2011, 『彌勒寺址石塔 解體調査報告書IV』.  
\_\_\_\_\_, 2012, 『彌勒寺址石塔 基壇部 發掘調査報告書』.  
\_\_\_\_\_, 2017, 『彌勒寺址石塔 解體調査報告書V』.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6, 『미륵사 유적 발굴조사보고서II』.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1992, 『익산 미륵사지 동탑지 기단 및 하부 조사보고서』.  
\_\_\_\_\_, 2015, 『왕궁리 발굴조사보고X』.  
국립전주박물관, 2015, 『일제강점기 자료조사보고I』.

- 국립중앙박물관·백제세계유산센터, 2016, 『세계유산 백제』.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04, 『기록으로 보는 미륵사 1400년』.  
\_\_\_\_\_, 2007, 『미륵사지 유구 정밀실측 및 보존관리 학술용역』.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2013, 『경북지역의 문화재 수난과 국외 반출사』.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12, 『유리원판에 비친 한국의 문화유산』.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74, 『익산 미륵사지 동탑지 및 서탑 조사보고서』.  
\_\_\_\_\_, 1979, 「백제고도 익산 지역 문화재 현황 조사보고서」, 『마한백제문화』3.  
\_\_\_\_\_, 2008, 『미륵산성 건물지 및 남문지 발굴조사보고서』.  
\_\_\_\_\_, 1975, 「익산 미륵사지 동탑지 및 서탑지조사보고서」, 『마한백제문화』창간호.  
\_\_\_\_\_, 1977, 「미륵사지 동탑지 2차발굴조사보고」, 『마한백제문화』2.  
정명호, 1977, 「익산 왕궁리 성지 발굴조사 약보고」, 『마한백제문화』2.  
한국전자제시험연구원, 2005, 『미륵사지 석탑 콘크리트 성분분석 및 강도조사 보고서』.  
홍사준, 1966, 「백제 미륵사지 발굴작업 약보」, 『미술사학연구』70.

논문

- 고유설, 1939, 「조선탐과의 연구 2」, 『진단학보』10.  
\_\_\_\_\_, 1941, 「조선탐과의 연구 3」, 『진단학보』14.  
김대환, 2016,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업에서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의 역할」, 『韓國上古史學報』91.  
\_\_\_\_\_, 2017, 「일제강점기 조선고적조사사업과 한국고고학사」, 『韓國上古史學報』97.  
김문식, 2011, 「테라우치 문고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55.  
김영민, 200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공필』.  
김영하, 2011, 「신라통일론의 제적과 함의」, 『한국사연구』153.  
김정배, 1976,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諸問題-益山の 青銅器文化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13.  
김태정·김순일, 1993, 「1905-1910年 來韓한 日本人 建築技術者 岩田五月滿, 國枝博, 渡邊節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9-8.  
김현용, 2015,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현황 및 방법」, 『석조문화재 수리와 보존관리』, 국제학술심포지엄자료집.  
\_\_\_\_\_, 2016, 「익산 미륵사지 복원정비 현황과 과제」, 『익산 미륵사지 유구 보존과 복원정비 방안』, 학술심포지엄자료집.  
심희찬, 2013,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이마니시 류가 구축한 조선의 歷史像」, 『한국사학사학보』28.  
오양열, 1995, 「한국의 문화행정체제 50년: 구조 및 기능의 변천과정과 그 과제」, 『문화정책논총』7.  
오영찬, 2011, 「朝鮮古蹟研究會의 설립과 운영-1931~1932년을 중심으로」, 『韓國文化』55.

이기성, 2016, 「일제강점기 '古都'의 고적조사」, 『역사와 담론』79.

이병호, 2017, 「일제강점기 익산 지역의 고적조사와 쌍릉 출토품」, 『百濟文化』56.

李成市, 1999, 『黑板勝美(구로이타 가쓰미)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韓國文化』23.

이승원, 2009, 「발굴조사에서 측량기술과 도면의 발달: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漢江考古』3.

전정수, 1997, 「굴절과 파행의 한국인류학 백년(1)」, 『韓國學報』86.

전재호, 1998,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 정책」, 『사회과학연구』7.

정영호, 1994, 「익산 미륵사지석탑과 왕궁리오층석탑의 고찰」, 『마한백제 문화와 미륵사지-대산 김삼룡 박사 고회 기념』.

정인성, 2015, 「일제강점기 羅州 潘南面 古墳群의 발굴과 아쓰이 세이이쓰」, 『白山學報』103.

정희섭, 1968, 「특집: 자조근로사업」, 『地方行政』17.

최석영, 2010, 「일제의 도료제국대학 인류학교실의 창립과 운영」, 『韓國史研究』151.

최우석, 2016, 「도리이 류조의 식민지 조선 조사와 일선동조론」, 『동북아역사논총』53.

최진룡, 1989, 「백제문화권 개발」, 『문화재』22.

홍석일 외, 2011, 「석탑의 불연속면 거칠기에 따른 구조거동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27-10.

황수영, 1962, 「익산 미륵사지의 백제 석등」, 『考古美術』3-12.

\_\_\_\_\_, 1966,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내 발견유물」, 『고고미술』7-1.

\_\_\_\_\_, 1966, 「익산 왕궁리 석탑 조사」, 『고고미술』7-6.

\_\_\_\_\_, 1973, 「백제 제석사지의 연구」, 『백제연구』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牧田諦亮, 1977, 「토론: 백제 익산천도에 대한 문헌자료」, 『마한백제문화』2,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有光教一(김성남 역), 1996, 「一九四五~四六년에 있었던 나의 경험담」, 『韓國考古學報』34.

## 일본

高正龍, 1996, 「八木装三郎의 韓國調査」, 『考古學史研究』6.

關野貞, 1911, 『朝鮮藝術之研究』續篇.

\_\_\_\_\_, 1912~13, 「朝鮮の石塔婆」, 『朝鮮の建築と藝術』.

今西龍, 1930, 『全羅北道西部地方旅行雜記』.

藤田亮策, 1931, 「朝鮮に於ける古蹟調査及び保存の沿革」, 『朝鮮』199.

\_\_\_\_\_, 1953, 「朝鮮古蹟調査」, 『古文化の保存と研究』.

有光教一, 1979, 「扶餘陵山里傳百濟王陵·益山雙陵」, 『檀原考古學研究所論集』4, 檀原考古學研究所.

日外アソシエーツ, 2004, 『20世紀日本人名事典』.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卷3.

\_\_\_\_\_, 1916, 『朝鮮古蹟圖譜解説』卷3.

\_\_\_\_\_, 1916, 『朝鮮古蹟圖譜』卷4.

\_\_\_\_\_, 1917, 『朝鮮古蹟圖譜』卷5.

\_\_\_\_\_, 1917, 『朝鮮古蹟圖譜解説』卷5.

\_\_\_\_\_, 1917,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_\_\_\_\_, 1917, 『古蹟及遺物燈錄臺帳』.

\_\_\_\_\_, 1920, 『大正六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_\_\_\_\_, 1920, 『朝鮮古蹟圖譜』卷7.

\_\_\_\_\_, 1924, 『古蹟及遺物燈錄臺帳抄錄參考書類』.

\_\_\_\_\_, 1935, 『朝鮮事情』.

\_\_\_\_\_, 1942, 『朝鮮實物古蹟調査資料』.

朝鮮總督府博物館, 1926, 『博物館報』1-1.

早乙女雅博, 2004, 「關野貞とフィールドカード」, 『東京大学総合研究博物館 標本資料報告』53.

藤島玄治郎, 1930, 『朝鮮建築史論』其三.

## 중문

許長鼎, 2011, 『臺灣日治時期建築家栗山俊一之研究』, 國立臺北藝術大學 建築與古蹟保存研究所.



# 일제강점기 사진으로 보는 익산의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of Iksan City, Korea:  
Documentation in Gelatin Dry Plates

## 기획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http://iksan.museum.go.kr>

(54574)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063-830-0900

## 제작

비에이디자인

(067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21 더샵서초 103-806

02-522-4680

ISBN 979-11-962606-0-6 93910

2017년 12월 15일 초판 발행

First Edition, December 15, 2017

©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17

이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및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17 National Museum of Korea · Mireuksaji National Museum

All rights reserved.

## 표지(앞)

미륵사지 전경

1910년 촬영

『조선고적도보』4권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조사단

## 표지(뒤)

미륵사지 석탑

1910년 촬영

건판538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조사단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Mireuksaji National Museum



9 791196 260606

ISBN 979-11-962606-0-6 93910

비매품